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연구보고 21-R15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저 자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연구진 연구책임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연구보조 지슬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1-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지슬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김미정 부장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
협력 연구 기관	한국침례신학 대학교	권지성 교수	—

보고서를 펴내며

인구감소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매년 교육통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학교부적응, 또는 학교폭력 피해와 친구관계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그만두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8~2022년까지의 총 5개년도로 계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그만둔 이후 경험, 그리고 지원 요구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질적 패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제 대부분 20대 중반이 된 기존 패널들과 10대 중·후반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2020년에 구성된 신규 패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동연구를 통해 기존 패널의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이 이행과정과 현재의 자립관련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이제 가정 외 가장 가까운 환경체계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이며, 따라서 지역사회 내 자원과 지원 현황은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부족 및 지원 격차에 초점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FGI,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조사와 관련 종사자 대상의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과거 및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이들의 지원 요구를 재조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 내용 및 결과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확대,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일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같이 추진하고 수행한 원내 연구진인 서고운 부연구위원과 지슬비 연구사업운영원, 외부 공동연구진인 덕성여자대학교의 김은정교수님, 또 해외사례를 집필해주신 강영배 교수님과 김지혜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관점과 조언으로,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신 학계와 현장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김 희 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과 진로 탐색의 과정, 관계에서의 변화, 자립의 과정, 지역사회의 지원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올해에는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년도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2.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관련 질적 종단연구, 지역격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해외 사례 분석 포함)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읍·면 / 중소도시 거주자 18명은 심층면접, 대도시 지역 19명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함.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2020년 구축된 신규 패널 23명과 올해 추가로 구축된 14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6명은 생활시간조사에도 참여함.
- 읍·면 / 소도시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
※ 2018년 : 기초 조사, 2019년 : 중소도시 지원체계 조사, 2020년 : 대도시 지원체계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제시

- 1차년도 연구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연도	질적패널조사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협동연구
2018	학교 밖 청소년 패널(기존) 구축 및 1차 조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원지원체계 기초조사(협동연구로 수행)	
2019	학교 밖 청소년 패널(기존) 2차 조사	중소도시 지원체계 연구(협동연구로 수행)	
2020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대도시 거주자 3차 조사	대도시 지원체계 연구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연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2021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중소도시/읍·면 지역 거주자 3차 조사	읍·면/소도시 지원체계 연구 (2019년에는 중간규모 도시였으며 소도시는 포함되지 않음)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신규 패널 2차 조사, 중소도시/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패널 구축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규모 분석, 질적 종단연구, 지역격차 및 불평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함.
(호주, 일본, 미국의 농어촌·원거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사례포함)
- 전문가 자문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 및 설문조사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면 자문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시·도 센터(특별시·광역시 제외)의 팀장급 현장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질적 연구
 - 기존 패널(20대 중반)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을 추적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거절이나 연락 두절 또는 군입대와

건강문제로 일부 조사에 참여하지 못함.

- 기존 패널 18명(대도시)은 3차 심층면접, 19명(중소도시 / 읍·면 지역)은 패널 관리조사에 참여함. 신규 패널은 23명이 2차 면접에 참여하였고, 읍·면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14명을 패널로 새로 추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음.

연도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내용

패널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 패널* (20대 중반)	1차 면접	2차 면접	대도시 거주자 3차 면접: 22명 관리조사: 20명(중소도시/읍·면)	중소/읍·면거주자 3차 면접: 18명 관리조사: 19명(대도시)
신규 패널** (10대 중·후반)			1차 면접: 33명	2차 면접: 23명 1차 면접: 추가패널 14명

* 기존 패널의 경우 당해 연구예산 및 연구일정, 연구대상 지역사회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0~2021년에 지역을 달리하여 심층면접과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음. 당해연도 심층면접대상자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음.

**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20년 1차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23명의 면접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2차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추가로 패널 구축을 실시하여 모집된 14명의 신규 패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1차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꿈드림 연계기관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FGI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양적 연구: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실무자 총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무부처 및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담당자와 연구내용에 대해 협의회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워크숍 개최: 본 연구의 여러 조사 결과들을 공유하고 연구의 방향성 및 통합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협동연구: 관련 분야 및 질적연구 전문가와 함께 기존 패널 대상으로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과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구내용	연구방법	상세 내용
선행연구 고찰	• 문헌연구, 웹조사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질적 종단연구 고찰, 지역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지원 고찰 (해외 농어촌·원거리지역 정책사례 포함)
기존 학교 밖 패널 조사*	• 기존 패널 추적 • 면접조사 수행*	- 2021년 조사자료(18명) 횡단 분석 및 협동연구의 질적종단자료 분석에 활용
	• 패널관리조사	- 패널관리 및 근황(19명) 조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 신규 패널 추적 • 추가 신규 패널 구축 • 면접조사 수행	⇒ - 질적자료 분석(37명 : 2020년에 구축되어 올해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23명과 올해 추가로 구축된 14명)
	• 생활시간 조사(6명)	- 생활시간(6명) 분석
읍·면/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	• 문헌연구 (행정통계 등)	⇒ - 읍·면 / 소도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지원 분석
	•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FGI	- 읍·면 / 소도시 지역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곰드림 5개 센터의 실무자 5명과 지역 내 연계기관 종사자 3명)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 읍·면 / 소도시 지역 63개 곰드림센터의 실무자 대상 조사 실시
정책제언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 • 전문가 자문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코로나19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직접 지원 방안, 가족 체계 지원 방안, 지역사회(읍·면 포함) 차원의 지원 방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도출
협동연구**	• 기존 패널의 질적종단 자료 심층 분석	- 2018~2021년 조사된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3개의 주제별 심층 종단분석

* 2020년 신규 패널 구축에 따라, 2020년 기존 패널 면접조사는 대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기존 패널 면접조사는 읍·면 /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수행됨.

** 협동연구내용은 별권의 보고서로 발간됨.

4.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고찰

- 2020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는 총 52,261명으로 2019년 보다 278명 감소하였으나, 전체 학령 인구수 감소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임. 지역규모에 따라 교급별 학업 중단 비율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2019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간접추정한 결과, 약 20.9만 명 정도로 추산됨.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됨.
- 지속적인 조사대상자 추적조사 및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에 있어 심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종단적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종단적 질적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자립의 길에 들어서는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지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지원서비스 격차가 발생함. 실제로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프라의 부족, 불편한 교통, 지원서비스의 격차 및 불편 등을 경험하고 있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지역격차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외사례
 - 호주: 외곽지역, 원거리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및 외곽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취업·직업 훈련, 경제적 수당 지급 등을 실시

하였음. 지역사회 지원의 우수사례로 이든지역의 컴퓨터 및 게임개발기술 교육·훈련을 검토함.

- 일본 : 읍·면지역의 청소년 지원체계 사례들로서, 시마네현 마스다시지역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웃리치 홍보, 학습지원,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지역은 다양한 직업체험 및 훈련, 니트 청소년에 대한 집중훈련 등을 제공함.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 지역은 빈곤가정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대일 방문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함.
- 미국 :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가정 및 청소년 지원국에서 ‘농어촌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 버몬트 주의 사례로서, 버몬트 주의 노스이스트 킹덤 지역의 NEK 청소년 서비스(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와 NEK 커뮤니티 액션(Northeast Kingdom Community Action)이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전환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예방 및 안정화 지원 서비스 등을 검토하였음.

2) 기존 패널조사 면접조사 결과

(1) 기존 패널 조사결과

- 2021년에 수집된 질적 패널 면접조사 결과는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단계 1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후의 미성년 시기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단계 2(유형분석)에서는 현재의 삶과 진로 모색 과정을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았음.
- 단계 1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이후의 미성년기의 삶을 ‘학업 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지속예의 촉구와 지원’, ‘청소년기 부모

와의 관계', '청소년기 유대 관계', '차별'의 상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지속하는 경우로 나뉘어졌으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학교 중단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음.
- 학교를 중단하고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상실하거나,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시선에 힘들어 한 사례도 있었음.
- 단계 2에서 모색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학업 재개 여부, 자립 기반 마련 여부,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미래 전망, 부모의 지원 여부, 심리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구분하였음.
- 유형 1은 학교를 그만둔 후 학업을 재개한 유형으로, 다양한 진로 모색을 통하여 삶의 기반을 확립하고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유형임.
- 유형 2는 학교를 그만둔 후 학업을 재개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을 구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직장의 안정성이 낮은 편임.
- 유형 3은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및 지지로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하여 사업 및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진로를 모색함.
- 유형 4는 자립 기반 마련이 아직 미흡하며, 청소년기에 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사례도 있었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함.

(2) 협동 연구 : 질적 중단자료의 심층분석 결과

-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중단연구
- 2020년 기준 만 25세 이상인 고등학교를 그만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분석함.
-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 밖 생활 경험에 대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학교 밖에서의 도전’과 관련해서 청소년기에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는 경우가 있었으며, 성인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

-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거친 길을 헤매며 걷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관련해서 청소년기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성인기에는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도 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코딩과 범주화를 진행하여 분석하였음.
-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으로는 가족의 해체(부모의 이혼, 사망), 가족의 폭력 및 방임, 학교 폭력, 빈곤 등이 있었으며, 중복적으로 경험한 사례도 있었음.
- 이러한 부정적 생애경험에도 불구하고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은 관계적 지지 체계는 미래를 다시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중단연구

- 2018 ~ 2020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9명의 패널과 2018 ~ 2019년, 2021년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맥락 - 패턴 분석방법으로 분석함.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하는 단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길을 다져나가는 단계’를 거쳐 자립의 길을 걸어 갔음.
- 가족, 관계망, 사회적 지원체계, 일반 사회라는 맥락이 자립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편함’과 ‘부족함’을 지역사회의 부정적 특성으로 인식하였음.

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1) 신규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020년 구축되어 올해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23명과 올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 14명의 신규 패널 면접결과(총 37명)를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 진로발달 과정을 분석한 결과 진학형(대학 진학, 대학입시 준비, 고등학교 복학 혹은 입학 준비), 취업형, 검정고시 준비형 등으로 구분되었음.
- 분석결과,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학교 교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 관계에서의 문제, 학업 중단,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 따돌림 및 친구들의 놀림 등이 생애사건으로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성격을 바꾸어 놓는 또는 자신을 수용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음.
- 꿈드림 지원에 대해서는 꿈드림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에 도움을 주었으며,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경제적 지원(교통비)에서는 지역격차를 보이기도 하였음.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원, 자신에 대한 탐색과 전문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대학진학 지원 보완 및 실질적인 진학 준비 지원, 자립 및 취업관련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요구가 파악되었음.
- 읍·면 /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 서비스 및 진로체험면에서 부족함을 느꼈으며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로하였으며, 인식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차별 경험도 하였음.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검정고시 및 자격증 준비, 인턴십 및 직업체험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였음.

(2) 신규 패널 생활시간 분석

- 면접조사에 참여한 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웹다이어리 방식의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되었음.
-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능 공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등을 하며 일과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여가 시간에는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운동 등을 통한 건강 관리 필요성이 나타남.

4)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1)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꿈드림센터 소재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5개의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환경적 특색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었으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꿈드림이 모든 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그 외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은 부족하였음.

(2)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농촌, 어촌, 산촌을 대표하는 전국의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전라남도 OO군, 강원도 OO군, 충청남도 OO군, 경기도 OO시, 경상남도 OO군) 꿈드림의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개인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코딩 및 범주화 작업을 거쳐 분석하였음.

-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학령기 청소년 인구수 규모에 따라 작은 편이었으며,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지역도 있었음. 대부분 고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중단함에 따라 특별한 목적이 없는 상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은둔하거나 부모의 방임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소년, 타 지역에서 방황 후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청소년 등 꿈드림센터 이용 청소년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 꿈드림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었으며 후원금이 예산에 편성되는 지역은 없었음. 꿈드림 전용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꿈드림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된 지역이 있었고, 조직체계가 없는 곳도 있었음.
- 교육청 연계,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학교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꿈드림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근황 확인,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준비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적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우며, 예산 사용 범위가 경직되어 있다는 애로사항이 보고되었음. 또한, 종사자 처우 개선이 강하게 요구됨.
- 불편한 교통, 부족한 일자리 / 아르바이트 자리, 자격증 취득 관련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 부족, 청소년 공간의 부족 등 지역 인프라 부족 현상이 보고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 부족과 무관심이 지적되었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및 꿈드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면접조사에 참여한 꿈드림센터와 연계된 지역 내 기관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FGI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상제도, 장학금 제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 기술 및 인성 관련 사전교육 실시의 필요성, 연계 기관 대상 보상책 마련 등의 요구가 파악됨.

(3)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위치한 꿈드림센터 총 85개 중 63개 센터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 이용 경로로 학교·교육청을 통한 이용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그 뒤를 이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꿈드림에서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 및 교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중독 치료, 전문 상담기관 연계와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 서비스는 약 절반 정도의 꿈드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에 참여한 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이 어려우며, 자립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수가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가 지지적이지 않고, 청소년을 방임하거나 가족갈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꿈드림센터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며,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음. 특히, 약 86%의 실무자가 종사자 처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약 88%의 실무자가 지역 내 담당 공무원이 협조적 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약 71%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고 인식하는 실무자도 75%에 달했음. 또한 약 97%의 실무자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 참여자의 약 94%가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산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차별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의 집중,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자립 및 취업 활동에의 집중, 지역의 인프라 구축(교통, 전용공간 등) 등을 강조하였음.

- 청소년들이 꿈드림 이용을 중단하는 주요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사 혹은 타 지역 꿈드림센터로의 이동'이었으며, 시·도 센터로부터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을 필요로 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방역 수칙으로 오프라인 활동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조사됨.
- 꿈드림 개선을 위한 향후 방향성으로, 예산·공간의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평가 시스템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적극적 홍보 등이 제안됨.

5. 정책제언

선행연구 고찰,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의 질적 자료 분석(생활시간조사 포함),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 종단자료 심층 분석,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행정 / 통계자료 조사, 꿈드림 현장종사자 및 관계자 면접 조사, 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총 7개의 방향성과 18개의 정책 과제, 33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차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지원 방향으로 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방식의 다변화 접근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인 → 가족 → 지역사회 →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② 학교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꿈드림 접근성 개선, ③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족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⑤ 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⑥ 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⑦ 청소년 개인, 부모, 학교, 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제안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위하여,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온라인 환경 제반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2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1-1.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연계
1-2.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온라인 환경제반을 위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꿈드림 사업 홍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와의 연계, 경제적 지원, 대학 진학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의 5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2-1.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 지역 사회 홍보	학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 지역사회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학원 등) 대상 홍보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대상 범위 확대	꿈드림 사업안내 범위에 학부모 포함 법제화 교육 및 행정체계 적극 안내 및 꿈드림 업무 협조 의무화
2-3. 사회적 배제 없는 경제적 지원	청소년 1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필요(생계급여 분리지급) 차등 없는 경제적 지원(교통비 등 현금성 지원)
2-4. 청소년생활기록부 및 장학금 등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청소년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및 대학 진학 지원 확대 동기부여와 실질적 지원 위한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2-5. 전문적인 치료 개입 및 심리정서적 지원 다각화	전문 상담(트라우마) 치료 지원
	학교 밖 경험자와의 멘토링 지원

- 가족체계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3-1.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서비스와의 연계

- 지역사회(읍·면지역 포함)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및 확산,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4-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	
4-2. 다양한 직군의 직업 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연계기관 대상 보상 지급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 사전 정보 전달 및 교육 실시
4-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	
4-4.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이동성 보장	읍·면지역 인턴십 기회 확대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4-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합사업 확대 제공	

- 중앙부처, 지자체, 사회전반의 지원과 관련하여, 꿈드림에 대한 접근성 향상, 꿈드림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증진, 꿈드림 실무자 업무유연성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대한 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5-1. 꿈드림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흥미로운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위치 조정 혹은 분소 설치
5-2.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진로지원 위한 전문인력 배치
5-3.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성과평가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
5-4.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사업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대상 인식개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5-5.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법제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8
3. 연구내용	11
1)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11
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조사 및 결과 분석	11
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및 결과 분석	11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읍·면 / 소도시 지역 내 지원체계 조사	12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읍·면 / 소도시) 개선관련 정책 제언	13
6)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	13
4. 연구방법	14
1) 문헌연구	14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14
3) 질적연구	15

4) 양적연구	19
5) 협동연구	19
6) 기타 연구방법	20
7) 2021년 연구 수행 체계	2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3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5
1) 학업중단 현황 통계	25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연구 고찰	32
3) 요약 및 시사점	40
2. 질적 중단 선행연구 고찰	42
1) 질적 중단연구 개관	42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중단연구 고찰	46
3) 요약 및 시사점	49
3. 지역 격차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논의	51
1)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격차, 불평등	51
2) 지역사회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차이	54
3) 지역격차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외사례	60

III. 기존 패널(20대 중반) 질적연구 95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DB관리	97
1) 기존 패널 조사 및 현황	97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자료 DB관리	100
2. 면접조사내용 및 기존 패널 관리조사	102
1) 면접조사내용	102
2) 기존 패널 관리조사	104
3. 기존 패널 분석 결과	108
1)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요	108
2) 분석 결과	112
4. 요약 및 시사점	157
1) 기존 패널 현황 및 DB관리	157
2)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157

Ⅳ.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

질적연구	165
1. 신규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167
1) 신규 패널 구축 배경 및 현황	167
2) 신규 패널 사전 접촉 결과 및 패널 추가 구축 ..	169
2. 면접조사 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172
1) 면접조사 내용	172
2) 질적 자료수집 방법	176
3) 자료분석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179
4) 연구참여자의 특성	182
3. 질적연구 분석결과	185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사례	185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사건	196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및 지원 요구	203
4)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인식	221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33
6)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어려움	240
7) 생활시간 분석결과	246
4. 요약 및 시사점	252
1) 신규 패널 조사 및 추가 패널 구축	252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253

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읍·면 / 소도시)

지원체계 조사	259
1. 조사개요	261
1) 조사방법 개요	261
2) 면접조사 조사대상 지역 및 센터 선정	264
3)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264
4) 현장종사자 대상 질적·양적 조사	265
2. 읍·면 / 소도시 지역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267

1) 전라남도 완도군	267
2) 강원도 영월군	274
3) 충청남도 서천군	279
4) 경기도 포천시	286
5) 경상남도 의령군	292
3.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299
1) 조사개요	299
2) 조사결과	302
4.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332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332
2) 조사결과	334
5. 요약 및 시사점	356
1) 분석결과 요약	356
2) 시사점	361

V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36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369
1) 연구요약	36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37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381
1) 온 / 오프라인 : 이전과 다른 방식의 서비스 제공 ..	38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과제	387
3) 가족 체계 지원	401
4) 지역사회(읍·면지역 포함) 차원의 지원	404
5)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전반의 지원 노력	414

참고문헌 427

부 록 449

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지

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읍·면지역 / 소도시) 종사자 면접조사지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읍·면지역 / 소도시) 종사자 조사지

표 목차

표 II-1.	2019~2020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특별시·광역시 / 기타 지역('20.2월말 기준)	26
표 II-2.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 ('20.2월말 기준)	27
표 II-3.	학교급별 전체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비율: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29
표 II-4.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수: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 ('20.2월말 기준)	30
표 II-5.	고등학교 유형별 전체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비율: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31
표 II-6.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2월말 기준)	31
표 II-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32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규모①(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 / 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33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규모②(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 / 장래인구추계 사용)	33
표 II-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4~2017)	35
표 II-1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의 예	36
표 II-12.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한 읍·면지역의 학령인구 (만7~18세)	38
표 II-13.	국가교육통계의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학생 수	38
표 II-14.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39
표 II-15.	질적 종단연구 / 질적 패널조사 개관	43
표 II-16.	NYP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 개관	47
표 II-17.	지역규모별 특성, 지원 요구와 제한점	56
표 II-18.	호주 24세 청소년 집단별 전일제 취업 및 훈련, 학업 비율(2019년 기준)	61

표 II-19. 중등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 취득 19세 청소년의 집단별 차이(2016년 기준)	62
표 II-20. 학교 밖 청소년 및 농촌 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	64
표 II-21. 학생 및 견습제도 참여 청소년 수당 지급 내용	68
표 II-22. 니트 청소년 집중 훈련 프로그램 일정표	80
표 II-23. 미국 SSRHY 시범사업 참여 주정부별 프로그램 추진 개요	87
표 II-24. 미국 NEKYS의 청소년 지원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 및 내용	90
표 III-1. 기존 패널(2018~2021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98
표 III-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접촉 결과 및 현황	99
표 III-3. 기존 패널 면접조사 내용	103
표 III-4. 2020~2021년 기존 패널 관리조사 결과 일반적 현황	106
표 III-5. 기존 패널의 현거주지로의 이사 여부와 사유	107
표 III-6. 현재 주로 하는 일과 최근 고민사항	107
표 III-7. 면접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110
표 III-8. 면접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111
표 III-9. 학업 중단 이후의 삶	113
표 III-10. 유형 도출 기준과 유형별 구분	126
표 III-11. 연구참여자 유형구분과 각 유형별 특징	127
표 III-12. 인터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유형별 특징 일람 및 비교표	155
표 I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완료자 현황	168
표 IV-2. 2020년 면접에 참여했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결과	169
표 IV-3. 2021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패널 구축 현황	171
표 IV-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최종 현황	171
표 IV-5.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내용	173
표 IV-6. 생활시간별 활동내용 작성 예시표	175
표 IV-7. 2021년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	183
표 IV-8. 현재 진로상황 유형별 2020~2021년 조사참여 학교 밖 청소년 사례 구분	186
표 IV-9. 현재 진로상황 유형별 2020~2021년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화	187

표 IV-10. 학교 밖 청소년들이 회고하는 생애 사건	202
표 IV-11.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지원 경험	207
표 IV-1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219
표 IV-1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	230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자원과 지역에 대한 인식	233
표 IV-15.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과 차별 경험	239
표 IV-16.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어려움	245
표 IV-17. 평일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248
표 IV-18. 주말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250
표 V-1. 인구수별 꿈드림센터 개소 수	262
표 V-2.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개요 ..	263
표 V-3.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및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개요	266
표 V-4. 전라남도 완도군: 2021년 재정자립도	269
표 V-5. 전라남도 완도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270
표 V-6. 전라남도 완도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	271
표 V-7. 전라남도 완도군: 꿈드림 지원 내용	272
표 V-8. 전라남도 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273
표 V-9. 전라남도 완도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273
표 V-10. 강원도 영월군: 2021년 재정자립도	275
표 V-11. 강원도 영월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	276
표 V-12. 강원도 영월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	277
표 V-13. 강원도 영월군: 꿈드림 지원 내용	278
표 V-14. 강원도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하리' 활동	279
표 V-15. 강원도 영월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279
표 V-16. 충청남도 서천군 2021년 재정자립도	281
표 V-17. 충청남도 서천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282
표 V-18. 충청남도 서천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	282
표 V-19. 충청남도 서천군: 꿈드림 지원 내용	284
표 V-20.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285
표 V-21.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285
표 V-22. 경기도 포천시: 2021년 재정자립도	287
표 V-23. 경기도 포천시: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	289

표 V-24. 경기도 포천시: 초·중·고·학업중단자 수	289
표 V-25. 경기도 포천시: 꿈드림 지원 내용	291
표 V-26. 경기도 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활동	291
표 V-27. 경기도 포천시: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292
표 V-28. 경상남도 의령군: 2021년 재정자립도	294
표 V-29. 경상남도 의령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295
표 V-30. 경상남도 의령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	295
표 V-31. 경상남도 의령군: 꿈드림 지원 내용	297
표 V-32. 경상남도 의령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298
표 V-33.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	299
표 V-34.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 주요 내용	301
표 V-35.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관련 조사결과	303
표 V-36. 꿈드림 기관 관련 조사결과	310
표 V-37. 지역사회 및 코로나19관련 분석결과	323
표 V-38.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조사 결과	327
표 V-39.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332
표 V-40.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33
표 V-41.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순위)	335
표 V-42.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2+3순위) ..	335
표 V-43.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336
표 V-44.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	337
표 V-45. 지역 유형별: 꿈드림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통계적 유의도 검증	337
표 V-46. 꿈드림 제공 서비스	338
표 V-47.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340
표 V-48. 지역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340
표 V-49.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관련	342
표 V-50. 지역 유형별: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343
표 V-51. 읍·면 / 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344
표 V-52. 지역 유형별: 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344

표 V-53. 읍·면 / 소도시 지역: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345
표 V-54. 지역 유형별: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346
표 V-55. 읍·면 / 소도시 지역: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	346
표 V-56. 지역 유형별: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347
표 V-57. 읍·면 / 소도시지역 꿈드림의 차별화된 또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원	348
표 V-58. 대도시 대비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장점 / 강점 유무 ..	349
표 V-59.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	349
표 V-60. 꿈드림 이용 중단 이유	350
표 V-61. 시·도 센터의 지원 필요 내용	351
표 V-6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3순위)	352
표 V-63.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353
표 V-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355
표 V-65. 조사내용 요약과 시사점	365
표 VI-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선행연구 고찰	371
표 VI-2.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 패널(20대 중반) 질적연구	371
표 VI-3.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 질적연구	373
표 VI-4.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읍·면 / 소도시) 지원체계 조사	374
표 V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381
표 V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390
표 VI-7. 청소년 1인 대상 생계급여 재고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조항	394
표 VI-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내용	397
표 V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403
표 VI-1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404
표 V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조항 신설)	425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9
그림 Ⅰ-2.	협동연구 추진체계	10
그림 Ⅰ-3.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조사 실시 과정	17
그림 Ⅰ-4.	2021년 연구의 수행 체계	21
그림 Ⅱ-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연도별 추이	26
그림 Ⅱ-2.	상세 지역규모별 학교유형별 학업중단자 비중	28
그림 Ⅱ-3.	지역규모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비중	29
그림 Ⅱ-4.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간접추정방법 : 부분집합 방식)	34
그림 Ⅱ-5.	호주 15~24세 청소년의 거주 지역 규모별 인구 비율	60
그림 Ⅱ-6.	호주 이든 지역의 위치 및 인구 현황	69
그림 Ⅱ-7.	일본 시마네현 마스다시 지역 위치	75
그림 Ⅱ-8.	일본 마스다시 고등학교 연락 협의회	76
그림 Ⅱ-9.	일본 마스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77
그림 Ⅱ-10.	일본 마스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플랫폼 구상도	77
그림 Ⅱ-11.	일본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위치	78
그림 Ⅱ-12.	일본 청소년서포스텍 류큐 사업체계도	79
그림 Ⅲ-1.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구축·정리 체계	101
그림 Ⅲ-2.	2021년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절차	105
그림 Ⅲ-3.	기존 패널 유형별 정책제언	160
그림 Ⅳ-1.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면접 시 작성된 필드노트 예시	178
그림 Ⅳ-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자료 분석 개요	180
그림 Ⅳ-3.	대학 진학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188
그림 Ⅳ-4.	취업 성공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190
그림 Ⅳ-5.	검정고시 준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192
그림 Ⅳ-6.	2020~2021년 학교 교사와의 갈등 사건과 그 영향	197
그림 Ⅳ-7.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2021년 지원 수요	208
그림 Ⅳ-8.	2020~2021년 지속적인 상담지원 희망 사례	211

그림 IV-9.	2020~2021년 지속적인 진로준비와 함께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사례	217
그림 IV-10.	2020~2021년 면접조사결과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26번)의 경험과 꿈드림 지원	223
그림 IV-11.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애로사항	242
그림 V-1.	행정·통계자료 수집 내용 및 정보 출처	265
그림 V-2.	전라남도 완도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68
그림 V-3.	전라남도 완도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271
그림 V-4.	강원도 영월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74
그림 V-5.	강원도 영월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277
그림 V-6.	충청남도 서천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80
그림 V-7.	충청남도 서천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283
그림 V-8.	경기도 포천시: 지도 및 인구 현황	286
그림 V-9.	경기도 포천시: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290
그림 V-10.	경상남도 의령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93
그림 V-11.	경상남도 의령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296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375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체계	399
그림 VI-3.	연합사업 /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도내, 군지역 거점지원센터	41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 초 기준(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말)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52,261명으로 전체 학생 수 5,452,805명의 약 1%를 차지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8,366명, 중학생 10,001명, 고등학생 23,894명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각 학교급별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은 각각 0.7%, 0.8%, 1.7%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다른 교급에 비해 2배 이상이었으며, 전체적인 학업중단 학생 규모는 2019년 2월말 기준의 통계와 유사한 수준(52,539명)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그러나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한 규모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부적응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등). 그리고 학교를

1) 제1장 서론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떠난 이후 청소년들은 과거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를 그만둘 당시 부모님이 극심히 반대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로를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김상현, 양정호, 2013; 김희진 외, 2020; 명소연, 조진옥, 2016;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환경적 특성의 차이는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인기 이행 과정을 겪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학교를 떠난 몇 년 후의 모습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상태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 및 가정환경의 차이에 더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욱 확대된 체계인 지역사회의 특성과 차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그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규모 및 특성의 차이와 이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이에 대해 주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일하게 본 연구의 1차년도²⁾ 협동연구(조아미, 임정아, 2018)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파악, 비교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역규모 및 특성 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관련해서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친구 / 교사와의 갈등에 따른 학교 부적응, 우울 / 불안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의 어려움 / 갈등 등의 이유 외에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 등이 보고되었다(조아미, 임정아, 2018).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학교를 그만둔 사유에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조아미, 임정아, 2018).

2) 본 연구는 2018~2022년까지 5개년도 연속과제로서 올해는 4차년도 연구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교통시설 부족에 따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및 관련 지원 시설의 부족과 같은 인프라 결핍, 그리고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의 한계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졌다(조아미, 임정아,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지원 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 청소년관련 기관의 시설을 공유하는 바, 읍·면지역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시설이 규모가 더 작았고, 물리적 여건과 인적 현황 등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였다.³⁾ 이는 농어촌을 포함한 읍·면지역에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하며 학교자본과 청소년활동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3). 결국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사회적 기회를 포함한 자원과 권력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분포되지 않음에 따른 불균형의 차이로도 인식할 수 있다(조명래, 2011).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미흡(일자리 부족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은 읍·면지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결국 도시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거주지를 이동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도시 거주지 유지 비율이 86.4%, 중소도시가 77.2%였으나, 읍·면지역은 69.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윤철경 외, 2017).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 뿐 아니라, 거주지역의 인프라와 필요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계속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지속적인 불평등과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3) 2020년에 수행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김희진, 백해정, 2020)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도시지역에서 공동리센터가 주로 공유하는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회관이라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시·군·구 센터 역시 2~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수행된 5개년도 연구 중 2018년의 1차년도 연구(조아미, 임정아, 2018)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2019년의 2차년도 연구(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에서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으며⁴⁾, 3차년도 연구(김희진 외, 2020)가 수행된 2020년에는 대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였다. 이에 4차년도 연구인 올해에는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읍·면지역에서의 생활경험과 진로준비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제도권 교육 이탈에 따른 문제와 읍·면 등 소외지역 거주에 따른 애로사항까지 더해진 누적된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읍·면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와 더불어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4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대상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018년의 1차년도 질적 연구에서는 2013년에 구축된 기존의 양적 패널 학교 밖 청소년 중 60명을 질적 패널로 구축하여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간관계, 일과 진로준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차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윤철경 외, 2018). 2019년도에는 그 중 면접에 참여한 48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변화내용과 자아 및 가족, 또래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주제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장근영 외, 2019), 2020년도에는 그 중 대도시 거주자 22명은 면접조사에, 그리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조사를 위한 연구기간 및 자원, 조사비, 연구역량 안배로 기존 패널 중 대도시 거주 22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그 외 지역의 20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더불어, 상술한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4) 2019년의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조아미 외, 2019)는 인구수 30만명~90만명 규모의 중간급 이상 도시지역들을 중심으로 수행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소도시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정책 효과성 파악에 기여하고자, 만 15~20세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변화내용과 현재의 생활경험, 진로준비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 소도시 지역 거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14명을 추가 패널로 구축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4차년도 연구목적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떠나 이제 20대 중반으로 성인기로 접어든 기존 패널들과 후기 청소년기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특히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DB화하고, 축적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자료는 질적연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⁵⁾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년이 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이들이 성인으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자립(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 경험과 진로준비 실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지원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여, 지역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결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소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협동연구보고서는 다양한 주제별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하며 별권으로 구성된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연구 중 4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에서는 2011년 이후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 질적 패널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2019년의 2차년도에서는 질적 패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조사 실시와 중소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을 도출하였다. 2020년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대도시 거주)에 대한 면접조사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을 구축하여 1차 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질적 패널(중소도시·읍·면지역)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고, 일부 질적 종단자료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주제별 심층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여 이들의 지원요구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2018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 구축 및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변화 등 면접 조사 실시, 지역사회 지원 모델 도출위한 기초 조사
	연구내용	• 학교 밖 질적 조사 패널 구축(60명) :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행경로(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성별 고려 • 면접질문지 개발(주제 : 생활세계, 학교중단 후 학교 밖 경험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해외출장
▼		▼
2차년도 (2019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대상으로 자신 및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면접 조사 실시, 중소도시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질적 조사
	연구내용	• 학교 밖 질적 조사 패널 조사(2차 조사 48명 참여)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 (주제 : 자아·가족·또래·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질적 조사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		
3차년도 (2020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및 신규 패널 구축·조사 실시,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질적 조사(3차 조사 : 22명 면접조사, 20명 패널 관리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및 조사(10대 중·후반 청소년 33명)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 진로정체감, 지역사회 활동 및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대도시 현장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협동연구 수행 : 학교 밖 여성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		
4차년도 (2021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기존 질적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 면접조사 실시, 읍·면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기존 패널 18명 면접조사 / 19명 패널관리 조사, 신규 패널 37명 면접조사)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 진로·직업발달, 자립, 생애사건, 지역사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읍·면/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읍·면지역 현장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협동연구 수행 : 기존 패널 질적 종단자료 주제별 심층분석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FGI 등
▼		
5차년도 (2022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실시,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기존 및 신규 패널 대상 면접조사)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 자립, 결혼 등 가족 구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 포함 통합적 지원 방안 도출 •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종단자료 심층분석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등

그림 1 -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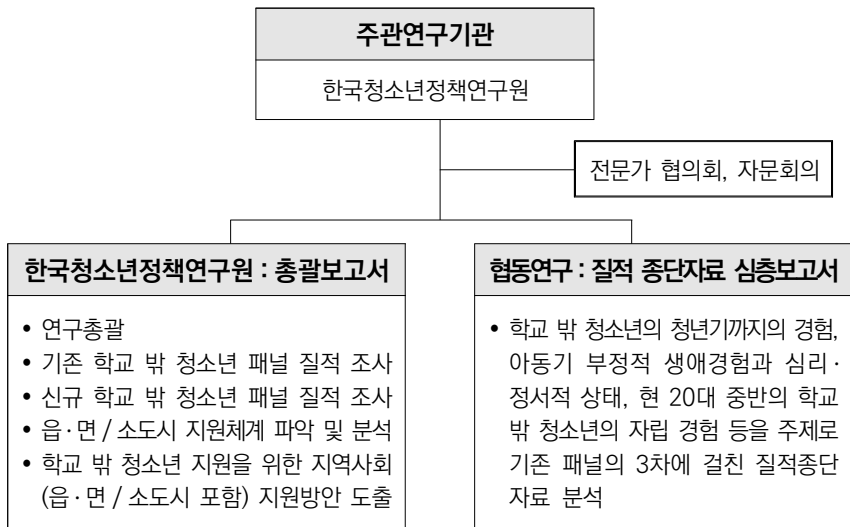


그림 1-2. 협동연구 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규모, 관련 행정통계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그동안 수행된 질적중단연구, 질적패널조사들을 검토하고, 지역 격차와 불평등, 특히 지원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호주, 미국, 일본의 농어촌 원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조사 및 결과 분석

2020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42명(심층면접조사 22명, 패널관리조사 20명)*을 추적하여 이중 면접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전년도 패널관리조사 참여자 18명(중소 도시·읍·면)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에 면접에 참여한 대도시 거주 22명 중 추적이 가능했던 19명이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제 청년이 된 기존 패널들의 현재와 미래 계획,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삶의 궤적을 탐색,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20년 당시 제한된 연구일정 및 자원 등을 이유로 대도시 지역의 패널들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조사를, 다른 지역 거주자 대상으로는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및 결과 분석

2020년에 신규 패널로 구축되어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33명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추적한 결과, 이중 23명이 면접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4명은 조사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이후 변심하여 면접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3명은 조사거절,

또 다른 3명은 연락두절 상태였다. 이에 전체적인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패널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의 진로관련 발달상황, 생애사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과 지원 요구, 코로나19 경험 등에 초점을 두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은 기존 패널 면접조사와 함께 기관 IRB승인을 받았다(IRB과제 관리 번호 : NYPI-202108-HR-고유-037-12). 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진로발달관련 특이 사례는 개별적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고, 올해 새로 추가된 학교 밖 청소년 중 6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하였다. 모든 조사결과는 통합, 정리하여 정책제언 도출에 활용하였다.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읍·면 / 소도시 지역 내 지원체계 조사*

2019년도 중소도시, 2020년도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에 이어 2021년에는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지원에서의 애로점, 지역사회 내 관련 인프라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총 읍·면지역 네 곳과 소도시 한 곳을 선정하여 가용 범위내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지역사회 내 관련 지원체계(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및 FGI를 수행하였다.

* 2019년의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는 인구 수십만 규모의 중간급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파악한 것으로 소도시는 실제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실행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인구 수 및 규모가 작은 소도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지원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연구에 읍·면지역과 소도시 지역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연구의 초점을 읍·면지역에 두기 위하여 현장전문가 면접조사의 경우 총 5개 연구 지역 중, 4개 지역을 읍·면지역, 1개 지역을 소도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읍·면 / 소도시) 개선관련 정책 제언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소외지역 청소년 지원 관련 해외사례 검토, 기존 패널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결과,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지원 내용과 종사자 및 관계자 대상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 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온 / 오프라인 방식의 지원과 더불어 특히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의 지원체계 개선 방안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6)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DB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질적 자료 특성상 양적데이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면접 자료가 개인(성별, 연령, 지역규모 등) 및 가족환경 관련 정보, 민감한 상황이나 사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관계자 입장에서 누구의 내용인지(즉, 특정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 등) 확인가능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료원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서 관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⁶⁾ 이에 시범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자와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종단자료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협동연구보고서 발간). 차년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6) 질적자료 공개 사례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인터뷰 및 FGI 조사결과 전자자료에서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10년이 훨씬 지난 성인 대상 조사 자료여서, 본 연구처럼 최근에 질적자료를 수집한 청소년 대상 조사자료의 경우 차원이 다른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NYPI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질적종단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질적 종단연구·패널조사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격차, 지원서비스 수혜, 접근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호주, 미국, 일본의 농어촌과 같은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사례를 살펴보았다.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와 관련 사업 현황 분석을 위해 행정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연구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연구 및 조사내용, 연구 및 분석 방법 자문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와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회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일정
1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전문가 자문 회의	○ 학계 전문가	4/27
2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조사지와 꿈드림 현장 실문자대상 면접 및 설문조사 내용 검토 및 자문	○ 현장, 학계 전문가	5/7~17
3차	소외지역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정책연구 전문가	5/21
4차	읍·면 / 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 자문	○ 현장전문가	6/2
5차	질적자료 심층분석 방법 및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	○ 학계 전문가	6/17
6차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및 정책방향성 자문	○ 현장, 학계, 정책 전문가	6/29
7차	학교 밖 청소년 조사결과 질적분석방법 및 지원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현장, 학계 전문가	9/24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일정
8차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결과 분석방법 자문	○ 학계 전문가	10/18~ 20
	정책과제 도출(안)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학계 전문가	

3) 질적연구

2018년 1차 조사 때부터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중 중소도시 / 읍·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학교 밖 패널을 구축하여 전년도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2차 면접을, 올해 추가된 패널에 대해서는 1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패널은 면접조사에 18명, 패널관리 모바일조사에 19명이 참여하였고, 신규 패널은 최종적으로 37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연도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패널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 패널 (20대 중반)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 22명(대도시) 관리조사 : 20명(중소도시/읍·면)	3차 면접 : 18명(중소도시/읍·면) 관리조사 : 19명(대도시 거주)
신규 패널 (10대 중·후반)			1차 면접 : 33명	2차 면접 : 23명 1차 면접 : 추가패널 14명

조사수행을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조사참여동의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모두 온라인 화상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기존 패널 면접조사 및 패널관리조사

전년도에 면접 및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했던 기존 패널 42명을 추적하여 이들의 근황과 올해 조사 참여 의사를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중소

도시 / 읍·면지역 거주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전년도에 면접조사에 참여한 19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요소	기존 질적 패널 조사
면담참여자 특성	현재 중소도시 / 읍·면 거주 18명 패널 (2020년도에는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함)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온라인 화상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60분 내외 / 1회
면담자료 기록 / 녹취 여부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조사에 훈련된 청소년복지관련 석·박사
면접내용	진로관련 준비 및 자립 계획, 지원 요구 등 (IRB과제 관리 번호 : NYPI-202108-HR-고유-037-12)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 조사, 생활시간 조사

전년도에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면접에 참여한 33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23명이었으며(조사거절, 연락두절 제외), 지역을 안배하여 중소도시 /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학교를 그만둔 14명의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신규 패널에 추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37명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이 올해 면접에 참여하였다.

주요 요소	신규 질적 패널 면접조사
면담참여자 특성	전년도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23명, 중소도시 / 읍·면지역에서 새로 추가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14명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온라인 화상면담 실시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6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 / 녹취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조사에 훈련된 청소년복지관련 석·박사
면접내용	학교를 떠난 이후 진로발달 상황, 생애사건,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경험 및 지원 요구, 코로나19관련 내용 등 (IRB과제 관리 번호 : NYPI-202108-HR-고유-037-12)

○ 기존 및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면접조사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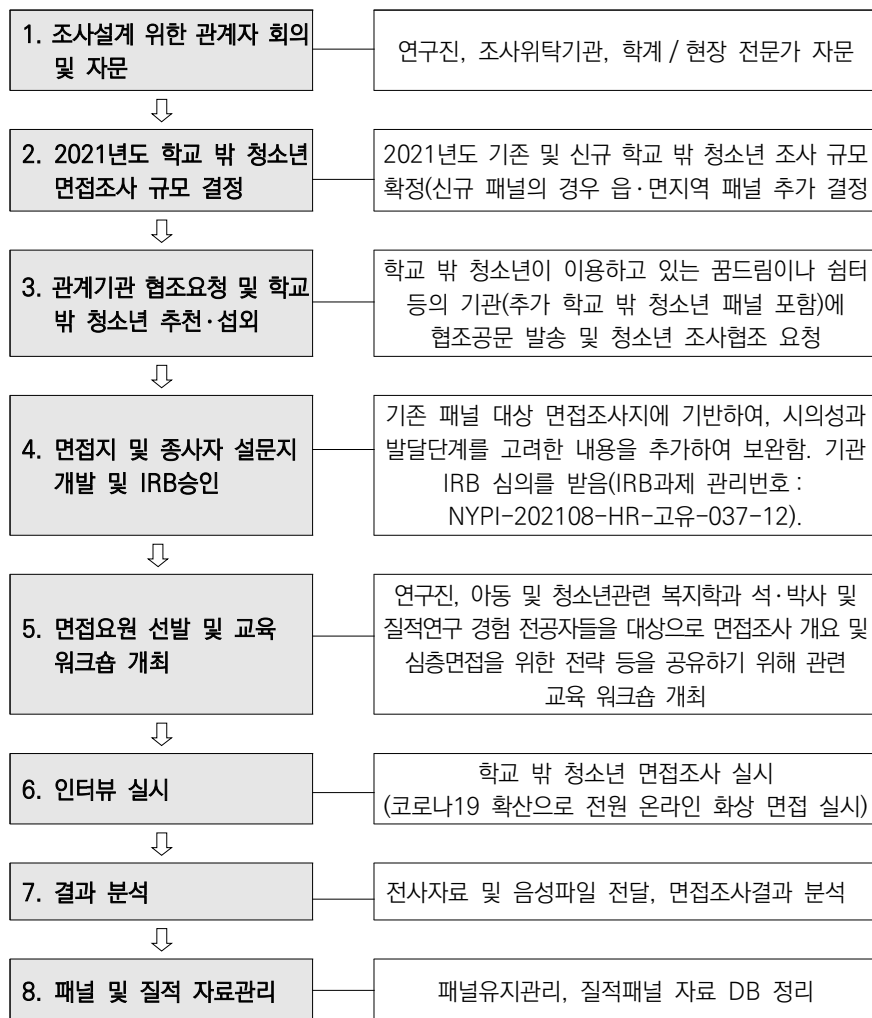


그림 1-3.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조사 실시 과정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생활시간조사

또한 올해 새로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중 6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진로계획에 따른 주요 활동시간, 장소와 동반인, 수면 및 여가시간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2020년도와 동일하게 시간대별로 청소년들이 각자의 일상을 기입하는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및 연계기관 관계자 면접조사, FGI

읍·면 및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서비스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총 5곳의 군지역 및 소도시 꿈드림센터의 팀장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계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연계 프로그램 담당자 FGI, 면접조사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군지역 및 소도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추천 및 섭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추천
면담참여자 수	5명	2명은 FGI, 1명은 면접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팀장급 종사자	사업담당자
면담방식	온라인 화상면접	온라인 화상방식의 FGI / 면접
면담 시간 및 횟수	90분 내외	6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내용	지원 성공사례, 중앙부처·지자체·지역사회와의 관계, 프로그램 개선 등 (IRB과제 관리 번호 : NYPI-202108-HR-고유-037-12)	

4) 양적연구

○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전국 읍·면 / 인구 20만 미만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수
표집틀	• 전국 시·도,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표본수	• 읍·면 / 소도시(인구 20만 미만)지역 센터 전수(85개)
표집방법	• 모든 센터 전수조사(1개 센터 당 1명 종사자 대상 조사)
조사시기	• 2021년 6~8월
조사내용	기관현황, 시설 / 공간에 대한 인식, 지원 내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쟁점(발굴 경로, 청소년 특성, 서비스 접근성, 예산, 종사자 처우, 정부의 관심 및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읍·면 / 소도시 센터로서의 장·단점, 코로나19관련 애로사항 등
비고	2020년에 수행된 대도시 센터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 조사지를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관련 문항만 수정함(설문조사지 역시 IRB승인 받음).

5) 협동연구

2021년에는 협동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위탁이 아닌 NYPI연구진의 기획을 통해 축적된 기존 패널의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관련 분야 및 질적연구 전문가를 섭외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의 협동연구를 기획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질적자료라는 특성상, 본 질적자료는 개인정보(성별, 연령, 지역규모 포함) 및 민감 정보(가족환경, 생애사건 등)가 상당함에 따라, 익명화 및 블라인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다년간 축적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에 올해에는 3명의 관련 분야 및 질적연구전문가를 위촉하여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 도출을 시도하였다. 올해 심층분석보고서의 주제는 아래와 같이 차별화하였으며 각자 다른 관점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6)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차수	주요내용	부처(과)	개최시기
1	연구내용, 종사자 대상 조사내용 검토	여성가족부	6월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검토 및 정책 방향성 논의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월

○ 포럼 개최

- 도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체계에 대한 랜선 토크포럼 개최 (9/9)
- 도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년간 종사한 현장전문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 자원 등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7) 2021년 연구 수행 체계



그림 1-4. 2021년 연구의 수행 체계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규모
- 2. 질적 중단 선행연구 고찰
- 3. 지역 격차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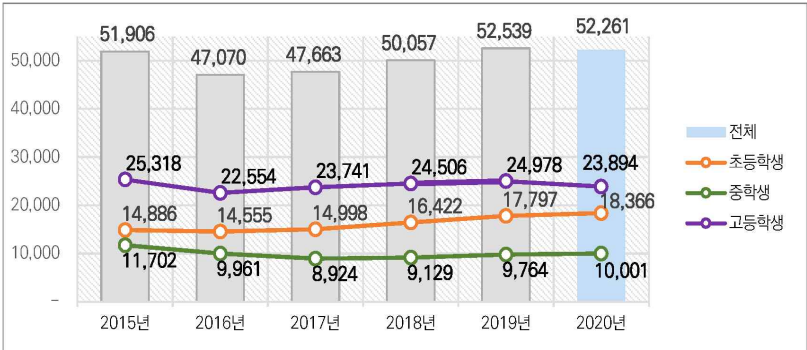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규모

1) 학업중단 현황 통계

2020년 2월 기준 교육부에서 파악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52,261명으로 그 중 초등학생이 18,366명, 중학생이 10,001명, 고등학생이 23,894명이었으며,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년대비 278명이 감소하였다(그림 II-1). 이러한 수치는 학령 인구수 감소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또한, 2020년도 2월 기준 전년대비 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를 보면(표 II-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 내외의 미미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그만큼의 비율로 고등학교는 다소 감소하였다(고등학교 : 47.5% → 45.7%).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비율을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표 II-1), 전국의 특별시·광역시 기준으로 1%였으나, 그 외 지역은 0.9%로 대도시의 학업중단 학생 수가 더 높았고,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결과였다. 2020년 기준 특별시·광역시에서 당해 학업중단 학생 중 초등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1%였으나, 그 외 지역은 32.8%로 특별시·광역시의 초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더 높았다(표 II-1).

7) 제2장의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2절 전체와 3절의 1), 2) 전체, 3)의 호주사례는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일본사례는 강영배 교수, 미국사례는 김지혜 박사가 집필하였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2월 15일 인출. 2015년~2019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2021년 2월 15일 인출.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연도별 추이

표 II-1. 2019~2020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특별시·광역시 / 기타 지역('20.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학교유형)	전체		특별시·광역시		그 외 지역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전체 학생 수	5,584,249 (100.0)	5,452,805 (100.0)	2,311,362 (100.0)	2,233,561 (100.0)	3,272,887 (100.0)	3,219,244 (100.0)
학업중단 학생 수 / 학생 수 비율	52,539 (0.9)	52,261 (1.0)	23,155 (1.0)	22,838 (1.0)	29,384 (0.9)	29,423 (0.9)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52,539 (100.0)	52,261 (100.0)	23,155 (100.0)	22,838 (100.0)	29,384 (100.0)	29,423 (100.0)
초등학교	17,797 (33.9)	18,366 (35.2)	8,139 (35.1)	8,711 (38.1)	9,658 (32.9)	9,655 (32.8)
중학교	9,764 (18.6)	10,001 (19.1)	4,459 (19.3)	4,386 (19.2)	5,305 (18.0)	5,615 (19.1)
고등학교	24,978 (47.5)	23,894 (45.7)	10,557 (45.6)	9,741 (42.7)	14,421 (49.1)	14,153 (48.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2월 15일 인출. 2019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2021년 2월 15일 인출.

그러나 당해 연도 학업중단자 중에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비율은 특별시·광역시외의 경우 42.7%였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48.1%로 대도시 외 지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5.4%p 높았다(표 II-1). 전년대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지역규모를 보다 상세하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로 구분하여 교급에 따른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II-2, 그림 II-2). 대도시의 경우 당해 연도 학업중단 학생 중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3%였으나, 읍·면지역은 27.8%로 대도시에서 초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II-2). 대도시의 경우 당해 연도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였으나, 읍·면지역에서는 55.5%로 나타나(표 II-2), 읍·면지역에서는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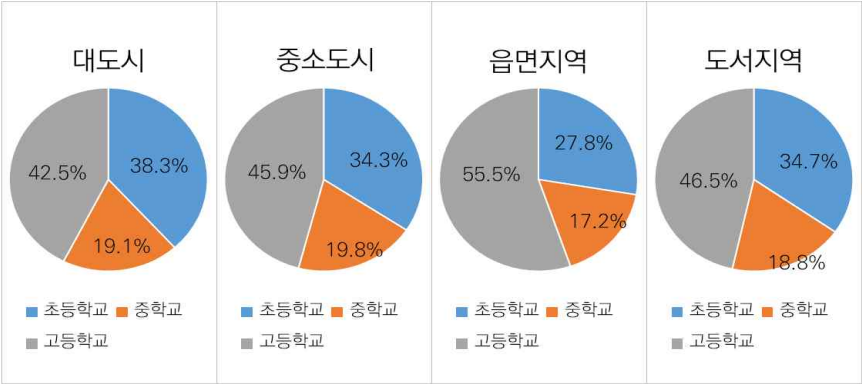
표 II-2.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학교유형)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전체		52,261 (100.0)	22,321 (100.0)	22,641 (100.0)	7,054 (100.0)	245 (100.0)
초등학교	전체	18,366 (35.1)	8,560 (38.3)	7,762 (34.3)	1,959 (27.8)	85 (34.7)
	남	9,506	4,471	3,963	1,027	45
	여	8,860	4,089	3,799	932	40
중학교	전체	10,001 (19.1)	4,264 (19.1)	4,479 (19.8)	1,212 (17.2)	46 (18.8)
	남	4,826	2,124	2,091	583	28
	여	5,175	2,140	2,388	629	18
고등학교	전체	23,894 (45.7)	9,497 (42.5)	10,400 (45.9)	3,883 (55.5)	114 (46.5)
	남	11,867	4,728	5,042	2,027	70
	여	12,027	4,769	5,358	1,856	44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7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지역별로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표 II-2), 초등학생은 모든 지역에서 남학생의 학업중단 수가 조금 더 많았고, 중학생은 도서벽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학생의 학업중단 수가 다소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여학생의 학업중단 수가 조금 더 많았고,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서는 남학생의 학업중단 수가 조금 더 많았다(표 II-2).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7의 정보를 활용하여 차트 작성함.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그림 II-2. 상세 지역규모별 학교유형별 학업중단자 비중('20.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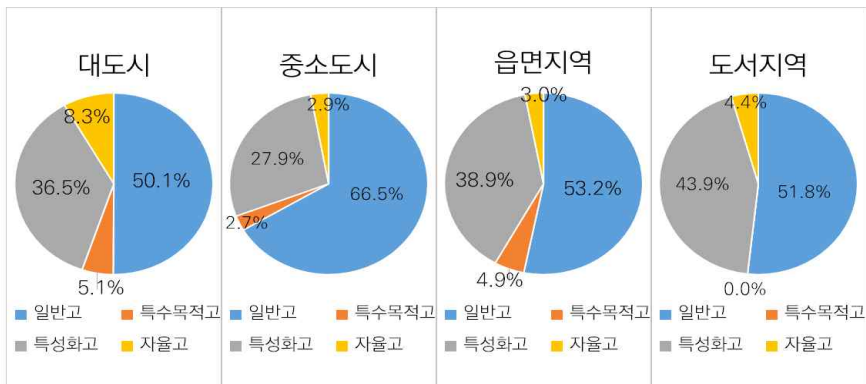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의 비율을 지역별, 교급별로 살펴보면(표 II-3),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격차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더 컸는데, 대도시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0.8%, 고등학교에서는 1.6%로 나타났으나, 읍·면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0.4%, 고등학교는 1.9%였다(표 II-3). 이러한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다.

표 II-3. 학교급별 전체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비율: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단위: %)

구분(학교유형)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초등학교	전체	0.7	0.8	0.6	0.4	0.4
	남	0.7	0.8	0.6	0.4	0.5
	여	0.7	0.8	0.6	0.4	0.4
중학교	전체	0.8	0.8	0.8	0.6	0.6
	남	0.7	0.8	0.7	0.6	0.7
	여	0.8	0.9	0.9	0.7	0.5
고등학교	전체	1.7	1.6	1.7	1.9	1.4
	남	1.6	1.6	1.6	1.9	1.6
	여	1.8	1.7	1.8	1.9	1.2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7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9의 정보를 활용하여 차트 작성함.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그림 II-3. 지역규모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비중('20.2월말 기준)

지역규모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림 II-3, 표 II-4), 읍·면지역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일반고(53.2%)와 특성화고(38.9%)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자율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비율(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도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고에서의 학업중단 비율이 꽤 높았다(66.5%). 도서·벽지의 경우 특성화에서 학업을 중단한 비율(43.9%)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표 II-4).

표 II-4.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자 수: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고등학교유형)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전체		23,894 (100.0)	9,497 (100.0)	10,400 (100.0)	3,883 (100.0)	114 (100.0)
일반고	전체	13,791 (57.5)	4,755 (50.1)	6,911 (66.5)	2,066 (53.2)	59 (51.8)
	남	6,449	2,186	3,222	1,004	37
	여	7,342	2,569	3,689	1,062	22
특수목적고	전체	961 (4.0)	489 (5.1)	280 (2.7)	192 (4.9)	0 (0.0)
	남	391	209	96	86	0
	여	570	280	184	106	0
특성화고	전체	7,927 (33.2)	3,464 (36.5)	2,903 (27.9)	1,510 (38.9)	50 (43.9)
	남	4,304	1,850	1,535	891	28
	여	3,623	1,614	1,368	619	22
자율고	전체	1,215 (5.1)	789 (8.3)	306 (2.9)	115 (3.0)	5 (4.4)
	남	723	483	189	46	5
	여	492	306	117	69	0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9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의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표 II-5),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읍·면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보였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1.7%)과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4.1%)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5. 고등학교 유형별 전체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비율: 상세 지역규모별 구분(202월말 기준)

(단위 : %)

구분(고등학교유형)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일반고	전체	1.4	1.3	1.4	1.4	1.1
	남	1.3	1.2	1.3	1.4	1.5
	여	1.5	1.4	1.6	1.5	0.8
특수목적고	전체	1.5	1.5	1.4	1.7	-
	남	1.2	1.3	1	1.4	-
	여	1.7	1.7	1.7	2	-
특성화고	전체	3.4	3.4	3.3	4.1	2.5
	남	3.3	3.4	3	3.8	2.1
	여	3.6	3.4	3.6	4.6	3.3
자율고	전체	1.1	1.1	1	0.9	1
	남	1	1.1	0.9	0.7	1
	여	1.2	1.2	1.3	1.1	-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69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표 II-6),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미인정유학·해외출국의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28.0%)과 기타(51.3%)의 사유가 많았고, 해외출국의 비율은(12.9%)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I-6.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2월말 기준)

구분	합계	질병	미인정유학·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교	18,366명 (100%)	146명 (0.8%)	14,370명(78.2%)		9명 (0.1%)		3,841명 (20.9%)	
중학교	10,001명 (100%)	351명 (3.5%)	5,160명 (51.6%)		26명 (0.3%)		4,464명 (44.6%)	
구분	합계	자퇴					퇴학	제적·유예 ·면제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		
고등학교	23,894명 (100%)	1,054명 (4.4%)	3,077명 (12.9%)	147명 (0.6%)	6,694명 (28.0%)	12,252명 (51.3%)	545명 (2.3%)	125명 (0.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2월 5일 인출

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연구 고찰

①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각 연구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그 추산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II-7). 실제로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2019)은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특정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일관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 방법(예: 청소년의 정의, 학교 밖의 정의), 여러 추정의 방법(예: 직접 추정, 간접 추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하형석 외, 2019).

표 II-7.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연구	추산방법	추산규모
윤철경 외(2013)	- 전체 학령인구 중 실제 학생 수와 외부 유입인구 수 및 기타 학제 학생 수를 제외	28만명
오병돈, 김기현 (2013)	- 인구추계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연령 인구에서 학생 수를 제외 - 가구표집을 활용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를 추정	36만명
백해정, 송미경 (2015)	- 만9~24세 청소년 수에서 초·중·고 재학생 수와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추정치)를 제외한 수	27만명
윤철경 외(2018)	- 주민등록상 학령 인구수에서 학생인구와 순 학업 중단자수와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를 수를 제외한 수에서 순 출국자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 제외	31만명
하형석(2020)	- 간접추정방법(교육기본통계 등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 규모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에 부분집합방식(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추정	24만명

* 출처: 백해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p.18의 표에 윤철경 외(2013)연구의 pp.29-30의 내용과 윤철경 외(2018)연구의 pp.268-270, 하형석(2020) 연구의 내용을 추가하여 표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주: 모든 사람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나 학생 수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함.

하형석(2020)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였는데, 그 중 간접추정방법으로 추산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표 II-8, 표 II-9에 제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사용한 간접 추정 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4.4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며(표 II-8),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간접 추정한 경우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0.9만 명으로 보고되었다(표 II-9).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규모① (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 / 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단위: 명)

구분	청소년인구(6-17세)		학생 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주민등록 인구현황 (전년12/31)	외국인 순입국 (전년12월)	교육기본통계 (4/1 기준 학생수, 연령: 전년12/31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B-C)	내국인 순출국 (전년 12월)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	B	C	D	E	D-E
2019	5,760,986	51,061	5,407,971	404,076	159,885	244,191
2018	5,911,831	46,401	5,542,543	415,789	163,793	251,996
2017	6,055,963	41,870	5,691,694	406,139	161,522	244,617
2016	6,221,904	35,790	5,849,197	408,497	161,803	246,694
2015	6,445,006	30,699	6,061,868	413,837	161,337	25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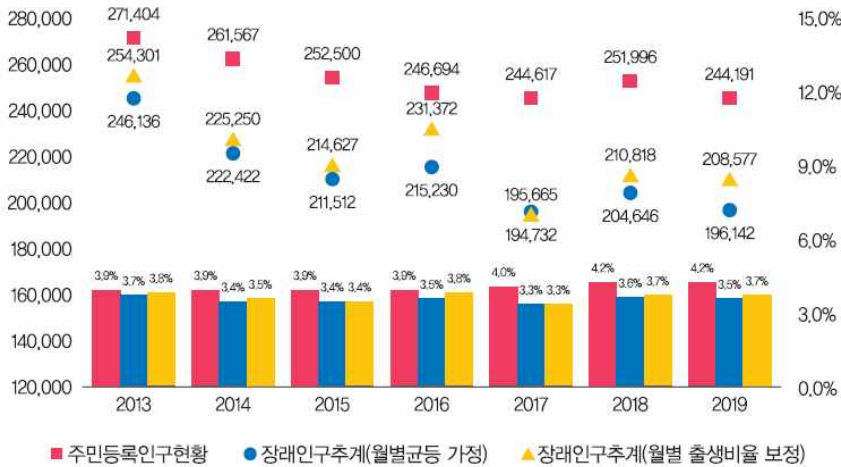
출처: 하형석(2020).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p.11에서 2015년 이후 추정치 발췌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규모②(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 / 장래인구추계 사용)
(단위: 명)

구분	청소년인구(6-17세)		학생 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장래인구추계 (전년12/31 추정: 월별균등 가정)	장래인구추계 (전년12월 31일 추정: 월별 출생비율 반영)	교육기본통계 (4/1 기준 학생수, 연령: 전년12/31 기준)	A1-B	A2-B
	A1	A2	B		
2019	5,604,113	5,616,548	5,407,971	196,142	208,577
2018	5,747,189	5,753,361	5,542,543	204,646	210,818
2017	5,887,359	5,886,426	5,691,694	195,665	194,732
2016	6,064,427	6,080,569	5,849,197	215,230	231,372
2015	6,273,380	6,276,495	6,061,868	211,512	214,627

출처: 하형석(2020).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p.11에서 2015년 이후 추정치 발췌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추산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 대비 2019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추산한 학교밖 청소년의 비율은 2013년에 비해 2019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3.9% → 4.2%, 그림 II-4).



출처: 하형석(2020).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p.12에서 발췌

그림 II-4.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간접추정방법 : 부분집합 방식, 단위 : 명/%)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단일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더불어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규모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그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혹시 그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설들(예: 미인가대안교육시설)도 있기 때문이다(전민경, 노지은, 이근영,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이 규모를 추정한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 2019년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그리고 김성은(2019)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였다. 과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윤철경 외 2015, 2016, 2017, 2018)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간접추정방법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학령기 인구(만7~만18세)에서 학생 수를 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학령 인구 자녀, 학업 중단자, 복귀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윤철경 외(2019)의 연구에서 추산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87,341명이다(표 II-10).

표 II-1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4~2017)

구분		인구 수				비고
		2014.12.31 기준	2015.12.31 기준	2016.12.31 기준	2017.12.31 기준	
학령 인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A)	1,144,956	1,094,934	1,041,368	1,001,610	- 각년도 12.31. 기준 만 7~18세 인구 (거주자)
	외국인 자녀 중 학령인구 (B)	9,930	11,523	14,026	14,729	- 각년도 12.31. 기준 만 7~18세 인구 (추정) - 등록외국인수는 통계자료연령구간이 5세 간격이어서, 7~9세 인구는 5~ 9세 인구의 3/5를, 15~18세 인구는 15~19세 인구의 4/5를 곱한 수입
학생 수	교육통계상 학생인구 (C)	1,062,428	1,019,671	972,002	935,027	- 각년도 4.1. 기준 서울시 재학생 수 - 초중고 및 방계학제(특수학교, 공민 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포함
	순 학업중단자 수(D)	4,918	4,802	5,049	6,029	- 해당연도 3.1. ~ 해당연도 익년도 2.28. 동안 발생한 순 학업중단자 수(학업중단자 수 - 복귀자 수) - 초중고 및 방계학제 포함
학교 밖 청소년 수(E)		97,376	91,588	88,441	87,341	- E=A+B-C+D

* 출처: 윤철경 외(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33~34에서 발췌

2019년에 전민경 외(2019)의 연구에서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였다. 전민경 외(2019)의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산하였는데, 2018년 기준 약 11만명에서 13만명 정도가 추산되었다(표 II-11). 주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학령인구에서 재적학생 수를 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학령인구와 재적학생 수를 조사한 조사시점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기간 동안의 순학업중단자 수를 추정하여 그 수를 제하였다(전민경 외, 2019). 표 II-11에서 보듯이 추가시도 ①에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의 학령인구 조사 기준점과 재적학생수 조사 기준점을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 계산하였다. 추가시도 ②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학령인구에서 학교급 별 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를 제한 후, 두 통계의 조사 시점 차이만큼 추정된 순학업중단자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표 II-11). 마지막 추가시도 ③은, 윤철경 외(2015)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산하였다.

표 II-1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예

구분	추정방법	기준 년도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주요방법	2018년 12월 주민등록인구수, 2018년 4월 학년별 재적학생 수, 2018년 4월 이후 9개월간의 순학업중단자 추정치의 차이	2018년 12월	131,128
추가시도 ①	2019년 3월 31일 주민등록인구수, 2019년 4월 1일 재적 학생 수	2019년 3월	131,252
추가시도 ②	2018년 12월 주민등록인구수, 2018년 4월 학교급별 학생 수, 2018년 4월 이후 9개월간의 순학업중단자 추정치의 차이	2018년 12월	110,577
추가시도 ③	2018년 12월 주민등록인구수, 2018년 12월 등록외국인 수, 2018년 4월 대학교 학생 수, 2018년 12월 초중고 및 동일과정 학생 수 추정치, 외국인학교 학생 수, 2018년 4월 유학청소년 수	2018년 12월	132,976

* 출처: 전민경 외(201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 p50에서 발췌

②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현재까지 읍·면지역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없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는 일에 단일한 정답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대도시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져도,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의 학업중단 현황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비율이 낮을지언정 적지 않은 수의 읍·면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시스템 안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 중 학령인구 수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의 학교급 별 학생 수로 파악된 재학생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전민경 외(2019)가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 중, 추가시도 ①과 추가시도 ②를 차용(표 II-11)한 것으로,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의 하루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만 7세보다 어리거나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이만큼의 수만큼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과소추정 될 수 있다.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추정하는 데에 전민경 외(2019)의 추가시도 ③과 윤철경 외(2019)가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읍·면지역의 등록 외국인 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한 학령인구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학령인구 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하였다(만 7세~만 18세). 전민경 외(2019)에서는 주민등록 기준 학령인구에서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을 제외하여 총 학령인구를 산출하였는데, 읍·면지역의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고 있지 않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으로 확인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읍·면지역의 만 7~18세의 학령인구는 총 944,498명이었다(표 II-12).

표 II-12. 주민등록통계를 이용한 읍·면지역의 학령인구(만7~18세)

지 역	전체	남자	여자
읍·면지역	944,498	491,470	453,028

* 출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년 3월 11일 인출하여 읍·면 지역만을 선정하여 산출

나. 국가교육통계를 이용한 재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4월 1일 기준 학교급별 학생 수는 국가교육통계를 활용하였다(표 II-13). 교육통계는 도서·벽지 지역을 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동, 읍, 면, 리 지역을 포함한다.⁸⁾ 본 연구에서 읍·면 지역의 재학생 수를 추정할 때에는, 해당 통계에서 읍·면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표 II-13. 국가교육통계의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학생 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국	2,693,716	1,384,340	1,309,376	1,315,846	680,425	635,421	1,337,312	698,080	639,232
대도시	1,031,753	530,346	501,407	516,736	268,021	248,715	545,535	283,507	262,028
중소 도시	1,189,891	610,481	579,410	586,346	300,723	285,623	587,454	306,676	280,778
읍·면 지역	453,985	234,018	219,967	204,582	107,462	97,120	196,861	103,793	93,068
도서 벽지	18,087	9,495	8,592	8,182	4,219	3,963	7,462	4,104	3,358

* 출처: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40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5월 6일 인출

다. 주민등록통계와 국가교육통계의 지역적 차이: 도서·벽지 지역

주민등록통계의 학령인구를 산출할 때에는 도서·벽지 지역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민등록통계 상, ‘리’ 단위까지의 지역을 산출할 수 없다. 하지만[국가교육통계의 도서·벽지 지역의 모든 ‘리’ 지역은 읍·면 지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교육통계의 도서·벽지 지역의 ‘리’ 지역은 주민등록통계의 읍·면지역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서·벽지지역으로 구분되는 ‘동’ 지역을 주민등록통계에서는 산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의 풍도동은 도서·벽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나, 주민등록통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의 대부동에 풍도동이 포함된 통계치가 보여진다.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의 학령인구를 따로 산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통계의 학령인구에서 국가교육통계의 재학생 수를 제하는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산출한다면, 두 번째와 같은 이유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벽지 지역으로 선정된 ‘동’ 지역의 학령인구가 적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그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주민등록통계에서 산출된 만 7~18세의 인구에서 국가교육통계에서 산출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한 결과,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총 55,339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게 추정되었다(표 II-14).

표 II-14.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학령인구 ¹⁾	재학생 수 ²⁾	추정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전체	944,498 (A)	889,159 (B)	55,339 (A-B)
남자	491,470 (A)	463,091 (B)	28,379 (A-B)
여자	453,028 (A)	426,068 (B)	26,960 (A-B)

* 출처: 1)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년 3월 11일 인출하여 읍·면 지역만을 선정하여 산출(만 7~18세의 인구)
2) 이기준 외(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40.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하여 발췌(읍·면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3)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학업 중단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해봄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될 정책적 제안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학업중단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52,261명으로 2019년 대비 278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체 학령 인구수 감소를 고려하면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같은 통계에서 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는 지역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연구의 초점이 되는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낮았으나(대도시: 38.3%, 읍·면지역: 27.8%),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높았다(대도시: 42.5%, 읍·면지역: 55.5%). 또한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대부분 미인정유학·해외출국이었으나,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의 높은 비율이 부적응인 것을 고려하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대도시에 비하여 더 많은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부적응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 방법 및 추정의 방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방식은 다양하며, 따라서 하나의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한 하형석(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간접 추정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20.9만 명 정도이다.

이처럼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역규모별 추정 역시 간단하지 않다. 특정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는 서울시 혹은 경기도에서 시도한 것이 전부이다. 이에 본 절에서 간략하게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그 수는 읍·면지역의 학령인구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총 55,339명이었다(2020년 기준, 만7~18세 읍·면지역).

비록 간단한 방법으로 추정한 수치이지만, 대략 5만 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읍·면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도시에 비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지원이 훨씬 적은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라 하겠다. 더군다나 앞서 학업 중단 현황 통계에서 보듯이,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에서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 학업중단 이유로 학교 부적응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⁹⁾, 읍·면지역의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시점에서부터 대도시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0에서 2021년 2월 15일 인출

2. 질적 종단 선행연구 고찰

1) 질적 종단연구 개관

질적 종단연구/질적 패널조사들은 조사대상자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과 발달 궤적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질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부터 주로 교육정책, 보건복지정책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김미곤 외, 2012; 김정원 외, 2016; 최현수 외, 2011 등).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되, 질적 데이터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 종단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크다. 특히 교육 및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와 정책 개입 효과와 관련된 심화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

표 II-15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질적종단연구/질적패널조사 등은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 및 대인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본격적인 질적패널연구로 볼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연계 질적패널 연구」는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양적패널과 함께 100가구의 질적패널을 구축하여 혼합연구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최현수 외, 2011). 2차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양적패널 조사와 함께, 질적패널을 확대하여 120가구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수행하면서, 빈곤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노력과 경험, 맥락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김미곤 외, 2012). 3차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양적 조사와 함께 60가구의 질적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에 대한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김미곤 외, 2013).

표 11-15. 질적 종단연구 / 질적 패널조사 개관

질적패널 연구 / 조사		기관(년도)	연구대상(표본 / 패널 수 / 특징 등)·방법	주요내용(연구목적)
한국복지패널연계 질적패널 연구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최현수 외, 2011)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1~ 2013)	- 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960가구(양적패널) 및 100가구(질적패널) - 혼합연구	- 저소득층의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 및 일상적인 생활 탐구 -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질적 패널 자료 구축
	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외, 2012)		- 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880가구(양적패널) 및 120가구(질적패널) - 혼합연구	-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에 대한 심층분석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 노력과 경험, 저소득층 행복의 맥락,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장애 경험, 빈곤층 아동의 빈부 인식 비교, 빈곤가구의 정신건강 인식·육구, 빈곤 여성 노인의 일 경험 분석
	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외, 2013)		- 한국복지패널 기준 저소득층 2,788가구(양적패널) 및 60가구(질적패널) - 혼합연구	-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 파악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분석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1차년도) (김은석 외, 2014)		한국고용 정보원 (2014~ 2016)	- 베이비부머 66명 - 심층면담	베이비부머의 경력 이동과 퇴직 과정 파악 및 생애전환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직업적·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 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2차~3차년도) (김은석, 오찬오, 심우정, 하지영, 2015; 김은석 외, 2016)			- 베이비부머 66명(2015), 60명(2016) - 심층면담	-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 유형화, 근로생애의 굴곡과 만족도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 경험에 대한 분석 -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 일의 의미와 인식·감정·행동의 변화, 중요 활동 및 삶의 변화에 대한 분석

질적패널 연구 / 조사	기관(년도)	연구대상(표본 / 패널 수 / 특징 등)·방법	주요내용(연구목적)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 (김정원 외, 2016; 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김지혜 외, 2019)	한국교육 개발원 (2016~2019)	• 2017년도 1차 조사 기준 탈북 청소년 35명, 학부모 18명, 교사 24명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 1차년도: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 자료 재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의 주요 특징 추출 및 정책적 시사점 탐색 • 2차년도: 탈북학생 및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정책 방안 도출,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성장 과정의 주요 특성과 변화 양상 분석 및 교육 지원 정책 방안 제시 • 3차년도: 탈북청소년의 주요 삶의 영역 및 탈북청소년 하위범주별·출생지별·성별·계층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쟁점 도출 • 4차년도: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에서 드러나는 주요 전환(turning) 분석 및 탈북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전환의 의미 탐색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4 (김경애 외, 2016; 김경애 외, 2017; 김경애 외, 2018; 정미경 외, 2019)	한국교육 개발원 (2016~2019)	• 학생 및 학부모 각 50명, 교사 28명 (2019) • 심층면담, 심리검사	• 1차년도: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경험 분석 • 2차년도: 중학교 1학년 생활과 성장과정, 성장과정과 관계, 중학교 제도 변천과 중학생 됨의 의미 탐구 • 3차년도: 중학교 2학년 생활과 성장과정, 정체성, 국제 통계에서 본 우리나라 중학생의 특징 도출 • 4차년도: 중학교 3학년에서의 생활과 성장과정, 진로, 교육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14~2016년 동안 66명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질적 패널을 구축하고 3차에 걸쳐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김은석 외, 2014; 김은석 외, 2015; 김은석 외, 2016). 1차년도에는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라는 제목으로 베이비부머의 경력 이동과 퇴직 과정, 생애전환기의 심리적, 직업적, 환경적 측면 등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김은석 외, 2014). 2~3차년도에는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를 수행하며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이후 준비경험에 대한 부분과 삶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김은석 외, 2015; 김은석 외, 2016).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에 착수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의 경우 1주기 양적패널 대상의 조사를 질적패널 대상 조사로 치환한 것으로 1주기 연구 대상 패널과 일부 패널을 추가하여 질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김정원 외, 2016; 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김지혜 외, 2019).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생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의 주요 환경체계인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2016~2019년 동안 질적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생 및 학부모 각각 50명씩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에는 중학교 입학 전까지의 경험을 분석하고 2~4차년도에는 중학교 1~3학년까지의 중학생으로서의 경험과 특징, 성장과정, 그리고 교육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추적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김경애 외, 2016; 김경애 외, 2017; 김경애 외, 2018; 정미경 외, 2019).

이들 선행 질적 종단연구들 중 청소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것들로 그 중 탈북청소년 대상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특수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중요한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는 우리사회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교를 떠나 더 이상 학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하고 성인기 이행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난 사례가 많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제도권 교육을 떠난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갖고 미래를 설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종단적이고 심층적인 질적 정보가 제공할 수 있는 함의는 매우 크다.

선행연구들은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혼합연구방식을 취하기도 하였고(예, 최현수 외, 2011, 김미곤 외, 2012 등), 또 연구주제에 부합할 경우 질적 자료에만 집중하여 조사, 분석하기도 하였다(예, 김은석 외, 2014 등). 그러나 양적, 질적 종단연구의 경우 오랜 기간 그 변화과정과 궤적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3년 만에 종단연구가 완료된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질적 종단연구의 경우 비록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 대비 조사대상 패널 수가 적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종단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조사 역시 이들의 성장 과정과 성인기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종단연구 고찰

표 II-16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종단연구는 2018년부터 본 연구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질적 패널 구축을 위해 상술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연구와 마찬가지로 2013~2017년 동안 본원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에 참여한 양적 패널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규모, 학교 밖 유형 등을 고려하여 60명의 패널을 선정하였고,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윤철경 외, 2018). 2019년에는 이 중 4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수행하였고,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 2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그 외 지역의 20명을 대상으로 패널관리 조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장근영 외, 2019). 또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사업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통해 간접적인 정책 효과성과 향후 개선방안 도출에 함의를 주고자, 2020년에 만 15~19세의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신규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0).

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종단연구는 질적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질적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각 1개씩의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현장실무자와 관계자와의 면접조사 및 FGI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수행하였고, 2019년에는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지원 모델을 제시하였다(조아미, 임정아, 2018; 조아미 외, 2019). 그리고 2020년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더 나아가 협동연구보고서로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중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 면접조사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의 경험과 생활이 남자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이를 지원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오은진, 장희영, 2020).

표 II-16. NYP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 개관

연구자(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요내용·연구결과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 학교 밖 청소년 패널 60명(기존 양적 패널 중 선정)	면접조사	• 유형별(학업형, 취업형,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 • 개인적 특성 및 가족관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들,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심층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조아미, 임정아, 2018)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 학교 밖 청소년 패널 47명	면접조사	• 전년 대비 변화내용, 자아 및 가족, 또래 관계, 학교, 관계변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심층면접조사 수행 •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계 회복 및 또래문화에 초점을 맞춘 개입 중요성 시사 • 중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협동연구 수행(조아미 외, 2019)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 기존 질적 패널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설문조사 (종사자)	• 기존 학교 밖 청소년(20대 중반)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만 15~19세) 대상 면접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연구자(년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요내용·연구결과
	• 현장전문가, 실무자		• 대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분석 및 대도시 지원체계 파악 및 지원방안 도출 • 학교 밖 여성청소년 중심으로 협동연구 수행(장희영, 오은진, 2020)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윤철경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학교를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진로 및 취업 상황이 좋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여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에 따른 낙인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청년 정책 속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윤철경 외, 2018). 그리고 협동연구로 수행된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자원 현황과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임정아, 2018).

장근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전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48명을 대상으로(군입대, 연락두절 등으로 일부 이탈발생) 이전년도 대비 변화상황과 20대 중반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생활 등과 관련하여 특히 관계에 초점을 두어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가족 및 친구 등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장근영 외, 2019). 또한 협동연구로서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부족, 그리고 일부 도시의 경우 읍·면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해 조명하였다(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김희진 외(2020)의 연구에서는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먼저 학교를 그만둔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외에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새로 구축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협동연구로서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학교 밖 여성청소년에 주목하여 여성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오은진, 장희영, 2020). 연구결과, 기존 패널의 경우, 생애주기와 각각의 학업중단 유형(정지×학업형, 배회×학업형, 주도×학업형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신규 패널 면접조사에서는 학업중단의 계기와 지원욕구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개인·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진로계획 설정 및 지원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김희진 외, 2020).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유사한 자원이 많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내용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희진 외, 2020). 학교 밖 여성청소년과 관련한 협동 연구(오은진, 장희영, 2020)에서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의 자신감 저하, 관계에서의 어려움, 건강 악화, 교사 괴롭힘, 젠더갈등 등의 문제는 진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내 지원접근성 제고, 맞춤형 상담 제공, 성·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여러 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 질적 중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까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전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과학, 교육 및 인간 대상 서비스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층 복지지원 대상자, 베이비부머, 탈북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질적패널이 구축되어 질적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혼합연구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특수한 상황의 조사 참여자들을 둘러싼 복잡한 특성과 상황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 조사하면서 심층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연구 여건상 짧은 기간 동안만 면접조사를 수행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중도에 제도권 교육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후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진로발달 및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가 시작되었다. 2018년에 상당기간 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청년이 된 이들의 경험과 필요로 하는 지원을 조사하였다. 2020년에는 이들 기존 패널 대상의 조사와 함께 비교적 최근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들이 어떠한 지원 경험을 하고 있으며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 패널을 구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3년간 진행하였다. 아울러 2020년에는 3년간 축적된 기존 패널 대상의 질적 종단 자료 분석을 시범적으로 시도하였고, 또 여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인 특성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자료 수집과, 이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와 대상, 방법을 활용한 종단적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3. 지역 격차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논의

1)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격차, 불평등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러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로 구성되며(Hillery, 1955:111), 장소적 지역사회(locational community)와 정체성 및 관심사 측면에서의 지역사회,¹⁰⁾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의 조합으로써 정의되기도 한다(Fellin, 2001: 49, 69). 또한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공동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용어” (송혜승, 이명훈, 2017: 195)로 정의되기도 하며,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을 지역사회 구성 요소로 꼽기도 한다(문창용, 나주몽,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 시 반드시 포함하는 지리적,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크기, 규모, 인프라 수준 등의 물리적 특성만이 지역사회를 정의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필수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지역의 지리적,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는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따라서 지역 환경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이나(주영선, 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문제 관점에서 지역 환경이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나(Church, Jagers & Taylor, 2012, Leventhal & Brooks-Gunn, 2000, 주영선, 정익중, 201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긍정적인 역할, 즉 청소년 발달적 측면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되, 학교를 대신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10) 정체성과 관심사에 따른 지역사회는 사회계층, 인종, 종교, 장애인, 여성 공동체, 그리고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ies) 등으로 설명된다(Fellin, 2001: 69).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은 학교 대신 이들 청소년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 성장하게 하는 발달체계의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가 어떠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결과(outcomes)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의 결핍이나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 규모 등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도농 간 격차, 농어촌과 같은 읍·면지역의 지원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도농 간 격차 등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이론과 관점들에 기초한 수많은 실증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이론과 관점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서건 마땅히 동등한 지원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¹¹⁾와 불평등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에 기초한 논의의 필요성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주거환경의 문제, 교육 및 취업 기회 부족, 교통과 문화 향유 및 여가 장소 부족, 교통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²⁾ 특히, 2015년도 Eurostat의 실증적 결과를 인용하여 빈곤, 교육, 훈련 및 취업기회,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회에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차이의 심각성에 주목하였으며, 농촌지역의

11) 사회적 배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광범위하나, 여기에서는 Levitas와 동료들이 정리한 “사회구성원 다수가 이용 가능한 자원, 권리, 재화, 서비스, 또는 정상적인 관계나 활동 참여 등에서의 부족이나 거절을 포함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전체의 형평성과 응집력에 영향을 준다”(Levitas et al., 2007:9) 정도로 간단히 제시한다.

12)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Young people in rural areas: Contemporary issues in youth policy.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young-people-in-rural-areas>.에서 2021년 2월 10일 인출.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훨씬 높음에 따라 EU회원국들이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을 제안하였다.¹³⁾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논의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회학자인 Shucksmith와 Philip(2000)은 시장경제의 변화, 인구학적·사회적·문화적 변화, 그리고 정치적 변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경험하는 고용, 주택, 사회적 서비스, 교통,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결핍, 그리고 그 외 다면적인 불이익(낮은 임금, 취업기회 미흡, 불편한 교통수단,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등) 등은 결국 사회적 배제의 과정이라고 보았다(Shucksmith & Philip, 2000). 또 다른 유럽의 연구자들은 농촌지역의 청소년, 청년들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서 농촌에서의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인프라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중교통과 같은 이동성(mobility)의 문제는 농촌지역의 복지와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에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Camarero & Oliva, 2019).

실제로 도시 밖에서의 삶은 사회적 고립, 무기력, 빈곤을 경험할 수 있으며(Driscoll, 2014), 비 대도시(non-metropolitan) 지역의 청소년들은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건강(Orlowski et al., 2016), 정신건강(Smokowski, Cotter, Robertson, & Guo, 2013), 교육(Welch, Helme, & Lamb, 2007), 주택 선택(Skott-myhre, Raby, & Nikolaou, 2008), 그리고 취업(Abbott-Chapman, Johnston, & Jetson, 2014) 등에서 더 낮은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된다(Ellem, Baidawi, Dowse, & Smith, 2019: 2에서 재인용).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필요한 자원의 부족은 복합적인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전이

13)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Young people in rural areas: Contemporary issues in youth policy.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young-people-in-rural-areas>.에서 2021년 2월 10일 인출.

되며, 청소년들은 적절한 지원 없이 지역사회에 남게 되거나 계속 지원을 전전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의 부재나 미흡한 수준의 지원은 청소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Ellem, et, al., 2019).

국내 연구에서도 지역규모 및 위치에 따른 인프라, 정책, 사회적 서비스 격차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예산, 기관, 인력과 같은 사회서비스(함영진, 2019)와 여러 기반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김병수, 여흥구, 2010), 사회서비스 접근성 역시 도농 간 격차가 컸고(김이배, 안재성, 2014), 문화적 여건(박물관, 미술관 등) 역시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거주지역이 어디건 마땅히 동등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또 여러 관련 지원 및 서비스격차가 우려됨에도 지역의 적은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지역격차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가 원인이 아닌 이유 때문에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배제나 불평등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차이

대기오염이나 공해, 인구과밀에 따른 복잡함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는 각종 인프라와 생활여건, 교육 및 취업기회,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있어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을 포함한 읍·면지역의 경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대도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고(Menanteau-Horta &

Yigzaw, 2002), 보육 및 교육관련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낮으며(황정임 외, 2019), 지역 인프라의 부족으로 농산어촌 아동·청소년들의 여가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활용 비율이 낮다(김미숙, 신어진, 2009)는 등의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군단위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군지역(읍·면지역) 청소년의 학교자본(학습활동, 교사 관계)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군지역의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 내용이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어 해당 지역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컸으며(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3),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박구원, 2006).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시설까지의 거리 정도가 이들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박승곤, 문성호, 2011), 이는 접근성 좋은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읍·면도시 청소년이 당연히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 시설이 군단위 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지윤, 2020). 실제로 많은 군단위 지역에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은 어느 곳도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과 관련된 질적 연구에 따르면(박승곤, 2017), 농어촌 지역 청소년은 이용하기 힘든, 거리가 먼 곳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하면서 상담을 받기 어려웠고, 섬 지역 청소년은 주말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조아미, 임정아의 연구(2018)는 주목할 만하다. 비록 적은 수의 지역을 탐색하였으나,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과 지원욕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역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선되는 어려움이나 지원에서의 제한점 등을 드러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차이점들이 모두 해당 지역규모에 따른 절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사례 수가 많음에 따른 업무 부담, 그리고 읍·면지역에서의 청소년관련 인프라 부족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서도 교통편 등 기관 접근성이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해당 센터의 경우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한 사례로(조아미, 임정아, 2018), 실제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7. 지역규모별 특성, 지원 요구와 제한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역별 특성	-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 - 청소년인구 많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아 필요한 지원 받기 어려움 - 지자체의 관심이 많음	- 지역경제 수준 낮음 - 지자체 청소년정책 활성화 - 청소년 수 감소 - 지원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와 교육 환경 부족 등	- 경제적 어려움 - 지자체에 관심이 높음 - CYS-Net활성화 - 교통 불편함 - 청소년 시설 및 관련 인프라 부족 - 부모의 무관심 등
기관 여건 및 인프라	- 전용시설 및 활동공간의 필요성	- 기관 접근성 부족	- 전용시설 및 활동공간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 교통/식비 일상생활비 지원 - 또래와의 교류 - 검정고시 교재 지원	-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 - 교통편 지원	- 자립훈련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 또래와의 교류, 동아리 지원
지원의 제한점	- 종사자 처우 - 실무자의 잦은 이직 - 연계기관과의 마찰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실적 평가 - 학교 밖 청소년 발굴관리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실적 평가 - 인프라 부족 - 취업으로의 연계 부족

* 출처: 조아미, 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pp.184~197에서 해당 내용 발췌·정리

군 단위 지역이나 농어촌의 소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박승곤과 김수정(2017)의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청소년 인구수 자체가 적어 해당 꿈드림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학교를 떠난 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센터까지의 거리가 멀고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에 참여한 현장종사자들은 지역사회에 활용할 만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인적·물적 지원의 연계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박승곤, 김수정, 2017).

이러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격차와 어려움은 가장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20년에 수행된 질적 연구에서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강하고 싶은 학원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불편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음에 따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지원서비스 이용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었다(김희진 외, 2020).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읍·면지역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읍·면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조사에서 읍·면지역 꿈드림센터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규모의 행사나 전문적,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연구(김희진, 백혜정, 2020)에서 2차 자료(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학업 중심의 진로계획보다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취업·창업 병행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현장종사자 대상의 조사에서도 역시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의 경우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고, 교통편이 많지 않아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백혜정, 2020). 이러한 최근 연구결과는 각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률과 센터의 접근성,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설계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학업성취도와 학력 격차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¹⁴⁾ 왔으며, 선행연구들 역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3), 인터넷 중독 수준과 흡연 및 음주율(김은경, 2015; 김광수, 2011; 박은옥, 2010)을 보고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읍·면지역의 청소년이 학교 중퇴 후 비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대도시보다 더 높으며(조아미, 임정아, 2018), 대도시의 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은 9.3%에 불과했지만 읍·면지역은 14.6%로 나타났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지원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특히 취약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면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주지역의 규모와 특성의 차이, 또 이로 인한 지원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읍·면지역의 서비스 지원에서의 결핍이나 어려움은 결국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질적, 양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읍·면지역의 학교체계는 이들 지역에 다른 학원이나 관련 인프라가 미흡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떠났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14) 출처: 교육부(2019.11.29).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1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3월 16일 인출.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에 따른 교육 및 사회서비스 격차,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결핍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기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에 대한 면접조사 뿐 아니라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소도시 지역의 상황이 읍·면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례들이 드물지 않으며, 읍·면지역의 센터만을 조사할 경우 표본수가 너무 적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20만명 미만) 적은 규모의 소도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오히려 소도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연구하였으나(조아미 외, 2019), 규모가 작지 않은 중간급 규모 도시들이 연구에 포함됨에 따라, ‘소도시’를 중점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연구의 초점은 읍·면지역에 두되, 소도시도 연구에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았다(면접조사 지역 총 5개 지역 중 1개 지역만 소도시로 진행).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사회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청소년관련 시설 및 지원내용의 결핍, 또는 접근성의 문제 등에 대해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도시를 포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지방, 원거리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러한 격차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을 포함한 읍·면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3) 지역격차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외사례¹⁵⁾

(1) 호주 사례

① 호주 청소년 특성 : 지역규모별 현황

호주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가졌음에도 인구는 약 2,564만명으로¹⁶⁾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임에 따라 지역별 인구집중에 차이가 크며,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인구분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15~24세 청소년의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20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2021). 15~24세 청소년 중 대도시 거주자가 75%로 다른 연령대 거주비율인 72%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며, 내륙지역에서는 16%, 외곽지역은 7.2%, 원거리 소외지역에서는 1.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ustralian Government, 2021). 특히 원거리 소외지역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 거주 인구비율인 2.0%에 비해 0.4%p 적은 수치였다(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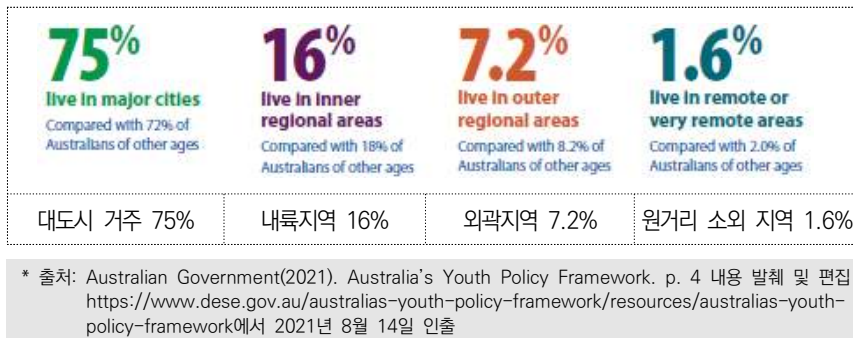


그림 II-5. 호주 15~24세 청소년의 거주 지역 규모별 인구 비율

- 1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농어촌 및 원거리 지역과 관련된 해외 우수사례 발굴에 어려움이 많아 본 해외사례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기하고 관련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 제시하였다.
- 16)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2021.09.22.). 호주 국가 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1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호주 청소년들의 교육 성취에도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호주의 교육에 대한 국가목표성취를 위해 교육 및 훈련체계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조사 결과, 5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의 청소년들이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면서 생애학습 기술과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Lamb, et al., 2020). 15세 청소년 중 27.8%는 수학, 읽기, 과학 과목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24세 청소년 중 28.1%는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Lamb et al., 2020). 특히 빈곤가정이거나 농촌 및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원주민 청소년들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20).

2019년 기준으로 24세 청소년 중 29.7%가 교육이나 훈련, 취업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저소득층 청소년 및 지방 외곽 지역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Lamb et al., 2020). 표 II-18는 전일제 취업 훈련·학업 종사자 비율로, 도시지역에서는 72.8%였으나 외곽 지역의 경우 52.3%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8. 호주 24세 청소년 집단별 전일제 취업 및 훈련, 학업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 ²⁾			
	남	여	저	고	도시	외곽 지역	원거리 지역	외진 지역
전일제 취업·훈련, 학업종인 청소년 비율 ¹⁾	74.0	66.5	50.8	82.0	72.8	63.0	63.4	52.3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p. 4 내용 발췌 및 편집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 주 1) 전일제(full-time) 취업 및 훈련, 학업 비율
 2) 외곽 지역(outer regional), 원거리 지역(remote), 외진 지역(very remote)

특히, 농촌 및 지방 외곽의 학생들은 지역적 위치 때문에 정규 중등교육(Year 12)¹⁷⁾을 마치기 어려웠는데, 이는 인구분산 및 감소로 학교 수가 적음에 따라 도시에서 가능한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 전달이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Lamb et al., 2020). 고학년 학생이 더 이러한 경향을 보였는데, 중등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19세 청소년의 집단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컸다(도시 85.1%, 외곽 지역 48.4%)(Lamb et al., 2020). 고등 교육 및 훈련 기회 접근성 부족과 지역사회 일자리 형태는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낮은 기대 수준과 학교 교육 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Halsey, 2018).

표 II-19. 중등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 취득 19세 청소년의 집단별 차이(2016년 기준)

(단위: %)

호주 전체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역 ³⁾			
	남	여	저 ¹⁾	고 ²⁾	도시	외곽 지역	원거리 지역	외진 지역
81.6	78.4	85.0	66.8	91.8	85.1	70.9	65.0	48.4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p. 39 내용 발췌 및 편집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 주 1) 사회경제적 수준 최하(Lowest)
 2) 사회경제적 수준 십분위(deciles) 중 Second~Highest
 3) 외곽 지역(outer regional), 원거리 지역(remote), 외진 지역(very remote)

결국 이러한 차이는 호주 학생들의 발달에 유의미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또한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는 빈곤, 원주민,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Lamb et al., 2020).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 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원거리, 농촌 학교 학생들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Halsey, 2018).

17) 호주의 중등교육은 Year7~Year12까지로 Year 11~12는 우리나라 학제로는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 된다(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tudy Australia, <https://www.studyaustralia.gov.au/english/australian-education/education-system>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② 호주 청소년 정책

가. 청소년 지원 정책: 호주청소년정책계획¹⁸⁾

호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교육·기술·고용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에서 담당하며 청소년들이 지식과 기술, 교육과 일,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취업 기회, 지역사회 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의 교육, 훈련, 취업을 위한 최상의 진로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주 정부(states and territories)의 파트너십을 위한 견습제도 지원(apprenticeship commencement) 촉진에 약 호주달러로 \$2.7billion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였고, 15~24세 취약청소년의 취업 및 학업을 돕기 위한 취업으로의 이행 프로그램(Transition to Work program)의 확대를 위해 \$481.2million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취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정부의 호주 청소년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은 「호주 청소년 정책 계획」(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 청소년 정책 계획은 호주 정부(교육·기술·고용부)가 청소년들이 인생의 도전들을 잘 헤쳐 나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는 청사진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야기된 청년들의 교육, 취업 및 사회적 기회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 틀이다(Australian Government, 2021). 이 계획에는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및 안전, 건강 및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농촌 등 지역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표 II-20과 같다.

18) 이하의 내용은 호주 정부의 교육·기술·고용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출처: Youth. <https://www.dese.gov.au/youth>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과 호주청소년정책계획(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Australian Government, 2021)에서 해당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II-20. 학교 밖 청소년 및 농촌 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

정책 프로그램명	내용
신속한 취업연계 지원 사업 (Faster Connections and Greater Support)	‘더 빠른 연계와 더 큰 지원(Faster Connections and Greater Support)’ 프로그램은 \$21.9million에 달하는 15~24세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온라인 취업 서비스에서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구직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원조 제공
농촌 및 지방 회복 재단 프로그램 지원(FRRR, Foundation for Rural and Regional Renewal ^{주)})	농촌 및 지방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농촌 및 지방 회복 재단’의 FRRR’s Tackling Tough Times Together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리더십과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Heywire and Trailblazers 프로그램 지원 ^{주)}	지방에 거주하는 16~22세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원주민(애보리지널·토레스 해협 원주민,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포용, 취업 및 자살 예방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p. 22, p.26 내용 발췌 및 표로 재구성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주: 이 두 프로그램은 호주 청소년 정책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등으로 참여한 청소년 위원회(Youth Taskforce)에서 우선순위에 둔 정책 및 프로그램임.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수당 등

○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¹⁹⁾

호주정부는 2015~2016년에 일찍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early school leavers)에게 청소년 고용 전략의 일환으로, 또 이들 청소년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13.5million의 예산을 할당하고, 학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는 학업중단자들이 견습직이나 훈련받을 기회를 포함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의무적 구직 활동(compulsory job search)으로서 풀타임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 및 주당 25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중등교육 이수로서 25시간의 주당 참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중등교육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성과에 대한 수당지급 자격 확대이다. 학업중단자들은 jobactive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찾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 받게 되는데, jobactive는 12학년의 중등 교육을 마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 호주정부의 청소년 고용 전략은 정부가 청소년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일이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5~21세 청소년의 견습, 훈련이나 교육을 포함한 취업준비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돕는 \$322million의 취업으로의 이행(Transition to Work) 서비스
- 복지수급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50million의 청소년 역량 강화사업(Empowering YOUTH Initiative)
- jobactive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청소년의 직업준비에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도록 하는 복지수혜를 위한 공공근로프로그램(Work for the Dole)

19) 이하의 내용은 호주 교육·기술·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Engaging Early School Leavers(2020.11.24.). <https://www.dese.gov.au/jobactive/engaging-early-school-leavers>에서 2021년 8월 20일 인출).

- 구직자들에게 자신감과 실제 일 경험을 제공하며, 한 번의 배치에 최대 4주 동안 주당 25시간 영리/비영리 조직 및 정부조직에서의 자발적인 일 경험을 통해, 고용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직자를 준비시키는 일 경험 프로그램(The National Work Experience Programme)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²⁰⁾

호주 사회정책법의 사회보장지침(Social Security Guide)에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상호의무요건(Mutual obligation requirements for early school leavers)이 제시되어 있다. 중등교육(Year 12)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22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즉 학업중단 청소년) 청소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 주당 25시간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주 양육자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주당 15~29시간 근로할 수 있는 경우는 주당 15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

- 전일제 교육 및 훈련 참여
- 파트타임 교육이나 훈련,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한주 당 승인된 25시간 활동(매달 20시간의 의무적인 구직 활동 포함)

이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중등교육을 마쳤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당국에서 확인했거나, 또 해당 청소년이 22세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구직자에 해당되는 상호의무요건이 적용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전일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인된 교육·훈련과정에 등록했거나 졸업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현재나 미래 학업에 방해되는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지침에 적시되어 있다.

20) 이하의 내용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책법 중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ocial Security Guide. <https://guides.dss.gov.au/guide-social-security-law/3/11/9>에서 2021년 8월 9일 인출).

○ 학생 및 견습제 참여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for students and Australian Apprentices)²¹⁾

24세 이하의 청소년, 학생, 또는 견습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8~24세이면서 풀타임 학업 중인 경우, 16~17세이면서 풀타임으로 학업 중이거나 학업을 위해 독립했거나 집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6~17세이면서 풀타임 학업 중이거나 중등 교육(Year 12)을 마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16~24세이면서 풀타임으로 호주 견습제(Australian Apprenticeship)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청소년의 처한 상황에 따라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은 표 II-21과 같다.

이외에도 21세 미만으로 구직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일근로를 찾고 있거나, 파트타임으로 학업중 이면서 구직상태이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격주로 \$303.20 (미혼, 무자녀, 18세 미만으로 부모와 생활)에서 최대 \$850.20(미혼, 구직자, 주 양육자이자 부양자로 여러 상호의무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위와 같이 연령과 거주지, 소득조사 등에 따라 상세화²²⁾ 되어 있다.

21) 이하의 내용은 호주정부 웹사이트(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의 청소년수당 지원 관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job-seekers/who-can-get-it>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22) 이 내용은 호주정부 웹사이트의 구직자로서 청소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출처: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job-seekers/who-can-get-it>(게시일: 2020.07.02.)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표 II-21. 학생 및 견습제도 참여 청소년 수당 지급 내용

환경적 여건	수당(격주 지급) ^{주)}
18세 미만,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303.20
18세 미만,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학업, 훈련, 구직을 위해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	\$512.50
18세 이상,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	\$354.60
18세 이상, 미혼으로 자녀가 없으며, 부모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	\$512.50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656.00
자녀가 없는 부부	\$512.50
자녀가 있는 부부	\$557.90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how-much-you-can-get#payment-rates>에서 2021년 9월 21일 인출

주: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지급 가능 액수를 의미함. 개인 및 배우자의 수입과 자산조사결과가 지급받는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자산조사결과도 이에 해당되며, 18세 미만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게 됨.

③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 우수사례: 이든지역 청소년 지원 사례²³⁾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 및 지방 회복 재단’(FRRR)의 홈페이지(<https://frrr.org.au/>)에서 작은 규모의 농어촌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지원 사례를 발굴하였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외각 지역에 위치한 이든(Eden) 지역은 2016년 기준 전체 인구가 3,000명 수준인 매우 규모가 작은

23) 이하의 내용은 농어촌 지역인 이든지역에서의 무업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및 게임개발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농어촌 및 원거리 지역 무업 및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제시된 내용으로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Foundation for Rural Regional Renewal. Community Stories. <https://frrr.org.au/blog/2020/05/26/good-times-and-opportunities-for-eden-youth/>, 2020.5.26.게시, 2021년 9월 15일 인출, Bega Valley Innovation Hub. Eden Game Development Centre. <https://begavalleyinnovationhub.com.au/resident-index/eden-game-development-centre/>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https://www.indigenous.gov.au/news-and-media/announcements/heywire-youth-innovation-grants-now-open>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호주 ABC 방송국. Heywire. <https://www.abc.net.au/heywire/2021-heywire-grants-youth-ideas-hero-story/13436718>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곳으로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연령 중간 값: 51세), 15~24세의 청소년 인구는 불과 300여명인 곳이다. 호주 전체의 주급 중간 값이 \$1,438인데 비해, 이든 지역의 경우 \$852수준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이다.



그림 II-6. 호주 이든 지역의 위치 및 인구 현황

이든 지역 및 뉴사우스웨일즈의 원거리 해안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무업, 취약 청소년(disengaged²⁴⁾ and disadvantaged young people)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왔고,²⁵⁾ 청소년 실업은 이든 지역 실업자 중 25%에 달했다.²⁶⁾ 중등교육(Year 12)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도 12%에 달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괜찮은 직업을 얻거나 취업준비 기술을 익히지 못해 결과적으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disengaged),

24) disengaged young people은 어디에도 속한 곳 없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무업청소년으로 통칭하였다.
 25) 출처: Foundation for Rural Regional Renewal. <https://frrr.org.au/blog/tag/unemployment/>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26)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s://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SSC11375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든게임개발센터(Eden Game Development Centre)는 이든 지역사회센터(Eden Community Access Centre)와 함께 ‘FRRR ABC Heywire Youth Innovation Grants program’를 통해 기금을 받아, 하는 일이 없는 무업 청소년들이 성공을 위한 여정에 첫발을 디을 수 있도록 돕는 ‘Heywire Step Up initiative’의 일환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곳에서 게임 개발, 코딩, 그래픽 등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게임 개발 기술을 가르쳤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무업의 취약한 청소년들이 향후 취업이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팀원과의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즐거운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9년에 이든 지역에서 개최된 ‘Opportunity Youth Festival’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기회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든게임개발센터 사업 운영자 역시 이러한 농촌 및 지방의 청소년 지원 사업 경험자로서(Heywire Trailblazer alumnus), 청소년들이 비디오게임 개발과 코딩 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코딩, 게임개발, 가상 현실(virtual reality)과 같은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거리 및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하되 청소년들이 행사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회(opportunity)’를 위한 축제는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지들을 즐겁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 축제는 이든과 주변지역의 400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 배우고, 음악 밴드 및 스포츠 등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이든 지역사회센터는 안전과 예산부분을 담당한 행사운영 위원회와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 행사를 함께 운영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 무업 청소년이었던 이든게임개발센터 운영자 사례

이 사업 운영자인 William Sharples는 무업 청소년(disengaged young people)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딩이나 게임 개발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그 역시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한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한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었던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었다.

William Sharples는 코딩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일이 없는 취약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컴퓨터관련 기술(technological skills)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업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인근 지방에서도 40분이 걸리는 거리에서 참가하는 청소년이 있어, 이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William Sharples는 이든 지역 뿐 아니라 인근 농촌지역에서 컴퓨터 기술, 게임개발과 관련된 교육 및 강의를 통해 무업의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Laura Chung (2018.6.7). Unemployed his whole life, passionate gamer is now creating career opportunities for others. <https://www.abc.net.au/heywire/unemployed-gamer-helps-country-kids-build-coding-careers/9792088>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④ 요약 및 시사점

호주의 비 도심 환경, 즉 지방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복합적인 지원 요구가 있는 청소년들 역시 여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Ellem et al., 2019).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생애 전환기의 도전은 지역적 위치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며, 특히 호주 원주민(애보리지널·토레스 해협 원주민)의 경우 유럽 식민지 역사의 영향으로 학업 중단, 빈곤, 가정폭력, 실업 및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적 배제를 더욱 경험하고 있다(Ellem et al., 20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곽 및 원거리 소외지역에서, 전일제 취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적었으며(Australian Government, 2021), 이는 학업중단 문제와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가 지방 및 외곽,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호주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의 불리한 환경 극복과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인 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및 외곽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일찍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연령, 전일제 교육훈련 및 근로 여부, 연령, 부모님과 거주 여부, 결혼 및 자녀유무 등)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였는데, 한 달에 호주달러기준 약 \$606~1,312 정도로²⁷⁾, 한화 기준 518,663원~1,122,914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2021년 9월 26일 환율 기준).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의 우수 지원사례로 학업중단 및 무업, 취약 청소년 발생률이 높은 이든 지역에서의 컴퓨터 및 게임개발 기술 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례는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뿐 아니라 사회진입에 비교적 용이한 컴퓨터 관련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불어 성취감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되,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든 지역 사례에서 취약 청소년 지원을 시작하고 또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과거 무업청소년이었던 경험을 통해 외곽, 농어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기획, 시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성공적으로 자립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를

27) 이 내용은 호주정부의 학생 및 견습제 참여 청소년 수당 기준으로 격주 수당금액을 한달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제시하였다(출처: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job-seekers/who-can-get-it> (게시일: 2020.07.02.)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더욱 공유하고, 자립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또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비와 수당을 포함하여 40만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사례와 같이 적어도 교육 및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당 지급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사례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개요²⁸⁾

일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추진하는 「학습을 통한 스텝업(step-up)지원촉진사업(学びを通じたステップアップ支援促進事業)」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결합한 형태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추진하는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社会若者サポステ)사업(이하, 청소년서포스테)」을 들 수 있다. 먼저, 2017년에 시작한 학습을 통한 스텝업사업은 고등학교 중퇴자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지원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해인 2017년에는 3개 지역, 2018년에는 6개 지역, 2019년에는 5개 지역 그리고 2020년에는 3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28)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웹페이지에서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 지원 촉진 사업 안내. https://www.mext.go.jp/a_menu/ikusei/manabinaoshi/mext_00955.html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사포의 실제 상품. <https://saposute-net.mhlw.go.jp/#top-03>과 사포스테는 어떤 곳인가요? <https://saposute-net.mhlw.go.jp/about.html>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실제 상품. <https://saposute-net.mhlw.go.jp/>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 향후 방향성 검토회 자료.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wqvm-att/2r9852000002wqzi.pdf>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삿포로시(札幌市), 군마현(群馬県), 고치현(高知県)의 3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스포스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총이용자는 435,468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수는 9,758명이다. 취업률은 61.7%이며, 1년미만 취업률은 8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7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15~49세의, 미취업상태의 청소년과 보호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자신감이 없어 구직활동을 망설이는 청소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불안해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미취업상태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서포스테는 양보다는 질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용절차는 먼저 예약을 한 후, 상담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각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대부분의 서비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업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수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는 커뮤니케이션 강좌, 직업체험, 비즈니스 매너, 면접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컴퓨터 강좌, 집중훈련 프로그램(합숙형태로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습관 지도,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WORK FIT’ 프로그램(주식회사 리크루트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서 작성 및 면접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함), 아웃리치 프로그램(고등학교 중퇴자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 등이 있다.

② 읍·면(농산어촌 지역) 청소년 지원체계 사례

가. 시마네현(島根県) 마스다시(益田市) 사례²⁹⁾

마스다시는 시마네현의 남서지역에 위치한 도시이며, 인구 규모는 44,463명으로, 소규모 해안도시라고 할 수 있다. 마스다시에는 공립고교 2개교, 사립고교 2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공립고등학교에서 10명 정도의 중퇴자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다시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중퇴의 주된 요인은 보호자와의 관계자본의 결여, 당사자의 정신질환, 경제적 이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마네현 마스다시(좌측 붉은 표시 지점)



*출처: 일본 지도(시마네현 마스다시 중심)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place/%EC%9D%B3%EC%B3%B8+%EC%8B%9C%EB%A7%88%EB%84%A4%ED%98%84+%EB%A7%88%EC%8A%A4%EB%8B%A4%EC%8B%9C/@34.0809022,132.8247218,7z/data=!4m5!3m4!1s0x355ae01f65211a7f:0xf3caf2c685718fdb!8m2!3d34.674846!4d131.842886>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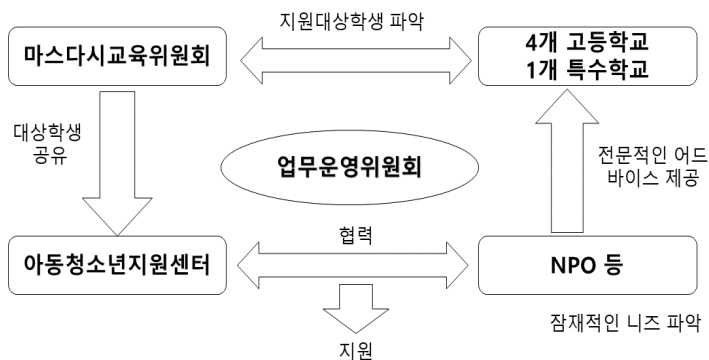
그림 II-7. 일본 시마네현 마스다시 지역 위치

마스다시는 학교 중퇴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마스다시 고등학교 연락협의회(益田市高等学校連絡協議会)’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고등학교 4개교, 특별지원학교 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중퇴

29) 이하의 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https://www.mext.go.jp/content/20201208-mxt_syogai03-000010237_3.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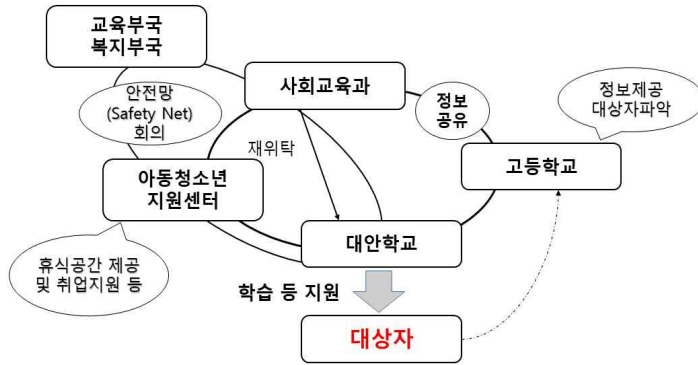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마스다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학교 담당자,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소장, 대안학교사업자, 시교육위원회 및 복지과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필요 시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중도 탈락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포괄적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협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아웃리치 서비스(ICT 활용 아웃리치, 직접 방문 아웃리치), 학습지원, 교직원 연수, 그리고 지원모델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먼저, 아웃리치 서비스는 고전적인 홍보방법인 전단지 및 포스터의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이용률이 높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학습지원으로, 방과후 또는 휴일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교실 수업보다는 실험이나 현장체험 위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문부과학성.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 https://www.mext.go.jp/conttent/20201208-mxt_syogai03-000010237_3.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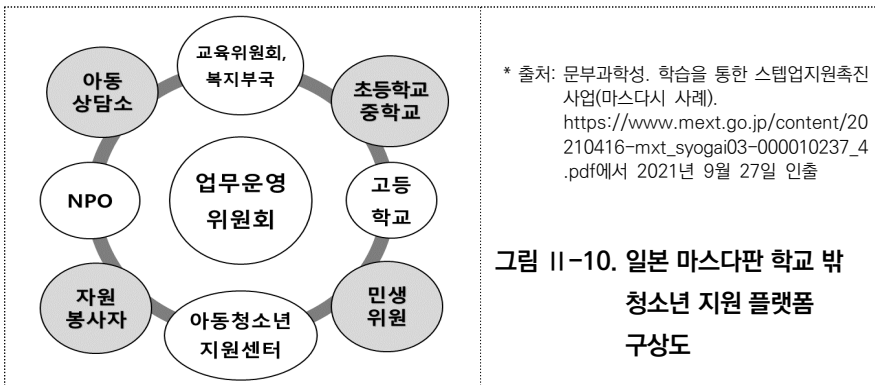
그림 11-8. 일본 마스다시 고등학교 연락 협의회



* 출처: 문부과학성.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 https://www.mext.go.jp/content/20201208-mxt_syogai03-000010237_3.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그림 II-9. 일본 마스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셋째,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다. 마스다시에서는 매년 ‘인재 양성(人づくり)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마스다시에서는 현재의 업무운영위원회를 확대한 ‘마스다판 지원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문부과학성.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 사업(마스다시 사례). https://www.mext.go.jp/content/20210416-mxt_syogai03-000010237_4.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그림 II-10. 일본 마스다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플랫폼 구상도

나. 오키나와현(沖縄県) 우라소에시(浦添市) 사례³⁰⁾

우라소에시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의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규모는 약 11만 5천명이다. 우라소에시에는 2014년 ‘청소년서포스테 류큐(琉球)’가 설치되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의 주요 이용대상자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또는 장기결석 청소년, 진로미결정 청소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앞둔 청소년 등이다.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좌측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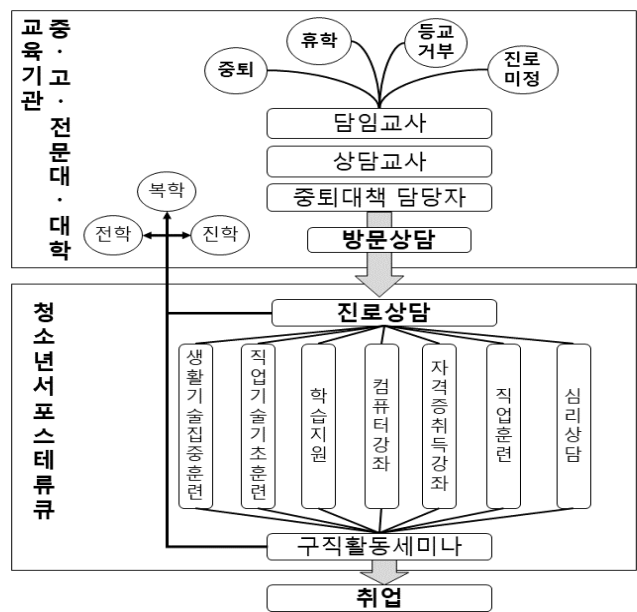
* 출처: 일본 지도(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중심)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place/%EC%9D%BC%EB%B3%B8+%EC%98%A4%ED%82%A4%EB%82%98%EC%99%80%ED%98%84+%EC%9A%B0%EB%9D%BC%EC%86%8C%EC%97%90%EC%8B%9C/@30.7768378,130.4986396,6.75z/data=!4m5!3m4!1s0x34e56b9c8581c6a3:0xbd21e75778628749!8m2!3d26.2457804!4d127.7217156>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그림 II-11. 일본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위치

청소년서포스테 류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스킬업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준비반,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니트 청소년 대상 집중 훈련 프로그램, 오키나와현 니트 청소년 직업기초훈련 프로그램, 직장정착 및 스텝업 프로그램, 이력서에 들어갈 증명사진 서비스, 학교연계사업 등이다.

30)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홈페이지 및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학교 협력 프로젝트, http://supportryukyu.info/?page_id=133에서 2021년 9월 7일 인출,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우라소에시의 인구, <https://www.city.urasoe.lg.jp/article?articleId=60d1a2d03d59ae1ac00c69c30>에서 2021년 9월 7일 인출,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나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http://supportryukyu.info/?page_id=717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여러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들 중, 첫째로 취업연결형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업에서 인턴십, 직업체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농장체험 등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출처: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학교 협력 프로젝트 http://supportryukyu.info/?page_id=133에서 2021년 9월 7일 인출

그림 II-12. 일본 청소년서포스테 류큐 사업체계도

둘째, 니트 청소년에 대한 집중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5~39세의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훈련과 집중훈련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훈련에는 취사경험, 가전용품 사용법 익히기, DIY 체험, 규율훈련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직장 정착 및 스텝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서포스테를 통해 취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취업한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표 II-22. 니트 청소년 집중 훈련 프로그램 일정표

과목		내용	시간(h)
생활 훈련	자취(自炊) 실습	오키나와 전통요리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식 고취	20h
	가전제품 사용법	형광등 교체, 연장코드 등의 배선, 누전차단기 및 전기배선 등의 가정용 전기 지식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심 배양	5h
	DIY실습	가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의자, 가구 등 비교적 간단한 수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구 사용법 학습	5h
	규율훈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기, 휴지 줍기, 인사 및 주변 정리정돈, 이웃주민과의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	5h
집중 훈련	집단작업, 의사소통훈련 등	아이스 브레이킹 등 조직내에서의 의사소통, 팀워크, 규율의 소중함을 학습	10h
	사회참가훈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의사소통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즐거움, 소중함을 학습	10h
	직업체험	직장견학을 통해 실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직장생활의 실상에 대해 이해, 농장체험, 제작체험 등 직업체험을 통해 직장생활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며, 자신의 구직활동으로 연결	35h
	자격증취득 강좌	일본어 워드검정 3급, 정보처리기능사검정 3급 및 소형차량건설기계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 기능 습득	65h
	구직활동을 위한 기초지식실습, 모의면접 등	공공직업안정소 활용법, 구인표 보는 법,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15h
	비즈니스 매너 강습	전화 대응법, 명함교환, 인사, 보고, 연락 등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비즈니스 매너 습득	15h
	훈련성과발표회,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전과 참여후의 자신의 성장과정, 향후 목표에 대해 발표	10h
	기타	입소식, 수료식	5h
총 훈련시간			200h

* 출처: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청소년 무직자 집중훈련프로그램, <http://supportryukyu.info/wp-content/uploads/2017/05/syuuchuu201706.pdf>에서 2021년 9월 8일 인출

마지막으로, 청소년서포스테 류큐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회의 확대와 취업처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에 소재한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1년 현재, 9개의 기업이 협력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는 생활협동조합, 건설회사, 골프클럽, 공방, 디지털출판물 제작회사, IT관련 기업 등이다.

다. 야마가타현(山形県) 요네자와시(米沢市) 사례³¹⁾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소도시로, 인구규모는 8만 5천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은 1만 3천명 정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역 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NPO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대일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생활보호세대청소년건전육성지원사업(生活保護世帯子ども健全育成支援事業)」에 채택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요네자와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정형편상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월 5만엔(약 50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이다. 이에 NPO 법인의 직원들이 주 1회, 평일 저녁 6시 이후, 가정을 방문하여 2시간 정도의 학습지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지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보호자에 대한 조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NPO 법인은 주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 관련 서비스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청소년서포스테, 음식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31) 이하의 내용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생활곤궁세대 아동 학습지원사업 실천사례집」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출처: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Shakai/0000080240.pdf>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③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시마네현 마스다시 및 야마가타현의 요네자와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아웃리치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정된 센터에 출석하도록 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도 필요하지만,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아웃리치 형태의 상담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때, 퇴직 교원이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웃리치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둘째, 오키나와현의 우라소에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 탈락의 원인, 심리적 상태, 자립의 의지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니트 청소년들의 경우 단기간의 지원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한 후 직업체험, 인턴십,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장기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기 및 장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 확보가 중요하다. 오키나와현의 우라소에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역에 소재한 농장, 리조트 시설, 음식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술을 익힘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사례

미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의 빈곤과 지역사회 경제에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도 학업중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조기에 학업중단 위험 요소에 개입하는 예방 정책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후 지원 정책, 즉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둔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간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는 도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학업과 경제활동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disconnected youth)³²⁾ 또는 무업 청소년(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의 비율이 증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enderson, 2017.04.27; Lewis, 2021).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질 높은 교육 및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교통이나 인터넷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Lewis, 2021). 이에 여기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체계를 개괄한 후,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연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 개요

연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은 크게 학업지원 정책과 취업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학업지원 정책은 주로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취업지원 정책은 주로 연방

32)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disconnected youth)은 16~24세 청소년 중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무업 청소년(NEET)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가 주관한다. 먼저 학업지원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연방 교육부의 TRIO 프로그램으로, 8개의 하위 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가. 학업지원 정책³³⁾

TRIO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정부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8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목표는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이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TRIO 프로그램 중 ‘업워드 바운드(Upward Bound)’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등 학교과정 교육 이수 및 대학 진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과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 뿐 아니라 튜터링, 상담, 멘토링, 문화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른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탤런트 서치(Talent Search)’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중등교육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이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직접 발굴한 후 참가자에게 학업, 진로, 재정에 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원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s, 이하 SSS)’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지원 대상 학생이 대학 진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3) 이하의 내용은 미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TRIO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나. 진로지원 정책

취업지원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연방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부(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가 지원하는 잡 콕스(Job Corps), 유스빌드(YouthBuild), WIOA 유스 포뮬러(Youth Formula)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잡 콕스(Job Corps)’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학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16~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윤철경 외, 2016).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특정 분야에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숙식도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 이수, 기술 습득, 취업 지원 외에도 주택, 보육 서비스, 교통편 탐색 등 자립생활을 위한 전환기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³⁴⁾

‘유스빌드(YouthBuild)’ 프로그램³⁵⁾은 연방 노동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6~24세 무업 혹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및 동일 수준의 학위 취득과 대학 진학을 지원할 뿐 아니라, 특히 건설 등 수요가 많은 산업 분야의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WIOA 유스 포뮬러(Youth Formula)’ 프로그램³⁶⁾은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이하 WIOA)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포괄적인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 훈련,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24세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각 주정부 및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할당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추어 취업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4) 이 내용은 미 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 고용훈련부(ETA)의 잡 콕스(Job Corps)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dol.gov/agencies/eta/job-corps>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35) 이 내용은 유스빌드(YouthBuild)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youthbuild.org/our-approach/youthbuild-usa/>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36) 이 내용은 미 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 고용훈련부(ETA)의 WIOA 유스 포뮬러(Youth Formula)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dol.gov/agencies/eta/youth/wioa-formula>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②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

미국 사회에서 농어촌 지역 무업 청소년의 비율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시 지역의 무업 청소년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거의 20%에 달하였다(Henderson, 2017.04.27).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단절(disconnected)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미국 내에서 무업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county) 중 7개 카운티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Lewis, 2021).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의 이스트 캐럴 파리쉬(East Carroll Parish) 카운티의 경우 무려 16~24세 청소년 중 81%가 무업 청소년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조지아(Georgia) 주의 스튜어트(Stewart County) 카운티(76.1%)와 핸콕(Hancock) 카운티(71.3%)가 그 뒤를 이었으나, 무업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낮은 10개 카운티 중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카운티가 단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 중소도시에 속했다(Lewis, 2021).

③ 농어촌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가. 농어촌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Support Systems for Rural Homeless Youth) 시범사업³⁷⁾

연방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가정 및 청소년 지원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이하 FYSB)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해 ‘농어촌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Support Systems for Rural Homeless Youth, 이하 SSRHY)’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미국 내 6개 주정부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다(표 II-23).

37) 이하의 내용은 Manhattan Strategy Group(2019)의 농어촌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Support Systems for Rural Homeless Youth) 시범사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ysb/ssrhy_reportfinal_508_12_06_2018.pdf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집을 나온 위기청소년이 주 사업대상이나 이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고, 또 농촌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소개하였다.

표 II-23. 미국 SSRHY 시범사업 참여 주정부별 프로그램 추진 개요

주(state)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참여 기간	지원 지역 (카운티)
콜로라도	콜로라도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지원 협력사업 (Colorado Rural Collaborative for Runaway and Homeless Youth)	콜로라도 주 복지부 (Colorado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 2014	- Alamosa - Moffat - Garfield - Huerfano - Montezuma - Montrose
아이오와	농어촌 지역 기회 및 연결 지원 사업 (Rural Opportunities and Connections, ROC)	아이오와 주 복지부 (Iow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 2014	- Boone - Ogden - Madrid
미네소타	미네소타 SSRHY 전환기 생활 지원사업 (The Minnesota SSRHY Transitional Living Program)	미네소타 주 복지부 (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 2014	원주민 보호구역 - Bois Forte - Leech Lake Reservations 등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 시범사업 (Nebraska Demonstration Project)	네브래스카 주 보건복지부 (Nebrask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9~ 2014	- Box Butte - Cheyenne - Dawes - Scotts Bluff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자립지원(B2I) 네트워크 (Oklahoma Bridge to Independence (B2I) Network)	오클라호마 주 복지부 (Oklahom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9~ 2014	- Blaine - Kingfisher
버몬트	노스이스트 킹덤(NEK) 청소년 지원사업 (Youth Factor NEK (Northeast Kingdom))	버몬트 주 아동가족부 (State of Vermont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9~ 2015	- Newport

* 출처: Manhattan Strategy Group (2019). Results of Support Systems for Rural Homeless Youth (SSRHY) demonstration projects 2008-2015. pp. 1-2의 표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위의 각 주에서의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콜로라도 주에서는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숙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고, 아이오와 주의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숙 및 무업 청소년과 각 가정,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취업준비를 지원하였으며, 미네소타 주는 농어촌 지역 및 원주민 보호 구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자립역량 개발, 취업 및 교육 지원 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Manhattan Strategy Group, 2019).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농어촌 지역 16~24세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지역당국 - 주정부, 공공기관 -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오클라호마 주 역시 동일 대상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존 프로그램 분석의 토대위에 이들을 위한 주정부 및 지역당국 차원의 4개년 계획을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버몬트 주는 농어촌 지역인 뉴포트(Newport) 시의 16~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다(Manhattan Strategy Group, 2019).

나. 버몬트 주 노스이스트 킹덤(Northeast Kingdom) 지역의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³⁸⁾

노스이스트 킹덤(Northeast Kingdom, 이하 NEK) 지역은 버몬트 주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에식스(Essex), 올리언스(Orleans), 칼레도니아(Caledonia) 등 3개 카운티를 아우르고 있다. 각 카운티의 중심지인 군청 소재지(county seat)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 2,500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다.³⁹⁾ 특히 올리언스 카운티 중 뉴포트(Newport) 지역은 앞서 살펴본 버몬트 주의 SSRHY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NEK 지역에서는 일찍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촌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NEK 청소년 서비스(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 이하 NEKYS)와 NEK 커뮤니티 액션(Northeast Kingdom Community Action, 이하 NEKCA)이 대표적인 운영 프로그램들이다.

38) 이하의 내용은 노스이스턴 버몬트 개발연합(Northeastern Vermont Development Association) 홈페이지(<https://www.nvda.net/towns.php>), 노스이스턴 킹덤 청소년 서비스(NEKYS: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 홈페이지(<http://www.nekys.org/>), 노스이스트 킹덤 지역사회 행동협회(NEKCA: Northeast Kingdom Community Action)의 홈페이지(<https://www.nekcavt.org/about-us/>)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모두 2021년 10월 13일 인출).

39) 이 내용은 노스이스턴 버몬트 개발연합(Northeastern Vermont Development Association)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nvda.net/towns.ph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EKYS의 지원 프로그램⁴⁰⁾

NEKYS는 1975년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이 주도하여 창립한 단체로 처음에는 안전한 주거 공간이 보장되지 않은 노숙 청소년 등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에는 12~25세의 노숙 청소년, 위탁보호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 학대 경험 및 법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임신 및 부모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고용, 생활기술 훈련 등의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표 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1) 전환기 주거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이하 TLP), 2)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Youth Development Program, 이하 YDP), 3) 전환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Youth in Transition Program, 이하 YTP), 4) 예방 및 안정화 지원 서비스(Prevention and Stabilization Service)의 4가지로 모두 직·간접적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다루지만 프로그램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가령 TLP는 안전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숙 상황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주로 지원하는 한편, YTP는 주거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주로 지원한다(표 II-24). YTP는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세부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표 II-24와 같다.

40) 이하의 내용은 NEKYS의 청소년 및 가족지원 서비스>Youth and Family Service)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www.nekys.org/nekys-youth-program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표 II -24. 미국 NEKYS의 청소년 지원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 및 내용

세부 프로그램	주요 대상	목적	지원 내용
전환기 주거 지원 프로그램 (TLP) ⁴¹⁾	노숙 및 노숙 위험이 높은 16~21세 청소년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놓인 위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매주 개별 사례를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지원 - 지원 대상별 필요한 자원 제공(정신건강 서비스, 약물치료, 학대치료 등) - 생활기술 훈련 지원(금전관리, 대인기술, 건강한 식사준비, 주택계약에 대한 이해, 집안일 방법 등) - 취업 및 교육 목표를 탐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 월세 등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금전적 지원 제공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YDP) ⁴²⁾	버몬트 주 아동가족부의 보호를 받는 15~22세 청소년	주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전환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별 맞춤형 전환기 계획 수립 - 일대일 지원과 집단면담 제공 - 청소년과 지역사회 자원 연결 - 생활기술 훈련 지원(의사결정, 금전관리, 취업 준비 및 유지, 사회적 기술, 교육 지원 등) 16세가 지나 주정부 보호기간이 종료된 청소년 또는 10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주정부 보호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 제공
전환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YTP) ⁴³⁾	안정적 주거 공간은 확보 되어 있으나 개별적 목표를 위해 더 발전하고자 하는 16~22세 청소년	향후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할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접근 - 소년법상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 제공 - 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 성인 지원자들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강점 개발 지원 - 취업 지원 - 대학 입시 서류절차 지원 -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서류절차 지원

41) 이 내용은 NEKYS TLP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www.nekys.org/transitional-living-program-tt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42) 이 내용은 NEKYS YDP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www.nekys.org/youth-development-program-yd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43) 이 내용은 NEKYS YTP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www.nekys.org/youth-in-transition-program-yit/>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세부 프로그램	주요 대상	목적	지원 내용
예방 및 안정화 지원 서비스 ⁴⁴⁾	가족 및 보호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12~23세 청소년	대상 가정이 안전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갈등 및 문제해결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24시간 연중무휴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도록 하기 위한 가족 중재 서비스 제공 • NEKYS 사무실 또는 개별 가정에서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 상담 시행 •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대상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지 제공 •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다른 서비스와 연결

* 출처: '표 II-24. 미국 NEKYS의 청소년 지원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 및 내용'의 출처는 각 세부 프로그램별로 본문 하단의 각주에 각 프로그램별로 제시함.

○ NEKCA의 지원 프로그램⁴⁵⁾

NEKCA 역시 NEKYS와 유사하게 12~22세 위기 청소년을 위하여 주거 및 식료품 등의 기본 지원에서 교육, 취업, 멘토링, 긴급 상황 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NEKYS와 차별점이 있다면 NEKCA는 NEK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단체로 청소년 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뉴포트 시를 포함한 올리언스 카운티 및 에식스 카운티 북부 지역의 주민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NEKCA는 지역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히 전환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⁶⁾

- 전환기 지원 서비스(Transition services): 위탁보호에서 벗어나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수업을 통해 생활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44) 이 내용은 NEKYS 예방 및 안정화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www.nekys.org/pssyf/>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45) 이하의 내용은 NEKCA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nekcavt.org/about-u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46)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NEKCA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및 정리하였다(출처: <https://www.nekcavt.org/programs-and-services/youth-young-adult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보호 및 안정화 서비스(Preservation and stabilization services for youth and families): 위기 상황에 처한 12~18세 청소년을 위하여 단기적인 주거 조정(주거 분리 등) 서비스와 개인 및 가족 상담을 제공한다.
- 제2의 기회(Another Chance): 임신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시험 준비를 지원한다.

④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미국의 농어촌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내용을 간단히 개괄하였고, 6개 주정부가 참여한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FYSB의 SSRHY 시범사업과 버몬트 주 NEK지역의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학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학업 또는 경제 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로 생활하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이수하도록 돕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여러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가령 학업지원 프로그램인 TRIO 프로그램에는 8개의 하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3개 프로그램은 모두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 업워드 바운드(Upward Bound)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 단계에, 탠런트 서치(Talent Search)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에, SSS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과 대학원 진학 지원(필요한 경우)에 중점을 둔다⁴⁷⁾. 이러한 접근은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47) 이 내용은 미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TRIO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지원 정책들 역시 여러 개의 정책이 모두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서로 강조점은 다르다. 잡 코프스(Job Corps)는 원스톱 포괄적 지원서비스를 지향하고, 유스빌드(YouthBuild)는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윤철경 외, 2016). WIOA 유스 포뮬러(Youth Formula) 프로그램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지역당국에 보조금을 할당한다⁴⁸⁾는 점이 특징이다.

6개 주정부가 참여한 SSRHY 시범사업과 버몬트 주 NEK 지역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노숙 및 가정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위기 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만 한 시사점이 몇 가지 발견되는데, 첫째, 이들 모두 지원 대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6개 주정부는 특정 카운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NEKYS는 노숙 학생의 열악한 여건에 대하여, NEKCA는 NEK 지역의 높은 빈곤율과 열악한 보건 상황에 대하여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⁴⁹⁾. 둘째, 위기 청소년의 본질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다. SSRHY 사업명과 NEKYS의 프로그램명을 보면 노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놓여있지만 여건이 열악하여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즉 넓은 의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노숙 청소년 뿐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과 무업 청소년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셋째,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공통점은 농어촌 지역

48) 이 내용은 미 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 고용훈련부(ETA)의 WIOA 유스 포뮬러(Youth Formula)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출처: <https://www.dol.gov/agencies/eta/youth/wioa-formula>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49) NEKYS의 내용은 청소년 및 가족지원 서비스(Youth and Family Service) 홈페이지에서(<http://www.nekys.org/nekys-youth-program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NEKCA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https://www.nekcavt.org/about-u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위기 청소년을 위해 학업 지원 뿐 아니라 취업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거주 및 교통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은 학업 및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등의 기반 시설 역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의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지원이 중요하다(Lewis, 2021).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둔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는 단순히 학업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연적으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기존 패널 (20대 중반) 질적연구

-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DB관리
- 2. 면접조사내용 및 기존 패널 관리조사
- 3. 기존 패널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DB관리

1) 기존 패널 조사 및 현황

(1) 기존 패널 현황

올해 기존 패널 대상의 면접조사는 201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양적 패널로 구축되어 2017년까지 양적조사에, 그리고 2018년부터 질적패널로서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중소도시 / 읍·면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 연구에서 시의성과 정부지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질적 패널 구축에 연구 역량 및 자원이 분산됨에 따라 기존 패널의 경우 대도시 지역의⁵¹⁾ 패널 22명은 심층면접조사를, 다른 지역의 20명은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이에 따라 올해에는 대도시외 지역의 패널 20명은 심층면접조사를, 대도시 지역 22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면접조사는 18명, 관리조사는 19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2021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내용이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초점을 두에 따라 올해 심층면접대상인 중소도시 / 읍·면지역 패널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지원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0) 제3장의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2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하였다.

3절은 김은정 교수가 집필하였고,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다.

51) 2020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지원방안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초점을 두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III-1. 기존 패널(2018~2021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구분	2018년(1차)	2019년(2차)	2020년(3차)	2021년(3차)*
나이	만18~24세	만19세~25세	만20세~26세	만21세~27세
조사완료 패널 수	면접조사 : 60명	면접조사 : 48명	42명 (면접조사 : 22명, 패널관리조사 : 20명)	37명 (면접조사 : 18명, 패널관리조사 : 19명)

* 출처: 김화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 98의 표 IV-1 업데이트

* 주: 기존 학교 밖 패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2020년에 3차 조사를, 중소도시 / 읍·면 거주자는 2021년에 3차 면접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패널이 참여한 면접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심층면접 조사대상자 현황

2020년에 심층면접 및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심층면접 및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던 42명 중 사전접촉에 성공한 인원은 총 40명이었으나 그중 올해 면접조사대상인 21명 중에서는 3명이 조사참여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는 1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표 III-2). 다른 19명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 먼저 올해 면접조사를 위해 접촉에 성공한 중소도시 / 읍·면지역 패널들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명 중 남자는 11명, 여자는 10명이었고, 연령대는 만 21세 1명, 만 24세 9명, 만 25세 4명, 만 26세 8명, 만 27세 2명으로 대체로 만 24~26세로 2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또한 2018년에 실시된 1차 조사 시 무업형이거나 학업형으로 구분되었던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상당수가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13명이 직장인으로 응답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4명, 기타 2명, 아르바이트와 대학원 재학 중인 사례가 1명이었다(표 III-2).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역시, 1차 조사 시점에서부터 일부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로 변경된 사례가 2건, 특별시·광역시에서 중소도시로의 변경이 2건, 읍·면지역에서 중소도시로의 변경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2절의 기존 패널 관리조사에 제시하였다(표 III-4).

표 III-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접촉 결과 및 현황

구분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생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면접조사/ 패널관리 조사완료 여부	현재 주로 하는 일/기타
1	직업형	남자	94년	27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2	직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3	직업형	여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4	직업형	여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5	학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자격증 준비
6	직업형	여자	96년	25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7	직업형	남자	94년	27	읍·면지역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8	직업형	남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조사거절	—
9	직업형	남자	97년	24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10	무업형	여자	97년	24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취업준비
11	학업형	남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군복무
12	무업형	남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13	학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취업준비
14	학업형	여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15	학업형	여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조사거절	—
16	학업형	여자	97년	24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17	직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18	학업형	여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취업준비
19	학업형	여자	97년	24	중소도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20	학업형	여자	96년	25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 대학원
21	무업형	남자	95년	26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사업체 운영
22	학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23	무업형	남자	95년	26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24	무업형	남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조사거절	직장인
25	무업형	여자	97년	24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구분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생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면접조사/ 패널관리 조사완료 여부	현재 주로 하는 일/기타
26	무업형	남자	95년	26	읍·면지역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27	학업형	여자	95년	26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28	무업형	여자	95년	26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29	무업형	남자	95년	26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30	무업형	남자	95년	26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취업준비중
31	학업형	남자	00년	21	특별시·광역시	연락두절	—
32	직업형	여자	97년	24	중소도시	조사거절	직장인
33	직업형	남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34	무업형	남자	98년	23	중소도시	조사거절	—
35	직업형	남자	95년	26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36	직업형	남자	96년	25	중소도시	관리조사완료	가족과 가게운영
37	무업형	남자	96년	25	읍·면지역	조사거절	—
38	무업형	남자	95년	26	읍·면지역	면접조사완료	자영업
39	직업형	여자	95년	26	중소도시	조사거절	직장인
40	학업형	남자	97년	24	중소도시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41	직업형	남자	98년	23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42	무업형	여자	96년	25	특별시·광역시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43	학업형	여자	96년	25	중소도시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44	학업형	여자	97년	24	특별시·광역시	연락두절	—
45	무업형	남자	99년	22	중소도시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자료 DB관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 1차 조사 시 60명, 2차 조사 시 48명, 3차 조사 시 22명(패널관리조사 20명), 4차 조사 시에는 18명(패널관리조사 19명)의 질적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은 2020년에는 33명, 2021년에는 추가 패널을 포함한 37명의 질적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 질적 자료에는 심층 면접 시 음성 녹음한 파일, 이를 녹취한 전사자료와 일부 현장 노트(field note) 등이 포함되며, 개인별, 조사회차별 자료의 양은 매우 방대한 수준이다. 이 데이터들은 연구진과 조사 및 패널관리 위탁기관의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특히 자료 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사자료는 MS word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질적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2018~202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면접조사를 통해 축적된 수십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자료들이 혼란 없이 정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몇 년도의 몇 회차의 어느 패널의 전사 자료인지에 대한 패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DB화하여, 기존 및 신규 패널을 구분하여 연도별(조사회차수별) → 개인ID별로(가명 사용) 정리하였으며, 식별가능 정보로 추정되는 내용은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하고 패널 ID별 연락처와 주소는 보안유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을 위해 꼭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 등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입력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 106의 그림 IV-3 업데이트

* 주: 기존 학교 밖 패널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2020년에 3차 조사를, 중소도시 / 읍·면 거주자는 2021년에 3차 면접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패널이 참여한 면접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III-1.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구축·정리 체계

2. 면접조사내용 및 기존 패널 관리조사

1) 면접조사내용

올해 조사내용 역시 2018년 1차 조사 당시의 조사내용⁵²⁾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성인기로의 성장 및 자립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본격적인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진로발달 과정과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주요 요인인 경제적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이는 벌써 20대 중반을 넘고 있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청년)패널들이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해 왔는지와, 그 속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자립은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성인으로서 자율성을 획득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이다(이윤석, 2011).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으로의 이행 경로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은 점차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심재휘, 이명희, 김경근, 2018). 최근에는 사회에서 성인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청년들을 켱거루족(심재휘 외, 2018)로 정의하고, 사회적인 큰 문제로 여기기도 한다.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력적인 조건을 갖추더라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직을 아예 포기하거나 장기간 동안 실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재휘 외, 2018). 또한 집값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을 위한

52) 2018년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 조사 설계 시 조사내용은 이들의 성장·발달과 성인기 이행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시체계(개인, 가족), 중시체계(지역사회, 이웃, 또래관계, 학교, 학원, 직장 등), 거시체계(사회경제구조, 정책 등)의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여(윤철경 외, 2018) 구성하였다.

독립적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은 이성과의 관계 혹은 결혼, 출산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성호, 2018).

이러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일찍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하여,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욱 직장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학업 중단으로 인해 혹은 그 이전부터 발생했던 부모와의 불화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혹은 주거지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겪었던 경제적 자립의 과정에 기초해서 지원 욕구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에 기존 패널 면접지는 이러한 경제적인 상태와 자립관련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면접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전문성을 지닌 학계 전문가, 정책연구 전문가, 현장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 면접에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면접조사 내용은 표 III-3과 같으며, 상세 질문 내용들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 기존 패널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등) •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고등,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 : 변화 여부 확인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 현재 생활 탐색 :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 -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경 내용 탐색 - 본격적인 진로결정 전,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경험 등 조사 - 학업 / 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 / 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 - 무업의 경우는 하루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하루 일과 등 • [무업인 경우]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 • 직업 결정 유무 및 직업 준비 상황 •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학교중단 인식 변화	• 과거 학교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시간 경과에 따른 학업중단의 의미 변화 등

구분	면접내용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미래 전망	• 현재 경제 상황 및 주거 상황 : 주 수입원, 소비현황, 재테크 현황 • 부모 / 형제의 경제적 지원 상황 • 주거상황(부모님과 거주 또는 독립생활) 및 주거 마련 시 어려움 • 대출, 빚, 신용불량 상황 • 자립의 의미 및 자립 여부 • 미래에 대한 걱정 / 불안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 (지지체계)	• 자신에 대한 인식(자존감 포함)과 만족 정도 • 소중한 사람 및 역할 모델 등 •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학업 / 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 및 중요도 등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 인식	• 지역사회 의 공간적 범위(거주지역 변경 여부 및 사유 탐색)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까지 도움 경험과 내용 - 현재 지역사회 내 지원 유무 및 내용, 미흡한 내용 및 지원 요구 • 자립관련 지역사회 지원 요구 • 지역사회 지원 및 전달체계 관련 -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지원을 위해 타 지역 이동 경험 유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 - 중앙부처 정책의 지자체, 기초지자체로의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 / 차별 경험 유무

* 출처: 김화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Ⅲ: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01~102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2) 기존 패널 관리조사

2020년에 실시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 중 대도시 거주자 22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 및 근황 확인을 위해 모바일 링크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패널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 조사내용(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주로 하는 일, 최근 고민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22명 중 1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올해 기존 패널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와 패널관리조사를 위한 일련의 조사절차는 그림 Ⅲ-2과 같다.



주: 2020년에는 대도시 거주자 22명은 면접조사에, 그리고 다른 지역 패널은 관리조사에 참여하였음.

그림 III-2. 2021년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절차

올해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19명의 일반적 현황은 표 III-4와 같으며, 기존 패널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전년도 표와 같이 비교, 제시하였다. 표 III-4에서 보듯이 총 19명 중 남자가 12명, 여자가 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남자 패널의 수가 많았으며, 학교 밖 유형은 학업형이 9명, 직업형 6명, 무업형 4명으로 학업형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의 중소도시 / 읍·면지역 패널관리조사(김희진 외, 2020)에서는 직업형과 무업형이 많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당연하게도 특별시 및 광역시가 15명으로 80%가까이 분포했고, 이외 지역의 경우는 이사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표 III-4).

19명 중 4명이 현 거주지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로써 취업 / 직장 때문에 이사한 사례는 2명, 타 지역 대학 진학과 가족문제로 이사한 경우는 각각 1명이었다(표 III-5).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III-6), 취업하여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이 8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가 4명, 취업 준비가 3명으로 전년도 중소도시 / 읍·면지역 거주 패널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증 준비, 가족들과 가게 운영, 군복무 등이 있었다(표 III-6).

표 III-4. 2020~2021년 기존 패널 관리조사 결과 일반적 현황

구분		2020년(중소도시 / 읍·면)*		2021년(대도시)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	100.0	19	100.0
성별	남	9	45.0	12	63.2
	여	11	55.0	7	36.8
학교 밖 유형 (2018년 1차 조사 기준)	학업형	5	25.0	9	47.4
	직업형	7	35.0	6	31.6
	무업형	8	40.0	4	21.1
현재 거주시·도	특별시·광역시	2	10.0	15	78.9
	경기도, 강원도	7	35.0	2	10.5
	충청도	4	20.0	1	5.3
	경상도	2	10.0	1	5.3
	전라도	3	15.0	0	0.0
	제주도	2	10.0	0	0.0
지역규모	대도시	2**	10.0	15	78.9
	중소도시	14	70.0	4	21.1
	읍·면지역	4	20.0	0	0.0

주 * 2020년 조사결과는 김희진 외(2020) 연구 pp.103~104에서 내용 발췌

** 2020년의 대도시 2명은 면접조사는 거절하였으나 이후 패널관리조사에 응답한 사례임.

최근 고민사항을 조사하였는데(표 III-6), 역시 취업 / 이직관련 고민이 8명 (42.1%)으로 가장 큰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향후 진로에 관한 고민이 5명 (26.3%)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의 중소도시 / 읍·면지역 패널들과 유사한 것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20대 중반 패널들에게는 지역과 관계없이 취업 / 이직을 포함한 진로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 올해 조사에서 대도시 패널들 중 2명은 결혼 / 이성친구와의 교제와 관련된 고민을 응답했고, 또 다른 2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건강 및 인간관계 문제, 집과 주택관련 건이 고민이라는 응답도 각각 1건씩 조사되었다(표 III-6).

표 III-5. 기존 패널의 현거주지로의 이사 여부와 사유

구분		2020년 ^{주)}		2021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이사 여부 (이전년도 대비 거주지 변경)	전체	20	100.0	19	100.0
	예	4	20.0	4	21.1
	아니오	16	80.0	15	78.9
이사 사유	전체	4	100.0	4	100.0
	취업 / 직장 때문에	1	25.0	2	50.0
	진학(타 지역의 대학 입학 등)	0	0.0	1	25.0
	결혼때문에	0	0.0	0	0.0
	가족(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1	25.0	1	25.0
	주택비용 때문에(높은 월세 등)	1	25.0	0	0.0
	기타(혼자살고 싶어서)	1	25.0	0	0.0

주: 2020년 조사결과는 김희진 외(2020) 연구 p.104에서 내용 발췌

표 III-6. 현재 주로 하는 일과 최근 고민사항

구분		2020년 ^{주)}		2021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	100.0	19	100.0
현재 주로 하는 일	대학교 재학	1	5.0	0	0.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5	25.0	4	21.1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5	25.0	4	21.1
	취업하여 직장에 다님	7	35.0	8	42.1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	10.0	0	0.0
	기타	0	0.0	3	15.8
최근 고민 사항	취업 / 이직 관련 고민	11	55.0	8	42.1
	나의 건강 / 친구 및 인간관계 고민	2	10.0	1	5.3
	결혼, 이성친구 교제 관련 고민	1	5.0	2	10.5
	집, 주택에 대한 고민	1	5.0	1	5.3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고민(주택문제 제외)	2	10.0	2	10.5
	향후 진로에 관한 고민	3	15.0	5	26.3
	기타	0	0.0	0	0.0

주: 2020년 조사결과는 김희진 외(2020) 연구 p.105에서 내용 발췌

3. 기존 패널 분석 결과

1)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요

(1) 심층면접 과정

면접대상자들에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기준에 따라 먼저 연구참여 동의서, 조사설명문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수령한 후 면접 참여를 확정하였다. 이렇게 면접참여가 확정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만 21~27세)을 대상으로 2021년 6월에서 8월까지 심층면접이 수행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줌(Zoom)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진행자들의 심층면담 진행방식과 면접내용 이해를 위해 면접자 교육방식의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면접대상자들의 예전 전사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사전정보와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래포를 형성하고 순조롭게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현재 생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과 변화, 자신에 대한 미래 및 진로, 인간관계, 지역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포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와 진로에 초점을 두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상세 면접 내용은 앞의 표 'Ⅲ-3. 기존 패널 면접조사 내용'과 같다. 심층면담은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면접참여자가 이제 성인으로서 경험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Ⅲ-3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진행자가 질문을 하면, 참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참여자가 답변을 하면 그 즉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면담진행자가 참여자의 답변에 추가적/보충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답변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일반적으로 70-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접참여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Zoom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황이나 음향 관련으로 면담자의 면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행자는 이를 다시 질문하여 추가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질문에 따라서 면접참여자가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질문은 보류한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면담자는 참여자의 태도와 행동과 면담 당시의 분위기 및 상황을 메모하였으며, 이를 필드노트(field note)로 작성하였다. 필드노트는 면담 녹취록과는 별개의 문건으로, 면접진행자가 인지한 면접상황과 함께 분석 시 유의할 점을 서술하여, 추후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은 추가확인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회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분석은 2021년도에 진행된 면담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계 1’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후 지금까지의 삶을, 특히 미성년 시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단계 2(유형분석)’에서는 ‘단계 1’에서 발견된 범주들끼리의 연결점을 발견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별 구분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1’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를 유형 1, 2, 3, 4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삶과 미래/진로 관련 시사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방법, 의미, 해석에 대해 먼저 연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동료보고회(peer debriefing session)(Creswell, 2015) 형식의 워크숍을 연구진과 외부의 관련 분야 및 질적연구 전문가와 함께 개최, 진행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질적연구 전문가로부터 서면방식의 자문의견을 받아 분석결과 수정에 반영하였다.

(2) 면접참여자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2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4명이 면접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는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면접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명 수
성별	남	10
	여	8
거주지역	중소도시	15
	읍/면 소재지	3
자퇴시기	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6

면접참여자들은 남자 10명, 여자 8명이었고(표 III-7), 연령상으로 대부분 20대 중반의 성인이었다.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교가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중학교 1명, 초등학교 1명이었다(표 III-7)(면접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현황은 표 III-8 참조).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만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학업 중단 시기로부터 일반적으로 7~1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학업 중단이 현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학업중단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자신의 삶 안에서 해소한 상태로, 성인기에 해당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일어났던 학업 중단의 경험이 이후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의 미래와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계획,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학업 중단 이후의 성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궤적을 살펴본 후 이러한 궤적을 기반으로 하여,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 진로를 4가지 유형들로 나누어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비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었다.

표 Ⅲ-8. 면접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번호 ^{주)}	성별	학업중단시기	현재 유형	거주지	현재 하는 일
1	남	고2	직업형	중소도시 : 제주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음
2	여	고	직업형	중소도시 : 경북	세무 관련 일을 하고 있음
3	여	고2	직업형	중소도시 : 충남	광고회사 마케팅
4	남	고2	직업형	중소도시 : 충남	게임장 아르바이트
5	남	고1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아르바이트 / 추후 펜션 사업 희망
6	남	고3	직업형	중소도시 : 경남	식당 아르바이트 / 지게차 자격증 준비
7	남	고2	직업형	읍·면지역 : 충북	아르바이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8	여	고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간호조무사 / 간호사자격증 준비 할 예정
9	여	고1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
10	여	고1	학업형	중소도시 : 경기	평일: 아르바이트 / 주말: 대학원 재학
11	남	고1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휴대폰대리점
12	여	중3	직업형	중소도시 : 강원	간호조무사
13	남	고	직업형	중소도시 : 충남	장비 설비 회사
14	남	초5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물류 관련 회사 사무직
15	여	고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취업 준비
16	남	고	직업형	중소도시 : 경기	비트코인 유사 사업체 운영 / 취업 준비
17	남	고	직업형	읍·면지역 : 전북	치킨집 운영
18	여	고2	직업형	읍·면지역 : 전남	아르바이트

주: 이 번호에 해당하는 면접참여자 와 표 Ⅲ-2(p.99)에 포함된 번호 및 면접참여자는 동일하지 않음.

2) 분석 결과

(1) 1단계 분석 : 학업 중단 이후의 삶의 궤적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절차로 진행하면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진행은 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범주화된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며, 구성된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상위범주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1단계 분석의 경우에는 스트라우스와 코빈(1990)의 개방코딩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이란 텍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 그리고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자료를 키워드에 따라 분석하면서 검사한 후,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개념화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도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먼저 개념화하였고, 그 결과 23개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 개념을 유사 개념끼리 그룹화하여 하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하위범주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6개의 하위범주를 ‘학업중단 이후 미성년기 삶’이라고 하는 상위범주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9과 같다.

먼저, 학업 중단 이후 이들이 경험한 미성년기(청소년기)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 학생’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낮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으로 인한 무시나 차별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참여자들이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 시기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학업 중단 이후에 이들이 경험한 청소년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23개의 개념과 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이를 통하여

1개의 상위 범주(‘학업 중단 이후 미성년기의 삶’)가 도출되었다. 상위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6개의 하위범주(‘학업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지속에서의 축구 및 지원’,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차별과 부정적 인식’)와 각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9. 학업 중단 이후의 삶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업중단 이후 미성년기 삶	학업 지속과 중단	자퇴 이후 학업을 중단함, 자퇴 이후 검정고시를 봄, 대학에 진학함, 대학원 진학
	아르바이트 경험	미성년으로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무시, 사회생활 습득, 인간관계 숙지
	학업 지속에서의 축구 및 지원	학업숙려제도, 부모의 독려 및 지원, 주변 사람들의 독려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방임, 믿고 맡김, 갈등, 부모 폭력, 가출
	청소년기 유대관계 부재	친구들과의 관계 중단, 학교 관련 유대 관계 부재
	차별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음, 친구 부모님들이 꺼려함, 또래의 놀림,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무시 당함, 청소년=학생에 반한 위치에 대한 인식

① (자퇴이후) 학업 지속과 중단

대부분의 올해 연구참여자(16명: 89%)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에 학교를 자퇴하였다. 그 이유로는 ‘학교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학교 다니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 등 학교와 관련해서 그만두었다고 하였으나, 부모의 폭력이나 갈등, 또는 학교 친구들과의 불화 및 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 상 자퇴의 이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념을 만들어서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퇴 이후에 학업을 지속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를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업지속’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둔 후에 개인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른다든지, 검정고시를 본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그 이후 대학원에 진학에서 학업을 지속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사례 1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에 진학하였다. ○○대학에서 전기 관련 전공을 하였고, 지금 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사례 1 : 아무래도 학교 그만두고, 전역하고 나서 주변에서 ○○대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가 있어서 1년 교육과정을 받고 수료하고..

면접자 :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서 대학 강의를 수강하신 거예요?

사례 1 : 네. 1년 교육 과정 수료해서.. 그리고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국비지원이라고 하나, ○○대학이 그게 된다고 해서 지원을 받고 ○○시에 있는 곳으로 다녔어요.

사례 1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제재나 부모와의 갈등이 없었고, 군대 갔다 온 후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있는 전기 쪽으로 학업을 지속하였으며, 지금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 1처럼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 공부 / 배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학업을 지속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업 선택이나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고등(또는 중등, 초등)학교 자퇴 이후 개인적으로도 따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완전히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학업을 지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또는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특히 남자 면접자의 경우에 학업을 지속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때에, 상황 상 군대에 가게 되어서 그 시기를 놓쳤고 이후 다시 학업을 지속할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에서 결정되었는지, 또는 상황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비자발적인 상황의 문제에 의해서 학업 지속이 힘들어졌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② 학업 지속에의 촉구 및 지원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생으로 전제되고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도들이 속속 마련되어, 2021년 현재 시점에서는 다양한 학업 지속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20대 중반의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자퇴한 것은 길게는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당시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부재했거나 막 정비되기 시작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거나 또는 지원을 받아서 학업 지속이라는 삶의 경로를 택한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업 지속과 관련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 : 자퇴유예기간(연구자주 : 학업속려제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2주 동안이잖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2주이면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시 제도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 중에 학업 지속을 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다시 학업을 재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 중 많은 수가 학업을 지속한 것은 부모가 계속해서 공부 할 것을 제안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 의미 있는 타자들(선생님)이 독려를 하고, 그것에 힘입어 연구참여자들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지지망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학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그 당사자는 매우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사자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적인 지원 / 연결망이

부재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에서 다양한 학업 지속 지원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앞으로는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도 지원 정책 자체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아르바이트 경험

면접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20대 중반인 현재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전단지 붙이기, 뷔페식당, 패스트푸드점 근무, 편의점, 베이커리, 공장, 미용실, 물류센터, 식당 서빙, 식당 주방보조, 택배, 노동, 공장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는 아직 청소년이고 어렸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하였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나 근무 조건 등에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계 문제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과 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당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근로기준법이 청소년 노동까지는 연계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들이 청소년으로 일을 하던 7~10년 전에는 그 상황이 더 열악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동시에 사회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례 13 : 거의 집 근처 동네에서 다 했거든요. 고깃집, 치킨집, 휴대폰 가게도 그렇고 근데 다 좀 면접을 신기하게 봤어요. 동네 사장님들이 일자리를 주는데.. 중략... 원래 저희 동네 사장님들끼리 서로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얘기하다가 한 번씩 술 마시는 자리도 있다가 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사례 13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다. 어리고 손이 느려서 일을 늦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느린 작업 때문에 사업장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혼자 일찍 나와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을 지켜 본 사업주가 사례 13을 좋게 봤고, 그것이 이 계속 입소문이 나면서 사례 13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 13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익힐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일을 하고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주변 사람들의 자신에 대해 좋게 보고, 추천을 해 줘서 올 수 있었으며, 자신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한 경험은 개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부당한 경험과 차별 등을 느끼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노동경험을 하면서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고 이것을 직업 모색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남들 보다 일찍 일/노동 경험을 한 것이 이들의 구직활동과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개인은 아직 일/노동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설계와 노동권에 대한 자기 방어를 하기

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긍정적인 생애발달과 진로모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자퇴를 하고 난 후에 당사자와 부모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이 하는 결정에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자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생겼다’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학업 중단 당시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와 회복되고 갈등이 많이 감소했다고 답변하였다.

사례 1 : 그 때 처음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부모님이 그러면 그만두고 1년 안에 검정고시를 합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퇴를 (중략) 해도 괜찮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리고 자퇴를 하고 또 1년 안에 합격을 해서 그 후로는 따로, 아마 그 때부터 제가 뭐를 하든 상관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사례 12 : 학교 그만둘 때 갈등이 있었고, 딱히 큰 건 없었어요. 학교 그만 두면서 그런 게 컸지.

면접자 : 그런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혹시 학교 중단이라는 경험이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사례 12 : 그 당시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 살짝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역)가고 나서 혼자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똑같아요.

이상에서 봤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르게, 학업중단 이후에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부모와의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제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만큼(“그후로는 따로, 아마 그 때부터 제가 뭐를 하든 상관 안 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제가 ○○가고 나서 혼자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부모와의 갈등이 학업 중단 당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거나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폭력에 노출되어서 가출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사례 5가 그러하다. 사례 5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지금도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사례 5는 다른 연구참여자와는 다른 복지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례 5 : 저처럼 학대를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었으면.. 어리고 가정상황이 원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5를 통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및 학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의 갈등 / 불화의 문제는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개인의 건강상태 및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등의 환경과 청소년 개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학교 관련 문제, 또는 학업 지속의 문제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기타 환경 내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 관계성 내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⑤ 청소년기 유대관계 부재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를

떠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6 :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학교 생활도 즐거운 추억일 수 있는데, 저만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면접자 :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사례 6 :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친구가 학교 생활 했던 얘기를 하면 부럽더라고요.

면접자 : 축구하고 이런 이야기들..

사례 6 : 네. 놀았던 얘기나 학교에서 소소하게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들 들어보면, 저는 그 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게 있죠.

사례 6뿐 아니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학창시절을 함께 한 친구들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더러는 그 때 친구들과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만나기는 하지만, 학업을 지속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됨을 언급하였다. 즉, 좋은 친구들이지만, 자신이 학교를 떠남으로 인해서 삶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이해 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진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한편, 사례 14는 다른 연구참여자와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그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서 또래 관계 형성 자체를 청소년기에 새로 형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이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것과는 달리 사례 14는 초등학교 5학년에 학교를 떠났다. 그에 대해 사례 14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급생들보다 2년 정도 나이가 위이기도 하고 해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고, 따라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14 : 일단 학교를 다녔으면 진로 같은 것도 하고 싶었던 생각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아쉽고, 솔직히 대학교나 들어가고 싶기도 한데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어요. 중략.. 초등학교만 다니고 교복도 한 번도 안 입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해 보고 많이 아쉽죠..

면접자 : 그러면 학교 중단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중단하셨는데 그 때 학교나 정부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다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례 14 : 그냥 맞는 학년이라도 보내줬으면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애매한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도 몰랐고 원래 중학교에 가야 되는 나이였는데.. 원래 △△△에서 살다가 와서 더 안 좋아서.

면접자 :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누군가가 줬더라면 학교를 굳이 중단하지 않아도 계속 다니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례 14 : 네.

청소년기에 낮은 환경에 노출되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중도 입국 청소년에게는 그 어려움이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크다. 사례 14의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정착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 / 유대를 형성하기도 힘들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사례 14는 청소년기 시기에 자신이 안착할 수 있는 또래 / 학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로 인해 상당히 이른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사례 14의 경우에는 자발적 학교 중단이 아닌 상황에 의한 비자발적인 학교 중단으로 판단된다. 사례 1453)는 “솔직히 대학교나 들어가고 싶기도 한데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 했다. 이처럼 학교를 그만둔 문제는 청소년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 학업을 재개하거나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비자발적인 학업 중단을 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력 저하의 문제는 이들의 진로 모색과 한국 사회 적응과 안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 적응 문제는

53)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사례 14의 경우에는 중도입국이나 학교중단이라는 청소년기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규직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 청소년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학업 지속 관련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⑥ 학업 중단과 관련한 경험 / 차별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한 후에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자신은 문제아가 아니고,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멍청하다”,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것”, “불량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시선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신경에 거슬렸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 : 처음에 그만두고 나서 주변의 시선이 안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그런게 있어서, 학교를 그만 두니까 약간 자기 아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례 13 : 학교를 그만 두면 약간 불량,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례 3 : 애들이 놀려요. 검정고시 봤다고 하면 놀리더라고요.

면접자 : 그거는 친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례 3 : 아뇨. 멍청하다고 놀려요. 저는 개보다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퇴 하나로.

면접자 : 그건 들으면 기분이 상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례 3 : 짜증이 나죠. 그럴 때는

면접자 : 짜증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나요.

사례 3 : 네. 그거는 항상 나와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고.

사례 10 : 이력서를 쓰는데, 자퇴한 것은 빼고 쓰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좀 쉬쉬하는. 그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학교를 벗어나 ‘청소년 = 학생’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갈등과 불화,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보여진다. 사례 19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성인이 된 지금도 지속된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9 :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복을 입고 학교를 헤매는 꿈을 항상 꾸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절대 아니고 고등학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니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꿈을 꾸면 마음이 좀 힘들죠. 내가 왜 만날 그런 꿈을 꿀까..

청소년기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주변의 반응과 압력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더구나 사례 19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20대 중반이 된 현재까지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에서 서술할 사례 10의 인터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청소년은 곧 학생이고,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사례 10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자퇴를 하고자 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검정고시를 꼭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퇴를 허락받았다고 한다. 17살 때 자퇴한 이후, 18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편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사례 10 : 제가 막 대학원에서 과제를 발표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얘기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말을 안 하면 맥락이 안 맞아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해서 며칠동안 되게 괴로웠고 근데 들으신 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 주셔서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마음 속에는... 중략... 근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래도 너는 대학원도 다니고 잘 극복했다..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멋있는 건가.. 하는.... 저는 그냥 항상 저는 되게 자퇴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는 일반적인 루트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이지 않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때 자퇴할 때도 생각했던 게 내가 일반적인 루트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낙담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쨌든 대학교를 다니고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학교에 가게 됐잖아요.. 중략.. 내가 옛날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낙담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내가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 제가 옛날에 그런 자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례 10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인 삶의 경로로 이끌고, 이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0은 자신이 고등학교를 자퇴함으로써 이러한 경로압력에 반하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성인이 된 지금은 통상적인 삶의 경로를 밟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즉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를 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양한 선택지와 그와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 사례 10은 결국 남들이 ‘잘 극복했다, 멋있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 대해 정말 그것이 자신이 원한 것이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는 자퇴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감지하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남들보다 오히려 더 ‘일반적인 루트’를 차근차근 밟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왜 자퇴를 했을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에게 학교 중단 이후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 즉, ‘일반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었다면, 그녀는 검정고시 → 대학진학 → 대학원 재학이라는 통상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통상적인 삶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중단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경로를 점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과 삶의 경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2단계 분석: 현재의 삶 및 진로 모색

① 유형별⁵⁴⁾ 구분

앞에서는 학업 중단 이후 이들이 경험했던 일과 여정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을 1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1차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현재 삶과 진로 모색 과정을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연도에서는 그 이전과는 달리 진로 모색과정에 보다 방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로 어떠한 진로 모색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형별 구분의 기준으로 ‘학업 중단 이후 학업 재개 여부’, ‘자립상황’, ‘현재 직업의 안정성’, ‘삶 / 직업의 미래 전망’, ‘부모의 지원’, ‘심리적 안정성’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은 표 III-10에 제시된다.

각 유형별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학업 중단 이후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관련 공부 / 자격증을 취득한 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20대 중반 청년층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연구참여자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 유형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했지만, 검정고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단했던 ‘학업을 재개’하였으며, 그 이후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1, 2, 3, 8, 9, 12, 13, 14가 이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학업을 재개하지 않았으나, 다른 방향에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연구참여자들로, 연구참여자 4, 6이 이 유형에 속한다.

54) 각 유형별로 그 기준 및 특징에 부합하는 명칭을 선정하여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또 다른 차별이나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전문가 워크숍, 2021.9.24)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유형 1, 유형 2와 같이 숫자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Ⅲ-10. 유형 도출 기준과 유형별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학업 중단 이후 학업 재개 여부	+	-	+	+/-*
자립 기반 마련 (수입 / 소득 측면)	+	+	+**	-
직업의 안정성	+	-	+	-
직업 미래 전망	+	-	+	-
부모의 경제적 / 정서적 지원	-/△	-	+	-
심리적 안정성	+	-/△	△	-

주 * + : 학업 중단 이후 검정고시, 대학 진학 등 학업을 재개함. -: 학업 중단 이후 학업 지속이 중단됨.

** + : 완전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과 소득 측면에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짐. 이하, 직업의 안정성, 직업 미래 전망,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심리적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 기호는 이들이 각각의 항목에서 안정성을 마련했다는 것을 나타냄. 반대로 -는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는 안정과 불안정성의 중간지점에 있음을 나타냄.

세 번째 유형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부모님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의 자립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형들과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유형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함의는 다른 유형과 상이할 것이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7, 10, 17이 속한다. 네 번째 유형은 자립의 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이다. 학업 재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에는 삶의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 이 속한다. 물론 20대 중반에 이르러서까지 아직 성인기 진입을 못한 채 진로 모색이 지속되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로 모색도 시작하지 못한 채, 아직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일반적인 성인기 모색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5, 11, 15, 16, 18이 속한다. 이상의 유형 구분을 정리하면 표 Ⅲ-11과 같다.

표 III-11. 연구참여자 유형구분과 각 유형별 특징

분류	유형	각 유형별 성격 / 특징	연구참여자
자립의 기반 마련 ⁵⁵⁾	유형 1	- 자퇴를 한 후 학업 재개 - 다양한 진로 모색을 통해 자기 스스로 삶의 기반 /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임	1, 2, 3, 8, 9, 12, 13, 14
	유형 2	- 자퇴를 한 후 학업을 재개하지 않음 - 학업재개와 상관없이 자기 삶의 기반을 마련해 옴	4, 6
	유형 3	- 다른 연구참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업 / 학업 관련 진로 모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됨 - 비교적 성공적인 진로 모색을 했지만, 이것은 부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됨 - 학업중단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	7, 10, 17
자립의 기반 불확실/미흡	유형 4	-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 - 심리적 /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도 함 - 아직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청소년기 가정 /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 / 학대의 문제가 성인기가 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침	5, 11, 15, 16, 18

② 유형별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중단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만들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는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각 유형별로 살펴볼 항목은 ‘학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거주 형태 및 가족 / 지인 관계’, ‘경제생활 : 소비 / 지출 / 재테크’, ‘미래 계획 / 진로’,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55) 여기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은 완벽한 자립기반을 성취했다기 보다, 비교적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가. 유형 1

○ 학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 학업 중단을 결정하고 감행했으나, 이후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중단했던 학업을 재개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중단했던 학업을 재개한 과정을 보면, 부모가 종용해서 라기 보다는 학업 중단 후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학업 재개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2 : 대학을 가려면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지 나중에 괜찮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학업중단을 하게 됨).. 중략..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알바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주 : 햄버거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하고 홀서빙하고 그 정도. 그 홀서빙을 거의 많이 주로 많이 했고 ○○○(햄버거프랜차이즈)에서는 좀 짧게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홀서빙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현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진로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하였으며,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삶을 살아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유형 1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4대보험과 복지 혜택을 받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기기사, 세무사, 광고회사 마케팅 담당, 간호조무사, 장비설비 기기 관련 회사원 등이다. 이들은 현재 직업의 안정성, 임금 수준, 복지 측면,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거나 적어도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별 커다란 변수가 없으면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례 2(세무사) : (직장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세무 회계로 전공을 제가 따로 공부를 하고 아예 이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례 1(전기기사) : 일단 일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술직군

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게 일단 다른 거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셀프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는 셀프가 안돼서 도와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기술직군이라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중략... 그래서 아마 평생 직업으로 가지 않을까요.

유형 1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학업 중단, 검정고시 선택, 현재 직업과 관련한 대학 및 학업 수행, 취업 준비 및 현재 직업 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를 하고, 관련 지원 및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많은 정보를 수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국비카드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았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를 모색하고 준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적극성은 단순히 공적 프로그램과 정책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자본화 하는데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례 13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사례 13은 적극적인 자기 주도성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취업과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립을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동네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그 평판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 직장을 잡았다. 또한 거기에서의 좋은 평판을 기반으로 하여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설비 쪽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에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 3 : 원래 저희 동네 사장님들끼리 서로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얘기하다가 한 번씩 술마시는 자리도 있다가 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요.. 중략...처음에는 손에 일이 안 익으니까 느리잖아요. 근데 일을 만약에 4시까지 출근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느리니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혼자 일찍 나왔거든요. 1시쯤 미리 준비하고 사장님이 보고 놀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 같아요.

사례 13은 유형 1의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업을 재개 하기는 하였지만, 학업 재개 자체가 중요한 변수였다기 보다는 일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고 인맥을 형성하여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특히 돋보였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의 방식을 개발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그를 통해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간 것이다.

사례 13 뿐 아니라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택과 삶의 경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 동기부여를 어떻게 추동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가가 향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겠다.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유형 1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삶의 여정은 개인적/개별적인 성공담으로 머물게 되고,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취동기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거주형태 및 경제생활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연구참여자 1, 3, 8, 14이었고, 나머지 2, 9, 12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3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거주 형태에 있어서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한편,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모두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사는 연구참여자들도 공동 거주만 하고 있을 뿐 경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 있었다. 부모에게 생활비까지는 아니지만, 집세의 일부와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1 : 용돈 식으로 드리는 것은 따로 없고.. 그거 말고 집에 인터넷, tv랑 전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내기는 해요.

면접자 : 그리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독립할 생각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례 1 : 독립할 생각은 있긴 한데.. 이게 일단 여기에 저 밖에 없는게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형이나 동생이 내려오면, 그 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례 1의 인터뷰를 통해서 볼 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로는 아직은 재정적인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자신이 집과 생활 유지에 관련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의 집을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일체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사례 13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경제적인 독립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은 소비, 지출, 재테크 관련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례 1 :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보험 저축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확정이자라서 이자가 계속 쌓이는 식이어서. 또 기간이 10년납이어서.. .. 설계해 주시는 분을 통해 알게 되어서,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여유되는 선에서 하고 있고... 중략..

지금 납입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례 2 : 저축은 50정도 해요. 적금을 하나만 든게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돌려 가면서 들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50정도 씩 나가는 것 같아요.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사례 9 : 거의 (월급의) 60-70% 정도는 돈을 모으고 나머지는 일단 제가 여기 사는 집이 전세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대출이자 비용이나 관리비나 그런 것들... 중략... 그리고 제가 모은 돈이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긴 하는데 펀드에는 조금만 들어가 있고 갖고 있는 적금을 가지고. 중략.. ○○채움 통장도 하고 있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경제적 안정성 관련 기반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형 1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저축, 적금, 보험, 주식 등의 상품에 가입해 자신의 수입을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경제/자산에 대한 계획과 생각, 그리고 운용 관리는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이들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부모가 특별히 간섭할 것도 없고, 따라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유형 1의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안정된 직업과 수입을 바탕으로 부모의 보호와 통제에서 벗어나 성인 대 성인으로서 부모와 새로운,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경제적 독립/자립 상황이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 미래 계획·진로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연령대의 청년층은 아직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 계획과 진로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 사례 1의 경우에 전기기사 일을 자신의 평생직업으로 삼을 생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직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직업 유형을 바꾸는 이직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다고 하면서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무사인 사례 9도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별다른 불안과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였다.

사례 2 :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거를 다 하고 있고 나도 이제 주변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스스로 다른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스스로 내 밥그릇은 챙기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면접자 : 멋지시네요. 그러면 그런 뭔가 지금 갖고 계신 그나마 고민이 이제 이직에 관한 거였는데 어떠세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게 있으세요?

사례 2 :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것 같아요 불안한 건 없어요.

면접자 : 그냥 뭔가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지만, 그냥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다 이런 기분은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사례 2 : 네. 더 나은 직장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고 내 미래가 어떨까 나중에 돈을 못 벌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없는 거 같아요.

아네트(Arnett, 2004)에 따르면 후기 산업 사회에서 20대 중반까지는 미래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자신의 직장과의 관련한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와 관련해서 별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자신감과 안정감은 학업 중단 이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학업 중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한 결과 지금 20대 중반인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

한편, 이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과 평가는 다른 특징들과는 달리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사례 2, 13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에 대해 별 다른 후회가 없고,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사례 2 : 저는 오히려 그만뒀서 더 다행이다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해요.

면접자 : 어떤 부분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례 2 :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이러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들 후회하기는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나오기는 했는데도 가서 하는 것도 없고, 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 보면 군대를 잡아요. 그런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일단 대학을 가야돼서 가긴 갔는데 전역을 하고 나면 다시 복학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중략.. 아무래도 이제 취업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힘든 일 등은 또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전기쪽이나 건설 쪽은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난인데, 또 다른 쪽에는 취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웃긴 것 같기는 해요.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는 주변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외에도 사례 2의 경우에는 ‘빨리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던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학업 중단에 대해서 별다른 후회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례 3, 8, 9, 12는 대학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또한 위에서 학업 중단의 장점을 이야기했던 사례 2도, ‘사회생활을 빨리 한 것은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자와의 초봉 격차를 언급하며 학력에 따른 차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 외에도 사례 3과 8은 고등학교 시절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또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부재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례 9와 12의 경우에는 대학을 나오면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운데, 자신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혼자서 알아보면서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은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들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이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불편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사례 9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사례 9 :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책으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자퇴는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 뭐 꼭 문제가 자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좀 환경이 안 좋다거나 그런 사람이 자퇴를 하는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도, 환경도 괜찮고 가정환경도 그렇게 자란 사람도 자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인 선택이고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선입견 같은 거를 안 받게 그렇게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에서 볼 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도 과거 학업중단으로 인해 타인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편견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형 1의 경우,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도전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왔지만,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직면해서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혼란해진 경우도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처럼 의지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부정적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례 9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업 중단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자립에의 전망

유형 1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청소년기에 학업중단을 한 후에 삶의 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진로와 미래 계획, 자립에의 전망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삶을 기획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 경험이 없는 20대 중반 청년기들의 상당수가 아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혼란해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접자 : 그러면 스스로 느꼈을 때 본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례 12 : 아니요.

면접자 :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례 12 : 그냥 경제적인 책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하는게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자 : 경제적인 이런 자립이나 이런 것들은 이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례 12 : 네. 제가 어리다고 느끼는 거죠.(중략) 고민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면 저는 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잘 안해요. 근데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성인이 된 것 같고 할 때 나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정도.

사례 12에 따르면, 자신은 완전히 성인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의 심리적인/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은 아직 어리고, 성인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12 뿐 아니라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 중 상당수가(사례 1, 3, 9, 12)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립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뒤에서 언급할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특성과 차별되는 점이었다. 물론 경제적인 지표가 자립을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안정감과 자신감은, (비록 이들이 사례 12처럼 “아직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성인/자립 상태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앞으로의 삶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유형 2

○ 학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사례 4와 사례 6으로 이들은 모두 학업을 중단한 후 검정고시를 포함한 학업과 관련한 직업을 갖거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례 4의 경우에는 현재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편의점 및 주유소, 노래방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면접자 : 일을 고르실 때 무슨 이유가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4 : 일단 학력 상관 안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 써 줘서 보통. 돈도 그래도 좀 벌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면접자 : 그러면 알아보실 때에도 지인들한테 거의 여쭙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례 4 :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아는 사람들이 알바나 하라고.

위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 4와 사례 6의 경우에는 학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도 인터넷이나 그 외 공식적인 취업공고 등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알음알음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례 6도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보안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일어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현재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4와 사례 6은 비공식적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의 특성 상 직업의 안정성이나 복지 혜택 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면접자 : 일하시는 곳은 4대 보험이나 복지 수준은 어때요?

사례 4 : 그런 거는 아예 없어요.. 종약.. 세금도 안 내고.. 종약.. 예를 들어서 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받으려면, 이제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그전에 근로를 했다, 그전에 4대 보험 끼고 근로했다는 게 있으면, 지금 놓고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예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학력을 이야기함)에 비해서는 월급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월급 수준은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사례 4 :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뭐가 안 맞으니까 화가 엄청 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종약..크게 몸을 건드린다든가 하는 거는 진짜 가끔 한 번 씩 일어나는데 보통 욕은 맨날 하죠. 욕은 거의 옵션으로 달고 일하는 거죠. 욕 먹고 하는 거는.

이에 대해서 유형 2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기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족의 존재와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 수준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에서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거주형태 및 경제생활, 그리고 가족 관계

사례 4와 사례 6 모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주거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자신이 지고 있었다. 사례 4는 아내와 1살이 된 아들과 함께, 사례 6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식비, 전기/가스, 그리고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면접자 : 그러면 경제활동을 혼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례 4 : 네. 종약... 일단 월세는 안 나가서. 휴대전화, TV, 인터넷, 그런 게 많이 나가는데.

면접자 : 내집 마련 청약 저축, 이런 것은 안 하세요?

사례 4 :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집이 생겨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중략.. 저축만 하고 있고. 적금 같은 거는 와이프가 알아서 하고. 아기 적금 같은 것만 들 것 같아요.

면접자 : 동생하고 같이 사시는데 혹시 동생이 생활비를 나눠서 낸다거나 부담하고 있나요?

사례 6 : 돈은 제가 다 내고 있어요. 중략.. 네. 밥 먹는 거 빼고는 다 제가 내고 있어요.

면접자 :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형으로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 6 : 별 불만 없는데.

두 연구참여자 모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으며, 사례 6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었다. 사례 4와 6 모두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강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철하였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만큼, 지금의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큰 경제적 대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이들의 수입 상황은 다른 연구참여자들,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인구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사례 4의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높은 경제적 수입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사례 4 : 그렇게 따지면 일을 제가 아무리 안 좋은 거를 해도.. 오래 못해도 저는 애보다 돈이 많고, 저는 모아 놓은 돈이 좀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일자리도 좋은 거 가진 놈이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망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 ‘미래 계획/진로’ 및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

유형 2 연구참여자들의 하고 있는 일의 특징은 급여수준은 높지만, 일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직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사례 4의 경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례 4 : (중략) 그래도 좋은 점은 있죠. 남부럽지 않게 버니까. 그거 하나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죠. 꾸준히.

면접자 : 그렇게 돈을 모으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면에서 장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사례 4 : 솔직하게 돈 빼고 제 장래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없죠. ..중략.. 한달에 못 벌어도 500은 버니까.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잘리면 잘렸지.

한편, 3년 이상 보안 관련 일을 하다가 현재 식당 일⁵⁶⁾을 한다는 사례 6도 지금 하는 일을 조만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현재의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학력 및 기타 상황에 비해 높은 급여 수준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이들은 지금의 직업을 유지함으로써 ‘돈을 좀 몇 년 모으고, 이후에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 및 현재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학업 중단에 대해서 아쉽다고도 하였다.

한편, 현재 일을 그만두었을 때를 대비한 미래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례 6은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어 자격증을 통해 학력미달을 보충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학력미달로 인해 공장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유형 2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을 한 후 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여러 번 표현하였다.

56) 인터뷰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단순히 식당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 관련 보안 관계 일도 함께 한다고 추측되었다.

사례 4 : 아무리 후진 대학이라도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안 좋은 대학이라도 열심히 다 마치고 나오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있잖아요. 돈을 못 벌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받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일했으면 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별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급여수준과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 자립에의 전망

유형 2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립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 자립 상태였으며, 심리적으로도 부모와 기타 원가족으로부터 별다른 지원(경제적·심리적 지원 등)을 기대하지 않은 상태로 정서적/심리적 독립도 이미 이룬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우에는 미래와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한 확실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의 불안정성, 직업 수행에 따라오는 신체적 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불안 요소, 또한 연령·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결국은 몇 년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직업의 불안정성과 미래에의 불안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학업 중단 당시에 대안이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지원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례 4 : 저는 아예 몰랐어요. 지원 같은 거 해 주는 것도 몰랐고 (중략) 문자라도, 이러 이런 게 있다. 홈페이지 링크를 띄우거나 (하면), 그런거,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유형 3

○ 학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사례 7, 10, 17이었다. 사례 7은 리조트 관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사례 10은 대학원에 재학 하면서, 주중에는 병원에서 약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사례 17은 5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참여자 세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며, 직업과 학력 수준, 그리고 현재의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자립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참여자들을 유형 1이 아닌 유형 3으로 구분한 것은 이들이 이룬 자립의 기반이 유형 1의 연구참여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상당 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10 : 보통 20대 후반에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도 나이고 하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중략... 부모님이 그러면 공부를 해보면 어떨겠냐 그래서 저도 뭐 엄청 대학원에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접자 : 그러면 약간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네요? 대학원 입학은? 아, 사회복지 공무원을 권유한 것이고, 대학원 입학은 아닌가요?

사례 10 : 사회복지도 (부모님이) 약간 해보면 어떨겠냐 이랬고 강요는 아니고 그냥 권유... 먼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겠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사례 10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는 부모님이 내건 검정고시를 보는 조건으로 가능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부에서는 사회복지 / 아동복지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심리상담치료를 전공하고 있다. 한편 지금 하고있는 병원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어머니의 소개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7도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현재 27세인 사례 17은 22세 때부터 치킨집을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사례 17 :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하고 싶은 거는 없고 그냥 돈 벌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치킨집 해볼래?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작은 치킨집을 차려 주셨어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계속하고, 돈도 좀 모으니까 조금씩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사례 17의 경우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5년에 걸쳐서 지속하면서 어느 정도 매장 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했고, 기존 치킨집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장하는 등 자립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했다고 할 수 있었다. 사례 7도 리조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 일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상속 / 증여 / 매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유형 3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학교를 중단했지만, 그 이후에 부모의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결과 20대 중반인 현재 그 연령대의 다른 청년층과 비교해서도 자립의 기반을 확실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희망 사항이 없었다. 이들에게 정책 / 지원에 대해서 재차 문의하였을 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로서의 고충에 대한 지원 / 재난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어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기 어려웠다.

○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

유형 3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사례 7과 17은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그만두었고, 사례 10은 왕따를 당했으나 학교 폭력의 수준은 아니었고,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찾기 힘들어 부모님과 상의 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모두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들은 유형 3의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우선 사례 7과 17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례 17 : 지금도 후회는 없고, 놀고 싶어서 중단한 거잖아요.. 중략... 그래서 제 아기가 만약에 놀고 싶어서, 엄마 아빠 나는 한 1, 2년 놀고 싶다 이러면 놀게 해 줄 것 같아요... 중략..네. 노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중략.. 저는 그것도 (노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사례 7 : 저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생각했었거든요.

이상의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청소년기 다녔던 학교가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진로를 찾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기도 하였다.

사례 7 : 학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일단 우편물 같은 걸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전화를 한다 든가 아니면 우편물로.. 중략.. 네, 안내책자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나 이런거 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인문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필요없는 것을 배워서 학교 다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업과 연계되는 커리큘럼이 개발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사례 10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례 10은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이후 검정고시를 시작으로 다시 학업을 지속하였고 현재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업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 / 성인의 트랙’을 택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학업 중단이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 편견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은 학교가 의미가 없어서 그만 두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길로 다시 접어들면서 자신의 학교 중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0의 경우에는 지금 비록 성공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그것이 부모의 지원과 가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감행했던 학업 중단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였다. 자립의 기반 형성과 무관하게 학업 중단의 의미가 개인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형 3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적인 자립 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립,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유형 4

○ 학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례 5는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는 바람에 하던 일을 그만 두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아르바이트(식당 서빙)를 재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례 11은 인터뷰 하는 날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다음 날이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인터뷰 때문에 휴가를 받고 왔다고 하였다. 그는 ○○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군대를 다녀 온 후 여러 가지 사정 상 휴학을 한 상태로 대리점 일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 15도 현재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 디자인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하였다. 사례 16은 지난달부터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연구참여자의 일의 성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사례 18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유형 4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현재 특정한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됨이 없이 ‘아르바이트’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을 오고가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현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도 특별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이들은 학업 및 일/아르바이트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태로 향후 진로 모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사례 11 : (지금 하는 일) 아르바이트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전공이 아니니까. 앞으로 한 1-2년 정도 할 예정이에요.

면접자 : 그럼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신가요?

사례 11 : 지금은 휴학 상태예요.

면접자 : 그럼 언제 휴학을?

사례 11 : 1학년이요. 1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 중략... 휴학을 지금 1년 반 정도 한 거 같아요... 중략... 집안에 일도 좀 있고 그냥 저도 조금 쉬면서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복학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면접자 : 그럼 2020년 2학기부터 휴학을 하셨으면 그 휴학기간 동안에는 버스킹하고 유튜브 하시면서 지내신 거였어요??

사례 11 : 네

사례 11의 경우 휴학기간 동안에 음악과 게임, 유튜브 관련 작업을 했다고 하였고, 현재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한지 하루가 지난 상태이다. 즉, 사례 11은 아르바이트, 학업, 또는 ‘미래 진로와 관련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음’을 오고가면서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다. 물론, 이들의 연령대가 20대 중반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들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는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청년들에 비해 그다지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후기 산업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며, 성인 / 자립의 중요한 요건인 취업이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인연령에 다다른 후 지난 몇 년간 학업 및 직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경험과 학력 / 경력이 거의 없으며, 또한 장래 직업을 위해 거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인기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청년들이 성인기 진입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성인기 진입, 그 중에서도 취업과 진로 모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직업을 찾아보는 일이 이 시기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형 4의 경우에는 성인기 진입을 위한 준비와 모색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유형 1, 2, 3의 연구참여자와 비교해 보아도 이들이 현재 앞으로의 삶과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자립 기반 형성의 장애 요인

유형 4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사례 5와 11, 15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면접자 : 그러면 그 때 (학업) 중단 후에 일을 하셨던 경험은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하셨어요?

사례 15 : 몸이나 멘탈도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알바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학업 중단 이후로 여러 가지 중학생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 심리적으로 조금 마음의 벽이 생겨서 병원도 갔다가 그 때는 한두달 다니고 병원도 관두는 게 많았어요...중략... 거의 최근 몇 년 전까지 밖에도 안 나가고 지금은 나가긴 나가는데 자발적으로 자주 나가진 않고 그래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사례 15의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에도 특별히 어떤 일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 관련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아직도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하였다. 현재에는 어떤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돕는 일을 하면서(동영상 편집 등), 지내고 있었다.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자 ‘○○○ 디자인’ 분야로 나아가 애니메이션이나 관련 산업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진로 관련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진로 모색 지원을 주문하였다.

한편, 사례 5는 지난 몇 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다가 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사례 5 :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놓은 상태에서 쉬고, 몇 달 쉬고 다시 일하고, 몇 달 쉬고 다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면접자 :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래도 나의 앞으로 진로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됐어요?

사례 5 : 딱히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면접자 : 네. 그 때 대학교에서도 기술 배우시고 취업 준비하셨잖아요.

사례 5 : 그 때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표면처리 쪽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자 : 그 때 이후로는 조금 쪽으로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사례 5 :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입원을 해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을 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중략... 지금은 일단 제가 퇴원한지 세달 짜인데 요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 5는 자신의 우울증의 원인으로 아버지와의 갈등과 학대를 언급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자주 당했으며, 그로 인해 아버지와 문제가

많았고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것도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어서였다고 설명하면서 학업 중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보였다. 청소년 시절 학업 중단으로 인해 학교와 관련한 추억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술하면서, 사례 5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가정 폭력 정책과 연관되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사례 5 : 학교가 100%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잡았다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때 나라에서 뭐가 보호를 해 줬다거나, 분리 조치를 시킨다든가.... 중략... 그렇게 어리고 가정 상황이 원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저처럼 학대를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었으면..

그의 경우에는 학대로 인해서 가출을 했고 자연스럽게 학교까지 그만두게 된 것이어서 자신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기 보다는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이 구분되어서 수행될 수는 없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영역의 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이 ‘학교 밖’이자 ‘가정 밖’ 동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사례 5의 경우에서처럼 가정 폭력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 연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사례 11도 심리적인 문제(우울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의 원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례 11의 인터뷰 전반을 살펴보면, 부모 갈등의 문제와 더불어 사례 11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었고, 청소년기 시절의 학교폭력이 심리적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학교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교를 그만둔 사례였다.

사례 11 : 초등학교 때 피해를 줬던 친구랑 같은 중학교를 가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무리를 지어서 요즘 일진이라고 하죠?

면접자 : 그렇죠. 일진이라고..

사례 11 :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저도 조금 더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심지어 중학교 되면 힘이 더 세지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과시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피해자랑 가해자랑 따로 다른 학교를 갈라놓는다는 거 그렇게 하는게 있었으면 제가 트라우마가 조금 덜 했을 거 같아요.

면접자 : 네. 그러니까 가해자들과 제대로 분리되지도 않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주눅들고 더 숨어 다녀야 하는... 그게 또 학교 중단에 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사례 11 : 네.. 맞아요.

사례 11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학업 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심리적 불안정의 원인이 됨을 이야기하였다.

사례 11 : 화물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풀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 막 똑같이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중략...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면 내가 지금 몇 십년이 지난, 10년 정도가 지나도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의 피해는 현재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분노조절 및 집중력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가 사례 11이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학교 중단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 중요 원인이 되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근절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폭넓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례 18은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심리적인 적응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학교를 중단하게 된 경우였다. 사례 18은 직업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자녀 양육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면접자 : 따로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꿈꾸시는 것도 없으신가요?
사례 18 :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미용실도 들어가고 싶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딱히 제가 또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중략... 미용쪽에도 받아 주는게 아기가 있으니까 안 되는게 많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바로 알바나 해야겠다 해서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있으면 하죠. 시간대 맞춰주면.

사례 18은 아이를 키우는 상태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 있었다. 지금은 남편이 좀 쉬고 있으면서 아이를 봐 주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은 아이를 돌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학업 중단 이후에 적절한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례 18의 경우에, 진로 모색과 미래 계획은 너무나 실현하기 어려운 작업인 것이다.

유형 4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이들이 왜 현재 아르바이트와 무업을 오가고 있으며, 미래와 관련하여 특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의 상황이 진로를 모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유형 1, 2, 3, 4 중에서 가장 지원정책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와 미래 / 직업을 위한 지원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학업 중단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업 중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가정폭력, 학교 폭력, 결혼 및 출산 등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업 중단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자신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후회를 많이 내비쳤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선택지와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직업 관련 지원책은 너무 일괄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사례 15 : (제가 원하는 쪽은) 지원하는 것이 좀 애매해요. 저는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국가가 국비 지원하는 학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싶은데 현재 지원되는 직업·업종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이나 성향, 학력 등에 따라서 다양화, 차별화된 진로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 개개인을 위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진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징, 즉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학력별로 좀 더 세밀하고 구체화된 지원책이 있다면, 이들의 진로 모색을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례 18은 학업 중단 당시 별 도움과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상담 지원의 확충이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좀 더 적극적인 도움과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8 : 상담을 1대 1로 도와줬으면 전화도 하고 계속 연락도 하면서 상담을 해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원래 잘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옆에서 잘 가르쳐 주면 할 것 같아요.

사례 18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양육을 하고 있으므로 또래나 주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지 또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힘든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고용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 18 : 하고 싶은 거.. 미용이든 제빵이든 하고 싶어도 자격증 할 때만 되고 전 금액 지원되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면접자 :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례 18 : 네.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으면 나는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냥 지원이 많이 안 되는데.. 미용 쪽 하려고 했는데 미용관리랑 자격증 딸 때 다 개인이 사 갖고 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사례 18은 현재 기술 관련 정책 지원이 자격증을 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자신이 선택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자신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 등에 제약이 있어서 출석이나 기타 사항을 통제하는 자격증 따기는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좀 더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한편, 그녀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는 데 있어 좋은 점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혜택이 많은 점을 언급하였다.

사례 18 : ○○은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아기 낳으면 좀 많이 줘요. 이런 거는 지원이 돼요. 아기 같은 거는 많이 지원이 돼요. 아기 낳으면 돈 얼마 주고, 1년 되면 또 얼마주고 이러니까.

사례 18은 ○○시에서 제공하는 자녀 양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런 점은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은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18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한 대책이 연계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시 뿐 아니라 자녀양육 관련 혜택과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자립에의 전망

유형 4의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시절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한편, 학교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이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이들의 자립 및 진로 모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유형 4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기술한 유형 1, 2, 3과 비교하여 그 심리적, 경제적 자립 정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자립 관련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와 관련하여 이들이 어떠한 지원 정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유형 4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잘 알아보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서 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과 지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심리적 트라우마, 자녀양육 등)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관련 프로그램을 알아볼 여지와 의도를 처음부터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과 아웃리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③ 유형별 요약

지금까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여정, 학업중단의 의미, 현재 하고 있는 일,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준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궤적을 현재의 삶과 미래에의 전망을 기반으로 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차별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차별점에 대한 분석은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의 표에서는 도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유형 간의 차별점을 제시하였다(표 III-12).

표 III-12. 인터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유형별 특징 일람 및 비교표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학업 중단 후 학업 지속 여부	학업 지속 선택, 학업 지속과 연계된 구직, 취업 활동	청소년기 학업 중단 후 학업 지속을 하지 않음	학업 지속을 선택	학업 지속 (검정고시까지 본 경우 포함)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대체로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부모의 지원 통해 자립 기반 마련	미흡
심리적 자립 기반 마련	대체로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사례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 유지	심리적 불안, 우울증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지원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 / 필요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였음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 - 관심이 없으며 주변에 이를 도와줄 만한 체계 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음, 부모의 지원을 활용하여 자립 기반 마련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자기 주도적 노력이 부재
직업 / 현재 안정성	대체로 그러함	급여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직업 안정성은 낮은 수준	학업 / 직업 면에서 안정적	불안정, 불확실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직업 / 미래 안정성	대체로 고려함	미래에의 전망, 계획을 세우기 힘들	대체로 안정적	불안정, 불확실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	긍정적, 부정적 평가 혼재	부정적 평가 (별 아쉬움이 없다는 답변도 있음)	긍정적, 부정적 평가 혼재	부정적 평가 (비자발적인 학업 중단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지원 정책 희망 사항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학업숙려제도에 대한 제언	-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필요 - 가정폭력, 학교 폭력 관련 예방책 마련

4. 요약 및 시사점

1) 기존 패널 현황 및 DB관리

2021년 면접 조사 및 패널관리조사를 위해 2020년 조사에 참여한 42명의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군 입대와 면접조사 거절,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이탈된 패널 소수를 제외하고 40명이 패널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중 심층면접에는 전년도에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했던 중소도시/읍·면지역의 패널 18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패널관리조사에는 전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도시 거주자 19명이 응답하였다. 면접결과 전사자료는 기존의 2018~2020년 동안 수집된 질적 자료들과 함께 DB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식별 가능 정보로 추정되는 부분은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하고 패널정리표는 보안유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정리, 관리하였다.

2)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연구참여자 18명(남자 10명, 여자 8명/25세 6명, 26세 3명, 27세 7명, 28세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1단계 : 미성년기 삶을 기반으로 한 범주화 분석, 2단계 : 유형 분석)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단계 1'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분석 단계였다. '단계 2(유형분석)'는 '단계 1'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유형 1, 2, 3, 4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삶과 미래/진로 관련 시사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 단계 1 : 학업 중단 이후의 삶의 궤적

1차 개방코딩에서는 학업 중단 이후의 미성년기 삶을 ‘학업 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학업지속에서의 촉구 및 지원’,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기 유대 관계’, 그리고 ‘차별’ 등 6개의 상위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범주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지속과 중단’ 측면에서는, 사례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었던 한편, 현재 까지 학업을 재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학업을 재개한 사례에 비해 학업을 중단한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청소년기에 감행한 ‘학업 중단’에 대해 후회한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아르바이트’ 측면에서는, 학업 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문제 및 제반 상황을 해결해야 했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급여, 근무조건, 대우)을 감내해야 했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에게서 청소년기 시기와 달리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갈등 또는 대척관계에 있었는데, 이들은 청소년 시기 가정 폭력으로 가출 및 학교 중단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시기 때 경험했던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정서적 불안정·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다. 넷째, ‘청소년기 유대 관계 손실’ 측면에서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하던 친구들과 관계가 지속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학교를 떠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학교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학업 중단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편견은 학업 중단 이후 다시 학업을 재개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계 2: 현재의 삶 및 진로 모색

1차 단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2단계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현재 삶과 진로 모색 과정을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주목해서 본 점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 ‘거주형태 및 가족·지인 관계’, ‘경제생활: 소비·지출·재테크’, ‘미래 계획·진로’, ‘학업 중단에 대한 평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그리고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유형별 분석 결과 요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 1(연구참여자 1, 2, 3, 8, 9, 12, 13, 14)은 자퇴를 한 후 학업을 재개하거나 검정고시 이후 대학까지 학업을 지속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진로 모색을 통해 자기 스스로 삶의 기반,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미래 진로를 모색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유형 2(연구참여자 4, 6)는 자퇴를 한 후 학업을 재개하지 않은 유형이다. 학업재개와 상관없이 자기 삶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직업의 급여수준은 적절하나, 직업 안정성 및 직업 수행에서 오는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현재 직업과 관련하여 미래에의 전망과 계획을 세우기 힘들었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했던 경험이 전무하였다.

셋째, 유형 3(7, 10, 17)은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업/학업 관련 진로 모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된다. 비교적 성공적인 진로 모색을 했지만, 이것은 부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넷째, 유형 4(5, 11, 15, 16, 18)는 다른 연구참여자 유형에 비해서 자립도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양태를 보였다. 현재의 직업과 미래 진로 모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이며, 학업 중단 이외에 기타 가정 및 심리적 문제가 존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청소년기 가정 혹은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과 학대의 문제가 성인기가 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2) 정책적 시사점

①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

각 유형에 따른 정책 제언은 그림 III-3과 같다. 유형 1과 유형 3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방향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 2에게는 경제적 지원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의 기반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유형 4는 학교 중단의 원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유형별로 제시된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특징	정책 제언
유형 1	• 학업 재개 • 자립의 기반 마련 중 •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높음	•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 • 성취동기 및 원동력에 대한 체계적 분석 • 멘토십 제공 기회 마련
유형 2	• 학업 재개하지 않음 • 자립의 기반 마련 중(급여 수준은 괜찮으나 직업 안정성은 낮은 편) •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낮음	• 경제적 지원 • 취업 기회 제공
유형 3	•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진로 모색함 • 부모의 지원도 높음	• 지원 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
유형 4	• 미흡한 자립 기반 상태 • 불안정한 직업 • 불확실한 미래 안정성 •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	• 비자발적인 학교 중단의 원인에 대한 대처 및 지원 • 심리적 지원

그림 III-3. 기존 패널 유형별 정책제언

○ 유형 1

유형 1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 ‘성취동기 및 원동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멘토십 제공 기회 마련'을 제안한다. 각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유형 1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자립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추적과 홍보를 통해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유형 1의 성취동기 및 원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형 1은 스스로 삶의 기반 / 자립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원동력 및 원인에 대한 탐색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유형, 그리고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멘토십 제공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유형 1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유형 2

유형 2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지원 및 취업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유형 2의 청소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고 안정적인 일을 찾을 동안, 정책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과 관련한 기회와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유형 3

유형 3에게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형 3은 부모의 지원으로 자립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부모 혹은 주변의 어떠한 지원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 가는데 필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 3의 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예,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형 4

유형 4와 관련하여서는 ‘비자발적인 학교 중단의 원인에 대한 대처 및 지원’, ‘심리적 지원’을 제안한다. 각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 중단 원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유형에 비해 유형 4의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시절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이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자립 및 진로 모색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형 4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기술한 유형 1, 2, 3과 비교하여 그 심리적, 경제적 자립 정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유형 4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이나 혜택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유형별 정책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원 정책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원책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에게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노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참여자들은 SNS 등의 방법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홍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정부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된 패널이 중소도시 / 읍·면지역 거주자들이었는데,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자신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요조사와 이에 기반한 지자체의 관련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 재개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학업을 재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에서 다양한 학업 지원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청소년의 일 관련 권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문제 및 제반 상황을 해결해야 했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급여, 근무조건, 대우)을 감내해야 했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근로 권리를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생애발달과 진로모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학교 관련 문제, 또는 학업 지속의 문제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 기타 환경 내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 관계성 내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정-기타 환경 내의 협조와 공조를 도모하는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섯째, 청소년기 유대 관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통해 신뢰 및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교 중단에 의해서 또래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 학생’이라는 인식은 매우 견고한데, 향후 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삶에 대한 모색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캠페인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이 곧 학생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제4장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 질적연구

- 1. 신규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 2. 면접조사 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 3. 질적연구 분석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신규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1) 신규 패널 구축 배경 및 현황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학령기 시절 학교를 그만둔 이후 성인기 이행 과정을 거쳐 대부분 20대 중반의 성인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추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경험과 필요한 지원,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진로 및 자립 준비, 지원 욕구 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이 10여년이 되고 있어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책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나 평가 역시 필요하였다(김희진 외, 2020). 이에 따라 2020년에 10대 중·후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0).

2020년에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면접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특히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연령, 성별, 학교 밖 유형, 지역규모를

57) 제4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적절히 안배하여 패널을 구축하지 못하였다(김희진 외, 2020). 상대적으로 저연령, 무업형, 읍·면지역 청소년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패널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기간과 예산을 고려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패널 구축 현황은 표 IV-1과 같다(김희진 외, 2020)⁵⁸⁾.

2020년도 신규 패널로 구축된 33명의 청소년 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21명이었으며, 대도시 17명, 중소도시 12명, 읍·면지역 4명으로, 성별, 지역별 편차가 컸다(표 IV-1). 학교 밖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19명, 직업형이 6명, 무업형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 학업형 청소년이었는데, 상당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함에 따라 학업형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IV-1).

표 I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완료자 현황

유형분류 ⁵⁹⁾	지역 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학업형	8	3	5	8	2	6	3	1	2	19	6	13
직업형	3	2	1	3	1	2	0	0	0	6	3	3
무업형	6	3	3	1	0	1	1	0	1	8	3	5
합계	17	8	9	12	3	9	4	1	3	33	12	21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 222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전 연구들과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패널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이고 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례도 많아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대학진학형, 취업형으로, 그리고 무업형은 진로미결정형 등으로 구분하는 등 새로운 유형 구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8) 목적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방식으로 연구내용에 부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되, 연령, 성별, 학교 밖 유형, 지역규모별로 할당하여 표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상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고르게 할당하지 못했다.

59) 유형 분류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주관적 기준과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기준(윤철경 외, 2018)을 참고하였다.

- 학업형: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이거나 또는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
- 직업형: 직업(단순 아르바이트 제외)을 가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
- 무업형: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은 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 신규 패널 사전 접촉 결과 및 패널 추가 구축

(1) 신규 패널 추적조사 및 접촉 결과

2020년에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로 구축되어 1차 조사에 참여한 33명의 청소년 개인 및 당시 이용 기관(꿈드림,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사전 컨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올해 면접조사 참여를 수락한 청소년이 23명이었고, 면접에 참여 의사를 보였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4명, 조사거절 3명, 연락이 단절되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전 접촉 결과 올해 조사 참여에 응한 패널들의 현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2020년 면접에 참여했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및 접촉 결과

번호	성별	출생 연도	1차 조사 시 (2020) 학교 밖 유형	1차 조사 시 (2020) 지역규모	2차 조사 시 (2021) 지역규모	사전 접촉 결과	현재주로 하는 일	심층면접 참여의사	비고
신규1	남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하는 일 없음	0	-
신규2	여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기타	0	쉼터/ 대학 진학 준비
신규3	남자	06년	직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기타	0	검정고시 합격/ 운동선수
신규4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기타	0	대학진학 준비
신규7	남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학생	0	-
신규9	여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취업 준비	0	자격증 준비
신규11	남자	03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아르바이트	0	검정고시 합격
신규12	여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중소도시	성공	검정고시준비	0	-
신규14	여자	03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학생	0	대학생
신규15	남자	05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학생	0	고등학생
신규16	남자	04년	학업형	중소도시	대도시	성공	학생	0	-
신규18	여자	03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기타	0	대학진학 준비
신규19	남자	04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기타	0	아르바이트, 대학진학 준비
신규20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학생	0	대학생
신규22	여자	03년	학업형	중소도시	중소도시	성공	학생	0	대학생
신규24	여자	05년	무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하는 일 없음	0	검정고시 준비
신규25	남자	02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하는 일 없음	0	-

번호	성별	출생 연도	1차 조사 시 (2020) 학교 밖 유형	1차 조사 시 (2020) 지역규모	2차 조사 시 (2021) 지역규모	사전 접촉 결과	현재주로 하는 일	심층면접 참여의사	비고
신규26	여자	03년	직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취업 준비	0	자격증 공부
신규28	여자	03년	학업형	대도시	대도시	성공	학생	0	대학생
신규30	남자	03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학생	0	대학생
신규31	여자	05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학생	0	-
신규32	여자	03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하는 일 없음	0	검정고시 합격
신규33	여자	01년	학업형	읍·면지역	읍·면지역	성공	검정고시준비	0	대외활동

근황이 파악된 후 현재 시점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청소년들 23명 중 남자는 9명, 여자는 14명이었고, 연령대는 만 15세가 1명, 만 16세가 3명, 만 17세가 7명, 만 18세가 9명, 만 19세가 2명, 만 20세가 1명으로 대체로 만 16~18세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현재 주로 하는 일이나 근황에 대한 조사결과, 검정고시 합격 후 이미 대학진학에 합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현재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외에 취업 준비 차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드물게 다시 복교한 경우도 있었다. 20대 중반인 기존 패널들에 비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에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변경된 한 개 사례가 관찰되었다.

(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패널 구축

2020년에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패널이 이탈하거나, 또는 연락이 닿아도 올해 면접조사를 거절한 패널을 제외하고 총 23명이 올해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추가하였고, 그 현황은 표 IV-3과 같다. 추가된 패널은 총 14명으로 남자 4명, 여자 10명이었으며, 전국에 걸쳐 골고루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올해 추가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에 참여한 신규 패널은 총 37명이며, 남자가 13명, 여자가 24명이다(표 IV-4).

표 IV-3. 2021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패널 구축 현황

ID	시·도	성별	만 나이	응답자 유형	지역 규모
신규 34	경상도	남	17	무업형	중소도시
신규 35	경기도	여	18	학업형	중소도시
신규 36	충청도	여	16	학업형	중소도시
신규 37	경기도	여	17	학업형	읍·면지역
신규 38	충청도	남	16	직업형	읍·면지역
신규 39	경기도	여	18	학업형	중소도시
신규 40	경기도	남	17	직업형	읍·면지역
신규 41	충청도	여	17	학업형	중소도시
신규 42	충청도	여	16	직업형	읍·면지역
신규 43	전라도	남	18	무업형	읍·면지역
신규 44	전라도	여	17	학업형	읍·면지역
신규 45	충청도	여	16	무업형	중소도시
신규 46	전라도	여	16	학업형	중소도시
신규 47	전라도	여	17	무업형	중소도시

표 IV-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최종 현황

유형분류*	지역 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학업형	4	1	3	11	1	9	6	1	5	20	3	17
직업형	3	2	1	1	1	0	3	2	1	7	5	2
무업형	5	3	2	4	1	3	1	1	0	10	5	5
합 계	12	6	6	16	3	12	10	4	6	37	13	24

주: 유형구분은 앞에서와 유사하게 진행하였음.

2. 면접조사 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1) 면접조사 내용

(1) 면접조사 내용

2021년에 수행된 2차 면접조사 내용은 2020년에 실시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1차 면접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현재 생활과 진로발달 상황, 학교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상황 및 미래 전망, 생애사건 및 심리사회적 상태,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적 인식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면접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거나, 또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은 축소하고 전년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일부 조사 내용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면접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전년도 면접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거 경험한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과 폭력과 같은 큰 생애 사건은 결국 학교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의 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일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관찰되었다(김희진 외, 2020). 생애 기간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유발한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적 충격과 같은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한지나, 박숙경, 2020). 이에 따라 올해 조사에서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이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막대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험과 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로 성인기 이행과정에 진입하는 발달단계에 있음에 따라 이들의 진로발달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기존 패널과 마찬가지로 면접조사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및 정책연구 전문가, 현장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으며, 기관 IRB 심의(IRB과제 관리 번호: NYPI-202108-HR-고유-037-12)를 받은 후 연구에 활용하였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전반적인 면접조사 내용은 아래 표 IV-5와 같으며, 상세 질문내용들에 대해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IV-5.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학인(고등학교,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 : 변화 여부 확인
현재생활 및 진로발달 상황	• 현재 생활 탐색 :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 -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경 내용 탐색 - 본격적인 진로결정 전,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경험 등 조사 - 학업 / 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 / 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 - 무업의 경우는 하루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하루 일과 등 • [무업인 경우]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 • 직업 결정 유무 및 직업 준비 상황 •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학교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 과거 학교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시간 경과에 따른 학업중단의 의미 변화 등
경제적 상황 및 미래 전망	• 현재 경제 상황 및 주거 상황 : 주 수입원, 소비현황, 재테크 현황 • 자립의 의미 및 자립 여부 • 미래에 대한 걱정 / 불안
생애사건 및 심리사회적 상태	• 자신에 대한 인식(자존감 포함)과 만족 정도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부끄러움, 자신감 부족 등) 경험 여부·정도 • 자신의 생애에서의 큰 사건(학교폭력 경험, 학업중단 포함) 및 영향

구분	면접내용
	• 심리·정서적 어려움(우울감, 위축감, 불안감, 고립감)과 사회적 관계 어려움 • 학교중단 이후 관계의 변화 •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학업 / 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 및 중요도 등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 인식	• 지역사회와 공간적 범위 (거주지역 변경 여부 및 사유 탐색)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까지 도움 경험과 내용 - 현재 지역사회 내 지원 유무 및 내용, 미흡한 내용 및 지원 요구 • 자립관련 지역사회 지원 요구 • 지역사회 지원 및 전달체계 관련 -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지원을 위해 타 지역 이동 경험 유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선 - 중앙부처 정책의 지자체, 기초지자체로의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 / 차별 경험 유무 • 코로나19관련 경험 및 관련 지원 요구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224~225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2) 생활시간 조사

2020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거나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2020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계획과 미래를 고려하여 성실히 꿈드림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상당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김희진 외, 2020).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개입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습관 및 태도, 장래 희망에 대한 목표의식 등에 따라 일과시간 사용패턴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성별, 거주지역, 장래희망 등과

함께 평일과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만 이번 생활조사에는 올해 패널로 새로 추가된,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하였고 인원도 전년도보다 한명 많은 여섯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를 위해 평일과 주말 중 각각 하루씩 24시간 동안의 일상과 주요 활동을 동반자와 해당 장소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청소년이 기입하게 하였다. 올해 처음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년도와 동일한 생활시간별 활동내용 작성 예시를 표 IV-6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특정 활동의 사용 시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6. 생활시간별 활동내용 작성 예시표

활동영역		구체적인 활동 내용(예)	활동장소(예)	동행인(예)
학습/학업관련		수능준비, 검정고시 준비학원 수강	학원, 집, 꿈드림	혼자
		자습	집, 독서실(도서관)	혼자
		과외	집, 카페	혼자
일	인턴십	바리스타, 서빙	카페, 식당	동료
	아르바이트	바리스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등 구체적으로	카페, 식당 등 아르바이트 장소	혼자
	정규직	직종	장소	회사동료
취업/진로준비	취업준비	자격증(미용사 등) 준비, 네일아트, 제빵 등	학원	혼자
	진로준비	진로관련 검색, 진로탐색, 상담	집, 꿈드림센터 등	
여가, 취미 활동, 운동 등	휴식	낮잠, 명상, 산책, 특별히 하는 일 없음 등	집, 카페, 공원	
	운동	축구, 헬스, 요가, 자전거타기 등	집, 헬스장, 동네 운동장	동호회
	PC, 스마트폰 (구분하여 작성)	게임(종류)	집, 카페, 친구집, PC방 등	PC방 : 친구
		카카오톡,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facebook 등, TV(뉴스, 드라마 등)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내용 : 음악, 드라마)		
		음악 듣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활동		
	영화관람	영화관 가기	영화관	영화관 : 친구

활동영역	구체적인 활동 내용(예)	활동장소(예)	동행인(예)
모임	친구 만나기, 동호회활동(종류)	카페, 식당	친구
취미활동	독서, 그림그리기, 악기연주, 사진 찍기, 레고 등	집, 화실	친구
건강	진료, 질병치료, 상담	치과, 한의원 내과 등	어머니
식사	한식, 햄버거, 라면, 짜장면 등	집, 버거킹, 식당	집: 부모님
기타	구체적으로 활동과 장소, 동행인 작성		

* 출처: 김희진 외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Ⅲ: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p.226에서 인용

2) 질적 자료수집 방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기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 개인식별정보의 익명화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참여동의서, 조사 설명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제공하여 이에 동의한 청소년들에 한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미성년 면접조사 참여자의 경우 부모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함께 수령을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자 발굴과정에서 관계기관 종사자가 조사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요청한 경우 조사목적과 함께 면접조사 내용을 송부하여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전에 약속된 면접이 변심 등의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최종적으로 2020년에 수행된 1차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올해 조사 참여가 가능한 23명과 추가패널로 구축되어 올해 처음 조사에 참여하게된 14명의 패널까지 총 37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패널에 대한 연락과 추가 발굴에 시간이 지연되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이 모든 인원을 연구진이 면접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 청소년에 이해가 깊은 관련 학과 석·박사 중 질적연구를 경험한 전공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정하였다. 면접에 착수하기 전 연구진과 패널 및 실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위탁기관, 그리고 선정된 면접원들이 함께 본 연구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사내용

숙지 및 효과적인 면접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면접원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 수행된 1차년도 면접전사자료를 해당 면접원에게 송부하여 면접 시작 전 면접대상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래포를 형성하는 등 순조롭게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면접을 진행하면서 변경된 객관적 내용(이사, 진학 등)이나 심리정서적 변화(가족관계 인식, 지원 요구 등)를 잘 감지하도록 요청하였고, 다만 사전 이해로 인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면접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조사관리 기관과 연구진에 연락하여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연구진 또한 면접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주의하거나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여 고지하였다.

2021년의 코로나19 상황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 따라 면접조사는 온라인 화상면접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줌(zoom)링크를 청소년에게 전달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가능한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에서 면접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얼굴 노출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최대한 대면방식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조사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 이외에 표정 및 태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비언어적 정보이다.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비언어적 정보를 관찰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가능한 주의 깊게 조사 참여 청소년들의 면접 시 환경과 분위기, 참여 태도 등을 관찰하고 현장노트(field note)를 작성하였다(그림 IV-1 참조). 이 현장노트들은 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4. Field Note 양식

Field Note

(면접자 성명: 김○○)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P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상황
2XXX	이△△	18	2021. 08.31	심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이며 검 검고시를 이미 합격하여 현재 수시준 비 중임.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 공도 원 센터의 소개로 자립교육을 받는 할머니들께 일정 도움을 받고 뜨거 수업을 해드리고 있음.

2. 면접분위기와 제언

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

손재주가 많고 진로 계획이나 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음.

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

방에서 혼자 인터뷰를 했고 매우 성실히 답변을 잘해냄.

3) 분석 시 유의할 점

친구 관계문제로 자퇴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
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언급함. 공동원생의 선생님들과 유대감이 깊은 것
같았고 공동원 센터의 여러 프로그램 활동들에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음. 공동원
센터에서 더 지원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검사나 자아탐색과 같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그리고 학교별 청소년들에게 수시지원
의 제약이 많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검고고시의 난이도를 높이고 수시지원의
확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언급함.

Field Note

(면접자 성명: 김○○)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PID	성명	연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상황
2XX	홍○○	18	2021.08.04	집(Zoom온라인)	집에서만 생활

2. 면접분위기와 제언

1) 면접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

초반에 화면 커지 않고 음성으로만 하면 안되냐고 질문. 마스크를 써도 좋으
니 얼굴을 보여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컴퓨터로 계속속하였고,
인터뷰 내내 마스크를 끼고 있었음. 원본에서 인터뷰 진행. 전반적으로 말이
느리고, 감추는 것이 많은 듯한 인상. 다른 일을 컴퓨터로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

조용한 분위기에서 인터뷰 진행.

3) 분석 시 유의할 점

인간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고 난 후(중학생-고등학생 올라가는 시절에
서 친하지 않은 지인이 뒷담화), 인간 관계에서 의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생
겼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보다는 관계를 일단(손절)하면서 생활. 어
려운 가정사가 있는 듯 해보였고,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순간 정지되
면서 뭐라고 말해야할지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음. 어머니가 재혼한 듯
보이며, 그로 인하여 새로 생긴 '새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등
가족 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결론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임.

4) 기타사항(추가 질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등)

그림 IV-1.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면접 시 작성된 필드노트 예시

면접에 참여한 연구진과 면접원들은 면접 시작 전 청소년들의 개인신상정보(나이, 이름)를 확인한 후, 본 면접조사의 목적과 연구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익명성 보장, 면접 중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편안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회 진행되는 면접이지만 녹음 파일에 대한 전사작업 시 또는 연구진의 자료 분석 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였다. 면접참여 청소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음성파일, 전사자료, 필드노트 등은 2020년에 수행된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자료 DB구축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3) 자료분석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2021년에 수집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2022년에 신규 패널에 대한 3차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질적연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질적 종단자료 심층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⁶⁰⁾ 이에 따라 올해 분석은 일차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시급한 지원요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하였다.⁶¹⁾

이에 올해 수집된 자료들은 각 사례들의 수집된 정보들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를 통해(Patton, 2001), 각각의 청소년들의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재검토하면서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이 의미단위들을 개념화하여 하위범주화하고 또 이를 재 범주화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쳤다. 비교분석법 내에서 면접참여자과 맥락적 요인(예, 시간, 환경, 문화)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코딩된 텍스트가 또 어떻게 유사하게 코딩되는지는, 개별 자료 안에서 또 전체 자료에 걸쳐 수렴(내적 동질성)과 발산(외적 동질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Hays & Singh, 2012). 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과 당시 가정 및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하고, 각 면접내용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60) 기존 패널의 경우 올해까지 3차에 걸친 면접이 완료되어 종단적인 질적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협동연구를 통해 각각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기존 패널의 경우 4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그리고 신규 패널의 경우는 3차에 걸쳐(올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2차) 축적된 질적자료를 심층분석하고 통합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61) 코로나19에 따른 차질도 있었으나(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주요 기관인 꿈드림센터 운영이 가변적이었음), 올해 이월 패널을 대체하고 또 구성비가 낮았던 읍·면 및 중소 도시 패널 14명을 추가 발굴하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데이터 수집 일정이 지연된 탓도 있다.

어느 정도 범주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러한 범주화가 개별 자료와 전체 자료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재확인하는 연역적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의미 단위 도출과 범주화, 상위범주화가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괄보고서 내에서는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이나 특정 주제 및 내용의 경우 2020년도 자료를 재검토, 확인하면서 변화내용과 관련한 일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 분석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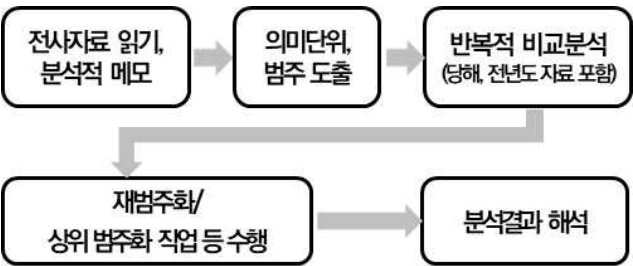


그림 IV-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자료 분석 개요

이와는 별개로 비록 종단자료가 2회 차에 그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발달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몇몇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사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당초 본 면접조사가 사례연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사례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마다 각자의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별화된, 또는 맥락에 따라 유사한 경험을 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있으며, 이들의 과거와 현재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례별로 접근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격적인 질적 종단자료 분석은 3회차 조사가 완료되는 차년도에 수행될 예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1차 및 2차년도

조사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진로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사례연구가 특별한 인물이나 집단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구 과정(Merriam, 1988)이라고 할 때, 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특별하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1~2차 면접조사에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조합,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면접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중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며, 이외 중학교 시절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 사례도 함께 검토하였다. 선정된 전자의 3개 사례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이 어떠한 전후과정을 거쳤는지, 또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일련의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중단 결정, 이후 생활과 진로준비, 현재 진로관련 현황 및 심리정서적 상태, 향후 계획 등에 초점을 두어 전년도 조사 자료와 올해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질적자료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자료 및 필트 노트를 토대로 이전년도 전사자료와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삼각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주요 타당성 증거 전략은 외부감사(audit)과정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검사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Creswell, 2015). 이를 위해 의미단위 및 범주화 도출과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질적연구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더하였다. 또한 결과 분석 및 해석을 수행한 연구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한 바,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 경험과 이전년도 전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얻게 된 개별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정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밝힌다.

4) 연구참여자의 특성

올해 수행된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3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전체 37명 중 남자 청소년이 13명, 여자 청소년이 24명이었으며,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2명, 중소도시 16명, 읍·면지역 10명이었다.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10명이 조사거절 및 연락 두절로 올해 조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 이탈패널은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다가 이후 쉼터를 나가면서 연락이 지속되지 못했으며, 나이는 19세 이상인 경우가 다수였다.

2021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들을 연령별로 보면, 만15~16세가 8명, 만17~18세가 가장 많은 27명이었고, 만19세인 청소년은 1명, 만 20세가 1명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한명이었고, 대체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정인 사례도 상당 수 있었다. 학교 밖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19명, 직업형이 8명, 무업형이 10명이었는데, 대학진학 희망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에 더해 고등학교 입학 청소년이 모두 학업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추가로 포함된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인 학교급 전환기에 학교를 그만 둠에 따라 이전년도 학교 밖 청소년 패널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드물게는 초등학교 5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 홈스쿨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고,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주요 사유를 보면, 2020년에는 학교부적응과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인한 학교 중단이 두드러졌는데(김희진 외, 2020), 추가 패널의 경우는 학교생활과 친구 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뿐 아니라 홈스쿨링을 포함한 장래계획 차원과 건강 및 종교가 영향을 미친 사례 등 좀 더 다양한 이유들이 눈에 띄었다. 친구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청소년 사례도 한 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7명, 직업형이 4명, 무업형이 3명이었다.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신규 패널의 대도시 거주 비율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전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을 다변화하여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만 각각 8명과 6명이 신규 패널로 추가되었다.

표 IV-7. 2021년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연구 참여자 번호*	기본 현황				이용/ 지원기관	학교 밖 관련		
	연령 (만)**	성별	거주지 규모	가족관계		학교밖 유형	학교중단시기	학교중단 주요사유
청소년1	17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부)	꿈드림	무업형	2017년 중 1	집단따돌림, 교사와 갈등
청소년2	17	여	중소도시	한부모(부), 여동생	청소년 쉼터	학업형	2020년 3월	특에 박힌 학교 생활, 따돌림
청소년3	15	남	중소도시	부모님, 여동생	꿈드림	무업형	2019년 중 1	운동실력 향상
청소년4	18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꿈드림	학업형	2019년 11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음
청소년7	17	남	중소도시	고모, 할머니, 누나(다문화)	청소년 쉼터	학업형	2018년 중 2	학교부적응
청소년9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남, 여동생 2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4월	친구 관계, 빠른 대학 진학 위해
청소년11	18	남	특별·광역시	부모님	유사 지원기관	직업형	2019년 6월	학교에 대한 흥미 없음
청소년12	17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꿈드림	무업형	2020년 7월	학교 부적응, 공황장애
청소년14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 1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7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15	16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1명	꿈드림	무업형	2018년 10월	규칙적인 생활 어려움
청소년16	17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어머니)	유사 지원기관	학업형	2019년 5월	본인 일과 학교생활 충돌
청소년19	18	남	특별·광역시	어머니와 거주	유사 지원기관	무업형	2020년 (고교 미진학)	학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청소년20	17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오빠 1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4월	건강, 친구관계, 강압적인 학교
청소년21	18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자매 2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8월	특에 박힌 학교 생활
청소년22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1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11월	집단따돌림

연구 참여자 번호*	기본 현황				이용/ 지원기관	학교 밖 관련		
	연령 (만)**	성별	거주지 규모	가족관계		학교밖 유형	학교중단시기	학교중단 주요사유
청소년24	16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1명	청소년 쉼터	무업형	2019년 5월	특에 박힌 학교 생활, 교사 폭력
청소년25	19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모), 여동생 2명	꿈드림	직업형	2018년 12월	특에 박힌 학교 생활
청소년26	18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언니 1, 남동생 1	꿈드림	직업형	2019년 11월	집단따돌림, 교사 무관심
청소년28	18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부), 남동생, 고모	꿈드림	학업형	2019년 8월	집단따돌림
청소년30	18	남	읍·면지역	부모님, 누나 1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7월	교환학생 가기 위해
청소년31	16	여	읍·면지역	부모님, 언니 1명	꿈드림	학업형	2019년 중 2	진로 결정 후 학업중단
청소년32	18	여	읍·면지역	한부모(모), 오빠 1명	꿈드림	무업형	초 4	학교 부적응, 친구 관계
청소년33	20	여	읍·면지역	부모님, 형제자매 4명	꿈드림	학업형	2016년 고 1	집단따돌림

※ 이하 청소년들은 2021년에 신규 추가된 패널임

청소년34	17	남	중소도시	부모님, 누나, 동생	꿈드림	무업형	2021년 4월	자유롭지 못한 학교생활
청소년35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꿈드림	학업형	2019년 고 1	친구 추천
청소년36	16	여	중소도시	부모님	꿈드림	학업형	2020년 고 1	건강 문제
청소년37	17	여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학업형	2020년 고 1	친구 문제
청소년38	16	남	읍·면지역	부모님, 누나 2, 동생 2	꿈드림	직업형	2020년 고 1	종교영향
청소년39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꿈드림	학업형	2019년 고 1	스트레스
청소년40	17	남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직업형	2020년 고 1	미래 계획
청소년41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 2	꿈드림	학업형	2017년 중 2	심리적 문제
청소년42	16	여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직업형	2020년 고 1	대인관계 스트레스
청소년43	18	남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학업형	2019년 고 1	친구 문제
청소년44	17	여	읍·면지역	부모님	꿈드림	직업형	2020년 고 1	진로계획
청소년45	16	여	중소도시	부모님	꿈드림	무업형	2016년 초 5	홈쿨링
청소년46	16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	꿈드림	학업형	2021년 고 1	학교 싶은 공부하기 위해
청소년47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꿈드림	무업형	2021년 고 2	진로탐색

주: * 청소년 1~33번의 특성 관련 정보는 본 연구의 2020년도 보고서(김희진 외, 2020:230~232)의 해당 내용에서 발췌·정리함.

** 청소년들의 만 나이 산출에 차이가 있어 '2021 - 출생연도 = 만나이' 기준으로 일괄 산출함.

3. 질적연구 분석결과⁶²⁾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사례

(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발달 개요

2020년에 신규 패널로 구축되어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2021년 면접에도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일부가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을 거쳐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시범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는 비록 2회 차에 그치지만 조사내용에서 나타난 학교를 그만두기전과 그만두는 과정, 이후 경험에 대한 회고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과 2021년 면접조사결과에서 해당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질적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개입과 지원들,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차년도에는 추가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2~3회차 동안 누적된 종단 질적자료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분석을 위해 먼저, 2020년에 이 면접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중 올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현재 주요 생활, 활동, 특히 진로와 관련한 변화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들 청소년의 현재 진로 관련 상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대학진학에 성공한 청소년, 인턴십이나 청소년작업장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 대학수시 입학이나 수능준비 중인 청소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복교한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검정고시 준비와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리스타 직업체험 후 현재 카페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도 있었다. 이외에 특별히 진학이나 취업준비 없이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새롭게 진학형, 취업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면 표 IV-8과 같다.

62) 본 절에서 2020년의 면접조사 관련 내용은 3차년도 연구인 김희진 외 연구(2020)의 신규패널 질적 자료를 재분석하거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표 IV-8. 현재 진로상황 유형별 2020~2021년 조사참여 학교 밖 청소년 사례 구분

유형	2020 → 2021년 진로관련 현황	해당 청소년 사례번호	사례 수	특이사항
진학형	대학진학 성공 후 재학중	9, 14, 22, 28, 30	5명	—
	대학수시입학 준비 / 수능준비	4, 12, 21 / 16, 20	5명	4명은 아르바이트와 병행
	고등학교 (재)입학 / 입학 준비 중	7, 15, 31 / 3	4명	7명은 코로나19에 따른 검정 고시 연기로 입학 지연
취업형	인턴십 / 청소년작업장 활동	24 / 26	2명	—
	아르바이트	25	1명	—
	취업 성공 후 근무중	11	1명	—
검정고시	검정고시 준비	2, 19, 33	3명	2명은 대학입학에 성공하였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진학 하지 못함
기타유형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학원 수강 등	1, 32	2명	—

주: 대학입시와 아르바이트 병행일 경우 대학입시 집단으로 분류

올해 면접조사에도 참여한 23명 중 대학진학에 성공한 청소년이 5명, 수시나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4명, 고등학교 입학이나 준비 중인 청소년 4명으로, 진학과 관련된 청소년 사례 수는 총 13명이었다. 인턴십과 청소년작업장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은 2명, 게임관련 컴퓨터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명, 그리고 바리스타로 카페에 취업한 청소년이 1명으로 취업형으로 구분되는 청소년은 4명이었다. 이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3명,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학원에 수강 중인 청소년이 각각 1명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의 2020년 생활과 2021년 현재 진로관련 상황을 비교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표 IV-9).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이 입학한 학과들은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등 대인서비스 관련 학과 진학이 많았으며, 취업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참여한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 이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표 IV-9. 현재 진로상황 유형별 2020~2021년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화

2021 유형	진로구분	청소년 번호	나이 (만)	2020년 당시 유형	주요 활동 및 진로관련 변화	
					2020년	2021년
진학형	대학진학 성공 후 재학 중	9	18	학업형	인턴십 참여	대학 진학
		14	19	학업형	휴식, 자격증 준비	대학 진학
		22	19	학업형	수능 준비	대학 진학
		28	19	학업형	대학 준비, 꿈드림 멘토링 참여	대학 진학
		30	18	학업형	꿈드림 참여, 외국어 공부	대학 진학
	대학수시 입학 준비 / 수능준비	4	18	학업형	검정고시 응시 후 휴식	대입 준비, 아르바이트 병행
		12	18	무업형	쉼(놀기)	학원 수강 및 카페 알바
		21	19	학업형	수능 준비	수시 대학 준비
		16	19	학업형	메이크업 진로 / 자격증 준비	수능 대학 준비
		20	19	학업형	수능 준비	수능 대학 준비, 음악 학원 수강
	고등학교 (재)입학 / 입학 준비 중	7	18	학업형	고등학교 입학 준비	코로나19로 인해 입학 지연, 특 성화고 진학
		15	17	무업형	학업	특성화고 진학
		31	17	학업형	바리스타 체험, 검정고시 준비	특성화고 진학
		3	16	무업형	검정고시 준비, 영어 공부	고교입학 예정(코로나19 영향 으로 입학 연기됨)
취업형	인턴십 / 청소년작업장 활동	24	16	무업형	휴식, 인턴십 참여	무업, 인턴십 중 코로나19로 중단
		26	19	직업형	청소년작업장	자격증 취득준비, 청소년작업장 참여
	아르바이트	25	20	직업형	취업 준비, 진로 탐색	무업, 게임관련 생활비 버는 정도
	취업 성공 후 근무 중	11	19	직업형	인턴십 참여	바리스타로 카페 취업
검정 고시	검정고시 준비 중	2	18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입위해 검정고시 다시 준비 중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진학 못함)
		19	18	무업형	토익 공부	검정고시 공부
		33	21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검정고시 공부
기타	꿈드림 참여, 학원 수강 등	1	18	무업형	바리스타, 검정고시 공부	무업, 간혹 꿈드림 등에서 관련 사업 참여
		32	20	무업형	디자인, 컴퓨터 배우기	미술학원 수강

(2) 진로발달 및 지원 필요 사례

① 대학입학 성공 사례 : 14번 청소년

대학입학에 성공한 청소년들 중 14번 청소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았다. 이 청소년의 2020년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고 빨리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면접 당시에는 대학진학을 포함한 진로선택 기로에 있었으며,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까 싶어 한국사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면접에서도 ○○학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수능을 봐야 한다는 부담이 다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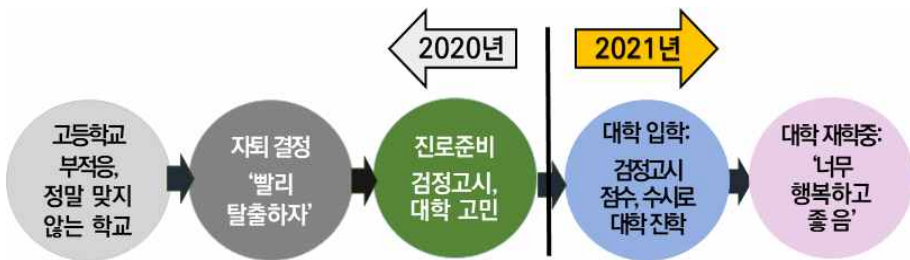


그림 IV-3. 대학 진학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2021년 면접조사에서 본인이 진학한 ○○학과는 비록 본인이 그만두었던 고등학교와 같은 계열이었지만, 일찍이 동경하는 직업이었고 또 현실적인 취업률 때문에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 진학에 성공하였으며, 면접조사 당시 비록 비대면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나 대학생활이 좋고 현재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비록 고등학교 시절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정한 계획을 이루고, 원하는 직업에 한발 다가가는 경로에 올라섰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잘 드러냈다. 이 청소년의 이러한 진로발달 과정, 경로에 대해서는 그림 IV-3과 전사자료의 청소년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정말 저랑 안 맞다**. 그냥 검정고시 빨리 따서 **고등학교 탈출하자**.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2020년 면접내용)

(검정고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중략) 한국사와 컴활은 한 번쯤은 따 놔도 괜찮다고 하는 자격증이라고 들어서요 (2020년 면접내용)

어렸을 때부터 ○○에 갈 일이 많아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봅자면 **취업률** (2021년 면접내용)

지금 (대학)생활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중략) 일단 고등학교 때보다 자유롭게 제 시간이 많은 점이 좋은 것 같아요.(중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2021년 면접내용)

14번 청소년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험을 했지만 결국 어릴 때의 동경했던, 취업률까지 고려한 학과로 대학을 진학했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비록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일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성장·발달 경로를 한 때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하면서 결국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갔다. 이 청소년의 사례는 본 면접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보고했던 자퇴,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비록 제도권 학교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잘 탐색하여 원하는 진로발달 궤적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흔히 생각하는 ‘정상’ 궤도에서 잠시 이탈한 것이 면접에 참여한 또 다른 청소년이 주변으로부터 듣게 된 ‘인생이 망한’ 경험이 아닐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 제도를 통한 대학 진학 확대와 검정고시 학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같은 민관(民官)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② 취업성공 사례 : 11번 청소년

2020년 면접에서 11번 청소년은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올해 면접조사에서 이 인턴십 경험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면접조사에서 이 청소년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흥미가 없어 결석이 잦았고, 결국 학업숙려제도 거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후 전단지 홍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드림과 유사한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바리스타 인턴ships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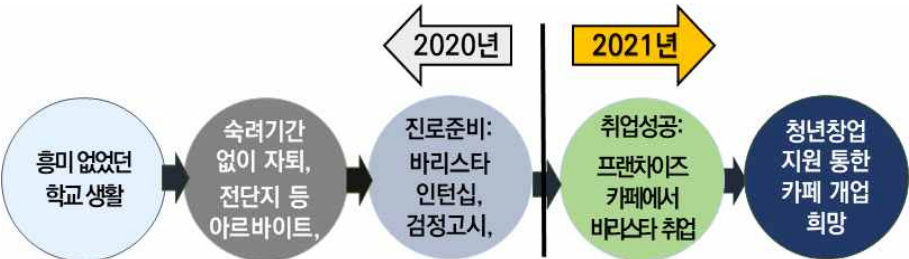


그림 IV-4. 취업 성공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2021년 면접 시에는 이 청소년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던 중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에서 바리스타로 취업한 상태였다. 또한 커피를 더욱 좋아하게 되어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도 계속하길 희망했으며, 이후에는 창업을 계획하면서 청년창업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다. 이후에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30대에 커피 빈 로스팅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이 청소년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흥미, 재미가 아예 없어서 왜 다니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검정고시를 딸 수 있는데 왜 굳이 학교를 다니냐랑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중략) 부모님 오셔서 숙려기간을 안 갖겠다고 하고 자퇴를 한 거거든요 (2020년 면접내용)
전단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었고, 전단지랑 합쳐서 헬스장 홍보 같은 거를 주로 했었죠 (중략) 자퇴생 지원센터 비슷한 거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소개 받아서 하게 됐어요. ○○○ 페이스북에서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한다고 올라온 거 보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갔다가 인턴십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2020년 면접내용)

그분 가게에서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을 하다가 아는 형님, 아는 대표님 들어가서 여기 프랜차이즈... 있다 **한 번 일해 보라 그래서 인턴십 중단하고 아는 분들 이렇게 돼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요)** (2021년 면접내용)

(면접자 : 바리스타 자격증은 왜 따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자기 만족도 있고 뭔가 제가 **커피를 좋아서** 공부하니까 좋아서 공부하는 느낌 (중략) **청년 창업지원금도** 알아보고 있어요. (중략) 20대 때까지 로스터리 카페를 하다가 30대 접어들어서 로스팅을 기업화해서 로스팅 업체 쪽으로 하고 싶어요 (2021년 면접내용)

학교를 그만둔 이후 이 청소년은 우연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페이스북에서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게 되어 방문했다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였다. 결국 이때 경험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 청소년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고,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이후 창업까지 고려하게 된 유의미한 토대가 됐다. 이는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흥미에 맞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1번 청소년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과 함께 적은 급여에 대해서도 지적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어느 업계든지 그렇겠지만 미성년자 채용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중략) **그래서 인턴십이 어떻게 보면 카페 쪽으로 준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다른 업계는 제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경력이 필요할 때 이렇게 (소개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것부터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알바 안 했던 친구들은 첫 월급을 받아 볼 수도 있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다만 너무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적다 (2021년 면접내용)

③ 검정고시 준비 사례 : 2번 청소년

2021년 면접 당시 2번 청소년은 두 번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2020년 면접자료에서 이 청소년은 시간을 정해 학교 생활하는 것이 싫었고 또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를 빠른 기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 부모님의 이혼 후 가족관계가 악화되면서

집을 나왔다. 이후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다. 이 시기에도 대학진학을 희망했으며 특히 동물을 좋아해서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2020년 면접조사 시 파악되었던 내용이었는데, 2021년 면접조사에서 전년도에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청소년은 다시 대학 진학을 위해 더 좋은 검정고시 성적을 위해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전히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면서 거주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검정고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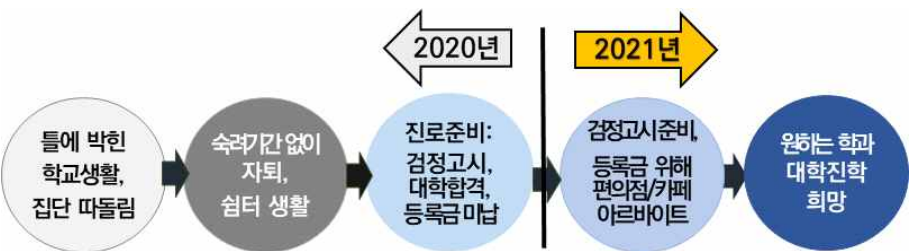


그림 IV-5. 검정고시 준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경로

2번 청소년의 면접내용에서 밝혀진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진로준비 관련 내용은 이들 청소년에게 접근이 용이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잘 보여준다. 다행히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또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지만,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학 등록금 미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부모님이 이혼했고 집을 나와 생활하지만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소외되었고,

또 대학 진학에 큰 지장을 준 안타까운 상황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까지 미쳐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가 원래 시간을 **딱딱 정해 놓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해서**, 스스로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서, 고등학교 때는 자퇴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왕따 경험도)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중략) 저희 학교는 (학업숙려제) 그런 거 없었어요. (중략) 바로 (자퇴) 처리가 돼서 (2020년 면접내용)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한 것 같다, 하나 둘씩 깨우치고 확인하면서 정 떨어져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집을) 나왔어요. (중략) 꿈드림에서 화, 수, 목, 금 2시부터 6시까지** (검정고시 수업을 들음) (2020년 면접내용)

요즘 8월 달 검정고시를 다시 보게 돼서, 검정고시 준비 겸 대학 들어갈 때 등록비 때문에 알바하고 있어요 (중략)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카페 알바**하고 있어요 (2021년 면접내용)

사실은 이번 연도에 ○○○대학교 면접을 봤었는데 **등록금을 마련 못해서 미납으로 탈락**을 하게 됐거든요. (중략) **제가 4월 달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는데, 성적이 많이 안 늘어서 다시 보는 거라서** (중략) △△△직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학과라는 거를 알게됐어요 (2021년 면접내용)

④ 이외 고등학교 입학 및 꿈드림 지원 사례 등

이외에 몇 개의 유의미한 청소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교를 준비하던 7번 청소년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당초 더 일찍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검정고시 일정이 지연되어 계획보다 늦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국 배경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역시 뒤늦게 입학함에 따라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 19로 고등학교 입학 역시 지연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청소년은 향후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대학진학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

한국에 왔는데, 그러다가 고모가 저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하는지 모르서 가지고 2년 **늦게 학교에 등록**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적은 애들하고 1학년때부터 같이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때 좀 가기가 귀찮아 가지고 (청소년 7, 2020년 면접내용)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 고2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작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밀리고 밀려서 입학할 못하고** 이번 연도가 하게 된 거예요 (청소년 7, 2021년 면접내용)

학교생활을 하면 일단 미리 그 과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못했던 수업을 쉽게 알려 주니까, 그리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대학 준비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좀 더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미리 따 놓고 대학교를 간 다음에 취직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 7, 2021년 면접내용)

15번 청소년은 규칙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중학교 1학년 시기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다녔으나 결국 그마저 그만둔 사례였다. 이후 본인이 관심을 가진 전공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으며, 관련 분야로 대학진학까지 희망하였다.

(학업중단) 계기는 일단 좀 부모님이랑 안 맞는 얘기가 충돌 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규칙적인 생활이 좀 안 돼서, 그게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청소년 15, 2020년 면접내용).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갔어요.과는 ○○○과라고 나중에 미래에 상용화 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중략) 되게 신기하고 직접 ○○도 배우면서 **조립도 해보고 띄워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일단 대학을 먼저 1년 정도 다녀보고 군대를 빠르게 갔다 와서 다시 그쪽 분야로 대학을 갈 것 같아요 (청소년 15, 2021년 면접내용).

28번 청소년은 고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 간 따돌림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2020년 면접에서도 대학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고졸학력에 그치기 싫어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친척의 조언, 도움과 꿈드림 지원과정 등을 거치면서 진로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자신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미래 직업으로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했다. 특히 이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진학 시 꿈드림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꿈드림과

함께 친척의 도움도 큰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대학에서는 근로장학생이면서 전공 특성상 자원봉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문제**였어요. 저희 반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때 까지 좀 노는 걸 좋아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같은 반 된 친구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랑 좀 안 맞아서 저를 은따같은 걸 시키더라고요 (청소년 28, 2020년 면접내용)

이제 만약에 검정고시를 따고 고졸 검정고시가 최종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서 그 뒤로 대학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28, 2020년 면접내용)

그냥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힘들었던 거 말고는, **저는 대학교를 가려고 (검정고시) 고득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았어요. (중략) **꿈드림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 28, 2021년 면접내용)

(대학) 합격하고 나서부터 저는 청소년복지나 NGO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 28, 2021년 면접내용)

이렇게 여러 사유로 중학교 시절 또는 고등학교 입학 후 바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 꿈드림 및 관련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자신이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역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정상적인 궤도 이탈로 생각하고 우려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과는 달리, 과거 학교생활에서 어려움과 부적응 등을 극복하고 다시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잘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방향성 설정과 진로 지원에 시사하는 함의가 크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사건

(1) 관계의 문제

① 가족 간 갈등

2020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와 부정적 관계의 영향, 학교폭력 등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김희진 외, 2020). 이에 2021년에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기억하는 주요 사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질문하여 현재, 또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듣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생애 기억나는 주요 사건으로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2번 청소년은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투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으로 하여금 현실을 더 깨닫게 했고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직까지 아버지와는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다.

면접자 : 혹시 자신의 삶과 생각들을 변화 시켰던 큰 사건이 있을까요?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큰 사건

청소년 :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아빠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면접자 :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있는 켄터로 나온 계기가 됐나요?

청소년 : 네

면접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년 : 집에서 나온 거니까 **현실자각도 되게 많이 했고, 독립적인 게 훨씬 자극이 돼서**

면접자 : 그러면 혹시 지금 아버님이랑 따로 연락을 하시는 거는 없으신지?

청소년 : **동생만 연락하고 지내요** (청소년 2)

② 학교 교사와의 갈등

학교 교사의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를 생애 사건으로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20번 청소년은 교복을 바지로 입는 일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 일로 생활기록부나 수행 평가 성적을 낮게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기억나는 생애 사건으로 교복 치마가 아닌 바지로 입겠다는 일에 대해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진술했는데, 2020년 면접조사에서 학교를 감옥같고, 강압적인 곳으로 진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사건이다.

[2020년]	[2021년]
면접자 : 그러면 지금 돌아봤을 때 학교라는 건 ○○한테 어떤 의미였어요? 청소년 : 저는 솔직히 감옥 같은 존재여서 면접자 : 압박감을 좀 많이 청소년 : 네. 강압적인 곳 (청소년 20)	처음에 딱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선생님이랑 좋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생활 기록부나 수행평가성적에 ○○선생님이 되게 좋지 못한 점수를 주시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쓰셔서 성적에 직결되는 쪽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하나 싶어서 자퇴를 결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중략) 교복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입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왜 안 되냐고 대들었더니 그렇게 됐거든요 (청소년 20)

그림 IV-6. 2020~2021년 학교 교사와의 갈등 사건과 그 영향

③ 인간관계

청소년기 특성 상 또래와의 관계가 미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생애 사건으로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를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었다. 35번 청소년은 제일 좋아했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가 커지면서, 그리고 또 다른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 친구들과의 다툼과 고등학교 시절의 소위 ‘일진’이라는 청소년들과의 갈등을 꼽았다(청소년

46). 후자의 청소년은 이때 담임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교사의 갈등해결 방식은 결국 교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이 생겼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믿었던, **제일 좋아하던 친구 간의 트러블인 것** 같아서. 별거 아니어도 크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35)

중학교 2학년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싸운 거** (중략) 소위 말하는 일진이 같은 반이 돼서. **개네와도 마찰이 있어서** (중략) 제일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그 잘못을 저한테 넘기고, 자퇴하기 전에 애들 몇 명을 불러서 각자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진짜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싫어하는구나. **담임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 안 좋게 대하셨고** (청소년 46)

(2) 학업중단에 대한 회고

① 스스로에게 놀라운 / 부정적인 자퇴 사건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를,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을 자신이 기억하는 생애 사건으로 꼽는 청소년도 있었다. 15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던 결정은 결국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청소년은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다녀보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시 자퇴할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하였다. 47번 청소년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일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진술했다. 이 청소년은 ‘바른 생활 그 자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퇴 경험은 마치 ‘정상적인’ 선택이 아닌 놀라운 일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아마 자퇴를 한 게 그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자퇴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제가 현재 모르는 지식이 쌓였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사건이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중략) 근데 어떻게 보면 회피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이었으면 부딪혀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일단 그 상황을 피한 거니까 (중략) 요즘에는 확실히 바뀌었죠. 원래 고등학교도 처음에 1학기까지만 다녀보고 너무 힘들면 다시 자퇴할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5)

자퇴한 게 저는 제일 큰 사건이었고요. (중략) 저도 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자퇴를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바른 생활, 그 자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게 어쩌면 저랑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도 **제 자신이 놀라운 것 같아요** (청소년 47)

② 성격에 좋은 영향을 준 자퇴 경험

또 다른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도 했다. 한 청소년은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없었던 과거에 비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 재학 시 자신을 괴롭히는 소문과 친구들과 단절되면서 적극적이고 외향적이 됨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청소년 22). 또 다른 청소년은 자퇴가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켰으며, 과거와는 달리 조심스러운 언어 습관을 갖게 되었고, 타인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청소년 28).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들 청소년은 성격적으로 더 적극적이 되었고, 방황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아무래도 저는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꿀 계기가 자퇴했던 시점을 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중략)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완전 내성적이고,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친화력도 좋은 편도 아니고. 저의 옛날 소문들을 아는 친구도 많이 없다 보니 **패기와 친화력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외향적인 성격이고, 자퇴를 계기로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게 너무 많아서** (청소년 22)

저는 자퇴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성격 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중략) 중학교 때는 안 좋은 친구들이랑 몰려 다니면서 방황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듣는 말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도 되게 막 한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퇴를 하고 나서부터 **말도 조심하면서 험하게 안 하고, 그리고 성격도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28)

③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감을 갖게 됨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편하게 수용하게 되거나(청소년 12)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더 갖게 되기도 하였다(청소년 33). 특히 33번 청소년은 자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퇴하고서 약간 자기 **자신 자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걸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더니 좀 편해진 게 있었어요 (청소년 12)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자퇴한 순간 (중략) **자퇴를 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탈출시키는 그래서 자퇴한 순간이 가장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중략) 제가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요. 한계점을 불만한 검정고시 공부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구나** (청소년 33)

(3) 사건·사고에 대한 기억과 이후 영향

① 학교폭력 방관 사건

학교폭력 방관자로서 겪은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 될 수 밖에 없는 성적인 피해 경험을 한 청소년도 있었다. 교통사고로 성격이 변했다는 진술도 있었고, 어린 시절의 따돌림과 놀림이 아직까지도 생애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기도 하였다. 30번 청소년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방관한 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일련의 일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회고하였다. 학교폭력을 방관한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표했고, 이 사건이 자신이 학교를 불신하고 결국 떠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 폭력 이런 것도 그런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사회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당연할 수 있는데 둘 다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너는 가해자라고 말도 존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너는 사회봉사 (중략), 변명할 시간도 안 줘요. 그 자체 때문에 저는 학교 불신이 생겼고. 솔직히 **(학교폭력) 방관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건 억울한 게 없는데 **바로 발원할 기회도 안 주고** 피해자 잘못은 보지도 않고 (청소년 30)

②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기억⁶³⁾

남자친구로부터의 성폭행과 7~8세 때의 친척오빠로부터의 성추행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일평생 참아내기 힘든 범죄 피해이다. 이러한 경험을 생애 가장 힘든 사건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으로 이야기한 청소년이 두 명이 있었다. 한명은 남자친구로부터의 성폭행과 이로 인한 학교 소문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으며, 다른 한명은 친척오빠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족행사에서 대면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앞선 사례의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서의 여러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솔직히 자퇴하게 된 이유부터 그리고 제가 가출한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사건인데, (중략) 제가 그만 만나고 싶었기에 이유를 통보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것 때문에 제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었고, (악성) 소문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중략)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소문은 이미 그렇게 났고 가족은 옆에 없고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센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사촌오빠한테 당한 에피소드 아시죠? (중략)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③ 어린 시절 따돌림과 놀림 기억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어린 시절의 괴롭힘과 따돌림, 놀림의 기억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 36번 청소년은 일찍 어린이집에 입소한 일로 결국 초등학교때 집단따돌림을 당하였고, 41번 청소년은 초등학교 시절 놀림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고, 구토와 같은 식이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엄청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애들이니까 심하게 따돌리지는 못했지만 잠깐 **괴롭힘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저를 주로 괴롭혔던 애를 5학년 때 다시 만났거든요. 그렇게 돼서 **왕따를 당했었어요** (청소년 36)

63) 이러한 면접내용을 보고한 청소년 아이디(번호)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다.

원래 다이어트 때보다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뭐라고 할지도 무섭고,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장난식으로 던지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혼자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기도 싫었고 (중략) **지금도 약간 살지면 하루 종일 안 먹으려고** (중략) 두 번째 다이어트 때는, 처음에는 제가 먹고 계속 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토해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청소년 41)

표 IV-10. 학교 밖 청소년들이 회고하는 생애 사건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 사건	관계의 문제	가족간 갈등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인한 아버지와의 갈등. 이후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게 됨(2)
		학교교사와의 갈등	교복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겠다는 문제로 학교교사와의 갈등을 겪고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가 됨(20)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작은 갈등이 큰 문제가 되었음(35)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와 큰 다툼(46)
	학업중단 에 대한 회고	놀라운 / 부정적인 자퇴 사건	자퇴가 제일 큰 사건이었고, 바른 생활인인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것이 놀라움(47) 자퇴가 회피수단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특성학교 복교)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 중임(15)
		성격에 좋은 영향을 준 자퇴경험	학교를 그만둔 이후 친화력이 좋아지고 외향적이 되어(우울증)약 복용도 줄어듦(22) 그런데 자퇴를 하고 나서부터 말도 조심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격으로 바뀌었음(28)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감을 갖게 됨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좀 편해짐(12)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검정고시 공부를 통해서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뀜(33)
		학교폭력 방관 사건	학교폭력 방관으로 사회봉사를 했던 일(30)
	사건·사고 에 대한 기억과 이후 영향	성범죄 피해경험에 대한 기억	남자친구로부터의 성폭행과 잇단 소문, 이때 도움을 주었던 꿈드림센터(00) 어린시절 사촌오빠의 성추행 기억(00)
		어린 시절 따돌림, 놀림 기억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이어진 따돌림(36) 초등학교 시절 남자애들의 살핀 것으로 놀렸던 기억(41)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및 지원 요구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경험

① 긍정적인 지원 경험

○ 다양한 경험이 좋았음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지원인 검정고시 준비와 이를 위한 온라인 강의와 교재비, 대학진학 정보 제공, 급식지원과 멘토링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업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지원 경험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양한 경험과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자 : 어떤 점에서 혹시 도움이 되셨어요?

청소년 : 아무래도 교통비 지원은, 저희 집이랑 꿈드림이랑 조금 멀어서 교통비가 조금 드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수업 들은 후에 점심 지원도 있었는데 골고루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모전 지원 같은 경우는 제 꿈과 관련된 지원이어서 제 꿈에 대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동아리나 이런 쪽도 다 **저의 꿈과 연계해서 지원 받는 거다 보니까 많이 지원 받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9)

청소년 : 그 선생님들이 이런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저는 약간 예스맨 스타일이어서 물어보시면 저는 괜찮다, 하고 싶다고 해서 웬만한 거는 다 참여를 했었어요.

면접자 : 어땠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청소년 :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방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왜냐하면 계속 학원에만 있다가 가끔씩 꿈드림 가서 놀다시피 배우고, 악기 하고 그런 게 **조금은 멘탈 치유 쪽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22)

청소년 : 소풍 같이 가주는 거나 직업 체험. 그리고 운전면허나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도와주는 거** (좋았어요) (청소년 40)

9번 청소년의 경우는 꿈드림의 교통비 지원과 급식 지원, 자신의 희망과 관련된 공모전 및 동아리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22번 청소년은 악기 레슨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소풍, 직업체험, 운전면허 취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40).

○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며, 성취 경험이 됨

특히 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이 진로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및 인턴십 등의 경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5번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으나 꿈드림에서 잡아준 것이 좋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번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장의 대학진학 독려와 지원에 힘입어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하였는데, 이 청소년은 중국배경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뒤늦게 학교에 입학하면서 적응이 어려워 중학교 시절 학교를 그만둔 사례였다. 현재는 복교과정을 거쳐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꿈드림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꿈드림이) 좋은 점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좀 잡아주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35)

(꿈드림 소장님이) 진로 쪽에서도 가장 뚜렷한 아이인데 너가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대학교 가겠다는 마음을 잡으면 소장님께서 여러 지원을 해서 대학교 때 등록금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청소년 7)

좀 더 구체적으로 꿈드림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인턴십 경험, 진로교육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례도 있었으며(청소년 24, 38, 39), 자신이 원하는 학원과 멘토링 선생님 등 자신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21번 청소년의 진술은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꿈드림의 지원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청소년 1)으로 하여금 성취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이러한 의미 있는 성취 경험은 청소년들 앞에 놓인 많은 과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인턴십하는 게 제일 저한테 좋은 지원인 것 같아요. 제가 바리스타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도 해 주고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청소년 24)

(꿈드림에서) 자격증 많이 따도록 도와주거든요. 진로교육도 많이 해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38)

혼자 했으면 자격증 딸 일도 없었을 거고, 쉽게 합격을 했을 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자격증을 딴 것 같아요. 합격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39)

(꿈드림) 선생님들이 적성에 맞는 것도 알려 주시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려 주셔서 신청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면접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학원 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것도 제가 원하는 과목 선생님과 함께 해서 제 학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21)

면접자 : 어쨌든 다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세요?

청소년 : 바리스타는 **제 인생 첫 자격증**이니까 의미가 있죠 (청소년 1)

○ 다시 이용하고 싶고, 계속 이용 예정인 꿈드림

꿈드림의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지금은 여건상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음에도 차후에 다시 꿈드림을 가보고 싶거나, 꿈드림의 지원과 격려때문에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청소년 3, 39). 3번 청소년은 자신과 같이 학교를 그만둔 상황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청소년 : 시간이 있으면 (꿈드림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면접자 : 가서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청소년 :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다시 공부도 해보고 싶고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이랑도 가끔씩 만나고 싶고(중략) 정말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3)

면접자 : 어떤 면에서 계속 이용할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 지원을 100% 다 해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39)

② 약간의 아쉬움이 남음

○ 경제적 지원에서의 지역 격차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참여의 어려움 속에서도 검정고시 지원, 인턴십 및 직업체험,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지자체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들이 다수 보고되었는데,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 (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주2회 한 달 동안 꿈드림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선정 기준은 몰라요. 그때 참여수당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주2회, (중략) 아무나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면접자 : 기준은 잘 모르세요?
청소년 : 네 (청소년 1)
청소년 : 솔직히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헛점이 너무 많아요. **선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청소년 30)

그러나 청소년들은 지원금을 받는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청소년 1, 30), 또 다른 청소년은 한 달에 6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출석하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호응이 좋았는데, 교통비 뿐 아니라 교재나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 등이 가능한 점에 대해 긍정 평가하기도 하였다(청소년 22). 그러나 교통비가 일반적으로 10만원인데 비해(중소도시 거주자인 22번 청소년의 경우도 10만원 혜택), 38번 청소년이 거주하는 군지역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몇 배의 교통비를 더 지원받고 있는 사례⁶⁴⁾와 비교하면, 이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번

64)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곳임에도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중도일보(2021.05.03.).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충남 최초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502010000107>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청소년은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으며, 본인 친구는 티머니를 통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역별 지원에서의 격차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지원 대해 충분한 안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꿈드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꿈드림에서 주는 티머니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학용품이나 교재 같은 거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살 수 있고, 그 정도 (면접자 :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 22)

(군청에서의 지원은) 버스비나 **교통카드 5만 원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청소년 38)

(프로그램의) 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 꿈드림과 시골에 있는 꿈드림과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폭이 좁기는 할 것 같아요 (중략) 저는 티머니(교통비 지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신청을 할 것도 별로 없기도 했고**, 그런 지원의 폭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22)

표 IV-11.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지원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긍정적인 지원 경험	다양한 경험이 좋았음	꿈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았음(9) 약기 등을 통한 멘탈 치유가 괜찮았음(22) 여러 자격증 취득 지원이 좋았음(40)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며, 성취 경험이 됨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좀 잡아주어서 좋았음(35) (꿈드림)소장님의 격려로 대학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짐(7)
		다시 이용하고 싶고 계속 이용 예정인 꿈드림	다시 (꿈드림)에서 선생님과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음, 같은 상황의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듯(3) 지원을 잘 해주고 격려도 잘해주셔서 계속 이용하고 싶음(39)
	약간의 아쉬움이 남음	경제적 지원에서의 지역 격차	(꿈드림) 참여수당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름(1) 참여수당 선발 기분이 모호함(30) 군청에서 교통카드 5만원 지급받음(38) 교통비 지원을 모르는 친구가 있었음(22)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지원을 포함하여, 향후 희망하는 지원 등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올해 면접조사 결과는 크게 심리정서적 지원, 대학진학 제도 보완 및 진학준비 지원, 자립 지원 및 취업 기회 확대, 청소년상황에 따른 경제적 지원,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지원방식 및 범위 확대로 크게 범주화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제도적, 실천적 발전을 보여주었으나 청소년들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지원들은 그림 IV-7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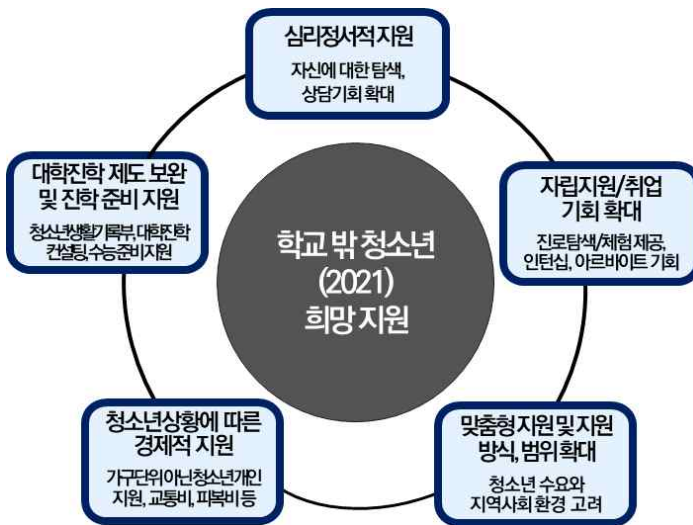


그림 IV-7.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2021년 지원 수요

①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원 확대

○ 진로탐색 및 체험 기회 희망

면접 진행 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꿈드림의 진로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충분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위해 지역 내 다른 기관과 꿈드림과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구체적으로 희망하였다(청소년 11, 41).

그냥 여러 진로가 있는 걸 접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 직업체험이나 그런 걸 좀 더 늘리면 (청소년 11)

(진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시 안에 있는 기관이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데랑 협업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41)

○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회 확대

전년도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진로검사를 희망하거나 진로관련 상담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길 기대하였으며,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청소년 37, 42, 38). 22번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에 비해 학교 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로관련 정보가 자신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적게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충분한 진로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인 또래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부분에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에 있어 청소년이 원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활동을 하기 보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을 더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청소년 31).

성격 검사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제일 과학적인 방법이 사실 테스트잖아요. 전문적인 테스트. (중략)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는지** 사실 머리 속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나 표로 눈에 딱 보이게, 그런 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37)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아마 진로가 가장 큰 스트레스, 걱정, 고민거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사분 연결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42)

지금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중략) 취미도 그렇고 솔직히 취업 쪽. 취업이나 진학. (중략)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확실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도움 받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면접자 : 선생님들이 주시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청소년 22)

직업을 많이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그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38)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막 바리스타, 제과제빵이잖아요. 근데 **다른 엄한 걸 시켜줄 때가 있어요.** 무슨 컵 만들기 하러 와라, 그런 걸 해서 할 바에는 **그냥 관심 있는 걸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밀어주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직업적으로 더 많은 걸 체험해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31)

② 자신에 대한 탐색과 전문 상담 지원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또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 상담에 대한 지원 요구를 표명하였다.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3명 청소년은 항상 혼자 있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상담을 선호했다. 올해 새로 조사에 참여한 37명 청소년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기 위한 심리검사를 원했으나 꿈드림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상담 받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뭔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항상 혼자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년 3)

자기 자신의 이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뭐가 약점이고, **나의 숨겨진 강점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해봤거든요, MBTI 검사를. 그런데 사실 MBTI 검사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준비돼 있는 게 없다고 하셔서** (청소년 37)

(상담 프로그램은 따로 없었나요?) 네, 그냥 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요청을 하면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거라 따로 **아예 그런 시간 자체가 있지는 않아요** (청소년 12)

특히 22번 청소년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했다. 이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사유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소문 유포와 집단따돌림이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담에 대한 욕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면접에서도 상담 및 미술 치료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2021년도 면접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냈다. 이 청소년은 현재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고, 꿈드림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과거 학교에서의 심각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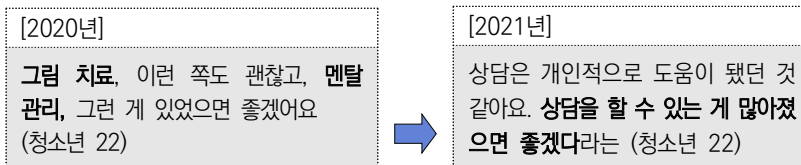


그림 IV-8. 2020~2021년 지속적인 상담지원 희망 사례

③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특히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2번 및 24번 청소년과 같이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번 청소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24번 청소년은 정부지원을 어머니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그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특히 24번 청소년은 정부에서 빈곤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집을 나와 생활함에 따라 가구 내 재분배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청소년은 전년도 면접조사에서도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쉼터의 이전으로 다른 쉼터로의 이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는 궁극적으로 가구 단위가 아닌 청소년 또는 청년 1인 대상의 복지 지원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 : 아무래도 부모님 소득을 보는 게 조금 있어서, 부모님한테 지원을 하냐 안 받는데 **소득을 보는 경우는 제가 해당이 안돼서, 그런 거는 조금 힘들죠.**

면접자 : 그러니까 부모님 소득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청소년 :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 지원이나 한부모 가정 지원 이런 거? **지원금 엄마가 받아요.**

면접자 : 엄마가 다 가져가는 건가요?

청소년 : **저는 못 받아요.** (중략) 엄마가 안 줘요 (청소년 24)

④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진학 준비 지원

○ 청소년생활기록부,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올해 면접조사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입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2020년 조사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자의 대학 입시 전형 방식과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검정고시

점수 환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김희진 외, 2020). 올해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새로운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와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진학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아지고 또 이들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계속되면서 대학 진학 욕구도 더욱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 사실 대입에서는 많이 불리한 것 같긴 해요. 검정고시 점수로 학생부 기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면접자 :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생기부가 생겼는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 어떤 건가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따로 남게 되는데, 학교 밖 친구들은 자퇴를 하고 나면 생기부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꿈드림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 주셔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생기부예요
 청소년 : 제가 작년에는 안 했고, 이번에 꿈드림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종락) 그게 대학교 6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대학교에만 일단 넣을 수 있도록
 면접자 : 그렇구나. 이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청소년 : 꿈드림 선생님이 알려 주셨어요 (청소년 21)
 청소년 : 수시는 제한이 많아서 정시 준비하려고요.
 면접자 : 제한이라는 게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제한이 돼요?
 청소년 : 검정고시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안 받는 대학이 많아요 (청소년 35)

21번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자격을 취득한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학 수시 입학 준비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학 입시에 필요한 학생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이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 역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토로하였다(청소년 35).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학생생활기록부 대신 대학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⁶⁵⁾.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준비를 더욱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꿈드림센터에서 진로 희망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꿈드림센터의 이러한 대학입시 지원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꿈드림의 또 다른 주요 역할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혼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실질적인 대학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청소년 22, 20). 20번 청소년은 특히 꿈드림에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 지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대학 입시 지원으로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청소년 21).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 내용이었다.

아무래도 학업을 중단하니까 대학교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고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해서 거의 2~3개월 동안 계속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의 저 혼자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직접 전화번호 알아서 검색해서 전화를 다 해보면서 이 정도 점수가 되면 갈 수 있냐, 아니면 제가 검정고시생인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냐, 아니면 검정고시 성적 평균이 이 정도 되면 몇 등급으로 쳐 주냐. 이런 거를 다

65)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2021년 입시에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로 '청소년생활기록부'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입시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대학교 4개 대학이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간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몰아봤었어요 (중략)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애들한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어른들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죠** (청소년 22)

(꿈드림 통한) 대학교 입시 설명회 같은 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을 텐데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청소년 2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컨설팅**,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꿈드림 선생님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뭔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어요). 자소서 쓰는 거나 아니면 면접 볼 때, 그런 컨설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21)

○ 수능 준비 및 학업 지원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전년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청소년 39, 44, 42). 청소년생활기록부의 활용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측면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35번 청소년이 김정고시를 통한 (수시)대학 지원에 제한이 많다고 한 것처럼,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계없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은 올해 면접조사에 새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더 나타났는데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수능 및 학업 지원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능 관련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청소년 39)

(수능을 통한 대학 선택은) 제한이 없어서, 자퇴생이라고 제한이 없어요 (청소년 44)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점은행제 쪽으로 **학습 플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42)

⑤ 자립 및 취업관련 지원

○ 자립지원 필요성

조사에 참여한 28번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뿐 아니라 취업 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의지가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검정고시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었다.

청소년 : 그냥 자퇴한 친구들한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조건 자퇴하고 **검정고시만 보고 끝이 아니라, 어디 취업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독립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 직업 훈련이라든가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청소년 : 네.

면접자 : 그런 거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 아니요. 되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검정고시만 보고 땡,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한테 **동기 부여,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28)

○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비를 위해 또는 용돈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많았다. 전년도 면접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연령제한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어려워 했는데,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2, 9).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연령 기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가능했다(청소년 4).

알바 기회(가 필요해요), 학교 밖이라서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알바 찾아보면 고졸이상이라서 들어갔는데 스무 살부터 받아 준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기관이랑 연계되는 거 아니면 **미성년자가 알바 자리 구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요** (청소년 2)

저는 용돈을,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쓰는 방식인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9)

면접자 : 그러면 혹시 그런 쪽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라는 곳이 자유로우니까 그쪽으로 더 지원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까요?

청소년 : 네.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4)

특히, 9번 청소년은 현재 대학 재학 중으로 전년도에는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학원 지원을 희망하였는데, 올해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인턴십과 학원 수강을 병행하다가, 올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업과 함께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평범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실히 생활해 나가는 청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2020년]		[2021년]
- 인턴십 참여		- 대학 재학 중
- 학원 수강 (청소년 9)	⇒	- 아르바이트 희망 (청소년 9)

그림 IV-9. 2020~2021년 지속적인 진로준비와 함께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사례

○ 자격증 취득 지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학원 수강과 교재비 지원 외에, 기존의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에 대한 일반적인 2급 자격증 취득 지원뿐 아니라 취업현장에서 보다 효용성 있는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청소년 14, 35). 또한 엑셀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요청하였다(청소년 44, 35).

그냥 교재비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자격증 하나 따려면 교재비가 적게 잡어도 3~4만 원은 기본으로 들기 때문에 (청소년 14)

엑셀, 이런 기본 자격증(취득 지원이요) (청소년 44)

네일아트 쪽이나 바리스타, 제과 제빵. 이게 2급은 지원을 해주는데 1급까지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1급까지 따보고 싶고 IT 관련해서도, 컴퓨터 관련해서도 더 해보고 싶어요.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청소년 35)

○ 청소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인턴십 기회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그 경험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희망하였다(청소년 28, 19). 그러나 19번 청소년은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했고 또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일해야 하는 것에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소년은 다양한 인턴십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제안도 하였다. 22번 청소년 역시 그저 금전적인 이유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가능한 청소년의 특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다양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턴십이라고, 학교 자퇴한 친구들을 어느 기관이랑 연락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한 달에 30만 원 내외로 일을 하면서 버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 직업 체험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중략)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 28)

인턴십이 제일 문제인 점이, 제가 했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중략) **그냥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몸이 힘들었어요.** 너무 빠졌어요 (중략) 어른들하고 똑같이 일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른들하고 일하는 거에서 사실 배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략) **인턴십의 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어요** (청소년 19)

그쪽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턴십을 하려면 관계를 맺는 사업장이 있어야 할 테고,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드벤처지를 더 줘야 될 텐데, 그거를 추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19)

지금 인턴십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하고 싶은 거는 사업장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회사가 그냥 청소년이면 짐을 하나 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선뜻 해주겠다는 사람이 아예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자체도 좀 더 회사한테 혜택이 좀 더 있으면 말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중략) 청소년이 인턴십을 하게 되면 뭔가를 해 주겠다 이런 걸 국가적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22)

⑥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한 지원 확대

앞서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희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 경우 청소년들에게 더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청소년 22, 15). 또한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6번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활동이나 문화체험이 어려운 환경에서 방문 강사 등을 통한 체험 활동을 희망하였다.

학습 지원이나 상담 지원 말고 다른 일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면, 그런 거를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꿈드림 다니는 청소년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22)

이렇게 하려면 힘들겠지만 흥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센터가 나오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맞춤형 그런 식으로 (청소년 15)

(강사) 오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가니까. 센터에 되게 많더라고요. 제빵을 할 수 있는, 오븐 같은 것도 있어서 강사 선생님들이나. 문화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만드는 거, 원데이 클래스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 36)

표 IV-12.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진로탐색 및 직업 체험 지원 확대	진로탐색 및 체험 기회 희망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함(11)(41)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회 확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싶음(37) 적극적인 진로상담 기회가 있었으면(42) 학교다니는 친구보다 도움을 적게 받는 것 같음(22)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자신에 대한 탐색과 전문 상담 지원		직업을 많이 알려주었으면 함(38) 청소년들이 원하는 체험을 하면 더 좋겠음(31)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위해 상담도 좋음(3)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싶음(37) 상담기회가 많지 않음(12)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부모님 소득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함(2) 저소득 수급가정이나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미치지 못함(24)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진학 준비 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 검정고시 통한 진학 확대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을 통한 대학 진학 기회 확대(21) 검정고시 통한 대학진학 제한 해소 희망(35)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혼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22) 학교보다 대학입시 설명회 등이 부족함(20)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구체적인 대입 컨설팅 필요(21)
		수능 준비 및 학업 지원	수능 관련 지원 필요(39) 대학 선택에 제한이 없는 수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44) 학점은행제 학습플랜 지원(42)
	자립 및 취업관련 지원	자립지원 필요성	검정고시에서 끝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 필요(28)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많이 힘들(2)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으면(9) 연령에 자유로운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했음(4)
		자격증 취득 지원	자격증 취득 위한 교재비 지원(14) 엑셀과 같은 기본 자격증 취득 지원(44) 포토샵,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자격증 지원(35)
		청소년 특성 고려한 인턴십 기회 제공 확대	인턴십 경험이 좋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28) 인턴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과 동등하게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음. 인턴십 자리가 늘어나길(19)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필요(19)
	청소년의 요구/환경을 고려한 지원 확대	청소년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지원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회가 있었으면(22) 흥미에 따라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15) 방문강사 등을 통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기회 희망(36)

4)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인식

(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만족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그만둔 학교 대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모교로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거나(청소년 26), 취업하고 현재 잘 된 것이 지원체계의 도움이며(청소년 11), 학교를 그만둔 이후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청소년 20). 특히 26번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예전에 다니던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낯선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면도 보였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꿈드림을 ‘모교’로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어 떠나고 싶지 않아했다. 아래 26번 청소년의 이야기는 학교를 떠나 새롭게 적응한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꿈드림 가려면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에 정도 많이 들었고, 내 시작점이 거기인데 굳이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 제가 낯을 가리기도 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학교 대신에 여기를 모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전학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친해진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좀 아쉬워 할 것 같고, **저도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정착했어요** (청소년 26)

저는 취업하고 잘해서 딱히 아쉬울 게 없어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청소년 11)

(꿈드림에서) 원가 **체계적으로 정보도 알려주시고** 몰랐다면 정말 0부터 시작했을 텐데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 20)

○ 지원서비스 전반에 만족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꿈드림센터에서의 여러 지원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했으며, 꿈드림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 모임, 축제와 같은 행사, 체험활동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 32, 33). 이를 통해 꿈드림이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꿈드림에서) 키트도 되게 잘 나오고 지원 받고 있는 물품들이 잘 나오고 경제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게 **잘 나와서 만족스러워요** (청소년 33)

아무래도 센터에서는 청소년단이라고 매년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축제 같은 거 열어서 애들끼리 만나서 **놀거나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아서 그게 좋았어요** (청소년 32)

○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 지원도 필요

면접조사결과는 꿈드림을 통한 정부 지원이 비교적 잘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체계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종사자들에 대해 ‘호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청소년 33). 26번 청소년의 경우는 꿈드림이 격려와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를 도왔고,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개입하여 청소년을 도왔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작업장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학업지원과 경제적 지원 모두에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소문과 집단따돌림, 교사의 무관심으로 학교를 떠난 26번 청소년이 꿈드림센터를 학교 대신 ‘모교’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꿈드림이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의 필요를 채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 청소년의 2020~2021년도 면접조사 결과로부터 과거 가정·학교에서의 경험, 이후 쉼터와 꿈드림에서의 지원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간단히 도식화한 그림 IV-10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적 개입이 청소년의 현재의 모습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림 IV-10. 2020~2021년 면접조사결과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26번)의 경험과 꿈드림 지원

체제가, 그러니까 자퇴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호감이에요, 저희를 위해 일해주는 분들이 (청소년 36)

센터에서 솔직히 해 줄 거 해 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안된다고 했던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알바로 부당하게 돈을 늦게 받았다고 하면 선생님이 한 2, 3일 정도는 일단 지켜보라고 해서 2, 3일 정도 지켜봤다가 안되면 선생님이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제가 제일 걱정했었는데 어떻게든 따게 도와 주셨고, 진짜 공부 엄청 못하는데 선생님이 처음 봤던 점수와 제가 시험 봤던 점수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진짜 노력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못 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작업장을 소개 시켜 준 것도 (청소년 26)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꿈드림을 통한 여러 지원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센터 내에서 잘 홍보, 안내되었고, SNS를 통해 안내문자 발송 및 홍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청소년 40, 39). 그러나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어(청소년 30) 지원방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상세히 안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들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포스터식으로, 센터 가면 곳곳에 많이 붙여져 있어서 가끔 가서 보면서 쉽게 알 수 있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청소년 40)

(면접자 :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잘 전달되는 것 같으세요?) 네. 개별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주셔서** (청소년 39)

그냥 뭐랄까 정신이 없고 시스템망이 없는 느낌이랄까 딱딱하니까 완전 중학교처럼 여기 눌러 갈 사람 손 들어, 이런 느낌, 제가 거기서 일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자기도 들었고 그리고 일단 솔직히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헛점이 너무 많아요. **선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청소년 30)

③ 꿈드림 이용 장벽

○ 많은 사람이 모르는 꿈드림 지원

전년도 면접조사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지적하였는데(김희진 외, 2020), 올해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단순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 외에,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장애들이 함께 보고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인지하여 해당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2번 청소년의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의 표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꿈드림센터의 제한적인 인지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에 학교를 그만두기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청소년 12, 44).

(지원서비스에 대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청소년 2)

(꿈드림이나 유관 서비스) **있다는 거를 그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아예 몰랐던 거였고** 제가 자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보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청소년 12)

제 주변에도 자퇴한 애들이 꽤 있는데, **개네들은 아예 자기 지역에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44)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이런 거만 연결해주고 **꿈드림** 관련해서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중략)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중략) 고등학교 앞에 보면 (센터 홍보) 현수막 같은 거를 달아 놓는데. 그쪽에 센터를 홍보했는데 **학교 측에서 안 좋게 보여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청소년 43)

그러나 43번 청소년이 보고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나 관련 정보제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연계, 지자체 / 지역교육청과의 연계, 또 관련법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 의무가 더욱 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적극적인 홍보, 특히 학교 대상 홍보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특히 학교 교직원의 인식 개선과 함께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청소년 15, 22). 31번 청소년은 꿈드림을 늦게 알게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을 전했다(청소년 31).

근데 확실히 홍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텐데 직접 찾아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걸 해 주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15)

아무래도 꿈드림을 아예 모르는 친구도 많았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런 데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너네들한테 해 줄 수 있으니 신청을 하든가 지원을 해라, 이런 홍보라든가 정보를 전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략) 제발 **상담 지원과 교직원의 인식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애들한테 꿈드림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청소년 22)

꿈드림을 알기 전에는 그냥 댄스학원, 집 이렇게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라서 좀 짜증이 났어요. 하고 싶은 걸 하긴 해도, **근데 꿈드림을 알고 나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네일아트도 했고 카페 알바도 하면서 (중략) 빵 만드는 것도 있었고 컴퓨터 만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해보지 못하는 거죠** (면접자 : 누군가 알려줬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운 거네요?) 네 (청소년 31)

○ 꿈드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꿈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접근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꿈드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다. 이전년도 면접조사에서도 꿈드림센터를 학교와 같은 곳으로 생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꿈드림에서 학교생활에서처럼 어울리기 싫은 또래들을 만나게 될까 걱정하여 생긴 오해(청소년 5, 2020년 면접내용)라면(김희진 외, 2020), 올해 조사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 따른 내용이었다. 15번 청소년은 학교 시스템이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꿈드림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라는 생각했고, 16번 청소년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꿈드림센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청소년 : 일단 자퇴생들 대부분이 약간 좀 학교 시스템이 안 맞아서 자퇴하는 거잖아요. **꿈드림 센터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귀찮아서 잘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15)

청소년 : (꿈드림) 거기는 약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가 지원이 아니라

면접자 :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의 하나예요.

청소년 : 아, 진짜요? 그거는 몰랐어요.

면접자 :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청소년 : 네. 저는 그 기관이 **개인적인, 약간 기부, 후원으로 지원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 16)

더구나 16번 청소년은 2020년에도 면접에 참여하여 SNS를 통한 꿈드림 홍보를 제안하였었는데, 올해 면접조사에서 꿈드림센터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생각했다는 다소 놀라운 응답을 하였다. 이는 센터 이용 청소년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센터 특성과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 알림으로써 가족과 주변에 꿈드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의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 관심이 없고 참여하기 싫어서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시스템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귀찮아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청소년 15), 또는 지원사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청소년 42). 일부는 다소 일탈하는 청소년들과 어울릴 경우 지원사업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청소년 28).

일단 자퇴생들 대부분이 약간 좀 학교 시스템이 안 맞아서 자퇴하는 거잖아요. 꿈드림센터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귀찮아서 잘 안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15)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방황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안 좋은 친구들이랑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28)

그거는 있긴 한데, 그게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가 (지원)받는 거를 **꺼려해서 안 하는 거 제외하고**는 (꿈드림 지원이) 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42)

④ 흥미있는 다각적인 홍보 방법 필요

○ 다양한 방법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방법 필요

청소년들이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잘못된 오해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홍보에서 찾아야 하며,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1번 청소년은 교통비나 지원금과 같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청소년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웹드라마 제작 및 유튜브

송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홍보방법을 제시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청소년 15, 19, 39, 41).

꿈드림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진짜 프로그램도 참가하기 싫고 노는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교통비라도 지원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솔깃하잖아요**. 뭔가 돈으로 유혹하라는 건 아닌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솔깃할 만한 내용 아니면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좀 더 잘 알 수 있게 좀 더 눈길이 가고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11)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홍보) 그걸 해 주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15)

제 생각에는 미디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해서 만든 **웹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19)

(홍보)방법은 SNS, 인스타요 (청소년 39)

그냥 시나 시 안에 있는 교육청에서나, 요즘은 **SNS**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몇 분씩 글 올려 주시면 집에 계신 자퇴생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 41)

○ 학교에서 직접 꿈드림에 대해 알려줘야 함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의 사례가 학교(wee센터, 상담교사 등)로부터 꿈드림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없어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막막하게 학교를 떠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은 학교를 떠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청소년 28, 19, 43).

학교에서 자퇴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꿈드림에 왔던 친구들도 다 학교에서 소개 시켜 주거나, 자기가 직접 알아서 오는 친구들은 몇 명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니면 친구 소개로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위클래스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자퇴를 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 줘라**,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28)

자퇴하는 친구들한테 일단 홍보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소책자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문자 같은 거를 뿌리든, **의무적으로 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19)

학교 측에서는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이 아니니까 못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을 학교 측에서 센터 측에 그만둔 학생이 있으면 알려 주면 좋지 않을까** (청소년 43)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는데(청소년 12, 14),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원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소책자 발송, 학교에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함을 여러 청소년들이 지적하였다(청소년 12, 16, 14, 35, 20).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이야기한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는 지자체나 개별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관련 부처나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 (홍보방법) 자퇴하면서도 선생님이나 (꿈드림에 대해)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자퇴하면서 한 번쯤은 가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성격상 또 달라서 한 번 오고 아예 안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혜택이 많은데 그걸 놓치면 아쉬우니까.**

면접자 : 그럼 ○○씨 자퇴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으셨나요?

청소년 : 네, 안 줬어요 (청소년 12)

청소년 : 자퇴생 자택으로 우편물 하나 보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이 있다, 그 정도

면접자 : 학교에서도 뭔가 정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었나요?

청소년 : 네. 없었어요 (청소년 14)

(꿈드림 정보를) 자퇴할 때 차라리 그냥 유인물처럼 나눠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년 16)

학교는 다 다니니까 학교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꿈드림 이용 가능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35)

자퇴를 한 친구들한테는 전부 약간 꿈드림센터를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꿈드림이라도 다니면 정보가 확실하게 내려오니까. **학교에 자퇴 신청서를 내고 나올 때 이런 데가 있다고 알려주기라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청소년 20)

표 IV-1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만족함	지원서비스 전반에 만족	꿈드림을 학교 대신 모교로 생각하고 싶음(26) 취업하고 잘 (생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됨(11)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검정고시에 큰 도움이 됨(20) 여러 지원들에 대해 만족함(33) 꿈드림에서의 청소년활동이나 행사가 도움이 되어 좋았음(32)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 지원도 필요	지원체계가 자퇴생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호감임(36) 검정고시나 작업장 등 하고 싶었던 것 다 도와줌(26) (꿈드림 내) 프로그램 홍보가 잘 되어 있음(40) 프로그램에 대해 문자로 잘 안내해 줌(39) 지원대상자 선발 기준이 애매모호함(30)
	꿈드림 이용 장벽	많은 사람이 모르는 꿈드림 지원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지원서비스(2) 학교 다닐 때 아예 모르는 꿈드림(12) 자퇴한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 꿈드림이 있는 지도 모름(44)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음(43)
		적극적인 홍보, 특히 학교 대상 홍보 필요	적극적인 홍보 통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유도 필요(15) 학교 대상 홍보가 필요함(22) 꿈드림을 늦게 알게 돼서 아쉬움(31)
		꿈드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학교 시스템이 안맞아서 자퇴했는데 꿈드림도 비슷하게 생각해서 안가는 것 같음(15) 꿈드림을 국가가 아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알았음(16)
		관심이 없고 참여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잘 안가는 것 같음(15) 방황하는 친구들이 노는 것 좋아하고 참여를 안하려고 함(28) 지원을 꺼려해서(42)
	흥미를 끌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필요	다양한 방법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방법 필요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프로그램 통해 홍보(11) 적극적인 홍보 통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유도 필요(1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웹드라마도 좋을 듯(19)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활용(39)(41)
		학교에서 직접 꿈드림을 알려줘야 함	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안내가 필요함(28) 소책자 등 학교에서 직접 의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음(19) 학교측에서 꿈드림센터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에 대해 알 려주면 좋을 것 같음(43) 자퇴과정에서 학교에서 안내해 줘야 함(12)(16)(14)(35)(20)

(2) 지역사회 자원과 거주지에 대한 인식

① 지원내용 및 다양한 체험에서의 지역 격차

○ 진로관련 인프라 격차

앞서 경제적 지원에서 지역 간 지원 차이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은 지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격증이나 언어 등 진로준비와 관련된 학원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고 생각하였고(청소년 2), 지역 내 학원에 등록하려고 해도 배우고 싶은 학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청소년 37). 이러한 지원 및 인프라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와 관련하여 26번 청소년은 타 지역에서 가능한 지원이 자신의 지역 꿈드림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역별 지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학원 같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자격증이나 언어 등등, 그런 학원 (청소년 2)

지원이 사실 많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이 학원도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우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지역 내에 있는 학원 같은 데만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청소년 37)

○○ 센터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냥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그거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은 다 지원해 준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센터에 물어보니까, 선생님 혹시 운전면허증 지원이 됩니까? 했는데 어디서 생뚱맞은 소리를 듣고 왔냐고, 그래서 ○○ 센터는 된다고 했더니 **지역이 다르잖아, 이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별로 차이가 많구나.** 그러니까 ○○은 도시가 적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략)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 지원이 빵빵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별시는 잘 되고 광역시는 살짝 손해 보는 느낌인데 (청소년 26)

○ 지역에 따른 제한적인 경험 : 문화체험, 또래관계 등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 하였다. 14번 청소년은 문화체험과 같은 기회가 전혀 없으며, 32번 청소년은 지역에

또래들이 많이 없어서 타 지역에 살게 되면 새로운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경험 및 인적, 물적 자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체험할 수 있는, 뭔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서요 (중략) 전통민속놀이, 그런 거 체험하려면 타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청소년 14)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사실 학교 안 다닌 애들도 그런데 제 또래 아이들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타지역에 가서 살거나 있다 보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소년 32)

② 이동성의 문제

○ 지원서비스 접근성의 중요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12번 청소년은 집이 이사했음에도 현재 관할지역 내 꿈드림센터 위치가 떨어져 이사전 지역의 꿈드림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면접자: ○○○ 그쪽에도 뭔가 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옮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청소년: △△△보다는 확실히 □□□쪽이 지점이(센터가) 여러 개 없기도 하고 ○○○도 되게 넓잖아요. 근데 지점이 하나인가 그래요. 근데 그 거리나 ∇∇ 가는 거리나 비슷해가지고 그냥 다니던 데로 다니고 있어요 (청소년 12)

○ 이동의 불편함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조사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문제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14번 청소년, 군지역에 거주하는 37번과 40번 청소년 모두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살고 있는 지역이 외진 곳임에 따른 교통의 단점을 지적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성(mobility)의 문제,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진로관련 인프라 접근성의 문제는

사회적 배제, 불평등의 문제로 더욱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희 지역은 일단 장점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시간이 너무 안 지켜져서 지각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라든지 (청소년 14)

(○○군 지역이) 버스가 너무 없어요 (청소년 37)

일단 ○○은 조금 외지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게 단점이고 (청소년 40)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자원과 지역에 대한 인식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지역사회 자원과 지역에 대한 인식	지원서비스 및 다양한 체험에서의 지역 격차	진로관련 인프라 격차	수도권보다 학원이 별로 없음(2) 배우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지역에 학원이 없음(37) 타 꿈드림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을 해줌.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함(26)
		지역에 따른 제한적인 경험	문화체험 할 것이 하나도 없음(14) 지역에 또래 친구들이 없음(32)
	이동성의 문제	지원서비스 접근성의 중요성	군 지역이 넓음에도 꿈드림까지 거리가 멀어 이사 전 꿈드림을 계속 이용함(12)
		이동의 불편함	대중교통의 불편함(14) 버스가 너무 없음(37) 외진 곳이어서 교통이 단점임(40)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과 실존하는 차별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있다고 생각했으며(청소년 15, 31), 학교를 안 다닌다고 했을 때 비행청소년 이었거나 무언가 잘못해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오해받은 경험도 있었다(청소년

30). 26번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고, 심지어 또래 친구들로부터도 ‘인생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0번 청소년은 ‘일진’으로 오해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만연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잘 나타내 준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정관념이 심하잖아요.** 학교를 안 나오면 문제 있는 애로 생각하는 게 심한 것 같아요 (청소년 15)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꼭 학생이 여기에서 돈 벌고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느낀 건데, 카운터에서 있는데 결제는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돈을 뿌리면서 저한테 주고,** 술 먹고 와서 너는 이 나이 먹고 돈을 여기서 벌면 어쩌냐 이러면서 가서 공부해서 대학교 가야지, **친구들도 자퇴했다고 너 인생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그냥 자퇴를 했어도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 주고 싶었어요 (청소년 26)

학교 다니는 애하고 어쩌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말해줬는데 **처음에 학교 안 다녀서 일진 같은 건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충격이기도 했고 처음에 나를 봤을 때 일진이라고 생각했나 서운하기도 했었거든요 (청소년 30)

자퇴했다고 하면 왜 자퇴했어? 그랬는데 자퇴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자퇴한 게 엄청 제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닌데 **자퇴를 했구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한 게 오히려 자랑스럽거든요 (중략) **조금 자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다들 하셔서 (청소년 31)

특히, 20번 청소년이 겪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래의 해당 청소년의 진술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식 개선에 참여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두기보다 환경적, 제도적으로 먼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캠페인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학교 밖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팸말도 만들고 팸플렛도 만들어서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서명운동도 했었는데 **많이 반응이 안 좋았어요.** (중략) **정말 저희가 문제가 된 것처럼 보시길래** (청소년 20)

② 나쁜 경험도 없고 시선도 괜찮아진 듯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21번 청소년은 부당한 경험은 없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인지 부정적 인식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였다(청소년 28). 학교를 그만둔 지 이제 3년차 되어가는 9번 청소년의 경우 초반에는 자퇴라는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을 느꼈지만 현재는 괜찮아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9번, 20번 청소년은 연령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업 중단 때문에) 부당한 경험은 진짜 한 번도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청소년 21)

누군가 저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욕 해도 딱히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쁜 인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청소년 28)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없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젊으신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학교 자퇴했다고 하면 학교 자퇴? 이러면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청소년 9)

③ 청소년관련 행사·공모전이나 취업에서의 제한 경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43번 청소년은 지역의 경찰서에서 개최한 청소년 대상 이벤트에서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참여했음에도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20번 청소년 역시 경연대회 참가 시 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물론 행사나 대회 참가 기준이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제도권 학교와 같은 기관에 청소년이 소속되어야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소속인 경우도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서 쪽에서 학교 애들한테 이벤트를 했는데, 저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냈거든요. 그런데 저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참가만 해도 장려상 같은 거를 준다고 했었는데, **학교 측이 아니어서 그런지 답장 같은 게 안 와서, 아무것도 안 오고**.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회가 (청소년 43)

무슨 경연대회에 나가면 조건이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일 때도 있고 약간 아니면 오디션 같은 걸 볼 때도 학교를 나왔네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본 적도 많고 (중략) 원가 증명해 줄 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청소년 20)

학교 밖 청소년은 취업 제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19번 청소년은 취업과 관련한 교육지원을 받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청소년은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결국 이러한 지원이 재정 낭비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취업 및 자립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25번 청소년은 취업 알선을 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에 대한 해당 업체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재조명한다.

자퇴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거는 교육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19)

제가 (취업) 알선을 2번 받았었는데 (중략) 거기가 어떤 공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검정고시라고 하면 표정에서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좀 말하기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들이 너 혹시 검정고시 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청소년 25)

(2)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 필요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일반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인생을 포기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청소년 36, 37). 특히 37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닌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42번 청소년의 경험 역시 낮 시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낯선, 불편한 시선과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냥 사람들의 시선만, 너무 안타깝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서, 생각보다 그런 이유가 아닌데 (청소년 36)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한 건 맞지만 그래도 굉장히 답한 문제는 아니라고, 약간 가볍게 이런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을 깎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37)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제가 **그냥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 오늘 학교 안 가냐고 여쭙보세요.** 자퇴하고 초반에는 물어보시면 학교 안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거 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설교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몇 차례 반복되고 나서는 학교 다닌다고 하자, 학교 다니는데 오늘 아파서 빠졌어요라고 얘기하거나.. (청소년 42)

② 제도적 변화 필요

지방의 한 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32번 청소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이 청소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40분가량을 걸어서 귀가한다고 진술하였다(청소년 32).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례처럼 대중교통 운행기사의 성인요금 요구에

따라 결국 도보이동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모든 지원 규모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교통비 지원이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준비를 위한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또 고립되지 않도록 읍·면지역에서 더 많은 수준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그 지역에서 일반 버스 탈 때는 안 그랬는데 마을택시, 마을버스라고 지역에서 하는 전화를 걸어서 미리 예약을 하면 마을까지 데려다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탔었는데 **학교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셔서 홈스쿨링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 안 다니니까 어른 요금 내라고** 그러셨어요. (중략) **그래서 40분 걸어서 집에 가더라도** 웬만하면 (이용안하는) (청소년 32)

그냥 든 생각인데 대회나 공모전 같은 걸 보면 나아지고 있긴 한데 대상이 청소년 대회인데도 그냥 학생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 그런 표기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청소년 32)

또한 앞서 언급한 청소년 관련 대회나 행사 참가 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 청소년은 청소년관련 대회나 공모전 참가 기준에 학생이라고 표기하기 보다는 청소년 연령대를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청소년 32). 앞서 교통비 지원, 청소년증과 같은 관련제도 홍보와 더불어, 행사 / 공모전 참여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IV-15.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과 차별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낙인과 차별 문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하는 차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음(15) 어른과 또래 모두에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음(26)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일진이 아니었는지 오해받았음(30) 잘못해서 자퇴한 것이 아닌데도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하는 것 같음(31)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음(20)
		나쁜 경험도 없고 시선도 관찮아진 듯	부당한 경험은 한번도 없었음(21) 그렇게 나쁜 인식은 없는 듯(28) 초반에는 안좋은 시선이 있었으나 지금은 관찮아진 것 같음(9)
		청소년관련 행사·공모전이나 취업에서의 제한 경험	사전 확인후 경찰서관련 이벤트에 참여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음(43) 경연대회 참가 기준이 뭔가 증명해 줄 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하는 것이었음(20)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재정낭비임(19) 취업알선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라는 이유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함(25)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안타깝게 보는 조심스러운 시선이 아니었으면(36) 검정고시를 보는 청소년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들(37)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 학교 안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음(42)
		학생이 아닌 청소년 기준으로의 제도적 변화	학교를 안다닌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요구하는 버스기사(32) 대외나 공모전에는 학생기준이 아닌 청소년연령대로 참가기준을 표기했으면(32)

6)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어려움

(1)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어려움

① 코로나19로 인한 진로관련 애로사항

○ 검정고시 준비나 학업이 잘 진행되지 않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20년 면접에서도 일부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었는데(김희진 외, 202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삶의 많은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을 잘 유지하며 지냈고, 꿈드림센터에서도 온라인 /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면서 검정고시 지원, 체험활동, 멘토링, 급식 지원, 학원 지원 등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면접조사 곳곳에서 나타났다(김희진 외, 2020). 그러나 2021년에 더욱 심각해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들의 진로관련 활동과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서두르는 검정고시 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꿈드림센터가 개관 및 휴관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 일정에 맞춰 학습을 진행 중이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6번 청소년은 코로나19가 해당 지역에 급격히 확산되면서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기 어려워 불안하였으며, 온라인 수업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센터를 방문하여 학습 진도를 맞출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교시기 학교를 그만둔 7번 청소년은 당초 2021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준비하였으나 계획했던 검정고시 응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결국 복교일정도 미뤄져 차년도에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크게 지장을 주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취득과정도 계속 미뤄진 사례도 있었으며(청소년 26), 의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수업 시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공부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한 청소년 있었다(청소년 40).

저는 ○○센터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는 휴관이어서, 초반에 코로나가 너무 터진 시기여서 센터에서 공부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불안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면서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청소년 40)

작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밀리고 밀려서 입학할 못하고 이번 연도에 하게 된 거예요 (중략) 검정고시 시험 일정 계획이 4월 달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6월 달이 되고, 학교 접수하는 날짜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안되니까 2학기 때도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연도 1학기에 들어간 거예요 (청소년 7)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자격증을 더 빨리 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올해 3월부터 잡혀져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못 따니까 다음 자격증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청소년 26)

인터넷으로 선생님이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공부에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데에 힘들지 않을까 (청소년 40)

○ 인턴십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중단

코로나19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그리고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용실이나 카페에서의 인턴십도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 참여하지 못했고, 바리스타 인턴십과 자격증 준비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청소년 37, 24). 44번 청소년은 작년까지 참여했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올해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인턴십으로) 저는 미용 쪽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결국 못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16)

원래 수업이 좀 있었어요, 바리스타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확진자) 1000명 넘어가서 바로 아무것도 못하게 다 끝났어요 (청소년 37)

바리스타 인턴십이라고 하면서 커피 내리는 것도 배우고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해서 그거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면접자 :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건가요?) 네 (청소년 24)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뭐를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빵집 가서 케이크 만들기 (중략) 직업 체험처럼 해보는 거예요 (청소년 44)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아르바이트 기회가 더 없음

코로나19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 9번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고, 12번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공고 자체도 많이 없다고 하였다. 두 청소년의 이야기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더욱 힘들어진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저는 용돈을,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쓰는 방식인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략) 아르바이트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9) (아르바이트를) 구하고는 있는데 미성년자는 확실히 안 써주다 보니까 공고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체도 구하기 힘들어서 (청소년 12)

위의 청소년 중 12번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전년도에도 이로 인한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 올해 상황을 함께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11과 같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못하고, 계획했던 학원도 다니지 못하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진로계획에 지장을 주었는데, 2021년에는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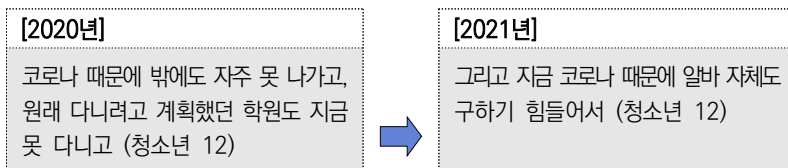


그림 IV-11.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애로사항

○ 아르바이트 사업장 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청소년들의 보고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코로나 19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폐업에 따른 일자리 상실을 경험하게 하였다. 19번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업장이 폐업을 하면서, 그리고 20번 청소년은 일하고 있던 카페가 코로나19로 폐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 시작한 미술학원 조교일 역시 현재는 학원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자리 역시 함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26번 청소년은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저조라는 이유로 급여가 삭감됨에 따라 당초 약속된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저는 운동하면서 공부하고 알바 하다가, 요즘엔 코로나이고 별의 별 일이 있어서 다 그만 두고 쉬고 있습니다. (중략) **알바하고 있던 사업장이 폐업을 해서** (청소년 19)

카페는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돼서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에 시작한 게 미술 조교인데 입시철에는 저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어서 너는 **그냥 쉬라고 하셔서** 입시 말고 한가할 때 도와달라고 하셔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청소년 20)

그렇게 중국집 알바를 많이 해도 한 달에 50 밖에 못 받았어요.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완전 삭감 시켜서** 그렇게라도 돈을 받으니까 일단 일을 했는데, (중략) 법에 어긋나기는 하는데 지금 그거를 제가 센터에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하고 판매가 너무 안되다보니까 (청소년 26)

③ 코로나19 관련 지원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방역물품을 요청했고, 집에 갇혀 있는 힘든 시기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희망하기도 했다(청소년 19, 20). 26번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서의 수학여행 개최나 여러 활동들이 코로나 19로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른 답답함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사례는 팬데믹 상황

에서의 방역관련 지원 뿐 아니라 비대면 활동 기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백신 접종은 그냥 희망이고, 코로나19를 위한 마스크나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마스크 사는 돈이 많이 들어서** (청소년 19)

다들 집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청소년 20)

가끔 답답하긴 한데, 남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략) **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막혔던** 걸로 알고, 수학여행이나 움직임 중심인 활동들이 많이 막혔고,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워서 힘든긴 해요 (청소년 36)

④ 비대면의 장점

○ 고립감을 덜 느낌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사회분위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 22번 청소년은 당초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들과 동떨어진 기분을 느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 교육 확대로 모두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고립감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은 “시기가 좋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솔직히 초반에는 조금 동떨어진 기분,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월 달쯤에, 그러다 보니 애들이 아무리 **학교를 가는 시간이 돼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쓸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기가 좋았으니** (청소년 22)

○ 차별 경험이 특별히 없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면접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하거나 실제로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사람들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차별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22번 청소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져서, 그리고 38번

청소년 역시 대면접촉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약간 시국을 잘 타고난 게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수업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별 받아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22)

코로나라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차별이나 불이익) 그런 거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38)

표 IV-16.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과 어려움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코로나19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진로관련 애로사항	검정고시 준비나 학업, 자격증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음	꿈드림 휴관으로 검정고시 준비가 어려웠음(26) 검정고시 일정 연기로 복교일정이 연기됨(7) 자격증 취득과정이 계속 미뤄짐(26) 인터넷으로 (꿈드림관련)선생님과 수업진행이 잘 안되고 집중력도 떨어짐(40)
		인턴십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중단	미용실이나 카페에서 인턴십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고 결국 못함(16)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음(37)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못함(4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아르바이트 기회가 더 없음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찾기가 더 힘들(9)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체도 구하기 어려움(12)
		아르바이트 사업장 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아르바이트 하던 사업장이 폐업함(19) 코로나19로 카페가 폐업함(20)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함(26)
	코로나19 관련 지원	지원관련 고려사항	마스크 지원이 필요함(19) 집에 갇혀 있어서 마음이 힘들(20) 꿈드림의 여러 활동이 막힘(26)
	비대면의 장점	고립감을 덜 느낌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해서 특별히 쓸쓸함을 느끼지 않음(22)
		차별 경험이 특별히 없음	비대면 수업을 주로 해서 차별받지 않음(22)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지 못해 특별히 차별 경험이 없음(38)

7) 생활시간 분석결과

2020년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면, 학업 / 학습, 인턴십 / 아르바이트, 여가활동을 위한 소요시간과 그 내용,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과 활동내용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희진 외, 2020). 자신의 진로목표에 부합하도록 시간을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취침시간과 운동시간 부족, 스마트폰을 통한 획일화된 여가시간 활용들에 대한 부분도 재조명되었다(김희진 외, 2020).

이에 2021년도에도 동일한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2021년에 추가 패널로 면접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읍·면 / 소도시 지역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일과 주말 중 각 하루를 선택하여 이들의 시간 사용 내역, 주요 활동과 활동 장소, 동반인 등을 파악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별로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학업 / 학원 / 꿈드림 이용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시간, 인턴십 / 아르바이트 시간, 여가시간 등으로 분류하여 이때 사용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주중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시간

주중 하루를 선택하여 24시간 동안의 주요 활동과 사용 시간, 장소와 동반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 청소년별로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35번 청소년은 인구 11.2만 정도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장래 희망을 염두에 두고 6시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을 수능공부에 할애하였으며, 여가시간에는 주로 웹툰이나 유튜브 등을 시청했고, SNS로 시간을 보냈다. 37번 청소년은 인구 6만

수준의 작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꿈드림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대상 손뜨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진행 뿐 아니라 수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나름 체계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아직 진로가 구체적이지 않아 진로관련 검색에 한 시간여를 사용하였다.

38번 청소년은 장래희망이 아직 미정이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34번 청소년은 인구 15.7만 정도의 중소도시에 거주하였는데 조사참여자 중 가장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해당 청소년은 정오시간까지 수면을 취했으며, 오후와 밤 시간에 2~3시간씩 공부하고 있었다. 미래에 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될 수 있길 희망하는 36번 청소년은 생활시간 조사 당시 꿈드림센터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외 시간은 친구와 같이 보내고 야간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실기 공부를 했다.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3.4만의 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43번 청소년은 조사 당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었으며, 이외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꿈드림이나 인턴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기도 했고 운전면허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같은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은 여가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 시청, 유튜브 이용,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수면시간은 적게는 5시간부터 많게는 11시간까지 차이가 컸는데, 양극단의 34번과 43번 청소년을 제외하면 7~9시간의 보통의 수면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여가시간 역시 4시간에서 11시간으로 차이가 컸는데 43번 청소년의 경우 수면시간은 가장 적은 5시간인데 비해 여가시간은 가장 많은 1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7. 평일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ID	청소년 35	청소년 37	청소년 38	청소년 34	청소년 36	청소년 43		
나이(성별)	만18세(여)	만17세(여)	만16세(남)	만17세(남)	만16세(여)	만18세(남)		
거주지	인구 11.2만 중소도시	인구 6.2만 군지역	인구 8.5만 군지역	인구 15.7만 중소도시	인구 10.3만 중소도시	인구 3.4만 군지역		
장래희망	간호사	대학진학	미정	미정	교사(상담교사)	상담사		
조사요일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24~1시	학업/수능공부	여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수면	수면	수면	여가		
오전1~2시								
오전2~3시	수면	수면				가족과 식사	수면	
오전3~4시								
오전4~5시								
오전5~6시								
오전6~7시								
오전7~8시				운전면허 시험 장으로 이동				
오전8~9시								
오전9~10시			꿈드림 이동	세면, 식사	수면	식사	학업 / 운전면허 필기 시험	
오전10~11시	아침식사	학업/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컴퓨터 연습 및 공부	꿈드림 이동 학업 / 꿈드림센터 청소년들과 ○○ 동아리 활동					
오전11~12시	여가/웹툰, 유튜브, 연락			엄마와 식사 후 설거지	여가/ 음악 감상	친구만나기 위해 이동		
오후12~1시	식사	여가/ 축구 관련 유튜브 시청	학업 / 공부				친구와 식사	여가
오후1~2시				학업/수능공부 (강의, 문제집)	일(인턴십) / 어르신 대상 손 뜨개 수업 강의	학업 / 국수사 과영 과목 공부		
오후2~3시	식사 준비 및 치우기 등	어르신 수업 후 수업 일지 작성	여가 / 친구와 카톡, 페이스북	여가 / PC 게임				
오후3~4시	학업/수능공부 (강의, 문제집)				집으로 이동 (버스환승 2회)	여가 / 만화 애니 시청	여가 / PC, 리그 오브레전드 게임	
오후4~5시		여가 / 웹툰, 유튜브, SNS 등	가족과 식사	가족들과 식사				
오후5~6시								여가 / 카페, 산책, 쇼핑
오후6~7시	가족과 식사	건강 / 산책						

ID	청소년 35	청소년 37	청소년 38	청소년 34	청소년 36	청소년 43
오후9~10시	(친구동반)	진로 관련 검색	여가 / 가족과 대화, 티비 시청	건강 / 운동	여가 / 강아지 산책	세면
오후10~11시	여가 / 전화, 카카오톡	세면	여가 / 드라마 시청	여가 / 인스타그램	여가 / 음악듣기	여가
오후11~12시		여가 / 넷플릭스	수면	수면		

주중시간 주요 활동별 소요시간

수면시간	8시간	7시간	9시간	11시간	9시간	5시간
학업 / 학원 / 꿈드림 시간	6시간	-	6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인턴십 / 아르바이트	-	5시간	-	-	-	-
여가시간	7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11시간

주: *진로관련 검색 한 시간 포함

(2) 주말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시간

주말 기준 생활시간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일요일 기준으로 정보를 기입하였다. 35번 청소년은 주말임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수능 공부를 오후시간과 저녁 및 심야시간 지속하였고,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패턴을 보였다. 37번 청소년은 주중에도 수행했던 진로관련 검색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인턴십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손뜨개 강의 준비를 위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38번 청소년 역시 주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 사용 경향을 보였는데, 컴퓨터 학습과 여러 과목목을 공부하였다. 이 청소년의 경우 주중에도 가족과 티비를 시청하는 등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조깅하면서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38번 청소년은 면접조사 자료에서 중학교 졸업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이어서 고졸 검정고시도 패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진학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에도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34번 청소년은 주말이어서 늦게까지 유튜브를 시청한 것 외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고 친구와 1시간동안 가구

오피는 일을 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2시간 동안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6번 청소년 역시 수능을 위해 특강 수업을 수강했으며, 집에서 영화를 시청하면서 여가를 보냈다. 주중에도 수면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길었던 43번 청소년은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낮 시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를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에는 전체적으로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주중보다 많았으며, 43번 청소년의 경우 수면시간이 5시간이 더 많았다. 학업이나 학원, 꿈드림에서 보낸 시간은 전체적으로 주중보다 적었으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5번 청소년은 주말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표 IV-18. 주말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ID	청소년 35	청소년 37	청소년 38	청소년 34	청소년 36	청소년 43
나이(성별)	만18세(여)	만17세(여)	만16세(남)	만17세(남)	만16세(여)	만18세(남)
거주지	인구 11.2만 중소도시	인구 6.2만 군지역	인구 8.5만 군지역	인구 15.7만 중소도시	인구 10.3만 중소도시	인구 3.4만 군지역
장래희망	간호사	대학진학	미정	미정	교사(상담교사)	상담사
조사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밤24~1시	학업 / 수능공부	여가 / 유튜브	수면	세면	수면	여가 / PC
오전1~2시		수면		여가 / 인스타그램		
오전2~3시	유튜브 음악듣기			여가 / 유튜브		수면
오전3~4시	수면			수면		
오전4~5시						
오전5~6시						
오전6~7시						
오전7~8시						
오전8~9시						
오전9~10시	가족과 식사	식사				
오전10~11시	식사	여가 / 트위터	학업 / 컴퓨터 공부	아침 & 점심 식사	학업 / 수능특강 한국사	
오전11~12시	여가 / 유튜브, 웹툰	진로 관련 검색				
오후12~1시	학업 / 수능공부	여가/유튜브	식사 및 휴식			
오후1~2시			여가/축구 관련 유튜브 시청	학업 / 검정고시	가족과 식사	식사

ID	청소년 35	청소년 37	청소년 38	청소년 34	청소년 36	청소년 43	
오후2~3시	식사		학업 / 국수사 과영 과목 공부		여가 / 강아지와 공원 산책	여가 / PC	
오후3~4시	카카오톡, 유튜브, 웹툰			여가 / PC게임	여가 / 집에서 영화시청		
오후4~5시	학업 / 수능공부 (문제집)		여가 / 트위터	건강 / 가족과 조깅			여가 / 노래감상
오후5~6시				가족과 식사			
오후6~7시			부모님과 식사	가족과 식사	가족들과 식사		
오후7~8시	여가 / 핸드폰	여가 / 손뜨개 영상 시청	여가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가족과 식사	세면	
오후8~9시	가족과 식사		여가 / 축구 관련 영상 시청	건강 / 강변 달리기	여가 / 영화 시청	여가 / 게임	
오후9~10시	학업 / 수능공부						세면 및 가족과 대화, 장난
오후10~11시		여가 / 아이돌 유튜브 시청	세면				
오후11~12시				카카오톡, 유튜브, 웹툰			

주말시간 주요 활동별 소요시간

수면시간	7시간	9시간	9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학업 / 학원 / 꿈드림 시간	9시간	-	4시간	2시간	3시간	-
인턴십 / 아르바이트	-	-	-	1시간	-	-
여가시간	5시간	11시간	6시간	9시간	9시간	11시간

올해 읍·면지역 / 소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조사결과를 전년도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주중 시간 기준으로 전년도 조사참여자들과 비교하면, 올해 조사참여자들은 일부 사례(43번 사례)를 제외하면 비교적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턴십이나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수능을 위해 상당시간 학업에 매진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TV시청 및 운동을 하는 등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뿐 아니라 일부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관리에 다소 극단의 경향을 보인 사례를 제외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 외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진로 준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4. 요약 및 시사점

1) 신규 패널 조사 및 추가 패널 구축

비교적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2020년에 신규 패널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33명을 대상으로 1차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었다(김희진 외, 2020). 2021년 2차 조사를 위한 사전접촉과정에서 면접에 참여의사를 보였으나 이후 조사거절, 연락 두절 및 추적 불가 등의 사유로 10명의 청소년을 제외한 23명이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에 차년도까지의 면접조사 진행과 보다 다양한 패널 구성을 목표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조를 얻어 14명을 추가로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기관 IRB승인을 거친 후, 반드시 필요한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동의서를 수령하였고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37명으로 남자가 13명, 여자가 24명이었다.

올해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애사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과 지원 요구, 코로나19관련 경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면접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일부 대학진학과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 검정고시에 성공한 청소년 등의 개별사례에 대해 시간경과에 따른 진로발달 상황을 살펴 보았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명의 읍·면 / 중소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중 / 주말 각 하루씩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질적자료는 음성자료와 필드노트와 함께 질적 종단자료로 DB화 할 예정이다.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사례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현황과 변화상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진학형, 취업형, 검정고시 준비,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현재 대학진학 성공 후 재학중이거나, 대학진학 준비 또는 고등학교 입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14명이었고,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중인 청소년은 4명이었다. 이외 검정고시 준비는 3명,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원 수강 중인 청소년이 2명이었다.

이들 중 대학입학 성공사례인 14명 청소년은 2020년의 1차 조사에서는 자신과 맞지 않는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자 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대학을 고민 중이었다. 올해 2차조사에서 이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대학진학에 성공하여 매우 만족하는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 학원과 꿈드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은 비록 학교에 흥미가 없어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커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 관련 직종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1차 조사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정식으로 취업하였고, 이후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명 청소년은 1차 면접조사 이후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정고시 고득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등록금 마련을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 사례 속에서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또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꿈드림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사건

2020년 면접조사에서 여러 청소년이 여전히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김희진 외, 2020),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올해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영향을 미친, 또는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첫째, 가족, 학교교사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꼽았다. 둘째는 학교를 떠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특히, 학교를 그만둔 후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학교폭력 방관으로 인해 사회봉사를 해야 했거나, 심각한 성범죄 피해경험도 있었으며, 어린 시절의 따돌림과 놀림 기억은 현재의 삶에도 식이장애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일 뿐 아니라 범죄피해와 집단따돌림과 같은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이들에 대한 더욱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및 지원 요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꿈드림에서의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꿈드림센터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진로계획에 도움이 되었고, 모교처럼 생각하기도 했으며 꿈드림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교통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이 거주하는 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교통비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주변 사례도 있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의 지역

격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지원 요구는 2020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탐색과 상담기회 확대와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탐색·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인턴십 및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청소년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식 및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대학진학과 관련해서는 2020년보다 더욱 다양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한 대학 진학을 위해 꿈드림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진학의 한계로 인해 수능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심화된 수준의 수능지원을 요청하였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교통비 지원 격차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부모의 소득 때문에 또는 부모가 수급자이면서도 가구 내 재분배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또는 청년 1인 대상의 복지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인턴십과 관련하여 한 청소년은 해당 사업장에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더욱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4)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인식

면접에 참여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지원내용 전반에 만족하지만 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잘못된 인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학교시스템 내에서 즉,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꿈드림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알고 있었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꿈드림 사업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교, 지역사회, 심지어 꿈드림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더욱 정확히 안내가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

들은 지역사회의 진로 관련 인프라 격차가 크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제도권 교육을 떠났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기성세대 뿐 아니라 또래들로부터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일탈 청소년으로 오해받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행사나 공모전에 학교가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학교를 안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대중교통에서 성인요금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잘 나타내 준다. 학교가 청소년을 증명해야 한다면 대회나 공모전 기준이 ‘청소년’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최소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다른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참가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의 코로나19 경험·어려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전반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꿈드림 휴관이나 검정고시 일정 연기 등으로 진로계획에 지장이 생겼으며, 인턴십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중단되어 참여하지 못했다. 사회전반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자리 역시 함께 사라지고 있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라 새롭게 펼쳐진 비대면사회로 인해 또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립감을 덜 느낀다거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

차별경험이 특별히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 코로나 19로 더욱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턴십 및 일자리 기회감소로 인한 직업체험 기회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7) 생활시간 분석결과

2021년에 추가로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중과 주말 각각 하루 24시간의 주요 활동과 장소, 동반인 등에 대해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극단적으로 수면시간이 적거나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사례도 있었으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일과시간 동안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나름의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 공부를 하거나 인턴십 프로그램과 꿈드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컴퓨터 활용능력 및 운전면허와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튜브나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다소 많은 사례도 있었으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티비를 시청하며 운동을 했고, 친구를 만나 여가시간도 함께 보내는 등 어느 청소년과 다르지 않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여가시간을 전부 SNS 활동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으로 쓰기보다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 보였다.

○———— 제5장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읍·면 / 소도시) 지원체계 조사

- 1. 조사개요
- 2. 읍·면 / 소도시 지역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 3.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4.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 5.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읍·면 / 소도시) 지원체계 조사⁶⁶⁾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읍·면 / 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⁶⁷⁾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그리고 지원 사업 관련 행정 및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양적 및 질적 조사를 수행하는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을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조사방법의 장점을 이용하고,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통합적인 분석 및 결과 해석을 시도하였다(오은주, 2008). 이를 통해 꿈드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조사의 경우, 인구 수 20만 명 이하 지역의 시·군·구 센터 전수 조사(총 85개소)를 목표로 하였다. 올해 연구의 한 축이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이나 관련 인프라와 지원 현황에 있어 읍·면지역과 소도시의 편차가 크지 않고 대도시와 중간규모 도시의 지원체계와 비교할 때 마찬

66) 제5장은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67) 이후부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대신 ‘꿈드림’ 또는 ‘꿈드림센터’로 표기하였다.

가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지역과 소도시 지역을 같이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소도시를 읍·면지역과 함께 연구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인구수 10만 명 이하 센터로 그 기준을 정할 경우, 센터 수가 53개(군지역 읍·면 소재 센터), 혹은 63개(시 소재 센터)로, 응답 거부 혹은 응답 불가능 센터를 염두에 두었을 때, 너무 적은 표본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표 V-1 참조).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 규모의 필요성과 인구수 20만 명 이하의 지역을 소도시로 분류한 선행연구들(강인호, 2019⁶⁸); 임석희, 2019)의 기준을 반영하여, 인구수 20만 명 이하 지역의 시·군·구 센터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인구수 20만 명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센터의 수가 총 85개가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석 가능한 표본규모로 판단된다.

표 V-1. 인구수별 꿈드림센터 개소 수

지역	인구수 10만명 이하 군지역 센터 수	인구수 10만명 이하 시·군·구지역 센터 수	인구수 20만명 이하 시·군·구지역 센터 수
경기	2	3	9
강원	4	8	8
충북	8	8	9
충남	7	9	13
전북	3	5	6
전남	15	15	17
경북	4	5	10
경남	10	10	13
총계	53	63	85

* 출처: 꿈드림, 전국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kdm200pm/list.asp>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표 작성

68) 강인호의 연구(2019)에서는 비수도권의 인구수 5만 명 이하의 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수 20만 명 미만의 도시를 소도시로 정의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과 이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읍·면 / 소도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지역의 센터를 선정하여, 해당 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읍·면지역에 연구의 중심을 두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적·물적 상황과 자원들에서 읍·면지역과 편차가 크지 않은 소도시도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읍·면지역, 1개 지역은 소도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의 지역을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 경기, 전라, 경상, 충청 지역에서 각 1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읍·면지역의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어촌, 농촌, 산촌 지역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분석(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시행하여, 면접조사 진행시 참고하였으며,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검토 및 검증자료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선정된 면접조사 대상 센터와 연계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종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읍·면 / 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조사 개요는 표 V-2와 같다.

표 V-2.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개요

	양적조사	질적조사
대상	20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의 꿈드림 총 85개소 대상 전수조사	- 읍·면 / 소도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지역 센터의 실무 종사자 - 선정된 5개의 센터와 연계기관 종사자
방법	웹 / 모바일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	- 꿈드림 종사자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개인 심층 면접 - 꿈드림 연계기관 종사자 :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비고	-	- 선정된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지역의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관련 자료분석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2) 면접조사 조사대상 지역 및 센터 선정

읍·면 / 소도시 면접조사 대상지역은 대도시와는 다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곳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특이성, 어려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가능한 전국의 읍·면 / 소도시 지역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으면서 농촌지역, 산간 지역, 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꿈드림 홈페이지⁶⁹⁾에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리스트를 확인하고,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집 내용, 언론 보도내용 등을 통하여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들의 정보를 얻었다. 또한, 꿈드림 시·도 센터의 팀장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의 우수사례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를 추천받았다. 꿈드림 시·도 센터 팀장급 실무자들의 자문회의는 2021년 6월 2일 오전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총 5개 시·도 센터의 팀장급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라남도 OO군, 강원도 OO군, 충청남도 OO군, 경기도 OO시, 경상남도 OO군 지역이었다.

3)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본격적인 면접조사에 앞서, 선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색, 인구학적 정보, 지역의 재정적 상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관한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유사한 지역적 특색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 또 면접조사를 시행

69)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2/sub020101.asp>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

함에 있어서 면접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여 면접 시 참여자의 응답을 보다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 결과를 분석할 시 배경지식으로 활용하여, 결과의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홈페이지, 통계청, 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지역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수집 내용		정보 출처
(면접조사에 참여한 센터 소재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 확인	⇒	- 지자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 꿈드림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정된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색 : 면적, 행정구역, 지형적 특색 등	⇒	- 지자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선정된 지역의) 인구학적 정보 : 학생수, 학업중단자 수 등	⇒	- 지자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 통계청 - 교육통계서비스
(선정된 지역의) 재정적 정보 : 재정자립도	⇒	- 통계청
(선정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이용시설	⇒	- 지자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 꿈드림 홈페이지 - 관련기관 및 이용시설 홈페이지

그림 V-1. 행정·통계자료 수집 내용 및 정보 출처

4) 현장종사자 대상 질적·양적 조사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는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조사와 설문지를 통한 양적조사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는 읍·면 / 소도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라남도 OO군, 강원도 OO군, 충청남도 OO군, 경기도

00시, 경상남도 00군에 위치해 있는 꿈드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도 진행하였다. 꿈드림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는 기관의 현황,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정책 개선방안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부록3 참조). 연계기관 실무자 FGI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소개, 꿈드림을 알게 된 경로, 청소년들의 특성, 애로사항, 성과 등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웹 / 모바일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는 20만 명 이하 시·군·구 지역의 센터 전수 조사(총 85개소)를 목표로, 선정된 센터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 현황,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경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읍·면 / 소도시 지역 센터의 특성,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부록4 참조).

표 V-3.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및 연계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개요

구분	면접조사	설문조사
조사참여자	해당 지역 5개 꿈드림 종사자와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담당자	읍·면 / 소도시 지역 85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최종 참여자 수	꿈드림 종사자 5명, 연계기관 담당자 3명	63개 센터의 종사자 참여
참여자 특성	전문성을 지닌 실무 담당자 중심	2년 이상 종사자(기관장 포함 가능)
조사방식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심층면접 및 FGI(집단면접)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화상면접으로 진행)	웹 / 모바일링크 통해 조사지 응답
시간 및 횟수	60~90분 내외 / 1회	15분 정도 소요 / 1회
기타	사전 IRB심의에 따른 조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취합	

2. 읍·면 / 소도시 지역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면접조사 대상자들의 익명성 보호를 위하여, 본 절은 면접조사로 선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환경을 가진 지역⁷⁰⁾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행정·통계자료들을 통하여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 환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분석 및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전라남도 완도군

(1) 전라남도 완도군의 환경적 특성

전라남도 완도군은 총 265개(유인 55개, 무인 21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지역으로(그림 V-2), 고흥군, 여수시, 해남군, 강진군과 인접하여 있으며,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다양한 갯벌, 해수욕장 등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 전복과 같은 어패류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다.⁷¹⁾ 총 3개의 읍과 9개의 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1,506호) 보다는 단독주택(17,761호) 형태의 주거형태가 많다.⁷²⁾

2021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V-2), 총 인구수는 49,404명이었으며, 남자가 24,985명(51%), 여자가 24,509명(49%)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청소년 인구는 총 5,988명으로 전체 완도군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였는데, 남자 청소년은 총 3,246명(54%), 여자 청소년은 총 2,742명(46%)으로 남자 청소년의 수가 여자 청소년의 수보다 다소 많았다.⁷³⁾

70) 다양한 읍·면지역을 살펴보고 꿈드림 중사자가 자율적으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면접조사 참여 지역이 아닌, 유사한 지역적 환경을 가진 곳으로 선정하여 행정자료 /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유사한 지역은 같은 도에 위치하는 행정구역으로, 인구 수, 학교 중단자 수, 지역적 특색이 면접조사 대상 지역과 비슷하였다.

7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개(완도소개, 자연여건)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개. <https://www.wando.go.kr/www/introduction>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7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개(행정현황, 도로주택)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개. <https://www.wando.go.kr/www/introduction>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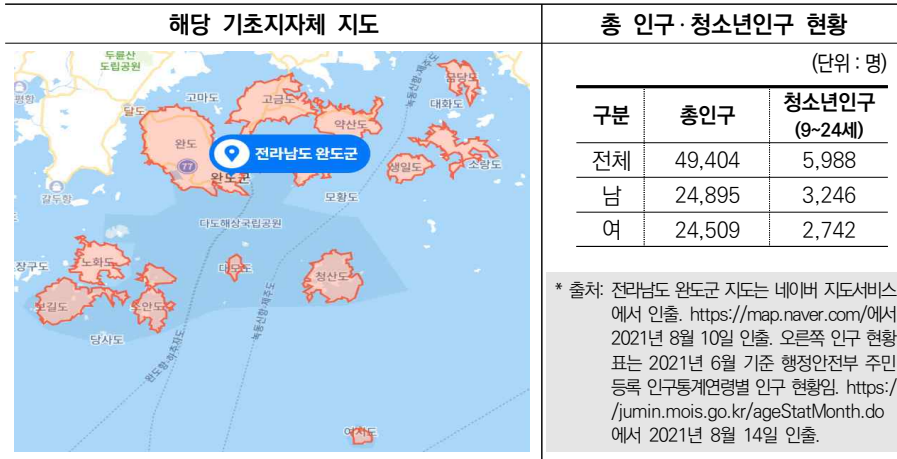


그림 V-2. 전라남도 완도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 전라남도 완도군의 재정적 특징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냄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적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⁷⁴⁾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전라남도의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다른 행정구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6% 수준이었다(표 V-4).

73)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 현황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74) 통계청 웹사이트의 재정자립도 홈페이지의 주석 정보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12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

표 V-4. 전라남도 완도군: 2021년 재정자립도

(단위: %)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라남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국	43.6	목포시	20.0
서울특별시	75.6	여수시	27.6
부산광역시	46.1	순천시	18.0
대구광역시	44.6	나주시	18.1
인천광역시	50.3	광양시	23.2
광주광역시	40.8	담양군	10.6
대전광역시	39.9	곡성군	8.4
울산광역시	49.6	구례군	7.2
세종특별자치시	58.8	고흥군	6.5
강원도	24.5	보성군	6.4
경기도	57.3	화순군	15.2
충청북도	28.3	장흥군	6.7
충청남도	32.3	강진군	8.3
경상북도	24.9	해남군	6.9
경상남도	33.5	영암군	11.9
전라북도	23.1	무안군	11.8
전라남도	22.2	함평군	8.0
제주특별자치도	32.7	영광군	10.9
* 출처: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12 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장성군	10.4
		완도군	6.0
		진도군	9.0
		신안군	6.4

(3) 전라남도 완도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① 전라남도 완도군의 청소년 현황

전라남도 완도군의 2021년 2월 기준 총 학교 수는 43개로 모두 공립으로, 초등학교가 총 23개(전체 학교 수의 53%), 중학교가 14개(33%), 고등학교 수가 총 6개(14%) 정도였으며, 학급 수 및 학생 수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적었다(표 V-5).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 수의 22%정도를 차지하며 전체 학교 수 대비 고등학교 학교 수가 차지하는 비율(14%)에 비하여 높았다(표 V-5).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대비 학교당 학생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5. 전라남도 완도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2021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공립	사립		
초등학교	23	0	167	2,070
중학교	14	0	61	969
고등학교	6	0	48	868
특수학교	0	0	0	0
합계	43	0	276	3,907

* 출처: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학교현황. https://wded.jne.go.kr/index.jne?menuCd=DOM_000002005007002002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전라남도 완도군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7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중 남자가 11명(65%), 여자가 6명(3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이 학업을 중단하였다(표 V-6). 총 17명 중, 고등학생이 총 10명(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3명(18%), 초등학생이 4명(24%)이었다(표 V-6).

최근 10년간 전라남도 완도군의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3), 2011년 총 학업중단자 수는 34명으로 2012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이후 2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6-18명 정도의 학업중단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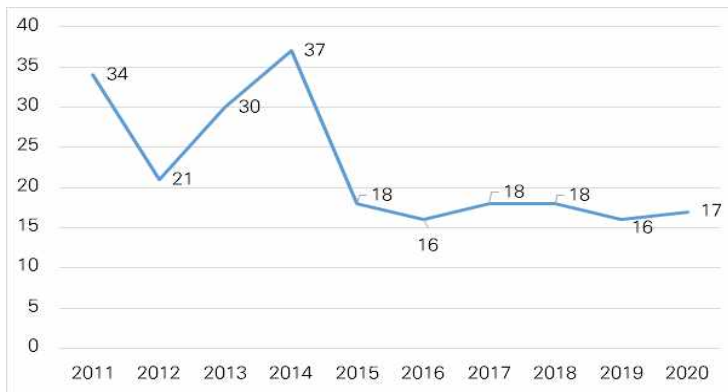
표 V-6. 전라남도 완도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2019년 3월~2020년 2월)

(단위: 명)

구분	완도군 전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학업 중단자수	17	11	6	10	7	3	3	2	1	4	2	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2011년~2019년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

그림 V-3. 전라남도 완도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② 전라남도 완도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전라남도 완도군은 2021년 4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이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⁷⁵⁾ 완도군의 꿈드림센터는 완도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도군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완도청소년문화의집 ‘하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취업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V-7).

표 V-7. 전라남도 완도군: 꿈드림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상세 프로그램
상담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복학·상급학교·대안학교 진학 지원
자립지원	자격증취득, 경제 및 법률교육 등 생활기술 지원
취업지원	직업체험, 경제활동체험, 취업연계
문화·예술활동지원	다양한 문화체험, 영화·공연관람 등

* 출처: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지원내용. http://wd1388.or.kr/bbs/content.php?co_id=rain_sub70 10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완도청소년문화의집 ‘하리’는 완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 중 하나인데, 완도군에서 설립하고 (사)꿈틀에서 위탁 운영하는 문화시설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표 V-8). 이 외에 완도군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Wee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완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노화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있다(표 V-9).

7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표 V-8. 전라남도 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 -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 도모
청소년동아리활동	-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동아리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 - 댄스, 봉사, 학습멘토링, 기자단, 밴드, 미술 등
청소년참여위원회	-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논의
아이비 프로그램 (방과후아카데미)	- 학습지원활동 : 교과학습과정(수학, 영어, 독서논술, 한국사), 독서지도, 1:1 멘토링(영어, 수학지도) - 주중전문체험 : 문화·예술, 스포츠, 인성계발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목공예, 아가자기 공예, 세계인 학교, 밴드, 서양화 등) - 자기개발활동 : 지역자원연계, 동아리활동(댄스, 프라모델 조립, 예술, 밴드, 게임 등) - 주말체험활동 : 문화·생태, 역사, 직업탐방 등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 기타체험활동 : 지역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특별교육(안전, 성교육, 학교 폭력, 재난안전 등) - 특별체험활동 : 1박 2일 캠프, 간담회, 학부모교육 등 - 생활지원과정 : 급·간식제공, 귀가버스 운영, 건강관리, 개인상담, 등·하교 문자서비스
청소년 봉사활동	-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출처: 완도청소년문화의집 하리. 지원 프로그램. <http://www.wdhari.or.kr>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표 V-9. 전라남도 완도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위치
완도교육지원청	완도읍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도읍
완도wee센터	완도읍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군외면
완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	완도읍
노화청소년문화의집	노화읍

* 출처: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2) 강원도 영월군

(1) 강원도 영월군의 환경적 특성

강원도 영월군은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그림 V-4)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걸쳐있는 내륙산간 지역이며, 총 2개의 읍과 7개의 면으로 인근 2개의 도와 4개의 시, 5개의 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⁷⁶⁾

2021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V-4), 총 인구 수는 38,057명이고, 남자가 19,711명(52%), 여자가 18,346명(48%)으로 남자의 비율이 조금 높다. 청소년 인구는 총 4,966명으로 총 인구 수에서 약 13%정도를 차지하는데, 남자 청소년의 수가 2,725명(55%), 여자 청소년의 수가 2,241명(45%)으로 남자 청소년의 수가 조금 더 많다(그림 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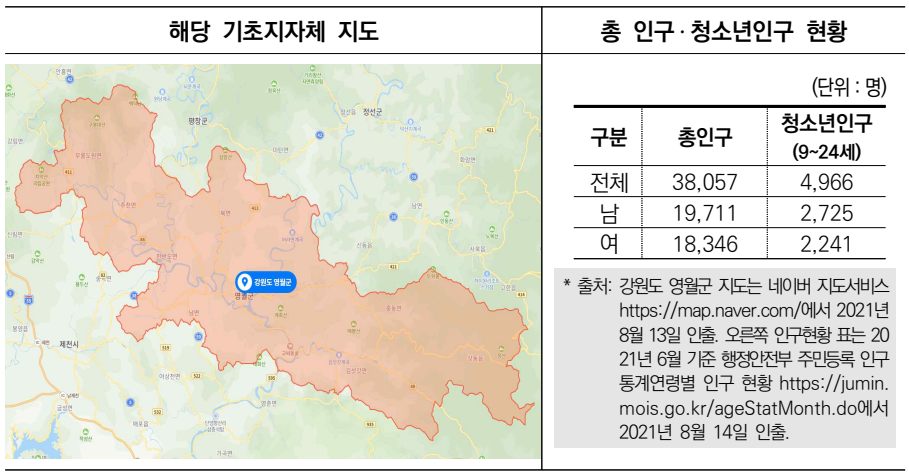


그림 V-4. 강원도 영월군: 지도 및 인구 현황

76) 강원도 영월군 웹사이트의 영월소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강원도 영월군. 영월 소개. <https://www.yw.go.kr/www/contents.do?key=516>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2) 강원도 영월군의 재정적 특징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표 V-10에서 보듯이 전국 기준으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에서 이어 3번째로 낮다. 강원도의 영월군은 정선군과 영양군을 제외하면 다른 군 단위의 지역들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으나, 춘천시, 속초시와 같은 시 단위의 지역보다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표 V-10).

표 V-10. 강원도 영월군: 2021년 재정자립도

(단위 : %)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강원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국	43.6	춘천시	19.1
서울특별시	75.6	원주시	18.8
부산광역시	46.1	강릉시	15.5
대구광역시	44.6	동해시	17.3
인천광역시	50.3	태백시	17.2
광주광역시	40.8	속초시	19.7
대전광역시	39.9	삼척시	12.2
울산광역시	49.6	홍천군	11.9
세종특별자치시	58.8	횡성군	11.7
강원도	24.5	영월군	13.3
경기도	57.3	평창군	11.2
충청북도	28.3	정선군	16.2
충청남도	32.3	철원군	7.2
경상북도	24.9	화천군	7.0
경상남도	33.5	양구군	9.4
전라북도	23.1	인제군	8.9
전라남도	22.2	고성군	8.1
제주특별자치도	32.7	양양군	14.9

* 출처: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12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3) 강원도 영월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① 강원도 영월군의 청소년 현황

2021년 4월 기준 강원도 영월군의 총 학교 수는 32개, 총 학생 수는 3,217명이었으며, 초등학교가 15개(47%), 중학교가 11개(34%), 고등학교가 6개(19%)이다(표 V-11). 고등학교 학생 수는 1,132명(35%)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인 1,212명(38%)과 비슷하여, 대체로 초등학교 대비 학교당 재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표 V-11).

표 V-11. 강원도 영월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2021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공립	사립		
초등학교	15	0	108	1,212
중학교	11	1	56	873
고등학교	6	1	73	1,132
특수학교	0	0	0	0
합계	32	2	237	3,217

* 출처: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학교소개. <https://gwywed.gwe.go.kr/sub/info.do?m=010701&s=gwywed>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영월군의 학업 중단자 수는 총 21명이었는데, 그 중 남자가 12명(57%), 여자가 9명(43%)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총 21명 중 고등학생이 15명(7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4명(19%), 초등학생이 2명(10%)이었다(표 V-12).

최근 10년간 강원도 영월군의 연도별 학업 중단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5),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0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2017년 2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 3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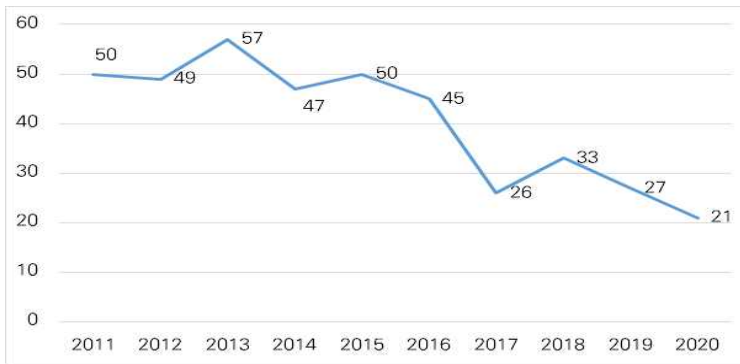
표 V-12. 강원도 영월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2019년 3월~2020년 2월)

(단위: 명)

구분	영월군 전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학업 중단자수	21	12	9	15	7	8	4	4	0	2	1	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2011년~2019년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

그림 V-5. 강원도 영월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② 강원도 영월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강원도 영월군은 2018년 ‘영월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는데,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꿈드림센터의 설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⁷⁷⁾ 강원도 영월군의

7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꿈드림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표 V-13).

표 V-13. 강원도 영월군: 꿈드림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상세 프로그램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 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의 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재취학·재입학 등의 복교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출처: 영월군꿈드림. 꿈드림 지원 내용. https://www.kyw1318.or.kr/board_HcBq06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하리’는 영월군에 위치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학습멘토링, 문화 및 체험활동과 같은 교육문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표 V-14). 이 외에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는데, 모두 영월읍에 위치하고 있다(표 V-15).

표 V-14. 강원도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하리' 활동

교육문화사업	- 학습멘토링
	-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활동: 캘리그래피, 프리저브드 플라워 만들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레진아트 등

* 출처: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하리. <http://ycy2020.cafe24.com/index.php> 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표 V-15. 강원도 영월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위치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월읍
영월군건강가정지원센터	영월읍
영월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영월읍
영월교육지원청	영월읍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영월읍
영월보호관찰지소	영월읍

* 출처: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3) 충청남도 서천군

(1) 충청남도 서천군의 환경적 특성

충청남도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부여군, 보령시, 군산시, 황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그림 V-6). 충청남도 총 면적 대비 223분의 1인 4.5%에 해당하며(8,226km²), 농경지가 많은 곡창지대로, 지역의 37.95%가 농경 지역이다.⁷⁸⁾

2021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V-6), 총 인구수는 51,553명이었

78) 충청남도 서천군 웹사이트의 서천소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소개. https://www.seocheon.go.kr/kor/sub06_01_01.do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으며, 남자가 25,270명(49%), 여자가 25,883명(51%)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은 5,677명으로 전체 인구의 11% 정도였고, 남자 청소년이 3,052명(53.8%), 여자 청소년이 2,625명(46.2%)으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그림 V-6).



그림 V-6. 충청남도 서천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 충청남도 서천군의 재정적 특징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 32.3%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충청남도의 여러 행정구역 중에서도 특히 서천군은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면서(9.7%), 부여군, 청양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V-16).

표 V-16. 충청남도 서천군 2021년 재정자립도

(단위: %)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충청남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국	43.6	천안시	33.9
서울특별시	75.6	공주시	12.7
부산광역시	46.1	보령시	11.9
대구광역시	44.6	아산시	37.5
인천광역시	50.3	서산시	20.1
광주광역시	40.8	논산시	11.6
대전광역시	39.9	계룡시	18.1
울산광역시	49.6	당진시	24.0
세종특별자치시	58.8	금산군	11.7
강원도	24.5	부여군	8.5
경기도	57.3	서천군	9.7
충청북도	28.3	청양군	9.4
충청남도	32.3	홍성군	14.7
경상북도	24.9	예산군	11.7
경상남도	33.5	태안군	12.5
전라북도	23.1	* 출처: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 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전라남도	22.2		
제주특별자치도	32.7		

(3) 충청남도 서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① 충청남도 서천군의 청소년 현황

2021년 3월 기준, 충청남도 서천군의 총 학교 수는 34개로 그 중 28개(82%)가 공립학교, 6개(18%)가 사립학교였으며, 초등학교 학교 수는 18개(53%), 중학교는 9개(26%), 고등학교는 7개(21%)였다(표 V-17). 학생 수 역시 초등학생이 총 1,691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총 1,282명(33%)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학생이 887명(23%)으로 가장 적었다(표 V-17).

표 V-17. 충청남도 서천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2021년 3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공립	사립		
초등학교	18	0	149	1,691
중학교	6	3	46	887
고등학교	4	3	73	1,282
특수학교	0	0	0	0
합계	28	6	268	3,860

* 출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학교현황. <https://www.cnsce.go.kr/main/board/read.do?mid=9&boNo=32805&boBaNo=1>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충청남도 서천군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명의 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였다(표 V-18). 남·여 비율이 같았으며, 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인원이 총 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89%), 중학교에서 1명, 초등학교에서 3명이었다(표 V-18).

표 V-18. 충청남도 서천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2019년 3월1일~2020년 2월 말일)

(단위: 명)

구분	서천군 전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학업 중단자수	36	18	18	32	17	15	1	0	1	3	1	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최근 충청남도 서천군의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7), 2015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3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후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36명으로 2019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2011년~2019년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 인출.

그림 V-7. 충청남도 서천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② 충청남도 서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충청남도 서천군은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제정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 일부 개정하였으며,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기능,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후견인제도 운영,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⁷⁹⁾ 충청남도 서천읍에 위치한 서천군 꿈드림센터는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대비반, 학업동기 강화, 멘토링 사업 등을 포함하는 학업복귀지원, 자립기술 습득, 자격증취득 지원, 직업 훈련 연계 등과 같은 사회진입 지원과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포함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V-19).

7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표 V-19. 충청남도 서천군: 꿈드림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상세 프로그램
학업복귀지원	학업동기 강화(“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학습력 향상(“맞춤형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대비반(인터넷 강의, 교재지원)
	멘토링(학습지도, 정서지원)
	현장학습(대학탐방, 수학여행, 졸업여행)
사회진입지원	자립동기 강화(“두드림”)
	자립기술 습득(“뽀뽀비즈”, “소풍”, “진로종합캠프”)
	사회진입 도약(자격취득 지원,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및 인턴십 지원)
자기계발지원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환경보존
	과학정보

* 출처: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꿈드림 지원내용. <http://sycw1388.co.kr/dream/biz.php>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충청남도 서천군의 청소년문화센터(‘꿈꾸는 공작소’)는 2011년에 개관한 서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⁸⁰⁾ 여기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역연계 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V-20). 이 외에 서천군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Wee센터, 늘푸른배움터(자원봉사센터), 공동체 비전고등학교(대안학교)정도가 있으며, 모두 서천읍에 위치하고 있었다(표 V-21).

80)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지원내용. <https://scream.or.kr/menu31>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표 V-20.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 주제 : 꿈을 향해 날개를 달자 - 운영목표 : 청소년들의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관련 활동의 장을 열어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운영방안 :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전문분야 개발 지원과 연습공간 제공, 청소년들의 소속감과 책임감 향상, 청소년들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 발산 기회 제공
청소년운영 위원회	-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조직체를 운영하고, 건전한 자치활동을 통해 문화센터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문화센터 발전에 기여함 - 청소년 문화활동 제공 및 지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안
청소년 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 :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한 집단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지역청소년들의 권익과 욕구를 대변함. - 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 청소년문화예술지원사업 “상상학교” - 청소년정책 참여 “Y-열린 행정” - 군민제안우수프로그램 버스킹 라이징 스타 “킹스타”
창의적 체험활동	- 서천청소년탁구대회 - 청소년놀이문화축제

* 출처: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지원내용: <https://scdream.or.kr/menu31>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 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표 V-21.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위치
서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서천읍
서천Wee센터	서천읍
서천교육지원청	서천읍
늘푸른배움터(자원봉사센터)	서천읍
공동체비전고등학교(대안학교)	서천읍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지소	서천읍

* 출처: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4) 경기도 포천시

(1) 경기도 포천시의 환경적 특성

총면적이 826.57㎢로 경기도의 8.1%를 차지하는 포천시는 4개의 산업단지가 유치되어 있고, 사과, 포도, 인삼 등 지역 특화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총 2개의 동, 1개의 읍, 11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⁸¹⁾

2021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수는 148,434명으로, 그 중 남자가 78,653(53%)명, 여자가 69,781명(47%)이다(그림 V-8). 그 중 청소년 인구는 총 21,91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였는데, 남자 청소년은 총 11,837(54%)명, 여자 청소년은 총 10,074명(46%)으로 남자 청소년의 수가 여자 청소년의 수보다 다소 많았다(그림 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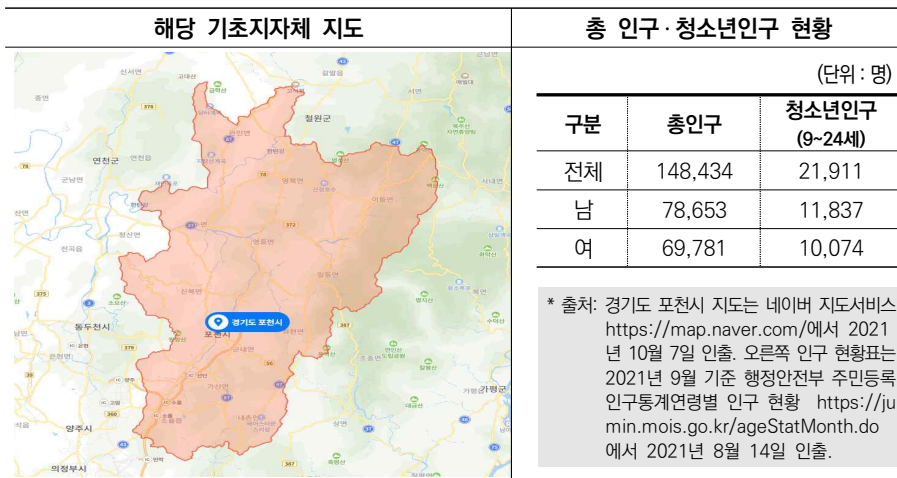


그림 V-8. 경기도 포천시: 지도 및 인구 현황

81) 경기도 포천시 웹사이트의 포천시소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경기도 포천시. 포천시소개. <https://www.pocheon.go.kr/www/contents.do?key=5629>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2) 경기도 포천시의 재정적 특징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7.3%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전국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표 V-22). 그러나 포천시는 경기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57.3%의 절반 가량에도 못미치는 24.2%로, 경기도 내의 여러 행정구역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표 V-22). 같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행정구역별로 재정자립도 수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V-22. 경기도 포천시: 2021년 재정자립도

(단위: %)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경기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국	43.6	포천시	24.2
서울특별시	75.6	수원시	44.8
부산광역시	46.1	성남시	58.5
대구광역시	44.6	의정부시	22.9
인천광역시	50.3	안양시	37.4
광주광역시	40.8	부천시	32.5
대전광역시	39.9	광명시	33.6
울산광역시	49.6	평택시	41.1
세종특별자치시	58.8	동두천시	14.4
강원도	24.5	안산시	36.9
경기도	57.3	고양시	34.7
충청북도	28.3	과천시	28.7
충청남도	32.3	구리시	33.9
경상북도	24.9	남양주시	29.6
경상남도	33.5	오산시	28.3
전라북도	23.1	시흥시	40.2
전라남도	22.2	군포시	32.4
제주특별자치도	32.7	의왕시	32.5
		하남시	47.3
		용인시	48.7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경기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파주시	32.1
		이천시	38.5
		안성시	28.4
		김포시	34.0
		화성시	58.4
		광주시	39.6
		양주시	25.5
		여주시	23.1
		연천군	18.6
		가평군	18.5
		양평군	17.7

* 출처: 통계청. 재정자립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3) 경기도 포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① 경기도 포천시의 청소년 현황

경기도 포천시의 총 학교 수는 60개로 그 중 공립학교가 50개(83%), 사립학교가 10개(17%)였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총 39개(65%), 중학교가 14개(23%), 고등학교가 7개(12%)였다(표 V-23). 초등학생이 6,334명(49%), 중학생이 3,287명(25%), 고등학생이 3,345명(26%) 수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표 V-23).

경기도 포천시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까지 총 112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중 남자가 66명(59%), 여자가 44명(41%)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표 V-24). 총 112명 중 고등학생이 68명(61%), 중학생이 9명(8%), 초등학생이 35명(31%)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 뒤를 이었다(표 V-24).

표 V-23. 경기도 포천시: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2020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공립	사립		
초등학교	31	8	360	6,334
중학교	13	1	147	3,287
고등학교	6	1	160	3,345
특수학교	0	0	0	0
합계	50	10	667	12,96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학년별 학습수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jsessionid=xaUyJrs02pVy4HHUbf8JTxB6ZIP90WxbNRQN4b3ZuggPNouBp1LCE7C0ZMFH2Ji2?menuCd=0101&cd=5423&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B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표 V-24. 경기도 포천시: 초·중·고·학업중단자 수(2019년 3월~2020년 2월 말)

(단위: 명)

구분	포천시 전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학업 중단자수	112	66	46	68	45	23	9	4	5	35	17	1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최근 10년간 경기도 포천시의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총 183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158명에서 2015년 101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125명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2017년 다시 95명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였다(그림 V-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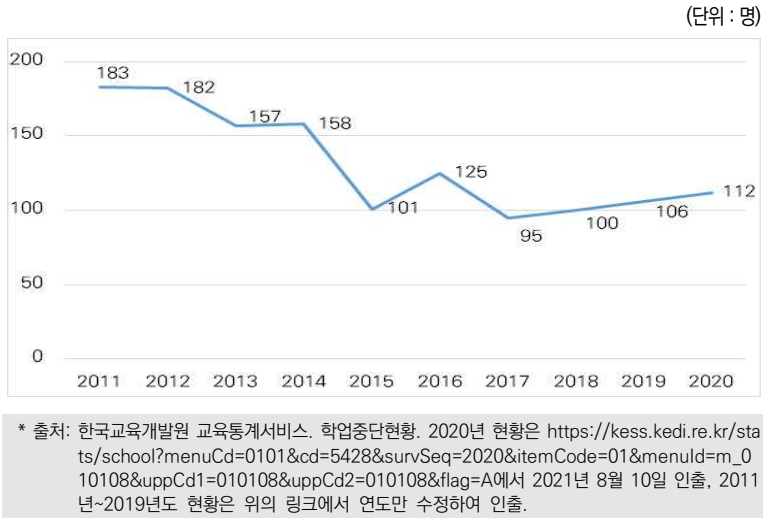


그림 V-9. 경기도 포천시: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② 경기도 포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경기도 포천시는 2017년 7월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⁸²⁾ 경기도 포천시의 꿈드림센터는 소흘읍의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대비반을 포함한 학업복귀 프로그램, 직업체험과 자격증 취득, 인턴십 참여를 포함한 사회진입프로그램, 그 밖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표 V-25).

8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표 V-25. 경기도 포천시: 꿈드림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상세 프로그램
학업복귀 프로그램	-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 학습지원(생활관리 및 기초학습 강화)
사회진입 프로그램 (취업지원)	- 직업체험
	- 자격증 취득(자격증 취득반 운영)
	- 인턴십 참여
특화 프로그램	- 상담지원
	- 건강지원
	- 문화·예술 체험
	- 동아리 활동
	- 멘토링 프로그램

* 출처: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지원 내용. <https://www.poccheon.go.kr/counsel/contents.do?key=9722>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포천시의 청소년문화의집은 국가인증 프로그램, 자기도전 프로그램, 역사기행, 가족행복문화기행, 방학캠프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표 V-26). 이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기관으로는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Wee 센터 등이 있다(표 V-27).

표 V-26. 경기도 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활동

국가인증 프로그램	- 발주노조파남보 레인보우 : 자아발견, 배려 타인이해 프로그램
	- 독도의 날 역사 / 문화 프로그램 : 역사인식 함양 및 국토 사랑 증진
	- 콩돌이 모의재판 : 모의 법정 체험
	- 청소년 스트레칭 Smart Body :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 역사창의 메이커스 : 지역 인물 중심 역사 탐구
자기도전 프로그램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탐험 활동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
늘푸른청소년예술제	-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를 위한 지역내 예선경연
교과연계체험학습	- 현장체험 중심 프로그램
청소년역사기행	- 국내 역사 유적지 탐방 / 기행

가족행복문화기행	- 가족단위 활동 문화 기행 프로그램
청소년방학캠프	- 진로탐색활동, 체험활동, 인성프로그램
항공진로프로그램	- 항공 / 진로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창작동아리	- 청소년이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 제작 프로그램

* 출처: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지원내용. https://youth.poccheon.go.kr/poycc/sub/active_19.php?folder_idx=13&older_page_idx=119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표 V-27. 경기도 포천시: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위치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군내면
대한법률구조공단포천지소	신읍동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동교동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군내면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신북면
포천시보건소	신읍동
포천병원	신읍동
포천교육지원청Wee센터	군내면
포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교동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소흘읍
포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신읍동

* 출처: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5) 경상남도 의령군

(1) 경상남도 의령군의 환경적 특성

경상남도 의령군은 낙동강과 접하고 있고, 또 산간지대에도 분지가 발달해 있어 대체로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읍 12면 116리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⁸³⁾

2021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 수는 26,526명이고, 그 중 남자가 13,035명, 여자가 13,491명으로 남·여 성별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그림 V-10). 청소년 인구 수는 총 2,558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9.6% 정도이며, 남자 청소년은 1,382명(54%), 여자 청소년은 1,176명(46%)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다소 많다(그림 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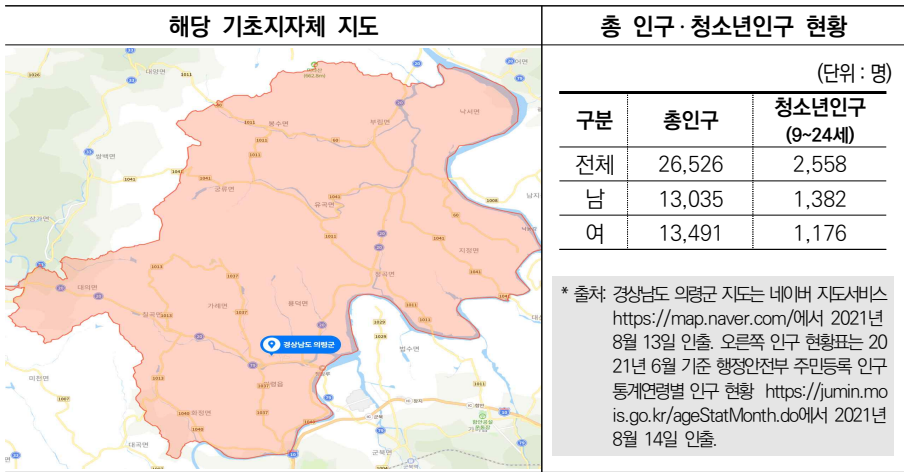


그림 V-10. 경상남도 의령군: 지도 및 인구 현황

(2) 경상남도 의령군의 재정적 특징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3.5%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8.6%로,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다음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였다(표 V-28).

83) 경상남도 의령군 웹사이트의 의령소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소개. <http://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4830>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표 V-28. 경상남도 의령군: 2021년 재정자립도

(단위: %)

전국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경상남도	2021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전국	43.6	진주시	20.0
서울특별시	75.6	통영시	12.0
부산광역시	46.1	사천시	15.9
대구광역시	44.6	김해시	28.8
인천광역시	50.3	밀양시	16.0
광주광역시	40.8	거제시	21.2
대전광역시	39.9	양산시	27.1
울산광역시	49.6	창원시	34.5
세종특별자치시	58.8	의령군	8.6
강원도	24.5	함안군	16.2
경기도	57.3	창녕군	12.0
충청북도	28.3	고성군	10.2
충청남도	32.3	남해군	7.1
경상북도	24.9	하동군	10.8
경상남도	33.5	산청군	9.3
전라북도	23.1	함양군	9.6
전라남도	22.2	거창군	7.8
제주특별자치도	32.7	합천군	8.1

* 출처: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12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3) 경상남도 의령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① 경상남도 의령군의 청소년 현황

경상남도 의령군의 학교 수는 총 23개로 공립학교가 19개(83%), 사립학교가 4개(17%)였으며, 총 23개의 학교 중, 초등학교가 14개(61%), 중학교가 5개(22%), 고등학교가 3개(13%), 특수학교가 1개로, 초등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는 적었다(표 V-29). 학생 수도 초등학생이 총 700명

(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379명(24%), 고등학생은 413명(26%)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는 거의 비슷하였다(표 V-29).

표 V-29. 경상남도 의령군: 초·중·고·특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2021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공립	사립		
초등학교	14	0	85	700
중학교	2	3	25	379
고등학교	2	1	24	413
특수학교	1	0	17	74
합계	19	4	151	1,566

* 출처: 경상남도교육지원청, 교육기관안내. <https://uredu.gne.go.kr/uredu/cm/cntnts/cntntsView.do?mi=2646&cntntslid=1590>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경상남도 의령군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명이 학교를 중단하였는데, 그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으로 남·여 성별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표 V-30).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명, 중학생이 1명, 초등학생이 2명이었다(표 V-30).

표 V-30. 경상남도 의령군: 초·중·고·학업중단자 수(2019년 3월~2020년 2월)
(단위: 명)

구분	의령군전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학업중단자수	7	4	3	4	2	2	1	0	1	2	2	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28&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최근 10년간 경상남도 의령군의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V-11), 2011년에는 총 21명이었고 2013년 10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19명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 이후 2017년 6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9년, 16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그림 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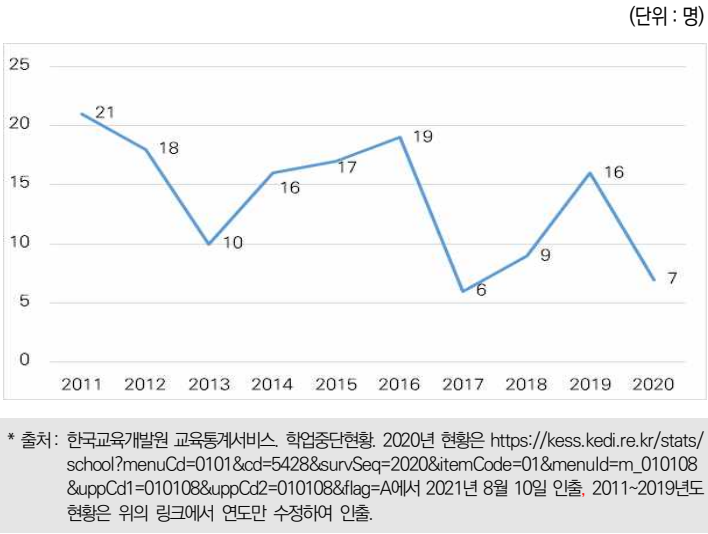


그림 V-11. 경상남도 의령군: 연도별 학업중단자 수 변화 추이

② 경상남도 의령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경상남도 의령군은 2016년 3월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지원센터의 위탁, 지원센터의 경비지원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⁸⁴⁾

8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 및 정리하였다(자치법규시스템.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표 V-31. 경상남도 의령군: 꿈드림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상세 프로그램
상담지원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상담 지원 실시
교육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기존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등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절차 안내
	대학 입시 지원
직업체험 / 훈련지원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내일이룸학교 지원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지원
자립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문자상담(#1388) 등 근로권익관련 상담 연계
	근로 권익 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1600-1729,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센터(1644-3119)를 통해 연계지원. 필요시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

* 출처: 경상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http://kdream.gnyouth.net/%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지원내용 및 상세프로그램 간략하게 제시.

경상남도 의령군의 꿈드림센터 전용 홈페이지는 찾을 수 없어 경상남도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의령군 꿈드림이 제공할만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 훈련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31).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서관, 수련관 등이 있다(표 V-32).

표 V-32. 경상남도 의령군: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기관명	위치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령읍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의령읍
의령군보건소	의령읍
의령도서관	의령읍
의령군청소년수련관	부림면
자굴산청소년수련관	가례면

* 출처: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정리하여 표 작성.

3.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대상 및 면접 내용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는 선정된 5개 지역의 꿈드림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한명씩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팀장이 없는 체계에서는 팀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⁸⁵⁾ 면접에 참여한 실무자 5명(A, B, C, D, E)은 모두 각 지역의 꿈드림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강세로 모든 심층면접은 줌(Zoom)을 통한 화상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추후 전사되어 분석되어졌다. 심층면접은 약 1시간 정도 가량 진행되어졌다. 꿈드림 실무자 대상 면접질문은 기본적으로 2020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지와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도시에 초점을 맞추었던 질문을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정하였고, 코로나19에 대처한 경험, 어려움, 추가 지원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표 V-33). 실제 사용한 면접조사지는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다.

표 V-33.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현황	• 예산 현황, 공간 현황, 조직 현황 등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특성	• 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주 이용자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청소년 욕구 등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성공사례, 안타까웠던 사례) •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연계 유지의 어려움 • 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는 부분,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 사항 • 프로그램 홍보방법

85) 팀장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한 근무 기간이 가장 긴 실무자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조사 영역	세부내용
읍·면 / 소도시 지역 특성 및 꿈드림 운영	- 지역적 특성(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환경적 특성) - 읍·면 / 소도시 지역 센터로서의 강점 단점(애로사항) - 읍·면 / 소도시 지역 센터의 핵심역할과 기능
해당 지역의 지역적 / 지자체 특성	- 기관의 위치 및 시설의 적합성 - 지역 청소년 이용기관의 종류 - 지역사회 지원 협의체 유무 및 관련 내용 - 지역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
지자체 및 지역네트워크의 지원	- 지역사회의 지원, 지자체 특화사업 -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개선방안 -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협력체계의 어려움 / 개선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
종사자 관련	종사자 처우, 업무부담, 센터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상황 대처 경험, 필요한 지원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 409의 면접조사내용 수정·보완	

꿈드림 실무자 심층면접 외에, 선정된 지역의 꿈드림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는 연계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중 비교적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2개 지역(B, C)의 연계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B지역에서 2명(B1, B2), C 지역에서 1명(C1)이 참여하였다. 3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정되었던 FGI에 B2센터 실무자가 인터넷 불안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B1 및 C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고, 추후에 따로 일정을 잡아 B2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ZOOM을 이용한 화상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연계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질문은 진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꿈드림을 알게 된 경로, 이용 청소년 현황, 애로사항,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졌다(표 V-34). 실제 사용한 면접조사지는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다. 꿈드림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 분석 결과는, 꿈드림 실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와 연계기관 절에서 같이 제시하였다.

표 V-34.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 주요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현황	-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 - 꿈드림을 알게 된 경로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인원, 연령, 성별, 욕구(관심분야), 특성
연계 프로그램 제공 현황	- 제공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 - 서비스 제공 방법 - 사후관리 - 연계 프로그램 제공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애로사항) - 성과, 연계 사업을 지속할 의향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	- 지역 내 꿈드림과의 연계 필요성 -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지역의 특성에 따른 한계
발전방향	-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꿈드림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 - 전반적인 발전방향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운 점, 필요한 지원

* 출처: 조아미 외(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p. 35 [표 III-3]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면접조사내용 수정·보완

(2) 자료 수집 및 분석

꿈드림 현장전문가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따라, 질문 내용, 질문 순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표준화되어져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기관 및 서비스의 현황 및 어려운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따라 면접(연구) 과정 중에서의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세심한 관찰, 참여자와의 적극적 협력, 사례에 대한 집중 탐구 등이 강조되어지는 보통의 다른 질적분석 방법(예: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등)과는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드림 현장전문가 면접조사는 자료 수집부터 자료 분석까지 질적분석가들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 틀을 차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깊은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면접자가 질문을 하고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보다 자세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는 질적 분석가들이 취하는 자료 분석 전략들 중, 수집된 자료(축어록)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는 과정, 자료를 코딩(의미 있는 단위들로 자료를 엮고, 단위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하는 과정, 코딩된 단위들을 보다 큰 범위로 묶어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 이러한 주제들을 그래프나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고 설명하는 과정(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5)을 핵심으로 삼아 시행하였다. 코딩은 “연구자가 찾기를 기대했던 정보”, “연구자가 찾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정보”, “연구자에게 개념적으로 흥미롭거나 독특한 정보(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p.222)를 기본토대로 하여 추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개 지역에 있는 꿈드림과 협력 및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면담에서 나타나게 되는 참여자들의 역동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응답에 대해 서로가 반응하며 의미 있는 단어 혹은 주제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역, 2018).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은 위에서 설명한 꿈드림 현장 전문가의 면접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2) 조사결과

꿈드림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관련, 꿈드림 기관 관련, 지역사회 및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의 특징에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V-35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의 특징은 크게 학교 밖 청소년의 수, 학교를 그만둔 시기 및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떠나는 아이들과 남아있는 아이들, 부모의 특성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내용을 범주화 되었다.

표 V-35.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학교 밖 청소년의 수	① 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	- 5명에서 80명으로(5명, 80명, 40명, 20명, 16명),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큼 - 주변 중소도시와 가까워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으면서 그 곳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옴(D). - 그나마 많은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서 실제 관리하는 대상은 훨씬 적은 경우도 있었음(예: 20명 등록이나, 15명이 타지에 나가있어서 실제 5명 프로그램 참여, A)
	② 2021년 줄어든 학교 밖 청소년의 수	- 올해 한명도 접수가 안 된 지역 있었음(A). 학교 밖 청소년이 아예 없어서라기보다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인데, 고등학교는 법정교육과정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꿈드림에 넘기는걸 청소년들이 꺼려하고(의무도 아님), 학교 자체에서도 꿈드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 - 올해 학생이 너무 줄은 지역 있음(B). 코로나로 학교에 안나가도 되니 그만둘 일이 없음
2. 학교중단 시기 및 이유	① 학기 초 고등학생 시기 다수 발생	- 고등학생 시기가 대부분으로 학년이 바뀌거나 개학시기 또는 새로운 적응시점에서 많이 발생
	② 다양하고 부정적인 학교를 그만둔 이유	- 다양한 이유 :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가정사(가족의 해체 등)와 같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유
	③ 학교 중단 시, 목표가 없는 상태	- 목표를 가지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 꿈드림 시작 후 지금까지 단 한명(E).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음(D) · 종종 대학 가고싶은데 학교 성적으로는 어려우니 자퇴하고 공부. 홈스쿨링 하는 경우 있음(B)
3.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① 은둔하는 청소년	- 은둔형 / 낯선 것이 싫고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움(꿈드림 제공 프로그램 참여도): 이러한 이유로 학교 적응에 문제가 생겨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을

영역	범주	의미 단위
		보이기도 함(이러한 이유로, 어떤 지역의 70-80%는 숨어서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함)
	②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방임된 아이들 : 이혼가정의 청소년들이 많고, 그렇다보니 부모의 돌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경제적 취약성), 부모의 방임 및 경제적 취약성으로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많음
4. 떠나는 아이들과 남아있는 아이들	① 기회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	- B지역을 (거의 안 나감) 빼고는, 나가는 아이들이 많음 (예 : A 지역은 80% 정도) · 누릴게 더 많음,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돈 벌기가 용이 · 나간 아이들의 근황 파악을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음 (필요할 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함)
	② 방황 후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아이들	- 돌아오는 경우 : 방황 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예 : 사고 후 다쳐서, 임신, 일자리에 적응을 못해서 등). 이럴 경우, 꿈드림에서 연락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음
	③ 남아있는 아이들	- 목적이 있어서 남아있는 아이들, 집에서 밥이라도 주는 아이들,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아이들
5. 부모의 특성	① 방임하는 혹은 가업을 잇기 원하는 부모들	-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부모의 돌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아이들에게 기대가 많이 없음. 농업을 이어받기를 원함 (30-40%정도, B)
	② 꿈드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부모님들이 꿈드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민감하게 반응함, 그러면서 아이들은 방임함(A)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수

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

5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년 평균 5명에서 80명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으나, 대부분 적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에 등록되어 있었다.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타지역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타지에 나가 있다고 청소년들과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지역의 꿈드림으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이 있을 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 20명 중에도 사실은 주소지가 여기이기는 하나 시골이기도 하고 해서 관외지역에 거주하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그리고 센터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한 해에 다섯 명 이내예요. (연구자: 15명은 나가있는?) 그렇죠.

나. 2021년 줄어든 학교 밖 청소년의 수

5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줄어 들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한 명도 등록이 안 되었다는 지역의 실무자는,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재학중 학업을 중단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할 때 의무적으로 꿈드림에 연계할 필요가 없어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지역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급감하였는데, 그 이유를 코로나의 영향으로 추정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안가도 되는 날이 많아 지다 보니 구태여 학교를 중단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A: 네 매년마다 들어왔는데, 21년도에는 지금 1월부터 7월 말까지 신규 사례가 한 명도 안들어 왔어요.

B: 20년도에는 너무 애들이 학교 적응을 잘 하는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니까 대인 관계 갈등이라던지 이런 갈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줄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숙려 상담을 평균 10명 이상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 두 명 했어요. 올해도 한 명인가.....

② 학교를 그만둔 시기 및 이유

가. 학기 초 고등학생 시기 다수 발생

읍·면 / 소도시 지역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적응을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학기 초, 학년 초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D: 특별한 시기는 보니까 학년이 바뀌는, 개학 때 제일 많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골이 되는 것 같고.....고등학교가 제일 많죠.

나. 다양하고 부정적인 학교 중단 이유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선생님 혹은 친구와의 갈등, 부모의 이혼 혹은 가족의 해체와 같은 가정사 등의 이유였다. 단순히 시골 지역에서 벗어나 넓은 지역으로 나가고 싶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부분 제가 여기 와서 아이들을 겪으면서 봤던 환경들을 보면, 아이들이 가족 해체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님 이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체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조손부모 라던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D: 학교 선생님과 갈등이 아마 만약에 10명을 두고 본다면 7명? 그 나머지가 친구들 관계 그 다음은 자발적으로 공부가 싫은거죠. 그냥 다 귀찮아서.....

E: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그냥 왕따 경험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관계적인, 관계 갈등에 의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관계갈등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학교에 나가기 싫어서 그렇게 출발하면서 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통계를 보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3-4명 정도는 가출이나 임신이나 남자친구 따라가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경우죠... 그리고 가정사가 갑자기 생겨서 엄마가 빚이 갑자기 생겨서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이런다든지 대부분 어떤 사건, 사건에 의해서, 부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만 뒀고,

다. 학교 중단 시, 목표가 없는 상태

위와 같이 부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다 보니, 학교를 중단할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조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한 케이스 뿐 이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는데 현재의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어려우니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E : 애네 하고 반대되게 정말 검정고시라는 진로를 통해서 그만두어야 겠다 확실한 목표를 가진 애는 한 명 있었어요

C :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학교 부적응, 가정 문제로 나온 아이들이 많아서

③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가. 은둔하는 / 욕구 및 동기가 없는 청소년

읍·면 / 소도시 지역의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은둔하는 청소년이거나, 낯선 곳을 싫어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 지역의 실무자는 지역의 80%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고도 응답하였다. 작고 폐쇄적인 지역에 있다 보니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에 언급하였던 부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정적인 생애 사건들로 인하여 이러한 성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교를 중단 한 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C : 처음에 발골이 되면, 물론 활발하게 나와서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은둔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D : 그래도 만약에 비율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70, 80%정도는 숨어서 조용히 지원받기는 바라는 애가 많아요.

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로부터 방임되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보고도 있었다.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방임 속에서 청소년

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 돌봄을 잘 받지 못하다보니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B : 일단은 부모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70%가 거의 이혼가정이예요. 70%가 이혼가정이었고, 지금은 수치가 60%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네들이 실제로 돌봄이 안 되는거예요. 돌봄이 안되고.....

C : 차상위나 기초수급은 많지가 않은데, 아이들이 부모님 방임이나 이런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직접 꾸려나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요.

④ 떠나는 아이들과 남아있는 아이들

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많은 비율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활하였다(한 지역은 지역 인프라가 많아서 타 지역으로 거의 나가는 것으로 보고됨). 읍·면 / 소도시의 경우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이동해나가는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타지로 가기 보다는 아는 선배 혹은 친구들을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A : 현재까지 ○○ 안에 순수하게 ○○ 안에 있으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 안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전체 퍼센트에서 20%? 80%가 이주를 하는거죠.

E :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곳은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로 나가는 거죠.

C :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먼저 선배가 나가있으면 그 선배들이 취업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연고가 있어서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학교밖 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친척이 있어서 나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네요.

나. 방향 후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아이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 방향을 하거나 상처를 입고 다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예 : 교통사고, 임신, 일자리 부적응 등)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돌아오는 아이들은 더 폐쇄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지원을 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참여로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A : 외부 도시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방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향도 많이 하고, 이래 저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들어와서 ○○에서 애도 키우고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온 케이스,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방향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손대기 힘들 정도로 그런 케이스의 애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D : 돈을 벌러 가겠다고 간 남자아이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로 쿵 배달,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아주 크게 다쳐서 지금 다시 집에 들어와서 요양하고 있어서 저희와 만나고 하거든요. 그 아이 얘기가 돈을 번 것은 같은데 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번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몸은 몸대로 상해 있고, 위험해 보이죠.

다. 남아있는 아이들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크게 목적이 있는 아이들(예 : 집안의 가업을 잇는 아이들, 검정고시 준비 등), 부모의 방임이 덜한 아이들(“집에서 밥이라도 주는”),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둔형)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 : 의지가 없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요. 그래도 집에서 쉽게 말해서 집에서 부모님이 밥이라도 주는 아이들. 혹은 반은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E : 그 아이들은 일단은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가정적으로 부모님이 여기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셔서 그나마 본인이 마음 편하게 이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거든요 대부분.

⑤ 부모의 특성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청소년들을 방임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한 지역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업(예: 농사)을 잇기 원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꿈드림으로 직접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있는 반면, 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A: 아이한테는 관심이 많이 떨어져있는, 케어를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B: 학부모님들 자체가 청소년한테 기대감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농사짓는 것, 네가 아들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아서.

B: 부모님도 관심도 없고, 너 학교 그만 뒀으니까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런 식으로 방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방임이죠.

D: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되었을 때 먼저 저희들한테 사례가 들어오는건 부모님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2) 꿈드림센터

다음으로 기관 관련 분석 결과는 표 V-36과 같다.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기관 인프라, 발굴 및 홍보,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 종사자 처우, 시·도 센터의 역할로 구분하여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표 V-36. 꿈드림 기관 관련 조사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예산	① 국비와 지방비	-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 ·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A, B, C) · 국비가 5이고, 지방비가 5(D) -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지방비와 매칭, E)
	② 부족한 후원금	- 후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는 없음 - 센터 실무자가 후원처를 발굴하여 청소년과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있음(D)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③ 예산이 반납되는 코로나 시기	- 2019년 만해도 예산이 부족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서비스들이 스톱되면서 오히려 예산 반납하는 경우 있음(B)
2. 열악한 인프라	① 종사자 책상만 있는 꿈드림 공간	- 5곳 중 1곳만 검정고시 공부하는 공간 마련(C). 나머지는 전용공간 없음 - 사무실에 책상만 있음(A) - 다른 기관의 일부를 세내고 쓰는 것처럼 심리적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함(E) - 청소년을 데리고 상담할 공간이 없다보니, 찾아가는 서비스만 가능(A)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필요
	② 센터장도, 팀장도 없는 조직	- 꿈드림센터장도 없고(혹은 상담복지센터와 겸직 혹은 직영으로 공무원이 담당), 팀장도 없는 체계가 대부분
	③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위치	- 5개 지역 모두 열악한 교통편, 기관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인하여 기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3. 발굴 및 홍보	① 다양한 발굴경로	- 교육청 연계가 주가 되는 지역이 있음(A, B) - 알음알음 소개로 발굴되는 지역이 있음(C, D) - 한 지역은 꿈드림 정보망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연계(E)
	② 찾아가는 꿈드림 홍보	- 면사무소, 학교 등 방문(홍보물품 전달), 학교 공문 발송, 전화 혹은 우편물 발송, 실행위원회 기관, 지역 축제, 행사 참여하여 홍보물 배포 등
	③ 어려운 학교와의 연계	- 학교 측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연계가 원활히 되지는 않는 편. 학교 밖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애매함
4. 서비스 제공 현황	① 주기적 근황확인	- 은둔형 혹은 타지로 나갔다가 상처를 안고 돌아온 아이들과 같이 소극적인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근황확인을 함(A) - 최소한의 지원 혹은 스스로 필요할 때 기관으로 연락하게끔, 타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 혹은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유선 혹은 SNS로 근황 확인(E)
	② 질적 수준이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숨어서 지원받길 원하는 아이들(70-80%)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D) - 은둔형의 경우 방문 상담 및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 적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가능(C) - 인원이 적다보니,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한번 지원해줄 것을 두 번, 세 번 지원 가능(A) - 아이들이 원하면 질적으로 우수한 개별적 지원 가능(C)

영역	범주	의미 단위
5.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	③ 중점을 두고 있는 검정고시 & 자격증 취득 지원	- 대부분 검정고시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둠 - 온라인강의 수강권, 교재 지원, 멘토 섭외 후 1:1 온라인 수업 등 제공 - 그 외 문화체험, 직업체험(지역연계로), 문화예술체험 등 제공 -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멋도 나고, 밥벌이의 기본) 온 전면허 취득 지원을 검정고시 다음으로 큰 비중을 둠(D) - 컴퓨터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 취득 지원(A, B)
	① 공통된 욕구를 찾기 어려움 · 동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청소년 · 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	- 인원도 적고, 욕구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공통된 요구를 찾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어려움(E) ·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기까지가 너무 힘들(D) · 동기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무언가에 참여시키기 어려움(E) · 여가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하기에 청소년 수가 너무 적음(B) ·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C) ·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고 (C), 보충한 해답이 없는 문제(E)
	③ 경직된 예산사용	- 찾아가는 상담이 많은데, 현재 아이들과 1회 만남시 6시간 미만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1만원으로 매우 부족함. 실무자가 청소년과 활동할 때 간단한 증빙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필요(A) - 아이들의 동기 및 자신감 회복 위하여 보상물을 주고 싶은데, 1만원 이상 불가능함. 보상 / 강화물, 장학금 등 관련 예산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B) - 학생들 발굴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기관으로 연계를 거부할 때, 점심식사 등과 같은 지원을 하며 발굴 시도를 하고 싶으나, 현재 가능하지 않음. 실무자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D) · 교통비 지급 필요(D)
6. 종사자 처우	① 소진 / 스트레스의 위험성	- 외부 도시에서 방황하고 심신이 힘든 청소년들이 많아 상담 및 관리 시 소진이 빠름(A) - 청소년 수는 적은데 사업성고를 내기 위한 스트레스가 큼(E)
	② 부족한 인력	- 1명의 실무자가 근무 중. 채용을 계속 안내주고 있음(A) - 다군 센터는 2명 배치인데 부족한 느낌. 3명은 되어야 함(D)

영역	범주	의미 단위
	③ 높은 이직률	- 이직률이 높음. 오히려 장기근속이나 호봉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느낌으로 쳐우도 상담복지센터에 비해 열악(D, E)
7. 시·도 센터의 역할	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 센터	- 관계자 회의를 통한 정책 전달 및 실무자 교류 추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대학입시와 같은 1:1 컨설팅 진행, 연합사업 진행 등 다양한 역할 수행
	②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	- 연합프로그램 관련 : 시·도 센터 주관 연합프로그램 진행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열악한 교통 및 청소년들 자체 의지가 별로 없음. 해외 수학여행과 같은 고품질의 프로그램만 참여하려고 함.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A) - 수능 준비반(컨설팅, 강사확보, 지속적 관리 등)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분야는 도 센터에서 관리해줬으면 함(B) - 인식개선 관련 : · 인식 개선 관련 학부모 교육을 시·도 센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함(D) · 인식개선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과(예 : 대학입시 등) 홍보 제안(B)

① 예산

3개 지역이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이었고 다른 1개 지역이 5:5로 운영예산이 매칭되어 꾸려졌다. 도비가 지원되는 지역은 1군데 있었는데, 지방비와 매칭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산 외에 후원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는 지역은 없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이 있는 경우는 꿈드림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직접 연결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A : 후원금같은 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추정 받아가지고 하는 돈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B : 이게 작년 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거의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돈을 오히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② 기관 인프라

가. 종사자 책상만 있는 꿈드림 공간

우선 꿈드림 공간 사용이 매우 협소하였다. 사무실에 실무자가 쓸 수 있는 책상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꿈드림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만한 공간은 전혀 없었다. 5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최근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해도 상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심리적으로도 타 기관에 얹혀 있는 세입자처럼 지내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A : 사무실에 책상만 있습니다.....(학생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그래서 대부분 찾아가는 상담으로 하고요.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것도 찾아는 걸로 진행을 하고,

D : 학교밖 전용은 아예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

E : 3층의 일부를 세 내고 쓰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세입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집 눈치도 보고 하면서.

나. 센터장도, 팀장도 없는 조직

실무자들의 조직 체계가 없는 지역이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지역이 꿈드림만을 담당하는 전담 센터장은 없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겸직 혹은 지자체 직영인 경우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지역들이 있었다. 센터장 혹은 팀장의 직급도 없는 지역도 있었는데, 이러한 체계가 없다보니 팀장이 참여해야하는 다른 기관에서의 연합 행사가 있을 때, 또 신입 직원으로의 업무 인수 및 지시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A : 꿈드림센터장님은 없고, 상담복지센터도 없어요.

B: 이게 센터장님이 없는 지가 ○년이 넘었어요.....이게 예전부터 보면 그래서 항상 오래된 선생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고, 센터장 회의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공무원, 팀원으로 되어있어요. 저도 팀원이고요.

D: 겸임을 하고 있고 팀장도, 고유 팀장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위치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B: (얼마전 옮김) 이전 거기가 외곽지대라서 애들이 거기 한 번 오려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 타고 와야 하는데 버스도 농촌이다 보니까 30분마다라도 있으면 좋은데 거의 한시간 두시간 이렇게 있으니 한 번 나오려면 너무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C: ○○에 각 읍이나 면들이 한 시간 이상씩 떨어져있고 대중교통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저쪽에 ○○면에서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하며 3시간씩 걸리거든요.

E: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를 건립부지에정지로 되어있었으나 예산상 현실적으로 안되어서 사실은 이 먼 쪽에 생겼는데, 다 지역주민 어른이든 누구든 딱 봐도 여기는 이게 이 위치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연구자: 버스가 안오나요?) 네 오기가 이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십분 이십분 걸어야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너 내려서 전화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리러 가고 이런식으로.

③ 발굴 및 홍보

가. 다양한 발굴 경로

지역마다 다양한 경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굴되었다. 어떠한 지역은 교육청 연계가 주가 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한 지역은 교육청 연계가 주가 되긴 하지만 교육청 연계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청소년들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지역이 좁다보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지역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정보망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연계가 되는 지역도 있었다.

A: 대부분 80% 이상 많게는 90%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거의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연계 오는 걸로 해

D: 발굴하는 것도 알음알음인거죠. 학교같은 경우는 위센터, 위클래스. 어쨌든 그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학업중단속려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밖청소년센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친구가 연계가 되면 그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유입될 수 있는거죠.

나. 찾아가는 꿈드림 홍보

홍보는 주로 지역의 여러 기관들, 회의, 축제 등에 참여·방문하며 홍보물품을 전달하거나, 전화, 우편물,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A: 1차원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들고 찾아가서 얼굴 뵈고, 홍보물품을 드리면서 리플렛도 학교면 학교, 읍·면 사무소면 읍·면 사무소 각각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를 또 올리고.....

E: 지역의 축제나 행사, 지역 유관기업 모이는 자리나 이런데 있을 때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현장 같은 곳에 방문해서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어려운 학교와의 연계

학교와의 연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들이 있었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중학생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계가 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실무자들은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한 홍보를 꺼려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꿈드림의 홍보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C: 가장 중요하게 저는 학교 밖 아이가 학교에서 발생을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자퇴 원서를 낼 때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아이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쓰면 저희한테 연계가 안되잖아요. 그럼 아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그 말씀은 드렸었어요. 자퇴 원서를 쓸 때 저희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밖 아이가 발생하는거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E: 학교 안에 가서 학교 밖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이름 정도 알린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④ 서비스 제공 현황

가. 주기적 근황 확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기적인 근황 확인이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은둔형이거나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서비스 혹은 지원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주기적으로 전화 혹은 SNS를 통한 근황 확인이 필요한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라포를 형성하면, 추후에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이 있을 때 스스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근황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근황 확인을 통해 실무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근황 확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연락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A : 그러다보니 장기간으로 봐서 이친구가 현재로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하기를 꺼려한다 하면 연락을 전화나 이런 것들은 잘 안하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고,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한번씩 한번씩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확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마음을 내비치면서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관계 형성을 1차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E : 연락을 끊지 않고, ‘잘 지내니?’ 안부를 물어주고, 가느다란 끈이라도 연결 해놓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이든 저희한테 오더라는 얘기죠.

나. 질적 수준이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비교적 적다 보니,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장점으로 맞춤형 서비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 제공을 꼽는 실무자들이 있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었는데, 은둔형, 내성적인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맞춤형으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들의 욕구만 있다면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여러 번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A : 저희가 질적 서비스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더 아이 한 명에게 질적 서비스를 한 번 지원해줄 것을 두번 세번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애한테 보다 큰 혜택을 줌으로서 이 친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계발에 있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좋고

C : 아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이들이 원한다면 예산으로 봐서는 자기계발도 재료비가 비싼, 강사비가 비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지원은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검정고시 준비와 자격증 취득, 급식 지원

대부분의 지역 실무자들이 검정고시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온라인 수강권, 교재를 제공하였으며, 멘토를 섭외하여 청소년과 1:1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지원하였다. 검정고시 외에도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지원을 청소년들이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A : 첫번째는 검정고시 합격, 두번째는 자격증이나 취업 이렇게 두가지를 세우는데.....

D :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을 이것저것 해봤지만, 제일 호응이 좋았던 게 사실은 급식지원을 해서 비대면 꾸러미 현물 같은 걸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호응이 엄청 좋고요.

⑤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

가.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공통된 욕구를 찾기 어려움

대부분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동기가 없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다 보니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만한 공통된 욕구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청소년들의 동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귀찮다’라고 표현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절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욕구나 동기가 없는 청소년들이 많아,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아도 보족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C :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 의지가 없게 제일 힘들죠. 저희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하려고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지만,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고요.

E : 일단은 서비스 대상자가 소수인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그걸 프로그램 개설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공통된 욕구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뭐 해보겠니? 컴퓨터 자격 해보겠니? 이거 해보겠니? 저거 해보겠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욕구가 없어요.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게 더 어렵죠.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 경직된 예산 사용

예산 사용이 유연하지 못한 것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측면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꿈드림 공간이 마땅치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식당 및 카페에서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져 있다보니 실무자들이 이러한 상담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위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듯이 읍·면/소도시 지역에는 은둔형 혹은 내성적이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구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자신감을 주기 위한 보상·강화물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은둔형이거나 내성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주기적으로 시도하는 근황 확인을 위해서도 매개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마련할 만한 예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다.

A :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지침이 너무 딱딱해요. 지침에 있어서 딱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뭐 안되고 뭐 안되고, 사업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실무자들이나 결재권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 실정에 맞게끔 그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줘야죠.....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증빙 자료 잘 썼는지 안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증빙 자료만 구비가 된다면 좀 유하게 사업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하게 정해놓고 이렇게만 해야해 이렇게만 해야해 저희한테 사업이랑 센터랑 맞추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래서 돈을 쓰면 안되고 저래서 돈을 쓰면 안된다고 그래요.

A : 1회 활동을 할 때, 6시간 미만이면 이 친구한테 하루에 만나서 쓸 수 있는 돈이 딱 만원이예요. 만원 안에 식비랑 간식비가 포함되어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애들한테 한 번 만나는데 6시간 이상으로 만나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D : 거부를 했을 때 정해진 그 시스템보다 조금 더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가 점심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인 현물서비스인거죠 그런게 없다보니 애들이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고

B : 하나 잘 했을 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강화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2-3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서 주는 것 계획안을 올리면 다 안 되더라고요. 만원 이상 주는 것을 시에서 용납을 안하시고.

⑥ 종사자 처우

종사자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읍·면 / 소도시 지역에는 은둔하고 있는 내성적인 청소년이나,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상처를 입거나 방황 후에 돌아온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관리하다보니 대도시에 비해 소진이 빠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는 적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이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높다고 하였다. 인력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떤 지역은 1명의 실무자가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지역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상담과 함께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여기에 열악한 처우까지 더해지면서 이직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A :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드네요 솔직히

A : 그리고 학교 밖 친구들 만났을 때에도, 학교밖 센터 선생님들을 접하면 외부 도시권에서 많이 방황을 하고 심신이 힘들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애네들 케어하는데도 일반 도시권에 있는 친구들 만났을 때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비하니까 소진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B : 인력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둘이서 하기에 벅차고 이런 데다가

D : 와주는 애들도 없어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 거고,

⑦ 시·도 센터의 역할

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도 센터

현재 시·도 센터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지역이 많았다. 대부분 시·

도 센터가 전달체계로서 적절히 역할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전에는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연합 프로그램 진행, 실무자 역량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 아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잘해주시고, 저희들도 서비스 받기도 좋고, 좋아요.

E: 일단은 지금 잘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책이나 연합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주기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도 해주시고, 저희 담당하는 실무자들 역량 강화 관련된 필수 교육들 운영도 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은 행정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과의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시고.....

나.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센터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들이 있었다. 우선, 시·도 센터 주관으로 연합프로그램 진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읍·면 / 소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들의 욕구 및 동기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자원 부족의 한계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자원 부족으로 다양한 지원(컨설팅, 강사확보 등)이 필요한 수능준비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도 센터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도 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과 위주로 꿈드림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A: 좀 더 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끔 주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B: 사업비가 부족하고, 도센터나 어디서 그런 것을 운영해줬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어있죠.

D: 높은 상위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저희들한테 전달해주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 지역사회 및 코로나19 팬데믹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코로나19 관련 분석 결과는 표 V-37과 같다. 지역사회 및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역 인프라, 부족한 지역 연계, 지역사회의 무관심,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로 구분하여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표 V-37. 지역사회 및 코로나19관련 분석결과

영역	범주	의미 단위
1. 지역 인프라	① 불편한 교통	- 교통이 불편하여, 꿈드림 이용 시, 혹은 활동 시 꿈드림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동을 위해 직접 태워 나르거나 교통비 필요
	② 부족한 일자리 / 아르바이트 자리	- 지역마다 특색이 다름 - 부모들이 폐쇄적인 성향이며, 아이들에게 관심이 떨어짐. 일자리 체험 혹은 아르바이트 거의 없음(최근 들어 생기는 추세, A).
	③ 자격증 취득 관련 인프라 부족	-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C)
	④ 부족한 청소년들의 공간	- 청소년이 사용할만한 공간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 혹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카페(B)를 최근 마련한 지역이 있었음.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는데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함. 문화 공간 혹은 청소년만의 공간이 필요함(A) - 한 지역은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밀집되어 연계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함(D) - 문화 공간, 청소년만의 공간 제공 필요
	⑤ 인력확보의 어려움	- 멘토링같은 프로그램 진행 시 지역 자원이 없음(인력 확보 어려움)
2. 부족한 지역연계		- 5지역 중, 지역연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3개 지역(1개 지역은 올해 처음 시작)

영역	범주	의미 단위
		- 보통, 연계 시 청소년들에게 꿈드림센터가 지원금을 제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 꿈드림센터에서 일을 하게 하고 현금 지급(E) - 고용센터에 청소년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있었음(A) - 취업 연계라기보다는, 직업체험 정도(예 : 대학교 바리스타, 베이커리학과 연계, 지역 내 미용실 연계 등)
3. 지역사회의 무관심	① 부족한 협의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실행위원회 참여를 제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는 2개 지역이었음(C, E). 그마저도 실행위원회 하면서 함께 하는 정도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심 없는 지자체장들	- 관심이 없다는 지역이 대다수 - 활동보고회, 발표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시의원들에게 초대장도 보냈으나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그만한 팀에서 여는 행사에 시의원까지 불러 행사를 하려고 하나는 클레임 들음(B) - 조금이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말한 지역이 한군데 있었음(B)
	③ 지역사회 지원의 부재	- 대부분 지원이 없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경우 꿈드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함(D)
4.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홍보 필요 · 지자체의 정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는 부분들 개선 필요(예 : 공모전, 대회, 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제외, E) · 도센터, 여가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꿈드림 홍보 필요(B) · ‘학교 밖 청소년’ 명칭 개선 필요(D)
5. 코로나 19	① 코로나19 상황 대처	- 비대면 서비스 제공(예 : zoom 활용, 1:1 멘토링, 문화 체험 키트 제공, 급식꾸러미 제공 등) - 사업비 반납
	② 코로나19 상황으로의 어려운 점	-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성과위주 사업진행 부담 - 이동 / 체험활동의 어려움. 문화적 소외. 소통의 어려움으로 실무자 소진

① 지역 인프라

가. 불편한 교통

지역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넓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버스의 배차 간격이 더욱 커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워낙 외지에 살고 있어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례도 있었으며, 꿈드림 근처까지 대중교통이 오지 않는 지역도 있어, 버스를 내려서 한참을 걸어와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러한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직접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차로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B: 농촌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요.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애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을 때에 제시간에 바로 못 모여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저히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실어오고, 실어가고, 매번 이렇게 했어요.

D: 같은 지역이라도 차를 타고 와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의 이동성에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예산부분을 조금 더..

나. 부족한 일자리 / 아르바이트 자리

면접에 참여한 센터들의 한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던 내성적이고 은둔적 성향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다.

C: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D: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특성 상 아주 치열한 제과점 이런 데에서 알바하면 중도탈락 경험이 많아요.

다. 부족한 청소년들의 공간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집이나 카페가 마련되어 있다는 지역도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이용할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었다.

A : 지금 청소년 기관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수련원이 하나 있어요.....여기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 서는 차로 2시간을 가야해요.

C : 저희가 문화의집이라고. 저희 건물 자체가 ○○센터라고 문화의집하고 청소년기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인데요. 문화의집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노래방, 당구칠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 있고. 거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공간이.

E : 문화의 집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이용하는 인원이나 도시는 이렇고 시골은 이렇고 구분 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한 두명의 아이들이라도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간단하게 먹는 매개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손수 해먹을 수 있는 전용 공간들이 필요해요.

라. 인력확보의 어려움

작은 규모 지역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검정고시 관련 멘토를 찾기도 어렵지만, 멘토에게 꿈드림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도 적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B : 이게 인력확보가 너무 힘들어요. 관내에 대학입시학원도 별로 없고, 입시학원 한 두개 있나 이렇고요.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봉사활동으로 와서 학습지도가 가능한지. 저희가 사실 멘토 활동비를 3만원, 4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 그냥 과외하는 애들 한 번 한시간 와서 5만원 받으 시는데, 두 시간 수업하면서 3만원 받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학생을 써보니까 대학생은 이런저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대학생을 선생님으로 안 보는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해보는데 사실 여기 너무 자원이 부족해요.

② 부족한 지역연계

5개 지역 중 지역연계가 진행 중인 지역은 총 3개 지역이었으며, 그 중 1개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연계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지역 내 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연계는 직업체험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지역에서는 지역연계가 활발히 진행되어지지는 않지만, 실무자가 직접 학교 밖 청소년들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찾아주기도 하였다. 지역연계 기관 및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은 꿈드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B: 음악은 기타반을 만들었어요. 모집을 해서 4명이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타가 어려운 거예요. 배우기에. 그걸 좀 잘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애네들이 끈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할래요. 재미없어요.' 자기는 멋있게 치고 싶은데, 하루 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인가 연락을 아무리 해도 안 받고

D: 지역연계라면, 그건 아직까지 없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은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 연계기관 실무자 심층면접 조사 결과⁸⁶⁾

꿈드림 실무자 면접조사에서 파악된, 지역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⁸⁷⁾의 연계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FGI 및 개인심층면접)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38과 같다.

표 V-38.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조사 결과

영역	조사 결과
1. 제공 서비스 / 사업	- 미용실 보조, 손님응대 등 모든 일 참여(C) - 대학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살기 프로그램(수업) 진행(B1, B2)

86) 꿈드림 실무자 면접조사 분석의 '②부족한 지역연계' 부분에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다.

87) 5개 지역 중, 총 3개 지역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중 1개 지역은 올해 처음 시작하여 면접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총 2개 지역의 3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영역	조사 결과
2. 연계기관 발굴 및 연계 방향	- 꿈드림 실무자에게 직접 연락 받음(C) -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학과 측으로 연락(B1, B2) - 지역의 개인사업장 등 자영업 혹은 개인과의 연계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일손이 더해지는 것임으로 개인사업장 차원에서도 이득 ; B1)
3. 학교 밖 청소년 특징	- 대부분 고등학생, 중학생은 소수임. -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며, 내성적이고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음 - 포기가 빠르고 인내심,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4.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예 : 예민하고 포기 빠름 등)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는 것이 어려움(C, B1, B2) - 인센티브가 적어 봉사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C)
5. 성과	- 청소년과 의사소통할 시간이 많아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꿈드림 실무자와 공유하게 됨(C) - 대학 진학과 연결된 사례들이 있음(B1, B2)
6. 개선 방향	- 동기부여를 위해, 포상제도나 장학금 제도 필요(C, B1, B2) - 너무 힘들지 않고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A) - 목적과 흥미에 따라 집단 구분 필요(B1) - 인성교육(예 : 감사함의 표현 등) 필요(C, B2) - 교통편 마련 필요(B1, B2)

우선 참여자 C⁸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조 역할로 미용사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용실에서 손님응대를 포함한 모든 일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B1, B2⁸⁹⁾는 대학 교수로, 대학 내의 수업공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기 프로그램 수업을 제공하였다.

꿈드림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C는 꿈드림 실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으며, B1, B2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학과 측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꿈드림이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한 사례였다. 연계 방향과 관련해서, 지역 내의 개인

88) 면접조사 대상지역인 C지역 연계기관 실무자를 C로 표기하였다.

89) 면접조사 대상지역인 B지역 연계기관 실무자를 B1, B2로 표기하였다.

사업장이나 개인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과 연계를 맺게 된다면 개인이 소속 기관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연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일손을 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 측면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등학생이 많다고 하였으며,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결손 가정의 청소년이 많다보니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성적인 청소년들도 많다고 하였다. 또한 포기가 빠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내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대화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의사소통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계기관 실무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모두 꿈드림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C의 경우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꿈드림 실무자와 공유하여 꿈드림 실무자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B의 경우에는 실제 대학 진학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선방향들이 제안되어졌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포상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적정한 강도에서의 업무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실제적으로 대학진학의 목적과 취미의 목적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감사함의 표현 등과 같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계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지역사회와의 무관심

가. 부족한 협의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지자체 장들이 모여 의논하는 독립적인 협의체는 없었다.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실행위원회를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로 생각하였는데, 실행위원회 진행시, 또는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A : 학교밖센터에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실행위원회 안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그 안건을 토대로 위원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죠.

C : 저희가 실행위원회 할 때, 지역 협의체를 같이 하거든요. 따로 저희끼리 지역 협의체 위원들을 따로 구성하거나 그렇게는 안하고요. 실행위원회 할 때 그 위원들 하고 같이 지역 협의체 같이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심 없는 지자체 장들

꿈드림 이외의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따로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 장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 지역의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초대장을 보내자 지자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B : 활동 보고회, 발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활동을 하는데.....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한 명도 안 오셨고요.....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한 팀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을.....

A, D : (지역사회 지원) 없어요

C : (지역사회 지원) 특별히 없죠.

④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지역 내의 공모전 사업 혹은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되고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식 개선 및 꿈드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D : 학교 밖 청소년 자체가 학교 밖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거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이라는, 일반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만 아는걸로 인식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을까.

E :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도 공문으로 하달된 내용이 얼마 안 됐을 텐데,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로서 공문은 최근에 내려 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 받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라 권고사항으로 내부 업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히 공유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공모전 이든 대회든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 이런식으로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그런데 그 지원 신청자 대상에 역시나 학업중단 청소년은 포함이 안되었던 거예요.

⑤ 코로나19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호소하였다. 체험활동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이동에서의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적 소외가 더욱 심해진다는 점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애로사항들로 꼽혔다.

A : 비대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위생 키트라던가 기본적으로 생필품 지원 그런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사업 운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1:1 학습지원도 좀 활용해가지고 멘토랑 1:1 매칭해주기도 하고, 문화체험같은 것들도 키트 같은 것들 맞춰서 전달해주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게 하고.

C : 아이들이 문화체험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못해서 아쉽죠. 아이들이 여기서 문화적 소외를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D :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성과부분. 성과부분을 조정해주면 저희가 남은 기간이 수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과위주의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프로그램이 진짜 애들한테 맞는 그런거

4.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는 인구 수가 20만 명 이하의 시·군·구 지역의 꿈드림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졌다. 총 18개 문항의 조사내용을 웹 / 모바일 링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2020년 연구에서(김희진 외, 2020)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설문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만, 질문의 대상을 대도시가 아니라 읍·면 / 소도시 지역으로 바꾸었고, 이주배경 학교 밖 청소년 비율 및 필요 지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력 및 어려움 등의 문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표 V-39). 실제 사용한 설문조사지는 부록 4에 첨부되어 있다.

표 V-39.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조사 내용
응답자 현황	• 근무기간 및 직급 • 성별, 연령대
기관특성	• 기관의 이용 경로 • 기관의 전용공간 사용 여부 • 기관의 위치 및 공간 / 시설 여건(접근성 및 쾌적한 시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여부	• 심리·상담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심리·사회 지원 및 연계 • 건강검진, 자산관리, 기초생활 지원 등 일반생활 지원 • 복고 안내 및 검정고시 준비와 대입진학 상담 등 학업지원 • 진로지도, 직업훈련(인턴십) 및 취업준비 지원 등 진로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 청소년 및 가족 관련 :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 기술, 부모의 지지도 등 • 꿈드림 기관 관련 : 예산 부족, 시설(인프라) 미흡, 전문 인력 부족, 종사자 처우 수준, 정보 접근 어려움, 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 관련 :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부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행정업무의 과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특성	• 읍·면 / 소도시 꿈드림 실태 인식 :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 인력의 전문성, 협력체계 등에 대한 인식 • 읍·면 / 소도시 지역 센터로서 운영에서 초점을 둘 부분, 강점 •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구분	설문조사 내용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 및 필요한 지원
사업 방향성 관련	- 꿈드림 이용 중단 이유 - 시·도센터의 역할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개방형 질문)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개방형 질문)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446의 조사내용 수정·보완

인구수가 20만 명 이하의 시·군·구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총 85개소로, 해당 기관에 공문 및 설문링크를 전송하였다. 기관 당 한명의 실무자가 응답하게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조사에 응답한 실무자는 총 63명이었다(표 V-40).

표 V-40.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전체	63	100.0
	남자	14	22.2
	여자	49	77.8
연령	20~30대	31	49.2
	40대 이상	32	50.8
지역	읍·면	44	69.8
	소도시	19	30.2
시설 / 기관 직급	시설장	3	4.8
	팀장 / 선임	22	34.9
	실무자	38	60.3
종사경력	5년 미만	41	65.1
	5년 이상	22	34.9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49명(77.8%), 남자가 14명(22.2%)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20~30대와 40대 이상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읍·면지역에 위치한 꿈드림은 44개(69.8%)였고, 소도시에 위치한 꿈드림은 19개(30.2%)였다. 직급은 실무자가 38명(60.3%), 팀장 / 선임이 22명(34.9%), 시설장이

3명(4.8%) 이었다. 총 41명(65.1%)이 5년 미만의 종사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2명(34.9%)이 5년 이상 종사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읍·면지역에 위치한 꿈드림과 소도시에 위치한 꿈드림 간에 응답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지역과 소도시를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척도분향의 경우 t-test를 통하여 읍·면지역과 소도시지역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2020년 대도시 지역 조사 시 같은 척도 분향을 사용한 경우에는 F 검증을 통해 읍·면, 소도시, 대도시⁹⁰⁾ 지역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2) 조사결과

(1) 기관 특성

① 꿈드림 주요 이동 경로

꿈드림 실무자를 통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를 살펴 보면(표 V-41), 학교·교육청을 통해서 꿈드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54.0%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이용하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17.5%). 이러한 두 가지 경로가 주요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른 응답들은 총 5개 이하의 빈도를 보였다.

주요 이용 경로로 조사된 1, 2, 3순위를 합친 결과표를 보면(표 V-42), 1순위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청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7.8%),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이용하는 경우(55.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꿈드림을 찾아오거나 가족의 소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30.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서 꿈드림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들이 그 뒤를 이었다.

90) 지역규모별 비교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데이터는 김희진 외(2020)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V-45, 표 V-48, 표 V-50, 표 V-52, 표 V-54, 표 V-56 등의 대도시 데이터 해당).

표 V-41.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순위)

(단위: 빈도(%))

주요 이용 경로	전체	전체	
		읍·면	소도시
학교·교육청 통해(Wee클래스 등)	34(54.0)	27(61.4)	7(36.8)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4(6.3)	3(6.8)	1(5.3)
대안학교	1(1.6)	1(2.3)	0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2(3.2)	0(0)	2(10.5)
검정고시 시험장	4(6.3)	2(4.5)	2(10.5)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2(3.2)	2(4.5)	0(0)
가족의 소개로	4(6.3)	4(9.1)	0(0)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11(17.5)	4(9.1)	7(36.8)
기타	1(1.6)	1(2/3)	0(0)

표 V-42.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2+3순위)

(단위: 빈도(%))

주요 이용 경로	전체	전체	
		읍·면	소도시
학교·교육청 통해(Wee클래스 등)	49(77.8)	34(54.0)	15(23.8)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16(25.4)	13(20.6)	3(4.8)
대안학교	9(14.3)	7(11.1)	2(3.2)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14(22.2)	8(12.7)	6(9.5)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11(17.5)	5(7.9)	6(9.5)
주민자치센터·지자체(교통카드 또는 수당 신청 과정에서)	9(14.3)	7(11.1)	2(3.2)
검정고시 시험장	6(9.5)	3(4.8)	3(4.8)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19(30.2)	16(25.4)	3(4.8)
가족의 소개로	19(30.2)	14(22.2)	5(7.9)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35(55.6)	23(36.5)	12(19.0)
기타	2(3.2)	2(3.2)	0(0)

주: 전체의 비율은 총 63명 대비의 비율이고, 읍·면의 비율은 총 44명 대비의 비율이며, 시의 비율은 총 19명 대비의 비율임.

② 꿈드림 공간 사용 현황

기관의 공간 현황을 살펴보면(표 V-43), 독립적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꿈드림은 총 63개 중 7개(11.1%)밖에 없었다. 74.6%의 꿈드림이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14.3%가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타 기관으로는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언급되었으며(총 44개 기관), 그 외에 군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회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가 소수 언급되었다.

표 V-43.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단위 : 빈도(%))

배경변인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전체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전체	7(11.1)	9(14.3)	47(74.6)	63(100)
센터구분	읍·면	7(15.9)	32(72.7)	44(100)
	소도시	2(10.5)	15(78.9)	19(100)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위치 및 공간에 대한 현장실무자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표 V-44),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61.9%였다.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한 비율은 38.1%로, 대략 10곳 중 4곳은 위치 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문항에는 63.5%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의 문항에도 절반이 넘는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는 무려 9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에 있다”의 문항에 대해 8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V-44.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단위 : 빈도(%), 평균)

항목	빈도(%)			전체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24 (38.1)	39 (61.9)	63 (100.0)	2.67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40 (63.5)	23 (36.5)	63 (100.0)	2.27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33 (52.4)	30 (47.6)	63 (100.0)	2.46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4 (6.3)	59 (93.7)	63 (100.0)	3.60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10 (15.9)	53 (84.1)	63 (100.0)	3.10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꿈드림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도시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표 V-45),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의 문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이 2.36, 소도시지역이 2.05였다.

표 V-45. 지역 유형별: 꿈드림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생각 통계적 유의도 검증

(단위 : 평균)

지원항목	센터구분(평균값)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2.66	2.68	2.98	1.700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36	2.05	2.68	4.14*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2.52	2.32	2.70	1.52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3.57	3.68	-	-.69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3.07	3.16	-	-.42

* $p < .05$, ** $p < .01$,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짐.

(2) 꿈드림 제공 서비스

꿈드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표 V-46),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과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의 경우는 100%로, 모든 꿈드림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리·상담 지원(96.8%),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96.8%), 급식 지원(98.4%),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98.4%),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93.7%), 진로지도(93.7%)도 모두 90%가 넘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꿈드림 제공 서비스

(단위 : 빈도(%))

지원항목	제공 센터 수 (전체 63개 센터 대비 비율)	전체	
		읍·면	소도시
심리·상담 지원	61(96.8)	43(97.7)	18(94.7)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32(50.8)	25(56.8)	7(36.8)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61(96.8)	43(97.7)	18(94.7)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63(100)	44(100)	19(100)
수당(교통비) 등 배움을 위한 지원	52(82.5)	36(81.8)	16(84.2)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48(76.2)	30(68.2)	18(94.7)
급식 지원	62(98.4)	43(97.7)	19(100)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29(46)	20(45.5)	9(47.4)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54(85.7)	38(86.4)	16(84.2)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62(98.4)	43(97.7)	19(100)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63(100)	44(100)	19(100)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59(93.7)	42(95.5)	17(89.5)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59(93.7)	42(95.5)	17(89.5)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56(88.9)	37(84.1)	19(100)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 /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53(84.1)	37(84.1)	16(84.2)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45(71.4)	30(68.2)	15(78.9)
기타	10(15.9)	6(13.6)	4(21.1)

주: 읍·면의 비율은 총 44명 대비의 비율이며, 시의 비율은 총 19명 대비의 비율임.

직업훈련 지원(88.9%), 취업준비 지원(84.1%)은 이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인터넷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50.8%),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46%) 서비스는 비교적 적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읍·면지역과 소도시 지역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항목에서 읍·면지역은 68.2%, 소도시지역은 78.9%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읍·면지역이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소풍, 수학여행, 졸업식, 졸업여행, 문화체험과 같은 문화·체험 활동이 있었으며, 장학금 지원, 성교육, 성폭력 관련 교육, 금연교육, 봉사활동 지원 등이 있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①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된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V-47).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항에서 63.5%가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의 문항에서는 73.0%가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을 하였으며,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의 문항에서는 69.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의 문항에서는 82.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꿈드림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동, 자립의지, 진로계획, 사회적 기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의 문항에서는 68.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지지적이다”의 문항에는 60.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7.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단위 : 빈도(%))

항목	빈도(%)			전체 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40 (63.5)	23 (36.5)	63 (100)	2.32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17 (27.0)	46 (73.0)	63 (100)	2.89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20 (31.7)	43 (68.3)	63 (100)	2.76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충분히) 지지적이다	38 (60.3)	25 (39.7)	63 (100)	2.38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19 (30.2)	44 (69.8)	63 (100)	2.83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11 (17.5)	52 (82.5)	63 (100)	2.92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이러한 인식에 지역 유형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V-48),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지지적이다”의 문항에서는 읍·면지역과 소도시지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꿈드림 종사자들이 소도시지역의 꿈드림 종사자들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V-48. 지역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단위 : 평균)

항목	구분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34	2.26	-	.50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2.89	2.89	2.86	.03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2.73	2.84	3.00	2.38

항목	구분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2.48	2.16	-	2.32*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2.75	3.00	2.77	1.12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2.89	3.00	2.84	.56

* $p < .05$, ** $p < .01$,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② 꿈드림 기관 관련

다음으로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표 V-49),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의 문항과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의 문항에서 85.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기관 내 시설과 종사자 처우에 관련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꿈드림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의 문항에서도 81.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예산이 부족하다”의 문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의 문항에도 57.1%가, 그리고 예산과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꿈드림 종사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의 문항에서도 61.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꿈드림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49.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관련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전체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	
7) 예산이 부족하다	27 (42.9)	36 (57.1)	63 (100)	2.73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9 (14.3)	54 (85.7)	63 (100)	3.17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27 (42.9)	36 (57.1)	63 (100)	2.65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9 (14.3)	54 (85.7)	63 (100)	3.35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7 (42.9)	36 (57.1)	63 (100)	2.63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	24 (38.1)	39 (61.9)	63 (100)	2.71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12 (19.0)	51 (81.0)	63 (100)	2.94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이러한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에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V-50), “예산이 부족하다”의 문항과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의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예산이 부족하다”의 문항에서는 읍·면지역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평균이 2.66점인 것에 비하여 대도시지역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평균이 3.23점으로, 읍·면지역의 꿈드림 종사자들에 비하여 대도시의 꿈드림 종사자들이 예산이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의 문항에서도 읍·면지역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평균이 3.18점인 것에 비하여, 시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꿈드림 종사자들에 비하여,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이 종사자 처우가 더 낮다고 생각하였다.

표 V-50. 지역 유형별: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7) 예산이 부족하다	2.66	2.89	3.23	6.64**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3.16	3.21	2.95	1.15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2.66	2.63	2.88	1.20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3.18	3.74	3.73	10.36***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57	2.79	2.43	1.86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	2.73	2.68	2.55	.84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2.86	3.11	2.89	.89

* $p < .05$, ** $p < .01$,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③ 지역사회 및 정부지원 관련

지역사회 및 정부지원 관련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표 V-5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의 문항에서 무려 96.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에 따라, 인식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의 문항에는 87.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서, 대체로 지역 내의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의 문항에서는 41.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의 문항에서는 71.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서, 지자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파악되었다. “정부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의 문항에서는 74.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V-51. 읍·면 / 소도시 지역: 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단위: 빈도(%), 평균)

항목	빈도(%)			전체평균
	부정응답	긍정응답	전체사례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 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27 (42.9)	36 (57.1)	63 (100)	2.68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8 (12.7)	55 (87.3)	63 (100)	3.02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37 (58.7)	26 (41.3)	63 (100)	2.48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18 (28.6)	45 (71.4)	63 (100)	2.84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16 (25.4)	47 (74.6)	63 (100)	3.1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2 (3.2)	61 (96.8)	63 (100)	3.37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표 V-52. 지역 유형별: 지역사회 및 정부 관련 인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단위: 평균)

항목	구분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2.73	2.58	2.43	2.09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2.91	3.26	-	-2.09*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2.32	2.84	2.55	2.58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2.75	3.05	3.05	2.11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2.95	3.42	3.52	8.40***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3.27	3.58	3.61	4.98**

* $p < .05$, ** $p < .01$,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이러한 인식들이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표 V-52), “정부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의 문항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의 문항에서,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즉,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불편함과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호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

①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응답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꿈드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보면(표 V-53), “활용기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의 문항에는 74.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에 따라, 지역 내의 시설(인프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의 문항에는 거의 절반 정도씩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의 문항과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의 문항에는 각각 76.2%, 79.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V-53. 읍·면 / 소도시 지역: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평균)

항목	빈도(%)			전체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수(%)	
1) 활용기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47(74.6)	16(25.4)	63(100.0)	2.10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32(50.8)	31(49.2)	63(100.0)	2.38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15(23.8)	48(76.2)	63(100.0)	2.78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13(20.6)	50(79.4)	63(100.0)	2.92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인식은 지역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표 V-54),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 서비스의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더 열악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V-54. 지역 유형별: 기관 소재 지역에 대한 의견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단위 : 빈도(%))

항목	센터구분(평균값)			
	읍·면	소도시	대도시	t, F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2.00	2.32	2.54	6.03**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2.30	2.58	2.80	4.82*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2.68	3.00	3.05	5.17**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2.86	3.05	3.00	.76

* $p < .05$, ** $p < .01$, *** $p < .001$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②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 필요성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종사자들은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 93.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V-55). 지역 유형별로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V-56).

표 V-55. 읍·면 / 소도시 지역: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단위 : 빈도(%), 평균)

	빈도(%)			전체평균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전체 사례수(%)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6.3)	59 (93.7)	63 (100.0)	3.22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부정응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긍정응답으로 통합함.

표 V-56. 지역 유형별: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 내용 차별화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단위: 빈도(%), 평균)

항목	센터구분(평균값)			
	읍·면	소도시	대도시	F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27	3.11	3.05	1.37

주: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임.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내용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표 V-57), 꿈드림 기관 측면에서는 첫째, 예산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다보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더구나 각 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 이에 따른 예산 배정과 평가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둘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경우 대도시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필요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문화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자립 및 취업 지원, 자격증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맞춤형 지원,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공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사회 측면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첫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경우 교통편이 불편함에 따라 교통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둘째,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 만큼,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의 확장 혹은 연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V-57. 읍·면 / 소도시지역 꿈드림의 차별화된 또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원

영역	범주	내용
꿈드림 기관 관련	예산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조정	- 예산 배정 차별화(예: 전체 사업비 중 프로그램 예산 비율 줄이는 방안) - 평가 시스템 차별화(예: 정부합동평가 등에서 차별화된 기준 필요, 청소년 목표 인원의 차별화된 기준 필요 등)
	서비스 대상자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에 따른 발굴 관련 지원 필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다양화	- 지역의 한계를 채워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지원 필요 - 개별지원 확대 필요(예: 원거리 지역 거주로 꿈드림 프로그램 참여 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차별화 필요 - 자립 및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
	지역사회 관련	- 광범위한 거주지 및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한 어려움 고려(예: 교통비 제공 등)
	교통	-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절대적 부족 고려 필요
	부족한 인프라	- 지역 내 자원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려움 고려 필요(예: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 인력부족 등)

주: 표 작성 시, 응답의 비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응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③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장점 / 강점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이 대도시의 꿈드림에 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좋은 점(장점 /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6%의 응답자가 “있다”고 하였으며, 31.7%가 “별 차이 없다”, 22.2%가 “없다”고 하였다(표 V-58).

장점 / 강점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장점 / 강점으로 “맞춤형 지원 가능”과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지원”을 꼽았다. 장점 / 강점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그러한 이유로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열악한 교통”, “공간의 부족”을 꼽았다.

표 V-58. 대도시 대비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장점 / 강점 유무

(단위 : 빈도(%))

배경변인		대도시 대비 강점 / 장점 유무			전체
		있다	별 차이 없다	없다	
전체		29(46.0)	20(31.7)	14(22.2)	63(100.0)
센터구분	읍·면	21(47.7)	12(27.3)	11(25.0)	44(100.0)
	소도시	8(42.1)	8(42.1)	3(15.8)	19(100.0)

(5)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표 V-59), 34.9%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7%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 대비 10%이상, 52.4%가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 대비 10%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 측면에서는, 읍·면 / 소도시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8개 지역은, 10%가 4곳, 15%인 1곳, 25%인 1곳, 30%인 2개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반면, 10%미만이라고 응답한 지역의 거의 대부분(88%)이 5%이하라고 응답하였다.

표 V-59.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

(단위 : 빈도(%))

배경변인		빈도(%)				전체평균
		없음	10%미만	10%이상	전체(%)	
센터구분	전체	22(34.9)	33(52.4)	8(12.7)	63(100.0)	3.75
	읍·면	17(38.6)	20(45.5)	7(15.9)	44(100.0)	4.32
	시	5(26.3)	13(68.4)	1(5.3)	19(100.0)	2.42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 개방형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자존감 및 상담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언어 및 학습지원”, “문화이해 및 차별 개선 지원”, “가족 / 부모 상담 등 가족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 5명은 이주배경(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일반 청소년과 차이 없음” 혹은 “추가 인력 배정 없이 추가 업무는 부담스러움” 등이 주 이유였다.

(6) 기타 사업 방향성 관련

① 꿈드림 이용 중단 이유

꿈드림센터 이용을 중단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표 V-60), 가장 많은 이유는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타 지역의 꿈드림센터로 옮겨가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영향으로 지역 내 꿈드림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 정신적 문제로”(39.7%)가 꼽혔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3.3%), “꿈드림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어서”(31.7%)가 그 뒤를 이었다.

표 V-60. 꿈드림 이용 중단 이유(복수응답)

(단위 : 빈도(%))

지원 체제	전체	구분	
		읍·면	소도시
꿈드림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어서	20(31.7)	16(36.4)	4(21.1)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타지역의 꿈드림센터로 옮겨가서	53(84.1)	39(88.6)	14(73.7)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1(33.3)	15(34.1)	6(31.6)
심리적 / 정신적 문제로 (예 : 우울증 등)	25(39.7)	17(38.6)	8(42.1)
센터 내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6(9.5)	4(9.1)	2(10.5)
센터 실무자의 연락 부재(이직 등)로 인하여	8(12.7)	2(4.5)	6(31.6)
다른 서비스 / 프로그램 연계로 인하여	6(9.5)	5(11.4)	1(5.3)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	11(17.5)	7(15.9)	4(21.1)
기타	11(17.5)	6(13.6)	5(26.3)

* 전체의 비율은 총 63명 대비의 비율이고, 읍·면의 비율은 총 44명 대비의 비율이며, 시의 비율은 총 19명 대비의 비율임

② 시·도 센터의 지원 필요 내용

시·도 센터로부터의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표 V-61),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41.3%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23.8),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19%),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12.7%)이 그 뒤를 이었다.

표 V-61. 시·도 센터의 지원 필요 내용

(단위 : 빈도(%))

지원 체제	전체	구분	
		읍·면	소도시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1(1.6)	0(0)	1(5.3)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26(41.3)	14(31.8)	12(63.2)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	12(19.0)	11(25)	1(5.3)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	8(12.7)	7(15.9)	1(5.3)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행정 허브 역할, 전달 체계 공문으로 일원화 등)	15(23.8)	11(25)	4(21.1)
기타	1(1.6)	1(2.3)	0(0)

주: 전체의 비율은 총 63명 대비의 비율이고, 읍·면의 비율은 총 44명 대비의 비율이며, 시의 비율은 총 19명 대비의 비율임

③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는(표 V-62),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39.7%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28.6%)이 꼽혔으며,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워짐”(17.5%)이 3위로 나타났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친 결과를 살펴보면(표 V-62),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은 92.1%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워짐”(52.4%) 항목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50.8%)은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 부족”(39.7%)과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수행이 어려워짐”(38.1%)도 많은 응답자가 어려움으로 꼽았다.

표 V-62.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3순위)

(단위 : 빈도(%))

지원 체제	전체	구분	
		읍·면	소도시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워짐	33(52.4)	20(45.5)	13(68.4)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	32(50.8)	21(47.7)	11(57.9)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	58(92.1)	41(93.2)	17(89.5)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수행이 어려워짐	24(38.1)	20(45.5)	4(21.1)
추가로 필요한 지원들이 많아짐(예 : 방역물품 지급, 심리적 지원, 재정 지원 등)	11(17.5)	8(18.2)	3(15.8)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pc, 태블릿 등 IT 관련 인프라) 부족	25(39.7)	17(38.6)	8(42.1)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통신비 부담)	3(4.8)	2(4.5)	1(5.3)
기타	3(4.8)	3(6.8)	0(0)

주: 전체의 비율은 총 63명 대비의 비율이고, 읍·면의 비율은 총 44명 대비의 비율이며, 시의 비율은 총 19명 대비의 비율임

④ 꿈드림의 향후 방향성

꿈드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표 V-63), 크게 서비스 및 꿈드림에 관한 것과 전달체계·행정·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서비스 및 꿈드림 관련 사항으로 첫째, 예산 및 공간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전용(독립)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종사자 처우 및 조직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직률 감소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전임 센터장 및 팀장, 팀원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청소년 정보를 연계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및 맞춤형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로, 자립 및 취업 지원 확충,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완화, 후기 청소년까지의 지원 확충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지역의 상황에 맞아야 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달체계 / 행정 / 전체적인 방향 관련 상황으로, 첫째, 운영체계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광범위 하게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 으며,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꿈드림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V-63.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영역	범주	내용
서비스 및 꿈드림 관련	예산 및 공간	- 충분한 인건비 제공 및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충 -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독립)공간 필요
	종사자 처우 및 조직체계	- 이직률 감소를 위한 접근 필요 - 전반적 처우 개선(임금 개선, 인력 총원, 정규직 전환 등) - 센터장 - 팀장 - 팀원의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연계 강화
	서비스 및	-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역	범주	내용
	프로그램	- 진로지원, 자립 및 취업 지원 확충 - 지역 및 센터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 서비스 운영 (예 : 교통 지원, 차량 지원, 경제적 지원 등) -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완화 - 후기청소년 지원 확충
	평가 시스템	-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성과주의 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전달체계·행정·전체적인 방향	체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의 편입 혹은 독립, 거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지자체	-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인식개선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필요 - 꿈드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근본적인 방향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운영

주: 표 작성 시, 응답의 비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응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중앙부처 차원과 지자체 /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서비스 / 프로그램들을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하여 수합한 응답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V-64와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꿈드림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응답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는데, 행정업무의 간소화, 예산 확충 및 전용(독립 공간)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조직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시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조, 다양한 지원 확충,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및 홍보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 개선, 내일배움카드 사용기관 확충,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었고, 지자체 /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 네트워크 연계 구축·협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관심·지지 필요에 대한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V-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범주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 / 지역사회 차원
행정업무	- 행정업무 간소화	- 행정업무 간소화
예산 및 공간	- 예산 확충 - 전용(독립)공간 확보	- 전용(독립)공간 지원
종사자 처우 및 조직체계	- 전반적 처우 개선(임금 개선, 인력 총원, 정규직 전환 등) - 센터장 - 팀장 - 팀원의 꿈드림 운영 조직체계 필요	- 인건비 지원 - 인력총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협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 다양한 지원 확충(예 : 검정고시 교재 지원, 건강검진, 급식지원, 차량 지원, 생활비 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 -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장학금 제공 - 비대면 프로그램(온라인 프로그램) 체계 필요 - 후기청소년 지원 확충	- 다양한 지원 확충(예 : 문화예술프로그램, 상담 지원, 자격증 지원, 생활 / 주거지원, 취업 / 창업 지원, 검정고시 교재 지원 등) -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장학금 지원 - 적극적인 지역 네트워크 연계 형성
평가 시스템	-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
인식개선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필요 - 꿈드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기타	- 내일배움카드 사용기관 확충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 적극적 협조 / 관심 / 지지 필요 - 청소년 관련 지식 / 자격증 있는 담당 공무원 협조 필요 -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꿈드림 배치

주: 표 작성 시, 응답의 비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응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5. 요약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1)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⁹¹⁾

꿈드림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5개의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환경적 배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라남도 완도군은 해안지역의 섬지역으로 2021년 6월 기준 총 청소년 인구수가 5,988명이었으며, 학업중단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수는 총 17명으로 매우 적었다.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 역시 6%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였다.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정도가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 영월군은 내륙산간지역으로 2021년 6월 기준 청소년 인구수는 38,057명이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수는 총 21명이었다. 재정자립도도 13%로 낮은 편이었으며, 꿈드림과 청소년문화의집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었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황해와 접하고 있으며, 농경지가 지역의 약 38%인 농경지역이다. 2021년 6월 기준 청소년 인구수는 총 5,677명이었으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수는 총 36명이었다. 재정자립도는 9.7%로 낮은 편이었으며, 꿈드림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이었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위의 지역들 중에서 청소년 인구수가 가장 적었는데, 2021년 6월 기준 총 2,557명이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수도 7명으로 보고되었다. 재정자립도는 8.6%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꿈드림, 청소년수련관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만한

91) 이하의 요약은 앞의 본문에 해당 인용 출처와 함께 제시된 내용으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기관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포천시는 읍·면지역은 아니나,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임에 따라 본 조사에 포함되었다. 경기도 포천시의 2021년 6월 기준 청소년 수는 총 21,911명이었으며,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수는 총 112명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4.2%로 전국 평균(43.6%)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위에서 조사된 읍·면지역들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꿈드림, 청소년문화의집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이었다.

(2)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는 선정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실무자 대상으로 Zoom을 이용한 개인심층면접과 연계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 및 개인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관련’, ‘꿈드림 기관 관련’, ‘지역사회 및 코로나19 관련’으로 구분되었다.

조사결과, 첫째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의 특성 측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은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2021년의 경우 과거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기 초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시점에서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많았다. 학교를 중단할 때 목표가 없는 상태의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은둔하는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소년, 타 지역으로 떠났다가 방황 후 상처를 입고 다시 돌아오는 청소년, 지역에 남아 있는 청소년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들 중에는 본인들의 가업을 잇기를 원하거나 청소년들을 방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꿈드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꿈드림 기관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졌으며, 후원금은 없는 편이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었다. 꿈드림 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이었으며, 센터장과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었다. 또한 꿈드림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꿈드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학교와의 연계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꿈드림에서는 주로 검정고시와 자격증 취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근황을 확인하는 업무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다보니, 맞춤형 지원,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이 가능하였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보고되었는데,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동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공통된 욕구를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예산 사용이 경직되어 있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해야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소진 / 스트레스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도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의 전달체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합 프로그램, 높은 예산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예 : 수능 준비반),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 및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교통이 불편하여 청소년들이 꿈드림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며, 지역 내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다. 지역연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도도 매우 떨어진다는 의견(예 : 협의체 운영 미흡)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꿈드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꿈드림센터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을 예전처럼 진행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성과위주의 평가체계, 문화적 소외 가속화, 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실무자 소진 등 코로나 상황으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3)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읍·면 / 소도시 지역 63개소의 꿈드림센터 당 각 1명씩, 총 63명의 꿈드림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는 크게, ‘기관 특성’, ‘꿈드림 제공 서비스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식’,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기타 사업 방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기관 특성과 관련해서,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는 ‘학교·교육청을 통해서’(5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17.5%)가 두 번째 주요 이용 경로였다. 즉, 학교를 통한 연계와 주변 지인들을 통한 소개 등이 주요한 이용 경로들로 나타났다. 꿈드림 공간은 타 기관과 공유하는 사례(74.6%)가 가장 많았는데, 많은 꿈드림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지 못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 공간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93.7%가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꿈드림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꿈드림이 ‘건강 검진 안내 및 제공’,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 및 교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급식 지원’(98.4%), ‘검정고시 준비 위한 직접 지원’(98.4%), ‘심리·상담 지원’(96.8%),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96.8%) 등도 많은 꿈드림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46%), ‘인터넷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50.8%)는 절반 정도의 꿈드림이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인식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63.5%), 심리적·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73%), 자립의지가 부족하고(69.8%),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82.5%)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부모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지적이지 않고(60.3%), 방임이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68.3%)는 의견 역시 다수였고, 꿈드림 기관 관련 인식 측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57.1%),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며(85.7%), 전문 인력(57.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61.9%)하다는 내용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종사자 처우가 낮다(85.7%)는 의견은 매우 많았으며,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81%)는 내용에서는 8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였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71.4%가,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가 과다하는 응답이 74.6%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96.8%의 실무자가 응답하였다.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센터와 관련해서, 우선 읍·면지역이 소도시 지역에 비해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며,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93.7%), 예산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조정, 발굴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다양화, 교통편 지원, 전용공간 마련, 부족한 인프라 한계 극복 등도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이 차별화 혹은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원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대도시 대비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의 강점 /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혹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외 현장실무자들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 이용을 중단하는 주요 이유는 '타지역으로의 이사, 타지역 센터로의 이동'(84.1%)이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면서 읍·면 / 소도시 지역을 벗어나 좀 더 큰 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또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 정신적 문제로’(39.7%), ‘꿈드림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어서’(31.7%),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3.3%)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각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도 센터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방역수칙으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꿈드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 확충, 전용공간 마련, 행정업무 간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조직체계 마련, 발굴 및 연계 강화, 맞춤형 서비스 /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지원 확충, 평가시스템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및 꿈드림 홍보 등이 제시되었다.

2) 시사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공간에 대한 고려, 종사자 처우 개선, 평가체계 재고, 서비스 확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련 연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확충, 시·도센터의 지원 필요, 지자체 및 중앙정부 협조 증진 필요,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 등이다.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꿈드림 공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많은 실무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타 기관 내에 꿈드림 실무자의 책상 정도만 구비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드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일차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74.6%가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14.3%가 타 기관 내 설치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꿈드림 위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면접 조사에서도 꿈드림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한적한 곳에 위치한 사례가 있었고, 설문조사에서도 38.1%가 꿈드림의 위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인력확충 및 조직체계 구축, 임금개선을 포함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서 모두에서 강하게 제시되었다. 읍·면 / 소도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꿈드림이 ‘다’유형으로 종사자가 2명 배치되어야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이럴 경우,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이 적어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이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2명 배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읍·면 / 소도시의 경우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적지만, 대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명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원활한 꿈드림 운영을 위한 센터장 및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임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셋째, 평가체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읍·면 / 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읍·면 / 소도시에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하게 제공되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따라서 성과 위주의 정량적인 평가시스템 외에 정성적인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예산 확충 및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면접조사를 통하여 예산 사용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읍·면 / 소도시에는 꿈드림 공간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즉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사용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청소년이 꿈드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자치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예산 확충 필요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매우 부족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포상제도나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여러 조사 결과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특색과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감지되었다. 내성적이고 상처를 입어 은둔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주기적인 근황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부모의 방임으로 방치된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읍·면 / 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어 공통된 욕구를 찾아 모두가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꿈드림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사대상 지역에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지역에 따라 이들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곳이 있었으므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주배경(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련(부모의 방임 및 가족 갈등 등) 상담과 같은 서비스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련 연계를 위해 학교를 포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꿈드림 주이용 경로는 학교·교육청이 1위, 친구·선후배 소개가 2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및 교육청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의 핵심 경로로 파악되지만, 면접조사 결과 여전히 꿈드림과의 연계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꿈드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구·선후배의 소개가 2위로 나타난 만큼, 읍·면 / 소도시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꿈드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차원에서 꿈드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여러 기관(예 : 읍·면소재 주민자치센터, 경찰소 등)에서 발굴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과 꿈드림과의 연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한 곳은 올해 처음 진행함). 이러한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 내 연계가 가능한 기관들에 대한 연계 리스트를 확보하고, 연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계기관 프로그램 참여 시 학교 밖 청소년 사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연계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시·도 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참여했던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현재 시·도 센터의 지원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강화되었으면 하는 시·도 센터의 지원 영역이 드러났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1위로 조사된 만큼, 각 시·군·구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구 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읍·면 / 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예 : 연합프로그램, 대규모 혹은 큰예산이 필요한 사업,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필요한 사업 등)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도센터 차원에서의 꿈드림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예 : 보호자 대상 설명회)도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며, 면접조사에서도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꿈드림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5. 조사내용 요약과 시사점

요약		시사점
면접 조사 (읍·면 / 소도시 꿈드림 현장전문가, 연계기관 담당자)	설문 조사 (읍·면 / 소도시 꿈드림 실무자)	
- 전용공간 확보 필요 - 꿈드림 위치 재고	- 기관 공간 사용 : 타 기관과 공간 공유(74.6%),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14.3%) -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점수 낮음. - 꿈드림 위치에 대해 38.1%가 부정적으로 인식	1. 공간에 대한 고려
- 임금 개선, 인력확충, 조직체계 필요	-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고 인식	2. 종사자처우 개선
- 성과주의의 평가체계를 지역 특색에 맞게 개선(예, 맞춤형 서비스, 질적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정성 평가	- 읍·면 / 소도시 지역에 맞게 평가 시스템 차별화 필요	3. 지역특색에 맞는 평가체계 재고
- 융통성 있는 예산 사용 - 장학금 / 포상제도 마련 - 교통비 지원	- 예산 확충 필요 의견 다수 -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열악한 교통편을 고려한 교통비 지원 확충	4. 예산확충 및 예산사용 유연화
- 학교 밖 청소년 근황확인 서비스 - 청소년 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서비스 · 예) 연고는 두고 타 지역으로 떠난 아이들,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들 등 - 가족(부모) 관련 상담 등 서비스	- 지역의 한계를 채워 줄 문화체험 활동 등 필요 - 개별지원 확대 필요 - 이주배경(다문화) 청소년위한 서비스 : 지역마다 이주배경 규모에 차이가 큼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지원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 가족(부모) 관련 상담 등 서비스	5.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 가족 관련(방임, 가족갈등, 부모의 지지도)된 부정적 상황 개선 - 후기청소년 지원 확충	
- 학교와의 연계 및 학교의 적극적 협조 필요, 꿈드림 홍보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 학교의 적극적 협조 - 지역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위한 꿈드림 홍보 필요 · 꿈드림 주 이용 경로 : 학교·교육청 (1위), 친구·선후배 소개(2위)	▷ 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관련 연계기관 지원
- 개인사업장 및 개인과의 연계망 확충 - 연계기관 인센티브 고려 - 연계기관 프로그램 참여시 사전교육 실시		▷ 7. 지역사회 연계 확충
- 질적으로 우수한 연합사업 제공 필요 - 대규모 혹은 지역자원이 필요한 사업 확대 · 예) 수능준비반 개설 등 - 인식개선 사업 요망 · 예) 부모 및 법적보호자 대상 꿈드림 기관 홍보 및 설명회 등	-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시·도 센터의 지원 필요성 1위) - 지역 내 자원 부족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예) 취업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 :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의 취약성 · 예) 자립 및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지역 내 전문기관 및 인프라 부족 한계 극복을 위한 연계 지원 필요 ·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접근성 문제, 전문적 인력 부족, 지역 내 연계 및 협력할 기관 부족 등 고려	▷ 8. 시·도센터의 지원 필요 내용
- 지자체의 장을 포함하는 협의체 개최 필요 -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꿈드림 홍보 필요 -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인식 개선 및 홍보 필요	- 중앙정부 지원 확대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필요	▷ 9. 지자체 및 중앙정부 협조 증진 필요



제6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이다. 2021년도 연구에서는 첫째로, 과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성인이 된 20대 중반의 청년 패널과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18명(다른 19명은 패널관리조사), 신규 패널 37명을 대상으로 추적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질적자료는 횡단 기본 분석, 종단 심층 분석(협동연구) 등에 활용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신규 패널의 경우 조사거절 및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1차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33명의 청소년 중 23명이 올해 2차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낮았던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14명을 새로 패널로 추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읍·면 및 소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지역 소재 5개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온라인 화상면접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와 FGI 및 개인면접을

92) 제6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읍·면, 소도시 등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인 곳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협동연구로서, 3년 동안 축적된 기존 패널의 종단 질적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연구기관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질적연구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두으로써 과거 제도권 학교를 떠난 경험이 있는, 이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지원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올해 협동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의 풍부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특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내용을 추적하여 그 맥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돋보임에 따라, 차년도의 협동연구에서는 신규 패널의 축적된 종단 질적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구라는 본 연구의 속성상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기존 및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3회 차에 걸쳐 축적된 질적 자료는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연구윤리 및 개인정보 보안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 암호화, 민감정보 블라인드, 데이터 활용에서의 주의 등).

본 연구의 목적과 그에 따른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표 VI-1~4와 같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향성과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표 VI-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 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규모 고찰	-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0년 2월 기준 52,261명으로, 2019년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278명 감소), 전체 학령 인구수 감소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임 - 2019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추정하면 약 20.9만 명 정도임(하형석, 2020) - 읍·면 / 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연구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2020년 기준 약 5만명 정도임	• 적지 않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2) 질적 종단연구 고찰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단적 질적자료 수집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음. 2018년부터 종단적으로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면접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한 심층적 이해 도모
3) 지역 격차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논의 고찰	-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청소년은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높고, 인프라, 정책,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지역의 특성(예: 경제적 어려움, 교통문제, 부족한 인프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지원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음	•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서비스 지원의 불평등에 초점 필요
4) 해외사례 검토	- 농어촌 및 원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호주의 청소년 흥미에 부합하는 컴퓨터 교육, 미국의 학업·취업·거주·의료 지원, 일본의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지원과 인턴십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례 검토	• 청소년의 흥미와 발달 단계, 거주지 인프라 등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장기적 지원 시사

표 VI-2.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기존 패널(20대 중반) 질적연구

연구방법 · 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자료수집 / DB관리	- 2020년에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중소도시 / 읍·면 거주자 중 18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고, 전년도에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22명 중 19명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함 - 각 회 차 면접 음성파일, 전자자료, 필드노트 등에 대한 체계적인 DB화 및 개인정보 보안을 고려한 관리 필요	• 질적 자료의 체계적 DB화 및 연구윤리·개인정보보호 고려한 자료 관리 필요

연구방법 · 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2) 현재의 삶 및 진로모색 과정에 대한 연구 (횡단연구)	-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삶은 '학업 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 지속에의 촉구 및 지원', '부모와의 관계', '유대 관계 부재', '차별'로 범주화되어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과 진로 모색 과정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이 도출됨 - 유형 1은 학교 중단 후 학업을 지속한 유형으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며, 현재 직업 안정성도 높은 상태임 - 유형 2는 학업을 재개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경제상태가 불안정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유형으로 급여수준에는 만족하나 직업 안정성은 낮은 편임 - 유형 3은 부모의 지원으로 진로 모색을 성공적으로 마침 - 유형 4는 현재의 직업 및 미래 진로가 모두 불안정한 유형으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 꿈드림의 지속적 지원과 적극적 홍보 필요 • 과거 학교 밖 청소년 경험자의 멘토십 제공 기회 마련 필요 • 취업기회 확대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병행 • 관계적 지원 체계 강화 •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위한 심리적 지원 필요 • 학업 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 해소 필요
3) 협동연구 (종단연구)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 질적 종단연구] - 학교 밖 경험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다르게 인식됨.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어려운 과제로 인식됨 - '학교 밖에서의 도전'으로 청소년기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례 발견. 성인기에도 이를 바탕으로 노력함. -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청소년기에는 주눅 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성인기가 되면서 회복해나감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심리·정서적 상태] -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음. 부모를 포함한 가족, 친구, 연인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에 도움을 주었음 - 경제적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 종단연구]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격발장치'에 의한 학교 중단 단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길을 다져가는 단계를 거쳐 자립의 길로 들어섬 - 가족, 관계망, 사회서비스체계, 지역인프라 등이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침 - 읍·면 /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편함'과 '부족함'을 지역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하였음	• 보호체계의 강화 필요 • 인생 전환점 기회 제공 필요 •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고 관계적 지지체계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내실화 전략 및 접근성 향상 필요 • 자립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표 VI-3.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10대 중·후반) 질적연구

연구방법·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자료수집 / DB관리	- 2020년 신규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면접조사한 33명 중 23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이탈 사유 : 연락두절 및 면접거절 등) -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낮았던 중소도시 / 읍·면지역 중심으로 14명을 패널로 추가하여 면접조사 실시 - 면접 음성파일, 전사자료, 필드노트의 체계적 관리 및 DB화	• 지속적인 패널 관리의 중요성 • 차년도 심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DB화·관리
2) 개별사례 분석	-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에 대한 개별접근을 통해 대학진학에 성공한 사례,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파악하였으나 등록금 미납으로 대학등록을 하지 못한 아쉬운 사례도 있었음	• 부모소득 등으로 청소년이 필요한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함
3)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기본 분석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검정고시 준비나 학업, 자격증 준비, 직업 체험 및 인턴십 참여가 어렵다는 애로사항과 일자리를 잃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보고됨 -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사건으로는 가족 구성원,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학교폭력, 따돌림, 성적인 피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 교통사고, 복교, 대학 입학 등이 꼽혔음 - 꿈드림 지원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 경제적 지원(교통비 지원)에서 지역 격차가 나타남 - 심리·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진학 준비 지원, 자립 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 맞춤형 지원 등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꼽혔음 - 꿈드림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꿈드림의 홍보 부족, 꿈드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꿈드림을 이용하는데 장벽이 있었음 - 읍·면 / 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 관련 인프라 및 문화체험 기회 면에서 지역 격차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동성의 문제를 보고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토로하였으며, 행사나 공모전에서 겪은 실질적인 차별을 지적하였음	•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 시사 • 심각한 생애사건과 학교 중단에 영향을 끼친 문제의 경우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 지역격차로 인해 경제적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청소년특성 / 환경 고려한 지원 필요 •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 및 취업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연계 사업체 인센티브 필요 • 맞춤형 지원 필요 • 꿈드림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 소외방지대책 마련
4) 생활시간 조사	- 생활시간 분석결과,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 인턴십 활동, 자격증 취득 등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으며, 유튜브나 SNS를 사용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다만 규칙적인 수면시간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남	•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재고, 규칙적인 수면 / 건강관리 지원

표 VI-4.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읍·면 / 소도시) 지원체계 조사

연구방법·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1) 지역 환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	- 57개의 읍·면 / 소도시 지역을 살펴본 결과, 한 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적은 수의 지역이 많았음 -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았으며,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수 및 종류가 제한적이었음	• 대도시와 차별화된 읍·면 / 소도시 지원전략 필요 • 부족한 인프라 극복을 위한 연계 및 협력 필요
2)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	-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은 지역이 많았으며,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목표가 없으며, 방임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고, 방황 후 상처입고 돌아오는 등의 특성을 보임 - 꿈드림 전용 공간의 부족, 조직체계의 부재, 꿈드림 위치 적절성 문제, 학교와의 연계 통한 발굴의 어려움 등이 보고됨 - 청소년의 수가 적어 발굴 및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고, 한정적인 예산 사용범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지적됨 - 지역사회의 부족한 지역 인프라(예 : 일자리 부족, 전문인력 부족, 자격증 취득 시설 부족), 불편한 교통, 부족한 연계체계, 무관심한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외가 지적됨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체계의 부적절성, 심해지는 문화적 소외 등이 보고됨	• 동기 부여 및 심리적 지원, 맞춤형 지원 필요 • 방임 청소년 지원 필요 • 꿈드림 전용공간 시급 • 학교 통한 연계 의무화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예산 사용 유연화 필요 • 꿈드림 평가체계 차별화 • 시·도, 지자체 차원 연계프로그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필요
3) 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 꿈드림 공간을 타 기관과 공유하는 사례가 많았음 -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지원'은 조사참여 꿈드림 센터 모두가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과 '인터넷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는 절반 정도의 꿈드림이 제공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리적·행동적 문제가 있으며, 자립의지 및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가 지지적이지 않고 방임이나 가족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았음 - 종사자의 낮은 처우, 예산 부족, 꿈드림 관련 인프라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과도한 행정업무가 보고됨 - 꿈드림 이용 중단 이유 1위로 '타지역으로의 이사, 타지역센터로의 이동'이, 시·도센터로부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이 꼽힘	• 꿈드림 전용공간 마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보호자) 및 가족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예산 확충 필요 • 지역규모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필요 •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서비스 확충 필요 • 지역사회 연계 확충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지원 방향성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환경적, 물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등 없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양상을 고려한 지원방식 다변화와 학교체계에서의 꿈드림 접근성 개선, 가족 체계에 대한 관심 제고, 전문화된 소외 없는 다양한 지원서비스, 읍·면지역에서의 청소년 지원 강화, 꿈드림의 역할·위상에 부합하는 개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인부터 → 가족 → 지역사회 → 사회전반에까지 이르는 모든 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원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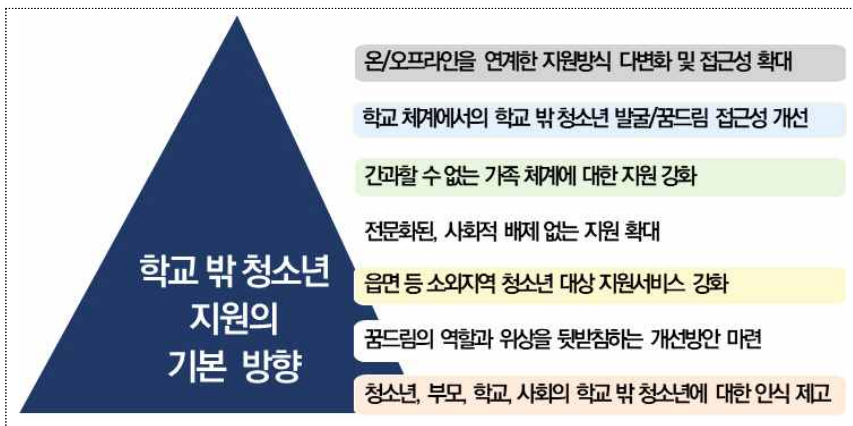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1) 온 /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특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대상에게 우리 사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결국 그 사회의 성숙함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는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고통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큰 불편과 어려움을 주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일상의 변화는 본 연구의 면접조사결과에서 잘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거나 긴급한 경제적 이유 또는 용돈 충당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꿈드림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그나마 꿈드림 종사자와 동아리활동을 같이 했던 또래들과의 관계도 대면방식으로는 불가능해졌다. 학교를 대신한 공부 장소였던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는 갈 수가 없었고,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며,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는 폐업을 해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재난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취약한 환경의 사회구성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면접에 참여한 몇몇 청소년은 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다소 해소되었고(비대면 수업으로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 따라),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 코로나19로 많은 불편함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에 따른 낯선 외부의 시선과 스스로가 느낀 소외감에서 다소 자유로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 /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학교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꿈드림 접근성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최신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경우 교육청 및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청소년의 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청소년은 바로

꿈드림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⁹³⁾ 그러나 여전히 학업중단자 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 의무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를 떠난 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은 여전히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기전 학교에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 자신, 그리고 주위의 학교 밖 청소년 상당수가 학교를 그만두기전에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점차적으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꿈드림에 대해 안내를 받아 지원을 받게 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꿈드림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후 학교 밖에서의 지원에 대해 확실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끝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 개선문제는 학교 체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과할 수 없는 가족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관련 실무자의 수가 적어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데 있어 그 가족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지지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성공적인 자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보듯이 많은 학교

9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본문의 해당내용은 2021.3.23일 신설 조항)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부모(보호자) 및 가족의 지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폭력 및 방임,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화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가족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준 만큼 가족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청소년에게 매우 가까운 가족체계를 간과하기보다 부모(보호자)를 포함하는 가족구성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이해·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에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확대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원내용과 범위가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기대하는 역량 수준은 훨씬 높다. 청소년들도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면접과정에서 꿈드림에서의 학업지원이 이제는 검정고시 수준이 아닌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제한적인 내용의 직업체험이나 인턴십 기회가 아닌 청소년의 흥미에 맞으면서도 경쟁력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생애사건에 대한 면접사례는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록금 미납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청소년 사례와 지역 간 교통비 지원 격차 등은 사회적 배제 없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 기관 및 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청소년 면접조사 및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들 많지 않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환경에서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도시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에서도 농어촌이나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소외 문제에 주목하여 민관(民官)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 내 가용 자원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원조와 연합 방식의 지원 제공, 온라인 / 오프라인을 병행한 접근하기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6) 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면접조사를 통하여 꿈드림 지원에 대한 만족감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꿈드림 센터가 일선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꿈드림을 ‘모교’로 삼고 싶어할 정도로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했으며, 가족과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꿈드림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꿈드림 실무자들은 꿈드림 운영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꿈드림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7) 청소년, 부모, 학교, 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직면하게 된다. 게으르거나, 삶의 목표가 없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시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하여 위축되었고, ‘인생이 망했다’고 비난하는 또래들로부터 상처받고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부모(보호자) 및 가족들도 이러한 인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차별 행동이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와 꿈드림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혹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은 또래 청소년 개인, 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전 사회체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활동 및 복지 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에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⁹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고찰, 해외 지원사례 검토, 기존 패널 면접결과에 대한 횡단, 질적자료 심층분석(협동연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대상 면접조사 결과 분석, 읍·면지역 꿈드림 지원 내용 파악과 현장종사자 대상의 면접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과 읍·면지역에서의 지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 VI-5와 같이 모든 체계를 아우르는 온라인 중심 내용에서 출발하여 → 학교 밖 청소년 개인 대상 직접서비스 개선 과제 → 가족 체계 → 지역사회 체계(읍·면지역 포함) →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체계 전반과 관련된 과제 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VI-5는 2021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역별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추진 기간, 과제 추진과 관련된 주무부처를 정리한 총괄표이다. 올해 연구를 수행하면서 새롭게 도출된 내용과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추진과제들을 함께 포함하였다. 2022년에는 본 연속 연구의 마지막 연도 임에 따라 그 동안의 정책제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V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총괄표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추진기간	주무부처
1. 온/오프라인: 이전과 다른 방식의 서비스 제공	1-1.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연계	중장기	여성가족부
	1-2.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온라인 환경제반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4)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과제(안)들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추진기간	주무부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과제	2-1.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 지역사회 홍보	학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역사회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학원 등) 대상 홍보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대상 범위 확대	꿈드림 사업안내 범위에 학부모 포함 법제화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 및 행정체계 적극 안내 및 꿈드림 업무 협조 의무화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2-3. 사회적 배제 없는 경제적 지원	청소년 1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필요(생계급여 분리지급)	단기 ~ 중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등 없는 경제적 지원 (교통비 등 현금성 지원)	단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2-4. 청소년생활기록부 및 장학금 등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청소년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및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중장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동기부여와 실질적 지원 위한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2-5. 전문적인 치료 개입 및 심리정서적 지원 다각화	전문 상담(트라우마) 치료 지원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학교 밖 경험자와의 멘토링 지원	중장기	여성가족부
3. 가족체계 지원	3-1.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4.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읍·면지역 포함)	4-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		중장기	여성가족부
	4-2. 다양한 직군의 직업 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중장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연계기관 대상 보상 제공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 사전 정보 전달 및 교육 실시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추진기간	주무부처
5.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 전반의 지원 노력	4-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중장기	여성가족부, 농림축산 식품부
	4-4.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이동성 보장	읍·면지역 인턴십 기회 확대	단기 ~ 중기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단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4-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합사업 확대 제공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합사업	중장기	여성가족부
	5-1. 꿈드림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물리 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흥미로운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단기 ~ 중기	
		위치 조정 혹은 분소 설치	중장기	
	5-2.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체계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중장기	
		진로지원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중장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5-3.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성과 평가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	단기 ~ 중기	여성가족부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	중장기	
	5-4.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사업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대상 인식 개선	중장기	여성가족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공사례 중심 홍보	단기 ~ 중기	
	5-5.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법제화		중장기	

1) 온 / 오프라인 : 이전과 다른 방식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또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비대면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과 오프라인 지원체계와의 원활한 연계, 그리고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1-1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	------------------------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개발 필요성
2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연계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온 / 오프라인 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① 온라인 지원 서비스 개발

○ **배경/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험하게 된 본격적인 온라인 방식의 생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부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도 비대면방식으로 검정고시 강의나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가능한, 또 온라인이라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청소년은 비대면방식의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소외감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제한된 대인접촉으로 오히려 불편한 시선이나 차별 경험을 덜 한다고 보고하였다.

○ **추진내용** : 꿈드림 고유의 차별화된 온라인 방식의 지원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방식의 체험 플랫폼, 메타버스⁹⁵⁾ 등을 활용

95)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및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합쳐진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이강원, 손호웅, 2016).

하여 학업,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례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가상 도서관, 스터디 카페, 온라인 대학입시박람회 등의 개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꿈드림 메타버스 공간에서 몇몇의 청소년들은 모여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수강이나 자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며, 꿈드림 현장 실무자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지원서비스나 프로그램별로 실시간 진행과 영상녹화, 지연 녹화영상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방식의 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원거리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관련부서/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효과성 증대

②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연계

○ **배경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온라인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일환으로 온라인 꿈드림 설치가 필요하다. 물리적 공간의 꿈드림 센터 고유의 장점과 또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지원도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주지가 멀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청소년, 그리고 심리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꿈드림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꿈드림센터와의 효과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담 및 체험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 증진과 직업체험과 같이 반드시 오프라인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온 / 오프라인 균형을 맞추어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온라인상의 꿈드림센터 설치와 함께 온 / 오프라인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온라인 꿈드림이 별도 시설을 의미하기 보다는 시·도 센터에

설치하거나 특정 몇 개 지역의 꿈드림이 연합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일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 인프라와 실무자 여건이 가능한 경우는 단독으로 개소할 수도 있다. 용이한 접근성을 장점으로 하여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온라인으로 발굴하여(예 : SNS 아웃리치), 온 / 오프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은둔형 청소년이나 사회적 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단계적 지원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대상과 영역, 내용들을 탐색, 발굴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물리적 공간의 제한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지원 제공,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기여

정책과제 1-2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추진 내용	
온라인 환경 마련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실무자 교육 필요	

○ **배경 / 필요성** : 앞서 기술한 온라인 방식의 서비스 다각화와 물리적 공간의 꿈드림센터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앞에서 상술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 및 온라인 꿈드림 설치와 같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추진내용** : 온라인 꿈드림 설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상공간 플랫폼 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자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꿈드림 및 가상공간 플랫폼 등의 사용을 위한 인력배치를 포함한 관련 예산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준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태블릿 PC 등의 기자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wifi나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설 및 기자재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각 지자체마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공간 및 관련 기자재 활용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후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사업 진행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효과적인 지원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정책과제들로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대상 꿈드림 지원사업 홍보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대상 범위 확대, 사회적 배제 없는 차등없는 경제적 지원,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요구가 많은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관련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2-1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 지역사회 홍보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학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2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상 홍보	지역사회, 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학원 등 지역사회 관련 민관(民官)기관 대상의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① 학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

○ **배경 / 필요성** : 본 면접조사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알지 못했고 여전히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 **추진내용** : 학교를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소년은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상담 및 학업중단숙려제와 같은 단계를 밟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기전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숙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꿈드림 현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에 꿈드림센터에 대한 안내를 시도하고 있다. 학교체계는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의 지원서비스에 더욱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체계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홍보물과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관련 회의에서도 꿈드림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조기 개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체계 인식 개선

②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상 홍보

○ **배경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서 이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꿈드림센터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알기도 했으며, 학교와 비슷한 곳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내 일반에게도 잘 못 알려질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공적지원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꿈드림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친숙한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행정체계나 교육지원청과 같은 공교육관련 기관, 또는 학원과 같은 민간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체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욱 홍보함으로써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조기 발굴 및 개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

정책과제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대상 범위 확대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꿈드림 사업안내 범위에 학부모 포함 법제화	법정대리인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제화
2	교육 및 행정체계 적극 안내 및 꿈드림 업무 협조 의무화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교육과 행정체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

① 꿈드림 사업안내 범위에 학부모 포함 법제화

○ **배경 / 필요성** :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⁹⁶⁾에서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사결과 청소년에게도 안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꿈드림에 대해 오해가 있고 또 부모가 꿈드림

9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센터를 알지 못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녀에게 알리고 센터 이용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해당 법률 조문에 법정대리인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 표 VI-6과 같이 해당 법률 조문(안)에 ‘법정대리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관련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경우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해당 서비스 지원에 대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상세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가정통신문 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하거나, 학교 수업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표 V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현행 ⁹⁷⁾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증진, 학교 밖

9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청소년 대상 조기 개입 가능

② 교육 및 행정체계 적극 안내 및 꿈드림 업무 협조 의무화

○ **배경 / 필요성**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공공 및 민간 교육체계, 행정체계가 더욱 익숙하며 접할 기회가 많다. 해당 체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면접조사에서 ‘꿈드림을 늦게 알게 되어’ 진로탐색과 관련한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추진내용** :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교육과 행정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체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을 인지하면 즉시 꿈드림센터에 업무 협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된 후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은 서비스 의뢰 및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관련부서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조기 개입,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정책과제 2-3 사회적 배제 없는 경제적 지원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청소년 1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필요 (생계급여 분리지급)	가구단위가 아닌 청소년의 여건을 고려한 개인별 기초 생계급여 제공, 더 나아가 만 24세까지도 해당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2	차등 없는 경제적 지원	거주지역과 관계없는 차등없는 경제적 지원(현금성 지원)

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청소년 1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필요

○ **배경 / 필요성** : 면접조사에서 누적된 가족 내 문제, 또는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 등으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집까지 나온 경우가 여럿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거나,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기도 하였다. 부모의 가구소득이 기준 이상인데다가 이미 집을 나와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또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10대 후반의 청소년은 혼자 생계를 잇다시피 하며 대학등록금 준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 단절, 또는 무관심으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경우 이제 가구단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아닌 개인 상황을 고려한 복지수혜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급여의 기준 제3호에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⁹⁸⁾로 되어 있는 만큼 개인 단위의 보장 범위를 넓혀 청소년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 현재 만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⁹⁹⁾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으며, 가족의 지원이 전혀 없는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¹⁰⁰⁾에 따라 일부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에

9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1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권리로서 청소년 1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가 필요하다(2021년 생계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548,349원¹⁰¹⁾).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대상의 생계급여를 위한 방식과 기준을 제안해 볼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32조 보장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여기에 청소년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통보 및 협의
- 청소년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해당 청소년 시설·기관 종사자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함께 해당 청소년의 원가족 상황과 원가족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독립된 1인 가구로 해당 시설 거주,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거나 인정하는 프로그램(예, 인턴십, 자립훈련 등)에 참여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향후 관련 세부 절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같은 맥락에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¹⁰²⁾에 이어 향후 만 18세 이후에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까지는 부모의 자산이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01)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출처: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page=1에서 2021년 12월 2일 인출).

10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8.10).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954에서 2021년 12월 2일 인출

표 VI-7. 청소년 1인 대상 생계급여 재고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조항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 **관련부처 /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 영위 보장

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차등 없는 경제적 지원

○ **배경 / 필요성**: 교통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조기개입 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청소년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으나 면접에 참여한 한 군지역의 청소년은 5만원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지자체의 청소년은 그마저도 알고 있지 못했다. 읍·면지역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러 번 대중교통을 환승하거나 원거리를 이동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한적인 교통비 지원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추진내용**: 거주지역과 관계없는 차등 없는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마다의 재정상황에 따른 영향일 수 있으나 크지 않은 교통비

지원에서까지 지역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의 역할도 필요해 보이며, 교통비 지원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동일한 금액의 교통비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 수당은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받는 청소년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지원 인지를 분명히 안내하여야 한다. 교통비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어진 인턴십을 통해 취업까지 하게 된 면접조사사례는 이 교통비와 같은 현금성 지원의 장점을 매우 잘 보여준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서비스(꿈드림) 접근성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조기 개입 기회 제공

정책과제 2-4		청소년생활기록부 및 장학금 등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청소년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및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청소년생활기록부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심층 정보 안내
3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동기부여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① **청소년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및 대학 진학 지원 확대**

○ **배경 / 필요성**: 학생생활기록부 대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활용한 대학진학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일부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만 활용되고 있다.¹⁰³⁾ 그러나 대학에서의 청소년생활기록부

103) 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출처: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과 꿈드림센터에서도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도가 높아지고 더 신뢰할만한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인식이 개선된다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선택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꿈드림 역시 이들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을 위한 종사자 대상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수시입시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꿈드림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며, 입시관련 학교교사, 신뢰할 만한 학원의 입시 담당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입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나 청소년에게 흥미가 있는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대학진학 목적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서만이 아닌 흥미가 있는 여러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작지만 반복되는 성취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축적된 기록들은 청소년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한 대학진학 성공사례 홍보를 통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이 유치되어야 하며, 일선 현장에서 꿈드림과 청소년 역시 대학입장에서 경쟁력있는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에 비해 대학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대학진학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수능준비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지원 확대, 대학진학과 관련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제고

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 **배경 / 필요성** :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입시 및 수능 준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자금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21년 9월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청소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학교 밖 청소년 차별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¹⁰⁴⁾하였으며, 관련하여 표 VI-8과 같은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러한 대학진학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 노력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진로발달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포상제도가 필요하다.

표 VI-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내용

현행 ¹⁰⁵⁾	개정안 발의내용*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학생(대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신설)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⑤ 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제, 요약.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X0P7Y1Y9X1H4Z4Q9P1L8S5U1C9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주: 2021.7.30.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내용: 재단 사업 확대를 통한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명시

10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길 놓는다(출처: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1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출처: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 **추진내용** :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진로발달을 위한 장학제도 및 포상제도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뿐 아니라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노력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장학재단과 지자체, 민간 기업이나 협회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갈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민간기관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고정적인 장학제도,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 대상의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면 더욱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 대학진학 희망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동기부여 기회 제공

정책과제 2-5

전문적인 치료 개입 및 심리정서적 지원 다각화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전문 상담 치료 지원	전문적인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훈련 병행
2	학교 밖 경험자외의 멘토링 지원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청년들 중심의 멘토링사업

① 전문 상담 치료 지원

○ **배경 / 필요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사유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이미 학교를 떠난지 오래 되었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과거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폭력 피해, 집단따돌림, 약성루머, 대인관계로 인한 심리정서적 고통 등을 아직까지도 기억하였으며,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한 청소년은 이때의 경험으로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가정에서의 문제와 성범죄 피해는 이들의 생애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다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한 조기 개입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전문적인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과 함께 현재의 삶의 질과 사회생활을 위한 심리사회적 기술 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차원의 초기상담 이후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좀 더 깊이 있는 개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건강가정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가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간 연계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내에서의 관련 부서 간 협약이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개입 이후 이들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진출을 위해 대인관계기술,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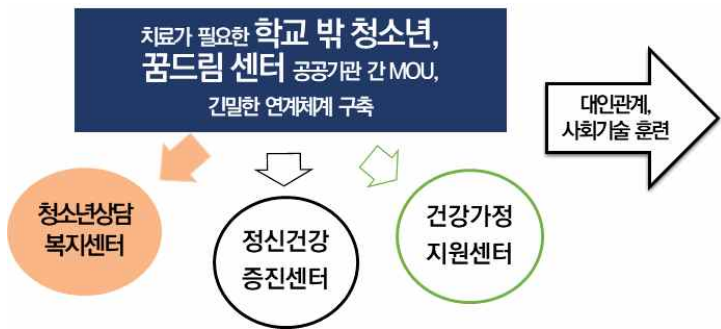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체계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재활,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

② 학교 밖 경험자와의 멘토링 지원

○ **배경 / 필요성** :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기존 패널은 과거 학교 밖 청소년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의 멘토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김희진 외, 2020). 또한 호주사례에서 보듯이 농어촌 지역에서 과거 무업 청소년이었던 한 청년은 이 시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지역 인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흥미 있을 법한 게임 개발이나 코딩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과거 학교를 떠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 환경적 어려움, 또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며, 또 주변의 지원과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다.

○ **추진내용** :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청년들과의 멘토링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 오프라인 방식에 따라 다양한 멘토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은 필요하다. 또한 멘토들이 더욱 책임감있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의존하기보다 일정 수당을 책정,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이후 가칭 ‘꿈드림 청소년 후원회’¹⁰⁶⁾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후원회와 같은 단체가 설립될 수 있다면, 향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장학/포상 제도를 위한 협력단체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효과성 증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 / 포상제 협력단체로의 발전 기대

106) 후원회 아이디어와 명칭은 현장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3) 가족 체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 외에 학교 밖 청소년과 일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지지체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및 가족 분위기에 의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 지원 체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호자) 코칭지원 및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서비스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정책과제 3-1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추진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지지체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면 부모(보호자) 코칭을 통하여 부모(보호자)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대상 개입이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함.

○ **배경 / 필요성**: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체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꿈드림센터 실무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꿈드림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방임 되었거나 가족갈등을 겪고 있고, 부모가 지지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가족체계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꿈드림센터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들 중 자녀가 학교를 중단했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꿈드림 이용도 꺼리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부모와의 심한 갈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폭력 등을 경험하며 부모와 가족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폭력, 돌봄 부재(방임) 등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자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부모(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추진내용** : 부모(보호자)가 학교 밖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을 이해·수용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조집단을 통한 정서적 지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꿈드림 뿐 아니라, 지역 내 가족복지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불안정한 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연계망을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지원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3조 (상담의 방법과 내용)의 1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은 꿈드림에 의해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3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¹⁰⁷⁾ 하지만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을 꿈드림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내 타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표 VI-9 참조).

1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표 V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¹⁰⁸⁾	개정안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은 지역 내 가족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타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들과 연계 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대상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학교 중단으로 인한 가족 갈등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제 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의 1항¹⁰⁹⁾에서 꿈드림과의 연계 내용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법령에는 이미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부분이 명시되어져있다.¹¹⁰⁾

○ **관련부처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지원체계 안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가족의 지지 속의 자립 기반 마련

10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1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11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제 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7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5일 인출).

표 VI-1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¹¹¹⁾	개정안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4) 지역사회(읍·면지역 포함) 차원의 지원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체계 이외의 가장 가깝고 또 중요한 주요 활동 무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지역사회 내 일자리 지원 확대’, ‘농어촌,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1) 지역사회 내 일자리 지원 확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위해 지원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과 ‘다양한 직군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4-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

추진 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직업관련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예 : 동아리, 유튜브를 통한 강의, 컨설팅, 진로 검사 등) 개발, 확산 필요

○ **배경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확산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군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업 및 창업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찾고 그로 인하여 보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꿈드림 실무자들은 면접조사에서 많은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 혹은 일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이 개발되고 확산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진내용** : 플랫폼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질 수 있다.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는 송파구청에서 설립한 청소년특화시설로,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유스CEO 프로그램(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진로상담프로그램(집단상담), 전문가 특강 ‘코칭온데이’(각 분야 전문가의 실시간 전문가 특강), 취업·창업 동아리, 미디어 동아리(미디어 콘텐츠 제작 동아리)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¹¹²⁾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로관련 집단상담 혹은 컨설팅, 진로검사,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무기력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동기 부여, 다양한 직군에 대한 간접적 탐색 기회 제공

정책과제 4-2

다양한 직군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직업체험 및 인턴십 관련 개인 및 기관 대상 연계망 확충
2	연계기관 대상 보상 제공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협력을 위하여 연계기관 대상 보상 제공
3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 정보 전달 및 교육 실시	체험 및 인턴십 활동 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전달 및 기본적 사회적기술 관련 교육 실시

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배경 / 필요성** : 다양한 직군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체험을 직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참여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통해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및 인턴십 관련 기회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조사결과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다.

112) 송파샘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출처: <http://www.spmirae.or.kr>)에서 2021년 11월 30일 인출)

○ **추진내용** :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체험 및 인턴십 관련 연계망을 확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일부 직업 체험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호주사레에서와 같이 컴퓨터 관련 기술, 게임 개발 관련 코딩 등 청소년에게 흥미를 부여하며 취업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은 IT관련 직종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애견미용사, 요리사, 미용사 등 지역사회 내 개인(사업장)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계망을 확충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한 읍·면 / 소도시에서는 시·도 차원에서 연계망을 확충하여, 이들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충분한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다양한 직군에 대한 직접적 탐색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역할 수행

② 연계기관 대상 보상 지급

○ **배경 / 필요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계기관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인식에만 기대하기 보다는 연계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연계기관에 제공할 보상으로 포상(보상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꿈드림과 연계하는 기관 관계자들은 면접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입장으로 연계 활동을 진행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와 같은 접근으로는 이러한 연계활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연계망 확충 뿐 아니라, 연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지자체 / 꿈드림과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질적 수준을 담보한 연계기관 프로그램 제공

③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 정보 전달 및 교육 실시

○ **배경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직업체험 및 인턴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꿈드림 연계기관 실무자들은 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청소년들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점들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보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계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체험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와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계기관 프로그램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될 체험 및 인턴십 제공 기관에 관련된 정보(예 : 기관의 설립 목적, 주로 하는 일, 업무시간, 조직도 등), 본인들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예 : 프로그램의 목적, 청소년이 해야 할 업무, 주로 상호작용하게 될 인간관계 등) 등을 연계기관 실무자의 교육 혹은 안내 책자 지급 등을 통하여 미리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예 : 인사하는 방법, 전화 / 문자하는 방법,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익숙하지 않은 성인들과의 의사소통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기술 함양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탈 방지

(2) 농어촌,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농어촌, 읍·면지역은 그 특성상 전통적으로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문제를 겪어왔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 상황 속에서 더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들은 역시 지방의 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들이다.¹¹³⁾ 그러나 학교가 있는 곳에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읍·면 및 소도시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오히려 이들이 진로관련 인프라 및 취업관련 문제를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등 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이동성 보장,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개선과 관련한 세부 정책과제들은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4-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

○ **배경 / 필요성** : 군지역내 행정체계인 읍·면지역은 대부분 농산어촌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유사한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소도시가 있을 수 있으나 군지역은 인구현황과 여러 지역 환경적 특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더 취약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자원,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읍·면지역 자체 정부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필요 시 개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113) KBS NEWS.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우리 동네는?(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147>, 게시: 2021.10.18.)에서 2021년 11월 30일 인출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회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학생청소년과 차등 없이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특히 정부지원 프로그램일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부모,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 체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박람회,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중단된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사업도 있다.¹¹⁴⁾ 청소년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지자체 부서 간, 그리고 현장연계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심 있는 청소년의 경우 향후 후계농업인력 양성이나 청년창업농육성사업 등에¹¹⁵⁾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읍·면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지자체 청년 인구 이탈 최소화

정책과제 4-4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이동성 보장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인턴십 기회 확대	농어촌, 읍·면지역 청소년 대상의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회 확대
2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읍·면지역, 원거리 지역 거주 청소년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11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사업소개(출처: <https://www.epis.or.kr/user/business/list?level=1&menuNo=4&enYn=N>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115)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출처: <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① 읍·면 지역 청소년의 인턴십 기회 확대

○ **배경 /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기회를 얻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기회가 적음에 따라 이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과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로 나가고자 했다. 따라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인턴십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농어촌 및 산간벽지 읍·면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어느정도 부합하면서 직업체험을 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과 시·도센터를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같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역사회 역시 청년인구 이탈 최소화를 위해 이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읍·면지역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만약 인근 타 지역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잠시 거주지를 떠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꿈드림을 통해 타 지역의 쉼터 등과 연계하여 숙식을 위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읍·면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군지역 청년 인구 이탈 최소화

②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 **배경 / 필요성** :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사회의 농어촌, 원거리 지역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이동성(mobility)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면접조사에서 한 군지역 거주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요구받으면서 40분을 도보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학원 등을 위한 접근성과 이동성은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읍·면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추진내용** : 읍·면 및 원거리 지역 거주 청소년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등없는 교통비 지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통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거주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타 지역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사회 정주요건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성장한 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진로발달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읍·면지역의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읍·면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군지역 청년 인구 이탈 최소화

정책과제 4-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합사업 확대 제공

추진 내용

읍·면지역 및 인근 소도시 꿈드림센터 간 연합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이를 위한 전달체계(시·도센터 내 분소개념의 연합사업 담당 체계) 재고

○ **배경 / 필요성** : 꿈드림 시·도 센터는 개별 시·군·구센터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합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군지역이나 작은 소도시에서도 시·도 센터 중심으로 연합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인력 혹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예 : 수능 준비반, 대학입시 / 직업체험 박람회, 단체 캠프 및 여행프로그램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시 소외되기 쉬운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꿈드림 간 연합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추진내용** : 군지역과 인근 소도시 지역의 꿈드림센터 간 연합사업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 청소년의 경우 접근성과 이동성의 제한으로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꿈드림만의 노력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합 프로그램 주제를 발굴하고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연합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더해진다면 시·도센터 아래 분소개념으로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연합사업 및 프로그램 제공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시 운영하는 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계절에 따라 또는 TFT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지만, 전문화된, 다양한 연합사업 기획·추진을 위해서는 상근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센터 산하 또는 인근 꿈드림 간 연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V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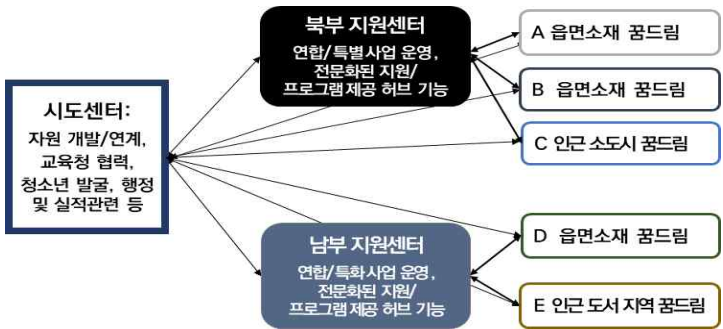


그림 VI-3. 연합사업 /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도내, 군지역 거점지원센터¹¹⁶⁾

116)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도식화한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규모있고 다양한, 전문화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5)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전반의 지원 노력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광범위한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거시적인 체계를 아우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범국가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개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로, 이들 청소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¹¹⁷⁾ 본 조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꿈드림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체제 개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꿈드림 실무자의 업무유연성 확대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학교 밖 청소년과 실무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
2	흥미로운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휴식, 상담, 활동이 가능한 공간 필요
3	위치 조정 혹은 분소 설치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 위치를 조정하거나 너무 외진 지역은 분소 설치 필요

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 **배경 / 필요성** : 꿈드림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용공간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전용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읍·면 / 소도시 지역 꿈드림 실무자들의 면접조사에서 매우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닌 실무자 책상 정도의 공간만 있는 꿈드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찾아와 상담하거나 혹은 편하게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 **추진내용** : 우선 꿈드림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꿈드림이 이러한 공간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예산의 문제로 전국의 모든 꿈드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용공간 마련이 시급한 센터들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용공간 마련에 힘써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과 같은 전용공간 마련 사업이 좋은 예시로, 지자체 또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교 밖 청소년 수’와 같은 지표 뿐 아니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이 부족한 읍·면지역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

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꿈드림 실무자가 학교 밖 청소년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장소 제공(효과적인 사례관리 가능), 종사자 처우 개선 효과 및 업무 능력 향상

② 흥미로운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 **배경/필요성**: 꿈드림은 단순한 전용공간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읍·면 / 소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외의 사회를 경험하기 위한 안전하고 흥미로운 발판이 되어줄만한 지역사회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의 제공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비행청소년으로의 이탈 예방의 가능성도 시사한다.

○ **추진내용**: 꿈드림 공간을 단순히 상담의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예: 검정고시 준비, 동아리 활동) 등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도모 하는 지자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천안시는 2020년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꿈드림센터를 이전하였는데, 1층에는 청다움 5호점이라는 ‘청소년 자유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에서 기술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와 같은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을 성공적으로 재탄생

118) 충청뉴스(2020.06.26.).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새로운 동지로 이전(출처: <http://www.ccne 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34>에서 2021년 11월 24일 인출)

시킨 센터들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타 센터들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심리적 접근성 향상, 꿈드림 제공 프로그램 활성화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 촉진 및 이탈 예방

③ 위치 조정 혹은 분소 설치

○ **배경 / 필요성**: 꿈드림센터의 위치는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읍·면 / 소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꿈드림이 위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꿈드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꿈드림의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 **추진내용**: 꿈드림의 위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지역 내 청소년관련 타 기관들과 가깝게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가(예: 시내)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꿈드림 위치에 대한 재조정 혹은 (재조정이 어려운 경우) 분소 개념의 공간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지자체, 기초지자체 /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꿈드림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홍보 효과

정책과제 5-2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종사자 처우 개선	높은 질적 수준을 담보한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금 개선, 인력 확충을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2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센터장-팀장-팀원으로 이루어진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3	진로지원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지원을 위한 진로상담전문가 배치

① 종사자 처우 개선

○ **배경 / 필요성** : 꿈드림의 종사자(실무자)는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꿈드림 종사자는 꿈드림 지원체계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체계이다. 현장실무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인적자원 활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종사자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사안이다.

○ **추진내용** : 이를 위하여 먼저 임금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타 복지기관들의 실무자 임금체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꿈드림 실무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임금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다’군에 속하는 꿈드림의 경우 2명의 실무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지만, 병가나 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인력 충원이 적절히 되지 않는다면 결국 1명의 실무자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다고 해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방문상담 및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가 주 업무인 지역은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으며, 2명의 실무자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력 확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종사자 업무 능력 향상, 종사자 이직률 감소

②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 **배경 / 필요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조직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읍·면 / 소도시의 실무자 면접조사결과, 이러한 조직 체계 없이 모든 직원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센터장의 적절한 역할이 부재한 지역도 있었다. 이럴 경우, 센터장 혹은 팀장급의 실무자들이 모여 업무를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새로운 직원 혹은 연차가 적은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지시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추진내용** : 꿈드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 업무역량과 종사경력 등을 전제로 꿈드림센터장-팀장-팀원으로 꿈드림 운영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꿈드림센터장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겸직을 하는 경우, 꿈드림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공무원이 꿈드림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 인사발령으로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으며, 무엇보다 해당 공무원의 꿈드림에 대한 관심 유무가 꿈드림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꿈드림 전담 센터장이 배치되어야 하며, 또 적절히 지원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팀장-팀원 조직 구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종사자 업무 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③ 진로지원 위한 전문인력 배치

○ **배경 / 필요성** :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꿈드림에 배치하여 현재 모든 종류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양질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법」의 제9조는

초·중등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명시하였는데,¹¹⁹⁾ 이는 당연히 청소년 시기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따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들보다 이러한 진로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꿈드림에도 진로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전국의 모든 꿈드림에 진로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고려하여 시·도 센터에 적정 수의 진로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산간지역의 외진 곳에서 생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진로전문상담가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종사자 업무 능력 향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읍·면 / 소도시 청소년의 진로탐색 소외 방지

정책과제 5-3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성과평가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지역 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범위 확대 및 행정 지원
2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성과 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도 평가 기준으로 재고 필요

①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 **배경 / 필요성** : 지역 특색에 따라, 또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참여했던 꿈드림 실무자는 꿈드림 전용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

1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하기 위해 외부 공간(예: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해야 했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애로사항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실무자는 부모의 방임으로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할 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한다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꿈드림 공간 내에서의 지원이 아닌, 이렇게 원거리 지역 방문이나 아웃리치 성격의 지원은 지역적 특성이나 개별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비중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내용을 충분히 업무 범위로 하여,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추진내용**: 최소한 학교 밖 청소년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생활비 측면에서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과 원활한 상담 진행시 필요한 지원 범위 내(예, 식음료비, 청소년 교통비 등)에서는 꿈드림 실무자가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예산 사용 방지를 위하여 증빙을 통한 예산 사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친 행정업무는 종사자의 능력을 저해하는 만큼, 적절한 증빙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지역 특색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기여

②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

○ **배경 /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꿈드림 실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읍·면·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고, 공통적인 욕구를 도출하여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일선 현장에서는 소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정량적 평가 시스템으로는 적절하게 평가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 종사자이 소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추진내용** : 지역에 따라,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예 : 방문 상담, SNS를 통한 근황 확인), 정량적 성과 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맞춤형 지원 및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지역 특색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공 가능, 종사자 소진 방지

(2) 사회적 인식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법제화'를 제안한다.

정책과제 5-4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사업
세부 과제		추진 내용
1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대상 인식 개선	꿈드림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필요
2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학교 밖 청소년과 꿈드림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일간지 또는 공영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

①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대상 인식개선

○ **배경 / 필요성**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예 : 비행청소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 꿈드림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꿈드림 이용을 망설일 수 있다. 또한 부모(보호자)도 자녀가 학교를 중단했다는 사실에 이러한 지원사업에 거부감을 갖기도 하였다. 부모(보호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차적인 지지체계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학교를 그만둔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꿈드림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꿈드림 이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꿈드림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꿈드림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꿈드림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지지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방지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 **배경 / 필요성** :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꿈드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전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많은 경우 꿈드림을 알지 못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꿈드림 홍보 필요성을 제기한다.

○ **추진내용** : 인식개선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지원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꿈드림이 제공하고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꿈드

림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후기, 자립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 홍보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개선 및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TV채널 뿐 아니라 공영방송과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꿈드림 홈페이지의 홍보게시판에 이미 제작되어 게시된, 우수사례 집과 유튜브 홍보 콘텐츠에 대한 방송 송출도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될 것이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꿈드림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지지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방지

정책과제 5-5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법제화
추진 내용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배경 /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의 제 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따르면,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¹²⁰⁾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나 프로그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결과, 경찰서 관련 이벤트나, 경연대회 참가와 같은 공모전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된 경험이 보고 되었으며, 꿈드림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부당함이 지적되었다.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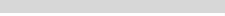
1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VI-11과 같다.

표 V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관련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없음	제22조(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복지 등의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 **관련부처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방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인호 (2019).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 및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31(5), 45-72.
- 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2018).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 :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David W. Stewart, Prem N. Shamdasani, 2015, FOCUS GROUPS : Theory And Practice, Sage).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연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1년 2월 15일 인출.
- 김경애, 선혜연, 임종현, 조은주, 류방란, 안해정, 권희경 (2018).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연구보고 RR 2018-05).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현, 양희준, 안해정, 한은정, 박철휘 (201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Ⅱ)**(연구보고 RR 2017-1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현, 이상은, 안해정, 한은정 (2016).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Ⅰ)**(연구보고 RR 2016-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광수 (2011). 대도시-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연구**, 21, 121-156.
- 김미곤, 염주희, 정희선, 최준영,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정혜숙, 조준용, 이현주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연구

- 보고서 2013-20).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염주희, 최현수, 정희선, 김성아, 김은빈,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하경희, 이현주 (201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2012-3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신어진 (2009).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 연구.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34(2), 188-201.
- 김병수, 여홍구 (2010).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별 기능 특성 비교. **국토지리학회**, 44(4), 537-552.
- 김상현, 양정호 (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은경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건강행태 관련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1), 52-60.
- 김은석, 양안나, 오찬호, 장서영, 하지영, 송스란 (2016).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3차년도)**(기본연구 2016-2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오찬호, 심우정, 하지영 (2015).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2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석, 장서영, 심우정, 오찬호, 하지영, 송순영 (2014).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중단 연구(1차년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이배, 안재성 (2014). GIS를 활용한 경북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접근성 비교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30-953.
- 김정원, 강구섭, 김지수, 김성식, 조정아, 최유림, 조정래 (201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연구보고 RR 2017-1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조정아, 김윤영, 김성식, 조정래 (2018).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II)**(연구보고 RR 2018-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 강구섭, 김진희, 박희진, 김지혜, 조정아, 김윤영, 김현철, 조정래 (2017).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I)(연구보고 RR 2017-1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혜, 김정원, 김지수, 이동엽, 조정아, 김윤영, 김선, 조정래 (201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IV)(연구보고 RR 2019-10).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진, 백혜정 (202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연구보고20-R2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 중심으로(연구보고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명소연, 조진욱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 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 문창용, 나주몽 (2013). 대학 캠퍼스 외부시설의 공간적 특성이 지역커뮤니티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를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45(2), 109-138.
- 박구원 (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관광학회, 8(1), 7-24.
- 박승곤 (2017). 지역사회 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2), 59-88.
- 박승곤, 김수정 (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233-257.
-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3).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별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20(4), 199-224.
- 박승곤, 문성호 (2011). 농어촌청소년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4), 75-96.
- 박은옥 (2010). 지역별 청소년 건강위험행위 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40(1), 14-23.

-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03), 1-8.
-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혜승, 이명훈 (2017). 지역사회(Community)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193-212.
- 심재휘, 이명희, 김정근 (2018). 누가 켄거루족이 되는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격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4(4), 29-53.
- 오병돈, 김기현 (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31-54.
- 오은주 (2008). 혼합연구방법론(Mixed Mothods):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교차 시키기, **국토**, 315, 132-141.
- 오은진, 장희영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연구보고 20-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연구보고 16-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보고 19-R34)**.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연구보고 15-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강원, 손호웅 (2016).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서울: 구미서관.
- 이기준, 박근영, 양태정, 김상호, 임윤희, 원운하, 박지혜, 오요섭, 최나연, 윤신영, 김경남, 권학예, 유미래, 오윤채, 경수현, 장세영, 이승복, 하유경, 최성용, 최민석 (2020).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연구보고 SM2020-05).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에서 2021년 3월 5일 인출.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 1-30.
- 임석희 (2019).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4(3), 365-386.
-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민경, 노자은, 이근영 (2019).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정책보고 2019-17).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미경, 김경애, 선혜연, 임종헌, 조은주, 최한나, 정광희, 한은정, 이선영, 이슬아, 홍세진 (2019).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Ⅳ)**(연구보고 RR 2019-0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정지윤 (2020).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1(2), 235-261.
- 조명래 (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복지동향**, 157, 4-9.
- 조성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 조아미, 임정아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 18-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연구보고 19-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 주영선, 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욱, 조준용, 하경희, 유진영, 정희선, 고지영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질적 연계 패널조사**(연구보고서 2011-2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형석 (2020). ‘**학교 밖 청소년**’ 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5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 (2019).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9-R5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지나, 박숙경 (2020). 청소년의 트라우마 경험과 지위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2), 1503-1515.
- 함영진 (2019). 사회서비스 실태 및 지역 격차. **보건복지포럼**, 2019(4), 8-17.
- 황정임, 최윤지, 최정신, 민소영, 정용경, 신동호, 전운정, 강구민, 김아영, 문준호, 박진우, 박인호, 이강형, 박창제, 김경화, 김정태 (2019).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Abbott-Chapman, J., Johnston, R., & Jetson, T. (2014). Rural belonging, place attachment and youth educational mobility : rural parents' views. *Rural Society*, 23(3), 296-308.
- Arnett, J. (2004). *Emerging Adult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ustralian Government (2021).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

- ployment.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https://www.dese.gov.au/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resources/australias-youth-policy-framework>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 Camarero, L., & Oliva, J. (2019). Thinking in rural gap: mobility and social inequalities. *Palgrave Communications*, 5(95). 1-7. doi.org/10.1057/s41599-019-0306-x.
- Church, W. T., Jagers, J. W., & Taylor, J. K. (2012). Neighborhood, poverty, and negative behavior: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35-1041.
- Council of Europe, European Union. *Young people in rural areas: Contemporary issues in youth policy*.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young-people-in-rural-areas>에서 2021년 2월 10일 인출.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년 출판).
- Driscoll, C. (2014). Nowhere to go, nothing to do: place, desire, and country girlhood. *Girlhood Studies*, 7(1), 121.
- Ellem, K., Baidawi, S., Dowse, L., & Smith, L. (2019). Services to young people with complex support needs in rural and regional Australia: Beyond a metro-centric respon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9, 97-106.
- Fellin, P. (2001).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 Halsey, J. (2018). Independent review into regional rural and remote education-Final report.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https://www.independentreviewintoeducation.gov.au/>

//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01218_independent_review_accessible.pdf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Hays, D. G., & Singh, A. A. (2012). Qualitative inquiry in clinical and educational settings.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Henderson, T. (2017.4.27.). *Disconnected youth: Out of school and out of work in rural America. The Pew Charitable Trusts.*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blogs/stateline/2017/04/27/disconnected-youth-out-of-school-and-out-of-work-in-rural-america>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Lamb, S., Huo, S., Walstab, A., Wade, A., Maire, Q., Doecke, E., Jackson, J. & Endekov, Z. (2020). Educational opportunity in Australia 2020: Who succeeds and who misses out. Centre for International Research on Education Systems, Victoria University, for the Mitchell Institute: Melbourne.

Laura Chung. (2018.6.7). *Unemployed his whole life, passionate gamer is now creating career opportunities for others.* <https://www.abc.net.au/heywire/unemployed-gamer-helps-country-kids-build-coding-careers/9792088>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and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http>

- 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http://www.cabinetoffice.gov.uk/media/cabinetoffice/social_exclusion_task_force/assets/research/multidimensional.pdf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 Lewis, K. (2021). *A decade undone: 2021 update*. New York: Measure of Americ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ttp://measureofamerica.org/youth-disconnection-2021/>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Manhattan Strategy Group. (2019). *Results of Support Systems for Rural Homeless Youth (SSRHY) demonstration projects 2008-2015*.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ysb/ssrhy_reportfinal_508_12_06_2018.pdf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 Menanteau-Horta D, Yigzaw M. (2002).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and elements of child welfare in minnesota rural counties. *Child Welfare*, 81(5), 709-735.
- Merriam, S.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Orlowski, S., Lawn, S., Antezana, G., Venning, A., Winsall, M., Bidargadi, N., & Matthews, B. (2016). A rural youth consumer perspective of technology to enhance face-to-face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0), 3066-3075.
-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Inc.
- Shucksmith, M., & Philip, L. (2020). *Social exclusion in rural areas: A literature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The Scottish Executive Central Research Unit.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196.6693&rep=rep1&type=pdf>에서 2021년 2월 16일 인출.

- Skott-myhre, H. A., Raby, R., & Nikolaou, J. (2008). Towards a Delivery System of Services for Rural Homeless Youth: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Child & Youth Care Forum*, 37(2), 87-102.
- Smokowski, P. R., Cotter, K. L., Robertson, C. I. B., & Guo, S. (2013). Anxiety and Aggression in Rural Youth: Baseline Results from the Rural Adaptation Projec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4(4), 479-492.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 Welch, A., Helme, S., & Lamb, S. (2007). Rurality and Inequality in Education: The Australian Experience. In R. Teese, S. Lamb, & M. Duru-Bellat (Eds.), *International Studies in Educational Inequality, Theory and Policy: Volume Two: Inequality in Education Systems* (pp. 271-293). Dordrecht: Springer.

[보도자료·기사]

- 교육부 보도자료(2019.11.29).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14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3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8.10.).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954에서 2021년 12월 2일 인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09.29). 여성가족부-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길 놓는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중도일보(2021.05.03.).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충남 최초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502010000107>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충청뉴스(2020.06.26.).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새로운 둥지로 이전.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34>에서 2021년 11월 24일 인출.

KBS NEWS.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우리 동네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147>(게시: 2021.10.18.)에서 2021년 11월 30일 인출.

[홈페이지 자료]

강원도 영월군. 영월 소개. <https://www.yw.go.kr/www/contents.do?key=516>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학교소개. <https://gwywed.gwe.go.kr/sub/info.do?m=010701&s=gwywed>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강원도 영월군꿈드림. 꿈드림 지원 내용. https://www.kyw1318.or.kr/board_HcBq06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강원도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하리. <http://ycy2020.cafe24.com/index.php>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소개. <https://www.pocheon.go.kr/www/contents.do?key=5629>에서 2021년 10월 07일 인출.

경기도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지원내용. <https://www.pocheon.go.kr/counsel/contents.do?key=9721>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경기도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지원내용. https://youth.pocheon.go.kr/poycc/sub/active_19.php?folder_idx=13&folder_page_idx=119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소개. <http://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4830>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경상남도의령군교육지원청. 교육기관안내. <https://uredugne.go.kr/uredug/cm/cntnts/cntntsView.do?mi=2646&cntntsId=1590>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경상남도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용. <http://kdream.gnyouth.net/%ec%84%9c%eb%b9%84%ec%8a%a4%ec%a7%80%ec%9b%90/>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2/sub020101.asp>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

꿈드림. 전국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kdm200pm/list.asp>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

꿈드림. 자원맵 <https://www.kdream.or.kr:446/user/kdm400pm/list.asp>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네이버 지도서비스: 강원도 영월군. <https://map.naver.com/>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네이버 지도서비스: 경기도 포천시. <https://map.naver.com/>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네이버 지도서비스: 경상남도 의령군. <https://map.naver.com/>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네이버 지도서비스: 전라남도 완도군. <https://map.naver.com/>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네이버 지도서비스: 충청남도 서천군. <https://map.naver.com/>에서 2021년 8월 13일 인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소개. <https://www.epis.or.kr/user/busin>

ess/list?level=1&menuNo=4&enYn=N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page=1에서 2021년 12월 2일 인출.

송파샘미래교육센터. <https://www.songpa.go.kr/sssem/youth/main/main.do>에서 2021년 11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외교부 홈페이지(2021.09.22.). 호주 국가 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1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일본 문부과학성.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 안내. https://www.mext.go.jp/a_menu/ikusei/manabinaoshi/mext_00955.html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일본 문부과학성. 지역에서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 사업. https://www.mext.go.jp/content/20201208-mxt_syogai03-000010237_3.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마스다시). https://www.mext.go.jp/content/20210416-mxt_syogai03-000010237_4.pdf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일본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나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http://supportryukyu.info/?page_id=717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일본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우라소에시의 인구. <https://www.city.urasoe.lg.jp/article?articleId=60d1a2d03d59ae1ac00c69c3>에서 2021년 9월 7일

인출.

일본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청소년무직자집중훈련프로그램 안내. <http://supportryukyu.info/wp-content/uploads/2017/05/syuuchuu201706.pdf>에서 2021년 9월 8일 인출.

일본 오키나와현 서포스테 류큐. 학교 협력 프로젝트. http://supportryukyu.info/?page_id=133에서 2021년 9월 7일에서 인출.

일본 지도(시마네현 마스다시 중심)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place/%EC%9D%BC%EB%B3%B8+%EC%8B%9C%EB%A7%88%EB%84%A4%ED%98%84+%EB%A7%88%EC%8A%A4%EB%8B%A4%EC%8B%9C/@34.0809022,132.8247218,7z/data=!4m5!3m4!1s0x355ae01f65211a7f:0xf3caf2c685718fdb!8m2!3d34.674846!4d131.842886>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일본 지도(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중심) Google map. <https://www.google.com/maps/place/%EC%9D%BC%EB%B3%B8+%EC%98%A4%ED%82%A4%EB%82%98%EC%99%80%ED%98%84+%EC%9A%B0%EB%9D%BC%EC%86%8C%EC%97%90%EC%8B%9C/@30.7768378,130.4986396,6.75z/data=!4m5!3m4!1s0x34e56b9c8581c6a3:0xbd21e75778628749!8m2!3d26.2457804!4d127.7217156>에서 2021년 10월 5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 향후 방향성 검토회 자료.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wqvm-att/2r9852000002wqzi.pdf>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사포테는 어떤 곳인가요? <https://saposute-net.mhlw.go.jp/about.html>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사포의 실제 상품. <https://saposute-net.mhlw.go.jp/#top-03>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사포스테. 실제 상품. <https://saposute-net.mhlw.go.jp/>에서

2021년 9월 6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생활곤궁세대 아동 학습지원사업 실천사례집」.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080240.pdf>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소개. <https://www.wando.go.kr/www/introduction>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학교현황. https://wded.jne.go.kr/index.jne?menuCd=DOM_000002005007002002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전라남도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지원내용. http://wd1388.or.kr/bbs/content.php?co_id=rain_sub7010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전라남도 완도청소년문화의집 하리. 지원 프로그램. <http://www.wdhari.or.kr/>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 소개. https://www.seocheon.go.kr/kor/sub06_01_01.do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지원내용. <https://scdream.or.kr/menu31>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충청남도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꿈드림지원내용. https://www.kyw1318.or.kr/board_HcBq06에서 2021년 8월 16일 인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학교현황. <https://www.cnsce.go.kr/main/board/read.do?mid=9&boNo=32805&boBaNo=1>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1년 5월 29일 인출.

통계청. 재정자립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20년 현황은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

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2021년 2월 5일, 2월 15일, 8월 10일 인출(2011~2019년 현황은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학년별 학급수 학생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jsessionid=xaUyJrs02pVy4HHUbf8JTxR6ZIP90WxbNRQN4b3ZugpPNouBp1LCE7C0ZMFH2Ji2?menuCd=0101&cd=5423&survey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B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년 3월 11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에서 2021년 8월 14일 인출.

호주 ABC 방송국. Heywire. <https://www.abc.net.au/heywire/2021-heywire-grants-youth-ideas—hero-story/13436718>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s://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SSC11375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Indigenous Australians Agency. <https://www.indigenous.gov.au/news-and-media/announcements/heywire-youth-innovation-grants-now-open>에서 2021년 9월 17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ocial Security Guide. <https://guides.dss.gov.au/guide-social-security-law/3/11/9>에서 2021년 8월 9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Engaging Early School Leavers. <https://www.dese.gov.au/jobactive/engaging-early-school-leavers>(게시일: 2020.11.24.)에서 2021년 8월 20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Youth. <https://www.dese.gov.au/youth>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job-seekers/who-can-get-it>(게시일: 2020.07.02.)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Australia.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youth-allowance-students-and-australian-apprentices/how-much-you-can-get#payment-rates>에서 2021년 9월 21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 Study Australia. <https://www.studyaustralia.gov.au/english/australian-education/education-system>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Bega Valley Innovation Hub. Eden Game Development Centre. <https://begavalleyinnovationhub.com.au/resident-index/eden-game-development-centre/>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Foundation for Rural Regional Renewal. <https://frrr.org.au/blog/tag/unemployment/>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Foundation for Rural Regional Renewal. Community Stories (2020.5.26.). <https://frrr.org.au/blog/2020/05/26/good-times-and-opportunities-for-eden-youth>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Northeast Kingdom Community Action(NEKCA). About us. <https://www.nekcavt.org/about-u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Northeast Kingdom Community Action(NEKCA). Program and services - Youth & young adults. <https://www.nekcavt.org/programs-and-ser>

- vices/youth-young-adult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NEKYS). Prevention and stabilization service. <http://www.nekys.org/pssyf/>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NEKYS). 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http://www.nekys.org/transitional-living-program-tl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NEKYS). Youth and family service. <http://www.nekys.org/nekys-youth-programs/>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NEKYS). Youth Development Program (YDP). <http://www.nekys.org/youth-development-program-yd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 Kingdom Youth Services(NEKYS). Youth in Transition Program (YTP). <http://www.nekys.org/youth-in-transition-program-yit/>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Northeastern Vermont Development Association. Our towns. <https://www.nvda.net/towns.php>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8.27.). TRIO programs.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Job Corps. <https://www.dol.gov/agencies/eta/jobcorps>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 U. 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WIOA Youth Formula Program. <https://www.dol.gov/agencies/eta/youth/wioa-formula>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YouthBuild USA. <https://youthbuild.org/our-approach/youthbuild-usa/>에서 2021년 9월 28일 인출.

[법령·조례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5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5월 6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20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X0P7Y1Y9X1H4Z4Q9P1L8S5U1C9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영월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 부 록

부 록

부록1.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지

구분		면접내용
I. 도입		- 연구목적, 면접 방식 설명, 동의서 작성 - 면접참여자 인적사항 확인(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II. 현재 생활 및 진로 발달 상황	1. 현재 생활	- 요즈음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 공부(학업) / 진로·취업준비 / 취업·아르바이트 / (남자)군입대, 사회복무요원 근무 - 결혼 / 임신 / 출산을 하셨나요? (남자의 경우는 아내 상태 포함)
	2. 진로관련 과거 경험	(학업중단 후)검정고시 취득 / 준비를 했었나요? (학업중단 후)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 혹시 (학업중단 후)과거 / 현재에 취업준비(직업훈련 / 자격증취득 등)를 한 적이 있나요?
	3. 현재 진로 발달 상황	1) 공부 / 학업/진학과 관련된 경우(검정고시 취득 이후 대학 진학 등) -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업 / 학력의 의미) - 지금 하는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2) 현재 일(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경우 -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하게 되었습니까? - 일 경험이 만족스러운가요? 불만족스러운가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무업,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 -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4) (남자의 경우) 군입대 / 사회복무요원 ① 언제 군대에 갔으며 언제 제대합니까? ② 군대를 마친 후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4. 현재 하루 일과 [무업]	- 평일과 주말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 원하는 생활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원하는 도움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구분		면접내용
	5. 직업	• 미래 직업 결은 결정하였나요? • 그렇게 결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6. 최근 주 관심사	•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만약 과거 학교를 계속 다녔었다면 없었을까요?
Ⅲ, 학교 중단	1. 학교중단 의미 변화	• 학교를 중단 했던 것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 중단 과정에서 학교 또는 정부(국가)가 어떠한 역할 또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Ⅳ.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미래 전망	1. 경제 상황 및 주거상황	• 현재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그 수입(또는 생활비)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나요? • 혹시 채테크를 하시나요? (예 : 적금, 청약, 주식, 펀드 등) • 부모님이나 형제 / 자매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도와주고) 있나요? •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나요? 아니라면 누구와 살고 있나요? • 대출 혹은 빚이 있었거나(혹은 신용불량상태), 현재 있나요? • 이와 같은 재정적 계획(투자, 지출, 빚 청산 등)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자문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2. 자립	• 자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이 자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미래 전망	•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 이를 해결 /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셨나요?
Ⅴ.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관계 (지지 체계)	1. 자신에 대한 생각	•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학교 밖 경험과 관계가 있나요? •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소중한 사람	•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일 미쳤거나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습니까? • 스트레스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가족 관계	• 부모님(보호자)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편인가요? • 부모님과 갈등은 얼마나 자주 생기며, 얼마나 심각한가요(폭력/육 사용 유무)? •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입하십니까? 또는 무관심하십니까? • 과거 학업중단 시기와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 형제·자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인가요?
	4. 친구 / 이성 관계	•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 만족할만한 관계입니까? • 친한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된 친구이며, 친구와 만나 무엇을 하며 어떤 도움을 주고받습니까? • 연인이 있습니까? 결혼을 염두해 두고 있나요? 없다면 기억에 남는 연인이 있나요? •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연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인가요?

구분		면접내용
		- 연애할 때 가장 큰 어려움 혹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미래에 결혼을 할 생각인가요? 어떠한 가족을 만들고 싶나요? 그 이유는?
	5. 이외에 중요한 관계	이 외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점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VI. 지역사 회 지원과 사회 일반에 대한 생각	1. 지역사회 범위	현재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2. 지역사회에서의 도움 및 지원 요구	- 학교 중단 후 현재까지 지역사회(기관 / 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 있다면 어떠한 기관의 지원 / 도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어떤 경로로 그 기관 / 지원 / 도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3. 자립관련 지역사회 자원 요구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이 자립에 성공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적 특성과 지원체계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지역사회 지원 개선 및 전달체계 관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읍·면, 중소도시)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아쉬운 지원이나,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까? 원하는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 진로준비 등의 측면에서 현재 지역에서의 지원이나 자원접근성이나 기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 지역(대도시, 읍·면지역 등)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타 지역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이동한 적이 있습니까? - 이사하지 않고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과 지자체인 시·군·구, 지역사회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학력)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받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마무리		- 본인의 학교 밖 경험들이 후배들이나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어떠한 식으로 후배 혹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얘기 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부록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구분		면접내용
I. 도입		- 연구목적, 면접 방식 설명, 동의서 작성 - 면접참여자 인식사항 확인(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II. 현재 생활 및 진로 발달 상황	1. 현재 생활	요즘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2. 진로관련 과거 경험	1) (학업중단 후)과거 검정고시 취득 / 준비를 했었나요? -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했나요? 검정고시 준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 (학업중단 후)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혹은 (학업중단 후)과거에 취업준비(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를 한 적이 있나요? -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떠한 경로로 하게 되었나요? -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 경험이 진로모색(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3. 현재 진로발달 상황	1) 공부 / 학업 / 진학과 관련된 경우 (검정고시 취득 이후 대학 진학 등) -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 공부를(대학에 진학) 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입니까? - 지금 하는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2) 취업 / 창업 등 직업준비(직업훈련)와 관련된 경우 -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목적은 무엇인가요? - 직업준비가 만족스러운가요? 불만족스러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업준비와 관련하여 바라는 점(또는 도움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 이것을 마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3) 일(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경우 -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대보험 가입과 같은 처우 / 복지수준은 어떠한가요? - 일 경험이 만족스러운가요? 불만족스러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무업,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경우 -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나요? 불만족스러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떻게 하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현재 하루 일과 [무업]	- 평일과 주말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 원하는 생활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원하는 도움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구분		면접내용
	5. 직업	• 미래 직업은 결정하였나요? • 그렇게 결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6. 최근 주 관심사	•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입니까? •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 만약 과거 학교를 계속 다녔었다면 없었을까요?
Ⅲ, 학교 중단	1. 학교중단 의미 변화	• 학교를 그만두고자 했을 때 학교에서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 학교를 중단 했던 것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단 후 경험에서 만족스러운 점,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지요? • 학교 중단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 학교 중단 과정에서 학교 또는 정부(국가)가 어떠한 역할 또는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Ⅳ. 경제적 상황	1. 경제 상황 및 주거상황	• 본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 현재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그 수입(또는 생활비)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지나요? •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나요? 아니라면 누구와 살고 있나요? • 대출 / 빚이 있었거나(혹은 신용불량상태), 현재 있나요? 해결을 위한 계획은 있나요? • 이와 같은 재정적 계획(투자, 지출, 빚 청산 등)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자문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Ⅴ. 생애 사건 및 심리사 회적 상태	1. 자신에 대한 생각	•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학교 밖 경험과 관계가 있나요? •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업중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남 앞에 서기 싫은 감정, 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혹은 느낌 등을 가진 적이 있나요?
	2. 생애 사건 및 심리·정서적 상태	• 자신의 삶 혹은 생각 등을 변화시켰던 큰 사건이 있나요? • 그 사건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나요? • 현재도 그 어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현재 기분이 좀 가라앉아있거나, 혼자 있는 것 같거나, 안 좋은 감정(우울감, 소외감, 위축감, 불안함 등)을 느끼고 있나요? •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고립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관계적 어려움 및 학업중단 이후 관계의 변화	[관계의 어려움] •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 자신이 갈등(싸움) 상황에 자주 놓인다고 생각하나요? •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학교중단 이후 관계의 변화] • 학교중단 이후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학교중단 이후 현재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 소중한 사람	•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일 미쳤거나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습니까? • 스트레스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분		면접내용
		•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나요?
	5. 가족 관계	•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 부모님과 갈등은 얼마나 자주 생기며, 얼마나 심각한가요(폭력 / 욕 사용 유무)? •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입하십니까? 또는 무관심하십니까?
	6. 친구/이성 관계	• 친구관계는 어떠한가요? 친구관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 학교중단 과정에서 친구관계가 영향을 주었습니까? •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만나 친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연인(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동안 사귀었습니까? • 미래에 결혼을 할 생각인가요? 어떠한 가족을 만들고 싶나요? 그 이유는?
	7. 이외에 중요한 관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쉼터에서 형성된 관계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이 외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VI. 지역사회 지원과 사회 일반에 대한 생각	1. 지역사회 범위 및 경험, 인식	• 현재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니까? •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장점, 어려움, 개선사항 등) •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 / 환경에 만족하나요? 불만족하나요? 이유는?
	2. 지역사회에서의 도움 및 지원 요구	• 지역사회(기관 / 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었나요?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요? •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개선방안) • 타 지역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이동한 적이 있습니까? • 이사하지 않고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3. 진로 준비 관련 지역사회 지원 요구	• 진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이 진로준비에 성공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적 특성과 지원체계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의 (견인차)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과 지자체인 시·군·구, 지역사회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사회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학력)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받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대학전형 포함)
	마무리	•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얘기 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부록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읍·면지역 / 소도시) 종사자 면접조사지

구분	면접내용
I. 기관현황	• 귀 기관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간현황, 조직현황은 어떠한가요?
II. 해당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	•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어떤가요? 어떠한 경로로 기관을 찾아오나요? • 귀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중단 시기 및 주요 이유는? •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그러한 특성으로 어려운 점이 있나요? •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욕구는 무엇인가요? • 귀 기관을 이용하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떠나는 아이들과 남아 있는 아이들의 차이점 및 특성은 무엇인가요? •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당 기관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나요?
III. 해당 기관 서비스 제공현황	• 귀 기관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지역사회 지원/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애로사항은? • 귀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홍보하고 있는지요?
	[해당 읍·면 / 소도시 지역특성 및 꿈드림 운영] • 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어떠한니까? • 읍·면 / 소도시 지역에 위치한 센터로서 갖는 장점이나 단점(애로사항)이 있나요? 어떤 것인가요? • 읍·면 / 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꿈드림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V.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정책 개선방안	[해당 지역의 지역적 / 지자체 특성] • 귀 기관의 위치와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귀 기관의 지역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지역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회의 / 협의체가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시장, 구청장, 군수 및 의회는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지자체 및 지역네트워크의 지원] • 귀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 실제 정부나 광역시 지원 외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개선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 중앙부처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지자체 → 기초지자체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 서비스 전달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V. 종사자 관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로서의 처우와 업무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센터장 겸직의 경우 센터장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가요?
VI. 코로나19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꿈드림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록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읍·면지역 / 소도시) 종사자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는 읍·면지역과 소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내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 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설문조사는 10분 ~ 15분 내외가 소요되며, 완료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상품권 만원권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담당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06)

□조사담당자:  한국리서치 황인창 부장 (02-3014-0086)

※ 기관 및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비밀 엄수의 원칙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현황, 지원내용, 애로사항 및 필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조사결과는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조사 참여자는 원할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본 조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1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내용 파악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성별, 직위, 근무기관, 기관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1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1. 귀하가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년 ____개월

2. 현재 시설 / 기관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장 ②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3년 이상 종사자) ③ 실무자

3.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연령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 경로에 대해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학교·교육청 통해(Wee클래스 등)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③ 대안학교 ④ 직업훈련학교(내일이룸학교)
 ⑤ 청소년 쉼터 ⑥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⑦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⑧ 주민자치센터·지자체(교통카드 또는 수당 신청 과정에서)
 ⑨ 검정고시 시험장 ⑩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⑪ 가족의 소개로 ⑫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⑬ 기타 _____

5. 귀 기관의 공간 사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②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타 기관명: _____)
 ③ 타 기관과 공간 공유(타 기관명: _____)

6. 귀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기관은 안전한 곳(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지원 항목	제공여부	
	예	아니오
1) 심리·상담 지원	①	②
2)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①	②
3)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①	②
4)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①	②
5) 수당(교통비) 등 배움을 위한 지원	①	②
6)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①	②
7) 급식 지원	①	②
8)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①	②
9)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10)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①	②
11)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①	②
12) 대입 정도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①	②
13)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①	②
14)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①	②
15)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 / 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①	②
16)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①	②
17) 기타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이 자녀에 대해 (충분히) 지지적이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기관 관련				
7) 예산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0)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①	②	③	④
1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정보 찾기)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및 정부				
14)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5) 지역 내 담당공무원이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16)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7)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8)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①	②	③	④
1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1. '필요하다(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 읍·면 / 소도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차별화된 또는 초점을 두어야 할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 _____)

11. 읍·면 / 소도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도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점(장점 /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사유 : _____)
② 별 차이 없다.
③ 아니다 (사유 : _____)

12. 청소년들이 귀하의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꿈드림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어서
②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타지역의 꿈드림센터로 옮겨가서
③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④ 심리적 / 정신적 문제로 (예 : 우울증 등)
⑤ 센터 내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⑥ 센터 실무자(종사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⑦ 센터 실무자의 연락 부재(이직 등)로 인하여
⑧ 다른 서비스 / 프로그램 연계로 인하여
⑨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센터가 제공하지 않아서
⑩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3. 꿈드림 시·군·구 센터들을 위해 시·도 센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구 센터 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② 시·군·구 센터의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③ 시·군·구 연합사업 및 지원
④ 센터 간 청소년과 실무자 교류 지원
⑤ 모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대
⑥ 효율적인 업무 수행 노력(행정 허브 역할, 전달 체계 공문으로 일원화 등)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14.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다음 중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아웃리치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려워짐

- ②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이용 및 오프라인 활동, 모임을 꺼려함
- ③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움
- ④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수행이 어려워짐
- ⑤ 추가로 필요한 자원들이 많아짐(예: 방역물품 지급, 심리적 지원, 재정 지원 등)
- ⑥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을 위한 기자재(pc, 태블릿 등 IT관련 인프라) 부족
- ⑦ 비대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데이터 부족(통신비 부담)
-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15. 이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_____)

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서비스 / 프로그램 중 생각나는 내용을 아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① 중앙부처 차원 : _____
- ② 읍·면지역 지자체, 지역사회차원 : _____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총 5개년도 연구로 계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진로탐색 및 자립의 과정, 지역사회의 지원 경험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규모별로 지역사회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올해 연구에서는 읍·면지역 / 소도시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선행 질적 종단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지역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호주, 일본, 미국의 농어촌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분석을 포함하였다. 둘째, 20대 중반의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18명을 대상(읍·면 / 중소도시 거주자)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대도시 거주 19명은 패널관리조사 수행). 또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 자료 분석 전문가들을 통해 2018년부터 축적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중 6명의

생활시간조사도 분석하였다. 넷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분석을 위해,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에 대한 행정 /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외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전국 읍·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실무자 설문조사(총 85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3개의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지 및 설문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연구 방향성 및 자료 분석에 대한 자문회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과정을 거쳤다.

상술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① 온 / 오프 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②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꿈드림 접근성 개선은 학교에서부터, ③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족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학업, 취업,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⑤ 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⑥ 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⑦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 부모, 학교, 사회적 인식 제고의 7가지 정책 방향성이 제안되었다. 각 정책 방향성은 세부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안을 포함하였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IV: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This study marks the fourth year of the research project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which has been planned for a total of 5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local community support plans to help out-of-school youth stay healthy and enter adulthood successfully by analyzing in-depth qualitative data on their experiences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processes of career exploration and self-reliance development, and community support experiences. In particular, this year's study focused on *eup*, *myeon*, and small-town areas to analyze out-of-school youth community support plans according to regional siz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clarified that local community support plans can be effectivel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regional sizes.

This study utilized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to satisfy the research objectives.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theoretically overview the number of out-of-school adolescents studies, previous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ies, and regional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in out-of-school youth support. The study included a case analysis on the support provided to out-of-school youth in the rural areas of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18 out-of-school individuals in their mid 20s (who were the residents of *eups*, *myeons*, and small towns) from the previous panel (a panel management survey was conducted on 19 people living in large cities). In addition, as part of a cooperative study, the longitudinal interview data of out-of-school youth from previous panels, which had been accumulated since 2018 were analyzed by researchers. Thir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37 out-of-school youth in their mid to late teens, and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Six of the youth were subjected to a survey on a time allocation, as well. Fourth, to examine the local community support system in the *eup*, *myeon*, or small town areas, the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of five *eup*, *myeon*, or small town areas were analyzed. Further,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field worker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practitioners working in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eup*, *myeon*, or small town areas nationwide (a total of 63 practition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inally, workshops with various experts were conducted to obtain advice to review the validity of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nd hold advisory meetings on research directions and analyses and workshop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obtained by using this methodology, seven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1) the diversification of support methods and expansion of accessibility connecting online and offline; 2) the provision of support from the school level to discover out-of-school youth and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3) the reinforcement of a family support system, which cannot be overlooked; 4)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without social exclusion, including educational, employment, psychological counselling, and economic support; 5) the preparation of a plan to strengthen the support services targeting youth in *eup*, *myeon*, and underprivileged areas; 6) the preparation of improvement plans to enhance the role and statu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nd 7) the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about out-of-school youth for youngsters, parents, and schools. Each policy direction comprised detailed policy tasks and included amendments to laws that required improvement.

Keywords: Out-of-school youth,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out-of-school youth community support plan, out-of-school youth support in townships, isolated regions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근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교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 -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집 필 진 ◆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교수)

김 지 혜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박사)

◆ 자 문 진 ◆

고 진 하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권 지 성 (한국침례신학교·교수)

김 도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복지지원본부장)

김 동 준 (충청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 미 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사연수부장)

김 선 미 (충청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노 현 희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라 형 규 (강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박 수 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사무관)

서 현 지 (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유 성 렬 (백석대학교·교수)

윤 정 미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전 경 숙 (평택대학교·교수)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교수)

조 해 영 (공주교육대학교·교수)

진 종 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최 민 호 (신안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원)

최 승 현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연구보고 21-R15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36-7 94330

979-11-5654-334-3 (세트)